수호전

水滸傳 · 시내암 120회본(충의수호전)

제4권 (제37회 ~ 제48회)

시내암 (施耐庵, 약 1296–1372) 원작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2026-06-03

책 정보

원전

시내암 『수호전(水滸傳)』 120회본(충의수호전, 袁無涯 간행본 계열), 引首 + 120회

원전 출처

zh.wikisource.org/wiki/水滸傳_(120回本)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 MTP drafter (GB10 로컬)

번역 방식

2-pass: 회별 인물·사건 사실 시트 추출 → 본문 번역 (누적 사전으로 표기 일관성 강제)

발행

sosig.shop/book · 2026-06-03

번역 정책

- 인명·지명은 한국 한자음(宋江 → 송강, 林沖 → 임충)

- 별호는 본명으로 통일(及時雨 → 송강, 黑旋風 → 이규, 花和尚 → 노지심)
- 옛 번역투(~하더라/이라) 금지, 초등 고학년 가독성 목표
- "話說/卻說" → "이야기는 이러하다/한편", 詩曰/詞曰 → 시·사 형식 유지

>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술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읽을거리 한 권 더"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연구는 원전 또는 정식 번역본을 권합니다.

목차

제37회 — 몰차란이 급시우를 뒤쫓고, 선화아가 순양강을 발칵 뒤집다 6

제38회 — 급시우 송강이 신행태보 이규를 만나고, 흑선풍 이규가 랑리백조 장청과 싸우다 35

제39회 — 순양루에서 송강이 반역의 시를 읊고, 양산박에서 대종이 가짜 편지를 전하다 63

제40회 — 양산박 호한들이 법장을 습격하고, 백룡묘 영웅들이 소규모로 의를 모으다 103

제41회 — 송강이 지혜로 무위군을 취하고, 장순이 황문병을 생포하다 126

제42회 — 환도촌에서 세 권의 천서를 받고, 송공명이 구천현녀를 만나다 154

제43회 — 가짜 이규가 지름길로 홀로 가는 이를 겁탈하고, 흑선풍 이규가 이령에서 네 마리 호랑이를 죽이다 185

제44회 — 금표자 소경에서 대종을 만나고, 병관삭 장가에서 석수를 만나다 220

제45회 — 양웅이 술에 취해 판교운을 꾸짖고, 석수가 지혜롭게 배여해를 죽이다 248

제46회 — 병관색이 취병산을 발칵 뒤집고, 목숨 걸고 축가점을 불태우다 286

제47회 — 박천조 두 사람이 생사의 결투를 벌이고, 송공명이 축가장을 한 차례 치다 310
제48회 — 일장청이 단번에 왕애호를 사로잡고, 송공명이 두 번 축가장을 치다 345

제37회 — 몰차란이 급시우를 뒤쫓고, 선화아가 순양강을 발칵 뒤집다

沒遮攔追趕及時雨 船火兒大鬧潯陽江

이야기는 이러하다. 송강이 은자 다섯 냥을 그 교두에게 건네주자, 게양진의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타난 한 거구의 사내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이놈이 어디서 저런 조잡한 창봉술을 배워와서 우리 게양진에서 잘난 척을 한단 말이냐! 내가 이미 사람들에게 저놈을 상대하지 말라고 일러두었거늘, 네놈은 어찌하여 돈을 뿌려가며 저놈에게 상을 주어 우리 게양진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것이냐!"

송강이 대답했다.

"내 돈으로 상을 주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자 그 사내가 송강의 멱살을 움켜쥐며 호통을 쳤다.

"이 죄수병 놈이 감히 어디서 말대꾸를 하느냐!"

송강이 말했다.

"내가 대답을 못 할 이유라도 있단 말이냐?"

사내가 두 주먹을 치켜들고 송강의 얼굴을 향해 내리쳤으나, 송강은 몸을 피했다. 사내가 다시 한 걸음 다가오자 송강도 맞서 싸우려던 찰나, 창봉을 쓰던 교두가 사람들 뒤에서 급히 달려들었다. 그는 한 손으로는 사내의 머리건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의 허리를 잡아 갈비뼈를 후려 걸어 넘기니, 사내는 비틀거리며 그대로 땅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사내가 다시 일어나려 몸부림쳤지만, 교두가 다시 한번 발로 차 쓰러뜨렸다.

두 공인이 교두를 말리자, 바닥에서 기어 일어난 사내는 송강과 교두를 노려보며 말했다.

"잘됐든 못됐든 어디 두고 보자. 너희 두 놈, 꼼짝 말고 기다려라!"

그러고는 곧장 남쪽을 향해 가버렸다.

송강이 이어서 물었다.

"교두의 성은 무엇이며, 고향은 어디인가?"

설영이 대답했다.

"저희 조상은 하남 낙양 사람으로, 성은 설이고 이름은 영이라 합니다. 조부님께서는 노종(老种) 경략상공의 휘하 군관이셨으나, 동료들

과 사이가 틀어져 승진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후손들은 창봉을 휘두르며 약을 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요. 강호 사람들은 저를 '병대충(病大蟲)' 설영이라 부릅니다. 감히 은인께 존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송강이 말했다.

"내 성은 송이고 이름은 강이라 하네. 고향은 운성현이라네."

설영이 놀라며 말했다.

"설마 산동의 '급시우' 송공명 어른이십니까?"

송강이 대답했다.

"그렇다네."

설영은 그 말을 듣자마자 정중히 절을 올렸다. 송강이 서둘러 그를 붙들어 일으키며 말했다.

"술을 세 잔 정도 같이 나누는 게 어떻겠나?"

설영이 기뻐하며 말했다.

"좋습니다! 마침 어른의 존안을 뵙고 싶었는데, 제가 미처 형님을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설영은 서둘러 창봉과 약주머니를 챙겨 송강과 함께 근처 주막으로 향했다. 그런데 주막 주인이 말하기를,

"술과 고기는 다 있습니다만, 두 분께는 팔 수가 없습니다."

송강이 이유를 물었다.

"어찌하여 저희에게 팔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주인이 대답했다.

"방금 두 분과 싸우던 그 사내가 사람을 시켜 일러두었거든요. 만약 두 분께 술과 음식을 팔았다가는 이 가게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입니다. 제가 어찌 감히 그를 거역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 게양진의 일패(一霸)라, 누가 감히 그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송강이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그만두세. 저자가 분명히 또 찾아와 소란을 피울 것이네."

설영이 말했다.

"저는 가게에 가서 방값을 치르고 올 테니, 하루 이틀 안에 강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형님께서 먼저 가 계십시오."

송강은 은자 십여 냥을 설영에게 더 건네주고는 작별 인사를 나눈 뒤 길을 떠났다.

송강은 두 사람과 함께 주막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다른 곳을 찾아가 술을 마시려 했으나,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

"그 사내가 이미 사람들을 시켜 일러두었는데, 저희가 어찌 감히 두 분께 술과 음식을 팔 수 있겠습니까? 괜히 힘만 빼지 마시고 그냥 가시는 게 상책입니다."

송강과 두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연이어 몇 군데를 더 찾아보았으나 모두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세 사람이 저잣거리 끝자락에 이르러 불이 켜진 작은 여관 몇 곳을 발견하고는 하룻밤 묵으려 했으나, 그곳들 역시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다. 송강이 이유를 묻자 모두 이렇게 대답했다.

"그 사내가 사람들을 계속 보내 일러두었습니다. 당신들 세 사람을 절대로 재워주지 말라고 말입니다."

송강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세 사람은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 큰길을 따라 걸었다. 어느덧 붉은 해는 낮게 내려앉았고 하늘은 어둑어둑해졌다.

저물녘 안개는 먼 산봉우리를 가리고, 차가운 안개는 넓은 하늘을 가두네.
뭇 별들은 밝은 달을 에워싸며 빛을 다투고, 푸른 물은 청산과 함께 빛깔을 겨루네.
성긴 숲 사이 고찰에서는, 몇 차례 종소리가 아스라이 울려 퍼지고;
작은 포구의 고깃배에는, 몇 점의 등불이 깜빡이며 명멸하네.
나뭇가지 위엔 소쩍새가 밤달을 향해 울고, 정원 안엔 호랑나비가 꽃더미에 잠드네.

송강과 두 사람은 날이 저물어가는 것을 보자 마음이 점점 초조해졌다. 세 사람은 서로 상의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창봉을 휘두르며 우리를 미워하다니, 참으로 고약한 놈이로군! 이제 앞뒤로 머물 곳 하나 없으니, 대체 어디로 가서 하룻밤을 묵어야 한단 말인가?"

그때 멀리 숲속 깊은 곳에서 작은 길을 따라 등불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이 보였다. 송강이 그것을 보고 말했다.

"저 등불이 켜진 곳에는 분명 민가가 있을 것이네.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하룻밤만 묵어 가겠다고 청해 보세. 그러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면 되지 않겠나."

두 사람이 말하였다.

"저 등불이 있는 곳은 큰길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송강이 대답했다.

"어쩔 수 없네. 비록 큰길은 아니더라도, 내일 서너 리만 더 걸으면 그만이니 그리 큰 문제는 아니지 않겠나."

세 사람이 길을 벗어나 걷기 시작한 지 채 이 리도 되지 않아, 숲 뒤편에서 커다란 장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송강과 두 사람은 장원 앞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다. 문지기가 그 소리를 듣고 나와 문을 열며 말했다.

"당신들은 누구시오? 해 저문 밤중에 어찌 남의 집 문을 두드린단 말이오!"

송강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소인은 죄를 지어 강주로 유배 가는 길입니다. 오늘 머물 곳을 찾지 못해 갈 곳이 없으니, 부디 이곳에서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일 아침 일찍 관례에 따라 숙박비를 정식으로 바치겠습니다."

문지기가 말했다.

"사정이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기다리시오. 내가 들어가서 장주 어르신께 여쭈어보고 하룻밤 묵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리다."

문지기는 안으로 들어가 보고를 마친 뒤, 다시 밖으로 나와 말했다.

"어르신께서 머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송강과 두 사람은 안쪽 초당으로 들어가 장주 어르신을 뵈었다. 어르신은 문지기에게 그들을 문간방으로 안내하여 쉬게 하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라고 분부했다. 문지기는 그 말을 듣고 세 사람을 문 앞 초가집으로 안내했다. 그는 등불 하나를 켜서 세 사람이 편히 쉴 수 있게 한 뒤, 밥 세 그릇과 국, 채소 등을 가져다주어 식사를 하게 했다. 식사를 마친 뒤 문지기는 그릇을 거두어 안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이 말했다.

"압사님, 여기는 외부인도 없으니 어서 형틀을 풀고 편히 한숨 자고 내일 일찍 떠납시다."

송강이 대답했다.

"그 말이 맞네."

그들은 즉시 형틀을 풀고, 두 사람과 함께 방 밖에서 손을 씻었다. 밤하늘에는 별빛이 가득했고, 타작마당 옆 건물 뒤편으로 외진 마을 길 하나가 나 있는 것이 송강의 눈에 들어왔다. 세 사람은 손을 씻고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잠을 청했다. 송강이 두 사람에게 말했다.

"이 장주 어르신께서 우리를 하룻밤 머물게 해주시다니 참으로 고맙구려."

한창 이야기를 나누는데, 장원 안에서 누군가 횃불을 들고 나와 타작마당 곳곳을 비추는 소리가 들렸다. 송강이 문틈으로 살펴보니, 어르신이 문지기 세 명을 데리고 횃불을 들고 다니며 곳곳을 살피고 있었다. 송강이 두 사람에게 말했다.

"저 어르신은 꼭 우리 아버지 같구려. 모든 일을 직접 챙기려 하시니 말이오. 이 밤중에 잠도 자지 않고 직접 불을 밝혀 살피고 계시지 않소."

한창 이야기를 나누는데, 밖에서 누군가 장원 문을 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문지기가 서둘러 나가 문을 열자 대여섯 명의 사람이

들어왔는데, 앞장선 자는 손에 박도를 들고 있었고 뒤따르는 이들은 모두 쇠스랑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횃불 빛 아래에서 송강이 살펴보니, 박도를 든 저 자가 바로 게양진에서 우리를 때리려 했던 그놈이었다.

이어 장주 어르신이 묻는 소리가 들렸다.

"얘야, 어디를 다녀오느냐? 누구와 싸운 게냐? 날도 저물었는데 창과 몽둥이를 끌고 다니다니."

그 사내가 대답했다.

"아버지는 모르십니다. 형님은 집에 계십니까?"

어르신이 말했다.

"네 형은 술에 취해 뒤편 정자에 가서 잠들었다."

사내가 말했다.

"제가 가서 형님을 깨워야겠습니다. 형님과 함께 그놈들을 쫓아야지요."

어르신이 다시 말했다.

"너는 또 누구와 시비가 붙은 게냐? 형을 깨우면 형이 가만히 있겠느냐? 우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에게 말해보거라."

사내가 말했다.

"아버지,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오늘 마을에 창봉을 휘두르며 약을 파는 놈이 하나 있었는데, 가증스럽게도 그놈이 우리 형제에게 먼저 인사도 없이 마을에 가서 약을 팔며 창봉술을 부리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마을 사람들에게 그놈에게는 단 한 푼의 상금도 주지 말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죄수 하나가 나타났는지, 그놈이 영웅이라도 된 양 은 다섯 냥을 상금으로 주며 우리 게양진의 위신을 깎아내렸습니다. 제가 그놈을 때려주려는데, 가증스럽게도 그 약장수가 제 머리를 잡아 뒤엎고 한바탕 두들겨 패더니 또 발로 한 번 걷어찼습니다. 지금도 허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사람들을 시켜 사방의 주막과 객점에 일러, 그놈들이 술을 마시거나 묵지 못하게 해 오늘 밤 세 놈이 몸 둘 곳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박장 패거리를 불러 객점으로 들이닥쳐 그 약장수를 붙잡아다 힘껏 두들겨 팬 뒤, 지금은 도두의 집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내일 강가로 끌고 가 한 덩어리로 꽁꽁 묶어 강물에 던져버려 이 분을 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두 공인이 압송하는 죄수만은 잡지 못했고, 앞쪽엔 객점도 없으니 대체 어디서 묵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님을 깨워 길을 나누어 쫓아가 그놈들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말했다.

"얘야, 그런 모진 짓 하지 마라. 그가 자기 돈으로 약장수에게 상을 준 것이지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왜 가서 때린단 말이냐? 그에게 맞긴 했어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 않느냐. 어서 내 말대로 그만두고, 네 형이 알게 하지 마라. 형이 네가 맞았다는 걸 알면 가만히 있겠느냐? 또 사람 목숨을 해치려 들 것이 아니냐! 내 말대로 일단 방에 가서

자거라. 한밤중에 남의 집 문을 두드려대며 마을 사람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너도 음덕을 좀 쌓아라."

사내는 어르신의 말을 듣지 않고 박도를 든 채 그대로 장원 안으로 들어갔고, 어르신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송강이 그 말을 듣고 압사들에게 말했다.

"이토록 공교로운 일이 또 어디 있겠소? 하필이면 저들의 집에 묵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저 얼른 떠나는 게 상책이오. 만약 저놈들이 알게 된다면 분명 우리 목숨을 노릴 것이오. 장주 어르신이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도, 문지기들이 어찌 감히 우리를 숨겨주겠소?"

두 압사도 맞장구를 쳤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어서 빨리 떠납시다."

송강이 말했다.

"큰길로 나가지 말고, 집 뒤의 벽을 헐고 나갑시다."

두 압사가 짐을 짊어지고 송강이 형틀을 든 채, 방에서 집 뒤쪽 벽을 헐고 나갔다. 세 사람은 별빛과 달빛 아래를 틈타 숲속 깊은 곳으로 이어진 작은 길을 향해 정신없이 달렸다. 그야말로 다급한 나머지 길을 가릴 것 없이 한 경(更)쯤 달린 끝에, 눈앞에 갈대꽃이 가득 피어 있고 거센 물결이 넘실거리는 큰 강이 나타나니, 바로 심양강(潯陽江) 가에 다다른 것이었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하늘과 땅의 그물에 갇혀 들어오니, 송강의 형편이 곤궁하여 참으로 가련하구나.
흉악한 귀신을 겨우 벗어났더니, 또다시 재앙을 부르는 백호의 화를 만났네.

뒤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횃불이 어지럽게 일렁이고 바람을 가르는 휘파람 소리를 내며 추격대가 쫓아왔다. 송강은 속으로 괴로워하며 외쳤다.

"하늘이시여,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세 사람이 갈대숲 사이에 숨어 뒤를 살펴보니, 횃불 빛이 점점 가까워져 왔다. 세 사람은 마음이 점점 더 조급해져 갈대 사이를 발이 엇갈리도록 허둥지둥 헤치며 나아갔다. 앞을 보니 하늘 끝에 채 닿기도 전에 어느새 땅끝에 이르러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살펴보니, 거대한 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또 하나의 넓은 물길이 흐르고 있었다. 송강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했다.

"이 고생을 할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양산박에 머무는 게 나았을 것을! 설마 여기서 이 지경으로 끝장날 줄이야!"

송강이 위급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 갈대숲 사이에서 갑자기 배 한 척이 조용히 저어 나왔다. 송강은 그것을 보고 외쳤다. “사공! 제발 우리 세 사람을 좀 구해 주시오. 은자 몇 냥을 드리겠소!” 배 위의 사공이

물었다. “당신들 세 사람은 누구기에 이런 곳까지 도망쳐 온 것이오?” 송강이 말했다. “뒤에서 강도들이 우리를 덮쳐 정신없이 여기까지 밀려왔소. 어서 배를 대어 우리를 건네주시오. 은자를 더 얹어 주겠소!” 사공은 은자를 더 준다는 말에 얼른 배를 가까이 대었다. 세 사람은 서둘러 배 위로 뛰어올랐다. 공인(公人) 한 명은 짐 보따리를 선실 안으로 던져 넣었고, 다른 공인은 수화곤(水火棍)으로 배를 밀어 띄웠다. 사공은 노를 잡고서, 보따리가 선실로 떨어지며 나는 묵직한 소리를 듣고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사공이 노를 한 번 젓자 작은 배는 금세 강 한가운데로 미끄러져 나갔다. 그사이 추격대가 여울 모래톱까지 들이닥쳤다. 십여 개의 횃불이 일렁이는 가운데, 앞장선 건장한 사내 둘이 각각 박도(朴刀)를 비껴 들었고, 그 뒤로 이십여 명의 무리가 창과 몽둥이를 든 채 소리쳤다. “이봐, 사공! 어서 배를 대라!” 송강과 두 공인은 선실 안에 한데 엎드린 채 말했다. “사공, 배를 대지 마시오. 우리가 따로 은자를 더 얹어 사례하겠소.” 사공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강가의 외침에는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배를 상류 쪽으로 삐걱삐걱 저어 올라갔다. 강가의 무리가 크게 호통을 쳤다. “이 사공아! 배를 대지 않으면 모두 죽여 버리겠다!” 사공은 몇 번 코웃음을 칠 뿐 대답하지 않았다. 강가의 사람들이 다시 소리쳤다. “네놈은 대체 어느 사공이냐? 어찌 그리 간이 커서 배를 대지 않느냐!” 사공이 비웃으며 대꾸했다. “이 어르신은 장(張) 사공이라 한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횃불 무리 가운데 있던 키 큰 사내가 말했다. “아, 알고 보니 장 형님이셨구려! 우리 형제 두 사람을 못 보셨소?” 사공이 답했다. “내가 눈먼 것도 아닌데, 어찌 당신들을 못 보겠소?” 키 큰 사내가 말했다. “나를 보았다면 배를 좀 대고 이야기를 나눕시다.” 사공이 말했다. “할 말이 있으면 내일 하시오. 손님을 태운 배는 갈 길이 바쁘오.” 키 큰 사내가 말했다. “우리 형제

두 사람이 지금 저 배에 탄 세 놈을 잡으려던 참이오.” 사공이 말했다. “배에 탄 세 사람은 다 내 친척이자 나를 먹여 살리는 귀한 손님이니, 내가 데려가 판도면(板刀麵) 한 그릇 대접하게 해 주시오.” 키 큰 사내가 말했다. “일단 배를 대시오. 함께 상의합시다.” 사공이 또 말했다. “내 밥줄을 도로 대 주겠다면 모를까, 어찌 배를 대 당신들에게 넘기겠소!” 키 큰 사내가 말했다. “장 형님, 그런 말씀 마시오. 우리 형제는 그저 저 죄수 놈을 잡으려는 것이니 어서 배를 대시오.” 사공은 노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며칠 만에 겨우 이 손님을 잡았는데, 배를 댔다가는 당신들에게 빼앗기게 생겼지 않소! 그러니 두 분도 나를 원망마시고, 다음에 또 봅시다.” 송강은 사공의 말 속에 숨은 속뜻(板刀麵=칼로 베어 죽인다는 은어)을 알지 못한 채, 선실 안에서 두 공인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이 사공 덕분에 우리 세 사람의 목숨을 구했구려. 게다가 우리를 위해 말까지 해 주었으니 그 은덕을 잊지 맙시다. 정말 다행히도 이 배를 만나 강을 건너게 되었구려.”

한편, 사공이 노를 저어 강가에서 멀어지자, 선실 안에 있던 세 사람이 강가를 바라보니 갈대숲 사이로 횃불 빛이 여전히 번뜩이고 있었다. 송강이 말했다.

"부끄럽구려! 참으로 '좋은 사람은 만나고, 나쁜 사람은 멀리한다'는 말이 딱 맞소. 덕분에 이 재난을 겨우 면했구려."

사공은 노를 저으며 입으로 호주(湖州)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노래 가사는 이러했다.

이 어르신은 강가에서 나고 자라, 관청도 하늘도 두렵지 않네.
어젯밤 화광(火神, 華光)이 내 배에 올랐는데, 떠날 무렵 그에게서 금괴 한 덩이를 빼앗았다네.

송강과 두 공인은 그 노래를 듣고 모두 사지가 노곤하게 풀렸다. 송강은 또 속으로 '저 사공이 장난삼아 부르는 모양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세 사람이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사공이 갑자기 노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빌어먹을 놈들! 너희 공인 두 놈은 평소에 사사로이 장사하는 자들을 속여 등쳐 먹기로 으뜸이더니, 오늘은 이 어르신 손에 제대로 걸렸구나! 너희 세 놈은 '판도면(板刀麵)'을 먹겠느냐, 아니면 '훈둔(餛飩, 만둣국)'을 먹겠느냐?" 송강이 물었다. "어르신, 농담 마십시오! 판도면이라니요? 훈둔은 또 무엇입니까?" 사공이 눈을 부라리며 말했다. "이 어르신이 너희와 장난하는 줄 아느냐! 만약 '판도면'을 먹겠다면, 내 뱃바닥 널(艎板) 밑에 바람을 가르듯 잘 드는 칼 한 자루가 있다. 세 번 다섯 번 휘두를 것도 없이 딱 한 칼에 한 놈씩 베어 너희 세 놈을 모두 물속에 처넣어 주마. 만약 '훈둔'을 먹겠다면, 너희 세 놈은 어서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강물에 뛰어들어 스스로 죽어라!" 송강은 그 말을 듣고 두 공인을 끌어당기며 말했다. "아이고, 큰일 났구려! 참으로 '복은 겹쳐 오지 않고, 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더니 딱 그 꼴이오." 사공이 호통을 쳤다. "너희 세 놈은 잘들 의논해서 어서 대답이나 해라!" 송강이 대답했다. "사공, 모르시겠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 강주로 유배 가는 길입니다. 부디 저희 세 사람을 가엾게 여겨 살려주십시오!" 사공이 다시 소리쳤다. "무슨 헛소리냐! 너희 셋을 살려주다니, 반 놈도 살려주지 않겠다. 이 어르신은 이름난 '개얼굴 장 어르신(狗臉張爺爺)'이라, 올 때도 아비를 몰라보고 갈 때도 어미를

몰라보는 무정한 놈이다. 너희는 모두 주둥이 닥치고 어서 물속으로 뛰어들어라!" 송강이 다시 간청했다. "저희 보따리에 든 금은과 재물, 옷가지 등을 모두 드릴 테니, 제발 저희 세 사람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사공이 뱃바닥 널 밑으로 손을 뻗어 번쩍번쩍 빛나는 판도를 꺼내 들고 크게 외쳤다. "너희 세 놈, 어쩔 셈이냐?" 송강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천지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께 효도하지 못한 죄를 지어, 이 두 사람까지 연루시키고 말았구나." 두 공인도 송강을 붙들며 말했다. "압사님, 그만하십시오! 우리 세 사람 다 같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공이 다시 호통을 쳤다. "너희 세 놈은 어서 옷을 벗고 강물로 뛰어들어라! 뛰어들면 좋고, 뛰어들지 않으면 이 어르신이 직접 베어 물속에 처넣어 주마!"

송강과 두 공인은 서로 한 덩어리로 껴안고 막 물속으로 뛰어들려던 참이었다. 그때 강 위에서 삐걱삐걱 노 젓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송강이 고개를 내밀어 보니 쾌속선 한 척이 날아오듯 상류에서 저어 내려오고 있었다. 배 위에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한 거한이 손에 작살(托叉)을 비껴 쥐고 뱃머리에 서 있었다. 고물의 두 젊은이는 빠른 노 두 자루를 저으며 별빛 아래 어느새 코앞까지 다가왔다. 뱃머리에 작살을 비껴든 거한이 호통을 쳤다. "앞에 있는 사공은 누구기에 감히 이 길목에서 수작을 부리느냐? 배에 실린 물건은 보는 사람도 한몫 나누는 법이다!" 이 배의 사공이 뒤를 돌아보더니 황급히 대답했다. "아니, 알고 보니 이(李) 형님이셨군요! 누구신가 했습니다. 형님께서 또 장사를 나오셨으면서, 다만 이 아우는 데려가지 않으셨군요." 거한이 말했다. "장씨 아우, 여기서 또 이런 수작을 부리는구나! 배에 무슨 물건이 실렸느냐? 좀 짭짤한 것이라도 있느냐?" 사공이 대답했다. "들으시면 우스우실

겁니다. 제가 요 며칠 벌이도 없고 노름에서도 다 잃어 한 푼도 없이 모래톱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가에서 한 무리가 물건 세 점(三頭行貨)을 몰아 제 배로 보냈지 뭡니까. 알고 보니 빌어먹을 공인 두 놈이 거무튀튀하고 키 작은 죄수 하나를 압송하는 것이었는데, 어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주로 유배 가는 길이라면서도 목에는 칼(行枷)도 차지 않았더군요. 뒤쫓아온 강가 사람들은 마을의 목가(穆家) 형제 둘이었는데, 기어코 그놈을 내놓으라 했습니다. 저는 챙길 게 좀 있겠다 싶어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배 위의 거한이 말했다. "앗! 혹시 내 형님 송공명(宋公明)이 아니냐?" 송강은 그 목소리가 귀에 익은지라 선실 안에서 외쳤다. "배 위에 계신 호걸은 뉘십니까? 부디 이 송강을 좀 구해 주십시오!" 거한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정말 우리 형님이시구나! 하마터면 큰일을 저지를 뻔했다!" 송강이 배 밖으로 기어 나와 보니 별빛이 환히 비치고 있었다. 뱃머리에 서 있는 거한은 다름 아닌 바로,

흔양강 포구에 살며, 호걸과 영웅이라 불릴 만한 이가 있으니. 눈은 크고 눈썹은 짙으며 얼굴은 붉고, 수염은 철사처럼 길게 늘어졌으며, 말소리는 구리 종소리처럼 웅장하도다. 늠름한 몸집은 여덟 자에 달하고, 서리 내린 칼날 같은 검을 휘두르며, 거친 파도를 헤치고 일어나 큰 공을 세우니, 여주 출신의 이준이니, 별호는 '혼강룡'이라.

뱃머리에 서 있는 거한은 바로 '혼강룡' 이준이었다. 그 뒤편 사공석에서 노를 젓고 있는 두 젊은이는 각각 '출동교' 동위와 '번강신' 동맹이었다.

이준은 상대가 송공명임을 듣자마자 배를 건너와 안타까이 부르짖었다. “형님, 많이 놀라셨지요!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왔더라면 형님의 목숨을 그르칠 뻔했습니다. 오늘 하늘이 시키신 듯, 이 이준이 집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배를 몰고 강으로 나와 소금 밀매라도 하려던 참인데, 뜻밖에 형님께서 여기서 이런 고난을 겪고 계실 줄이야!” 그 사공은 한참을 멍하니 아무 말도 못 하다가, 겨우 입을 열어 물었다. “이 형님, 저 검은 사내가 바로 산동의 ‘급시우’ 송공명 형님입니까?” 이준이 대답했다. “그럼, 그렇고말고!” 그러자 사공이 절을 하며 말했다. “나으리, 어찌 진작 그 크신 이름을 일러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다면 제가 못된 짓을 저질러 하마터면 형님을 상하게 할 뻔한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송강이 이준에게 물었다. “이 호걸은 뉘신가? 성은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인가?” 이준이 대답했다. “형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이 호걸은 제가 의형제를 맺은 아우입니다. 본디 소고산(小孤山) 아래 사람으로, 성은 장(張), 이름은 횡(橫)이며, 별호는 선화아(船火兒)라 합니다. 바로 이 흔양강에서 이런 ‘안전하고 짭짤한 벌이(實은 강도질)’를 해 오던 자이지요.” 송강과 두 공인도 그 말을 듣고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두 척의 배가 나란히 여울가로 달려와 닻을 내렸다. 배 안에서 송강과 두 관리도 부축을 받으며 강가로 올라왔다. 이준이 장횡에게 말했다. “아우야, 내가 평소에 늘 말하지 않았느냐. 천하의 의사는 오직 산동의 ‘급시우’ 운성 송 압사뿐이라고 말이다. 오늘 똑똑히 잘 보아두거라.”

장횡은 부싯돌을 쳐서 등불을 밝히더니, 송강을 비추어 보고는 털썩 엎드려 모래사장에서 절을 하며 말했다. “형님, 부디 이 아우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송강이 장횡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다.

칠 척 높이의 몸집에 눈매는 날카로운 삼각눈이요, 누런 수염에 붉은 머리카락, 눈동자 또한 붉으니, 흔양강에서 그 명성이 자자하구나. 물결을 헤치며 나아감은 괴물과 같고, 파도를 뛰어넘음은 날아다니는 고래와 같도다.

거친 물결과 광풍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교룡조차 그를 보면 혼비백산하리라. 하늘이 별의 정기(列宿)를 내려보내 생령을 해치게 하였으니, 소고산 아래 살며 '선화아(船火兒)'라 불리는 장횡이로다.

장횡은 절을 마치고 물었다. "의사 형님, 어찌하여 이곳으로 유배를 오게 되셨습니까?"

이준이 송강이 죄를 지어 지금 강주로 유배 가는 길임을 말해주었다. 그 말을 들은 장횡이 말했다. "형님께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 어머니에게서 난 친형제 둘인데, 그중 형이 바로 저이고, 제게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이 또 아주 대단합니다. 온몸이 눈처럼 하얀 살집인데, 사오십 리나 되는 물속을 헤엄쳐 건널 수 있고 물 밑에서 칠 일 밤낮을 잠겨 있을 수 있으며, 물속을 헤엄치는 모습은 마치 하얀 물고기 한 마리가 지나가는 듯하고 무예 또한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낭리백조'라는 별호를 붙여 장순이라 부릅니

다. 예전에는 저희 형제가 양자강가에서 본업이랍시고 이런 일을 해 먹었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어떻게 하는 일인지 듣고 싶구려."

장횡이 말을 이었다. "저희 형제가 도박에서 돈을 잃었을 때, 제가 먼저 배 한 척을 몰고 강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몰래 손님을 태워다 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돈 몇 푼 아끼려 하고 또 빨리 가고 싶어 하는 손님들이 제 배에 올라타지요. 배에 손님이 가득 차면, 제 동생 장순이도 혼자 온 손님처럼 커다란 보따리를 짊어지고 슬쩍 배에 올라탑니다. 제가 배를 강 한가운데로 몰고 가서 노를 멈추고 닻도 내린 뒤, 칼 한 자루를 꽂아두고는 배삯을 요구합니다. 원래 한 사람당 500문이 적당하지만, 저는 기어코 3관을 받아내고야 맙니다. 먼저 동생에게 돈을 요구하면, 동생이 일부러 돈을 안 내겠다는 듯이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동생을 덮쳐서 한 손으로는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허리를 낚아채 강물 속으로 풍덩 빠뜨려 버립니다. 그러고는 반드시 3관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손님들이 겁에 질려 정신없이 돈을 내놓고 도망치듯 내립니다. 돈을 다 걷고 나면 한적한 곳에 배를 대어 손님들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제 동생은 물속으로 반대편 기슭까지 헤엄쳐 가서,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에 저와 만나 돈을 나누어 도박하러 갑니다. 그때 저희 형제는 오로지 이 일로 먹고살았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강가에 당신네 몰래 배를 태워달라고 찾는 손님이 많았겠구려!"

이준 일행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장횡이 다시 말했다. "이제 저희 형제는 업종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저 이 심양강에서 밀무역이나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 장순은 지금 강주에서 생선 중개상을 하며 자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형님께서 가실 때 제가 편지 한 통을 보내겠습니다. 다만 제가 글을 몰라 직접 쓸 수가 없습니다."

이준이 말했다. "우리가 마을에 가서 글 좀 아는 선생을 모셔와 써달라고 합시다."

동위와 동맹에게 배를 지키라고 일러둔 뒤, 세 사람은 이준을 따라 나섰다. 장횡은 등불을 들고 마을로 향했다.

반 리도 채 못 가서 보니, 횃불이 여전히 강가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다. 장횡이 말했다. "그 형제 두 놈이 아직 돌아가지 않았나 봅니다."

이준이 물었다. "그 형제라니,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장횡이 대답했다. "마을에 사는 목씨 형제 말입니다."

이준이 말했다. "그 두 놈을 당장 불러와서 형님을 뵙게 해라."

송강이 급히 말렸다. "안 되네, 그 두 놈은 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일세."

이준이 말했다. "형님, 걱정 마십시오. 그 형제는 형님이 누구인지 모를 겁니다. 그들도 우리와 한패입니다."

이준이 손을 휘저으며 휘파람을 크게 불자, 횃불을 든 사람들이 떼를 지어 달려왔다. 이준과 장횡이 송강을 정중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본 두 형제는 깜짝 놀라 물었다. "두 형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세 사람과 이토록 친하게 지내십니까?"

이준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이분이 누구신 줄 아느냐?"

두 사람이 대답했다. "모릅니다. 그저 마을에서 은자를 내놓으며 창봉을 쓰는 자들에게 상을 내려 우리 마을의 위세를 꺾어놓은 자라, 지금 잡으러 가는 중입니다."

이준이 말했다. "이분이 바로 내가 평소에 말하던 산동의 '급시우' 송강 형님이시다. 운성현의 송 압사(아전) 공명 형님이시니, 너희 둘은 어서 절을 올리지 않고 무엇 하느냐!"

그 말을 들은 두 형제는 들고 있던 박도를 내팽개치고 얼른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명성은 익히 들었으나, 뜻밖에 오늘에서야 뵙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는 저희가 형님께 큰 결례를 범하였으니,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송강이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장사들이여, 그대들의 성함이라도 알고 싶구려."

이준이 나서서 설명했다. "이 형제는 이 근방의 부유한 집안 사람인데, 성은 목이고 이름은 홍이며 별호는 '몰차란'이라 하고, 동생 목춘은 '소차란'이라 불리는 게양진의 한 패입니다. 형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이곳에는 세 패의 세력(三霸)이 있습니다. 게양 고개 위아래로는 저와

이립이 한 패를 이루고, 게양진 안에서는 저 형제 둘이 한 패이며, 심양강가에서 밀무역을 하는 장횡과 장순 형제가 또 한 패입니다. 그래서 이를 일컬어 삼패(三霸)라 합니다."

송강이 대답했다. "우리가 어찌 그런 사정을 알겠소? 어쨌든 우리 모두 형제 같은 사이이니, 부디 설영을 놓아주길 바라오."

목홍이 웃으며 말했다. "그 창봉을 휘두르던 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님, 걱정 마십시오. 곧바로 제 동생 목춘을 보내 그놈을 데려와 형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형님을 저희 장원으로 모셔 사죄를 올리게 하고 싶습니다."

이준이 말했다. "그거 참 좋구려! 그럼 그대의 장원으로 가겠소."

목홍은 장원 사람들에게 배를 살펴보고 오라고 시키는 한편, 동위와 동맹도 함께 장원으로 가도록 청했다. 그러고는 곧장 장원으로 사람을 보내 술과 고기를 준비하게 하고, 양과 돼지를 잡아 성대한 잔치를 마련하라고 일렀다.

일행은 동위와 동맹을 기다렸다가 다 함께 장원으로 향했다. 마침 때가 오경(새벽 3시~5시 사이) 무렵이라, 장원에 도착하자마자 목태공(목홍의 아버지)을 모셔 나와 인사를 나누고 초당에 주인과 손님으로 나누어 자리를 잡고 앉았다. 송강이 목홍을 살펴보니, 참으로 풍채가 당당하고 인물이 훤했다.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얼굴은 은쟁반 같고 몸은 옥 같으며, 머리는 둥글고 눈매는 가늘며 눈썹은 단정하고, 그 위풍이 늠름하여 사람을 오싹하게 한다.

시로 이르되, 영관(靈官)이 두부(斗府)를 떠나고, 우성(佑聖)이 천관(天關)에서 내려온 듯하구나.

무예가 뛰어나고 배짱이 두둑하여, 전쟁터에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법이 없으며 성을 공격하거나 들판에서 싸울 때 적의 깃발을 빼앗아 온다.

목홍은 참으로 용맹한 장사로, 사람들은 그를 '몰차란(沒遮攔)'이라 부른다.

송강은 목홍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날이 밝아오자, 목춘이 '병대충' 설영을 데리고 들어와 다 함께 모였다. 목홍은 잔치를 베풀어 송강 일행을 정성껏 대접하였고, 그들은 밤까지 장원에 머물며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 날 송강이 길을 떠나려 하자, 목홍은 차마 보내주지 못하고 사람들을 장원에 머물게 한 채 송강을 모시고 게양진의 저잣거리 풍경을 구경시켜 주었다. 그렇게 사흘을 더 머물렀으나, 송강은 유배 가는 기한을 어길까 걱정되어 완강히 길을 떠나겠다고 했다. 목홍과 일행이 간곡히 붙잡았지만 소용없었기에, 결국 그날 마지막 송별 잔치를 열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송강은 목홍과 여러 호걸에게 작별을 고하며 설영에게 당부했다. "목홍의 집에 잠시 머물다가 나중에 강주에 가면 다시 만나세." 그러자 목홍이 말했다. "형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곳에서 잘 보살피겠습니다." 목홍은 금은이 담긴 쟁반을 꺼내 송강에게 건네고, 아전 두 명에게도 은자를 쥐여 주었다.

길을 나서려 할 때, 장횡이 목홍의 장원에서 사람을 시켜 편지 한 통을 쓰게 하더니 송강에게 장순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송강은 그 편지를 짐 꾸러미 안에 넣어 두었다. 일행은 모두 심양강가까지 배웅을 나갔다. 목홍이 배를 한 척 불러다가 먼저 짐을 실었다. 사람들은 모두 강가에 모여 행가(行枷, 죄인이 쓰는 형구)를 정리하고 술과 음식을 배에 실어 송별 잔치를 벌였으니, 그 자리에서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작별했다.

이준, 장횡, 목홍, 목춘, 설영, 동위, 동맹 일행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으니, 이 일은 더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송강은 두 아전과 함께 배에서 내려 강주로 향했다. 이번 아전들은 지난번과는 달라서, 돛을 높이 올리고 서둘러 송강을 강주 상륙 지점까지 데려다주었다. 송강은 예전처럼 행가를 쓴 채로, 두 아전은 문서를 챙기고 짐을 짊어진 채 강주 관아 앞까지 도착했다. 마침 지부(知府, 고을의 수령)가 대청에 올라 정무를 보는 시간이었다.

알고 보니 강주의 지부는 성이 채 씨이고 이름은 두 글자로 득장(得章)이며, 조정의 태사인 채경의 아홉 번째 아들이었다. 그래서 강주 사람들은 그를 '채구 지부'라 불렀다. 그는 탐욕스럽고 방탕하게 관직을 수행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는 자였다. 강주는 세금이 많이 걷히고 물자가 풍부한 곳이었기에, 태사가 특별히 그를 이곳 지부로 보낸 것이었다.

그때 두 아전이 관아 마당에 공문을 내려놓고 송강을 데리고 지부에게 나아갔다. 채구 지부는 송강의 풍채가 예사롭지 않은 것을 보고 물었다. "네 행가에는 어찌하여 이 고을의 봉인(封皮)이 붙어 있지 않느냐?" 두 아전이 대답했다. "오는 길에 봄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젖어 망가졌습니다." 지부가 말했다. "어서 서류를 작성하여 성 밖의 뇌성영(牢城營, 죄수를 수용하는 수용소)으로 보내라. 내가 직접 아전들을 보내 압송하게 하겠다."

두 아전은 곧 송강을 뇌성영 안으로 데려가 인계했다. 이때 강주 관아의 아전들이 서류를 지참하고 따라왔다. 송강을 감시하던 아전과 관아 아전들은 관아를 나와 근처 주막에서 술을 사 먹기로 했다. 송강은 은자 석 냥을 꺼내 강주 관아 아전들에게 주며 관리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고, 아전은 송강을 독방에 가두고 대기하게 했다. 그 아전은 먼저 관리하는 곳에 가서 송강의 편의를 봐달라고 말한 뒤, 인계 절차를 마치고 관리비를 챙겨 강주 관아로 돌아갔다.

두 아전은 송강의 짐 꾸러미를 돌려준 뒤,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나누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서로 말했다. "비록 겁은 좀 났지만, 덕분에 은자를 꽤 챙겼으니 남는 장사구먼." 그들은 관아에 가서 회문(回文, 확인 공문)을 받은 뒤, 길을 떠나 제주로 향했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송강은 다시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인맥을 동원했다. 그는 차발(差撥, 하급 관리)을 독방으로 보내 은자 열 냥을 건네주었고, 관리하는 곳(管營處)에는 그 두 배인 은자 스무 냥과 함께 사례품을 보냈다. 또한 수용소의 관리인들과 부리는 군졸들에게도 은자

를 조금씩 나누어 주어 차라도 사 마시게 했다. 이 때문에 송강을 반기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잠시 후, 송강은 행가를 벗고 관영(管營) 앞에 나아가 인사를 드렸다. 관영은 뇌물을 받은 덕분에 대청에서 이렇게 말했다. "새로 압송된 죄인 송강은 들으라. 선대 태조 무덕 황제의 성지 사례에 따르면, 새로 유배 온 죄인은 반드시 먼저 살위봉(殺威棒, 기를 꺾기 위해 치는 매) 백 대를 맞아야 한다. 좌우의 군졸들은 이 자를 잡아다 등에 업어라."

송강이 말했다. "소인이 오는 길에 감기로 몸살을 심하게 앓아 지금까지도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관영이 말했다. "이놈이 정말 병이 있는 모양이구나. 얼굴이 누렇게 뜨고 수척한 것이 딱 병색이 있어 보인다. 일단 이 매는 미뤄두어라. 이자는 현리의 관리 출신이니, 본영의 초사방(抄事房, 행정 사무를 맡는 곳)에 초사(抄事, 서기)로 앉혀라."

그 자리에서 즉시 문서를 작성하여 초사로 임명하였다. 송강은 감사를 표한 뒤, 독방에 가서 짐을 챙겨와 초사방에 자리를 잡았다. 죄수들은 송강의 용모가 반듯한 것을 보고는 모두 술을 사 와서 그를 축하해 주었다. 이튿날, 송강은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사람들에게 답례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발이나 패두(牌頭, 하급 관리)를 통해 술잔을 권하게 되었고, 관리하는 곳에서도 자주 선물을 보내왔다. 송강은 곁에 금은보화가 넘쳐났기에, 자연스럽게 그들과 안면을 트고 지내게 되었다.

그렇게 보름 정도 지내자, 수용소 안에는 송강을 반기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옛말에 이르기를, "세상 이치는 냉정과 온정을 살피고, 사람의 얼굴은 높고 낮음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어느 날 송강이 초사방에서 차발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차발이 송강에게 말했다. "형님,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절급(節級, 하급 관리)의 상례(常例, 관례적인 뇌물) 말입니다. 어찌하여 며칠째 사람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벌써 열흘이 다 되어 갑니다. 그자가 내일 내려오면 상황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송강이 말했다. "그건 걱정 마십시오. 그자가 돈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만약 차발 형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절급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단 한 푼도 줄 수 없습니다. 그가 내려오면 제가 알아서 대처하겠습니다."

차발이 말했다. "압사(押司, 관리 직책)님, 그자는 아주 무서운 사람인 데다 수완도 보통이 아닙니다. 만약 그자가 행패를 부리거나 모욕을 주더라도, 제가 미리 알려드리지 않았다고 저를 탓할까 걱정됩니다."

송강이 말했다. "형님은 그저 내버려 두십시오. 부디 안심하시고, 제게는 다 생각이 있습니다. 돈을 좀 보낸다고 해서 반드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자가 감히 제 돈을 받지 못할 것도 아니니까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패두(牌頭)가 달려와 보고했다. "절급이 여기 내려왔습니다! 지금 대청에서 크게 난리를 피우며 이렇게 욕설을 퍼붓

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배군(配軍, 유배된 죄수병) 놈이 어찌하여 나에게 상례를 보내지 않는단 말이냐!'라고 말입니다."

차발이 말했다. "거보십시오, 제가 뭐랬습니까. 그자가 오면 우리까지 욕을 먹게 생겼습니다."

송강이 웃으며 말했다. "차발 형님, 너무 노여워 마십시오. 제가 모시지 못한 것이니 다음에 다시 술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저는 가서 그와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차발도 일어나며 말했다. "우리는 그자를 만나지 않겠습니다."

송강은 차발과 작별하고 초사방을 나와, 점시청(點視廳, 검열하는 곳)으로 가서 그 절급을 마주했다.

송강이 이 사람과 만나게 됨으로 인해, 강주성 안은 호랑이 굴과 이리 소굴로 뒤바뀌고, 네거리 십자로는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바다를 이루는 처참한 곳으로 변하게 될 터였다. 이야말로 하늘의 그물인 천라(天羅)를 들이받아 부수고 수호(水滸)로 돌아가게 하며, 땅의 그물인 지망(地網)을 들어 젖히고 양산박으로 오르게 하는 격이었다. 필경 송강이 와서 이 절급과 어떻게 만나게 될 것인가. 다음 회를 들어보면 알게 되리라.

제38회 — 급시우 송강이 신행태보 이규를 만나고, 흑선풍 이규가 랑리백조 장청과 싸우다

及時雨會神行太保 黑旋風鬥浪裏白條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시 송강은 차발과 헤어져 초사방(抄事房, 행정 사무실)을 나왔다. 점시청(點視廳)에 이르러 보니, 절급(節級, 하급 관리) 하나가 의자를 가져다 놓고 청 앞에 앉아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새로 배정된 죄수가 누구냐?"

포교가 송강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입니다."

그러자 절급이 송강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 검고 키 작은 놈아, 누구 힘을 믿고 상례(常例, 관례적인 뇌물)를 내놓지 않는 것이냐?"

송강이 대답했다.

"사람의 정이라는 건 서로 마음이 맞아야 하는 법인데, 어찌 이리 억지로 재물을 뺏으려 드시오? 참으로 비루하기 짝이 없구려!"

양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식은땀을 흘렸다. 절급은 크게 화가 나서 고함을 질렀다.

"이 죄수 놈이 감히 어디서 무례하게 구느냐! 도리어 나를 비루하다 하다니! 저기 짐꾼은 이놈을 등에 업고, 매 한 백 대를 때려라!"

양쪽 진영의 사람들은 모두 송강과 사이가 좋았기에, 그를 때리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한꺼번에 자리를 피해 버렸다. 결국 현장에는 절급과 송강 둘만 남게 되었다. 절급은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는 것을 보고 속이 더 뒤집혔다. 그는 매를 집어 들고 송강에게 달려들었다.

송강이 말했다.

"절급, 나를 때리려 하다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소?"

절급이 호통을 쳤다.

"이 죄수 놈아, 너는 내 손아귀에 있는 물건일 뿐이다. 기침 한 번 크게 하는 것도 죄가 된다!"

송강이 말했다.

"아무리 내 허물을 찾아낸다 해도, 죽을 죄까지는 아닐 것이오."

절급이 노발대발하며 말했다.

"죽을 죄가 아니라고? 내가 네 숨통을 끊는 건 어렵지도 않다. 그저 파리 한 마리 잡는 것만큼 쉬운 일이지!"

송강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상례를 내지 않았다고 죽어야 한다면, 양산박의 오 군사(吳學究)와 아는 사이라면 어찌 되겠소?"

그 말을 듣자마자 절급은 당황하여 손에 들고 있던 매를 툭 떨어뜨리며 물었다.

"뭐라고 했느냐?"

송강이 다시 대답했다.

"양산박의 군사 오 선생과 안면이 있다고 말했소. 왜 묻는 것이오?"

절급은 어찌할 바를 모르며 송강을 붙들고 물었다.

"그대가 대체 누구기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그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느냐?"

송강이 웃으며 말했다.

"소인은 산동 운성현(鄆城縣)의 송강이라 하오."

그 말을 들은 절급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얼른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다.

"아이고, 형님께서 바로 그 '급시우' 송공명이셨군요!"

송강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그까짓 게 뭐 대수라고."

절급이 말했다.

"형님, 여기는 이야기를 나눌 만한 곳이 못 됩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 회포를 푸시지요. 부디 저를 따라오십시오."

송강이 말했다.

"좋소. 절급은 잠시 기다리시오. 내가 방 문을 잠그고 금방 가리다."

송강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오용이 써준 편지를 챙기고 은자도 따로 챙겨 나온 뒤, 방문을 잠그며 포교에게 잘 지키라고 당부했다. 그러고는 그와 함께 뇌성영(牢城營)을 벗어나 강주 성 안으로 달려가, 길가에 있는 주막 2층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가 물었다.

"형님께서는 어디서 오 군사를 알고 계십니까?"

송강이 품속에서 편지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는 편지 봉투를 뜯어 처음부터 끝까지 읽더니, 다시 소매 속에 갈무리하고는 일어나 송강을 향해 절을 올렸다. 송강은 당황하며 급히 답례했다.

"아까 내가 말이 지나쳐 결례를 범했으니, 부디 노여워하지 마시오!"

그가 말했다.

"소제는 그저 성이 송 씨인 분이 뇌성영으로 압송되어 왔다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평소에는 배군(配軍, 유배된 죄수병)들이 올 때마다 상례로 은 다섯 냥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열흘이 넘도록 소식이 없기에 마침 한가한 날을 맞아 독촉하러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형님이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방금 진영 안에서 형님께 무례를 범했으니,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송강이 말했다.

"차발도 내게 그대의 존함을 자주 말하곤 했소. 나 역시 그대의 얼굴을 뵙고 싶었으나, 그대가 사는 곳도 모르고 성에 들어올 까닭도 마땅치 않아, 그저 형님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며 만나 뵙고자 했소. 이 때문에 시간이 꽤 지체되었구려. 은 다섯 냥이 아까워 보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형님께서 분명 직접 오실 것이라 믿고 일부러 기다렸던 것이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 평생의 소원을 이룬 듯 기쁘구려."

말을 나누던 이 사람이 누구였겠는가? 바로 오 군사가 추천한 강주 양원(兩院)의 압뢰절급(押牢節級), 대 원장 대종이었다. 당시 옛 송나라 시절 금릉 일대의 절급은 모두 '가장(家長)'이라 불렀고, 호남 일대

의 절급은 '원장(院長)'이라 불렀다. 본래 이 대 원장은 놀라운 도술을 지니고 있었다. 급한 군사 정보를 담은 서신을 전달할 때, 갑마(甲馬, 신행법에 쓰는 신령한 부적) 두 개를 양다리에 묶고 '신행법(神行法)'을 펼치면 하루에 오백 리를 달릴 수 있었고, 갑마 네 개를 다리에 묶으면 하루에 팔백 리를 달릴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신행태보' 대종이라 불렀다. 이를 증명하는 시가 있어 이르되,

얼굴은 넓고 입술은 각졌으며 눈은 신령스럽게 툭 튀어나왔는데, 몸집은 마르고 길어 청수하고 수려한 인재의 풍모로다. 검은 비단 관 옆에는 비취색 꽃이 피어 있고, 황색 깃발에는 서령(書令)의 글자가 적혔으며, 붉은 구슬은 선패(宣牌)에 비치네.

튼튼한 발로 천리마를 쫓으려 하니, 비단 옷자락에 늘 먼지가 일고, '신행태보'의 술법은 참으로 기이하구나. 길을 팔백 리나 가더라도, 아침에 떠나 저녁이면 돌아오네.

이윽고 대종이 송강에게 그간의 사정과 앞으로의 뜻을 다 말하고 나니, 대종과 송강 모두 크게 기뻐했다. 두 사람은 누각 안에 앉아 술 파는 사람을 불러 술과 과일, 고기 요리와 채소 등을 차려 내게 하고는 주루에서 둘이서 술을 마셨다. 송강은 길을 오며 만난 여러 호걸과 그들과 교류한 일들을 이야기했고, 대종 역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숨김없이 다 털어놓으며 오학구와 어떻게 알고 지내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전부 들려주었다.

두 사람이 한창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두세 잔쯤 마셨을 때였다. 갑자기 아래층이 떠들썩해지더니, 술 파는 사람이 급히 누각 안

으로 들어와 대종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오직 원장 어른께서 말씀해 주셔야만 진정될 뿐, 달리 어쩔 수가 없으니, 번거로우시겠지만 어른께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대종이 물었다. "아래층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가 누구냐?" 술 파는 사람이 대답했다. "평소 어른과 함께 다니시던 '철우'라 불리는 이 형님께서 주인에게 돈을 빌리겠다며 아래에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대종이 웃으며 말했다. "또 저놈이 아래에서 무례를 범하는구나. 나는 또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온 줄 알았네. 형님은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내가 저놈을 불러올리겠습니다." 대종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려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이 검고 험상궂게 생긴 사내 하나를 데리고 올라왔다. 송강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다. "대종 어른, 이 형님은 누구십니까?" 대종이 대답했다. "이 사람은 제 곁의 감옥에 있는 하급 옥졸(小牢子, 소뢰자)로, 성은 이요 이름은 규입니다. 본관은 기주 기수현 백장촌 사람이지요. 자신의 별호가 따로 있어 '흑선풍' 이규라 불리고, 고향에서는 다들 '이철우'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때려죽이고 도망쳐 나왔는데, 비록 사면을 받기는 했으나 이곳 강주까지 흘러 들어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술버릇이 워낙 나빠 사람들이 다들 그를 무서워하지요. 양날 도끼 두 자루를 능숙하게 다루고 권법과 곤술에도 능하여, 지금은 이곳 감옥에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기주 취령 동쪽에 살며
사람 죽이고 불 지르며 제멋대로 악행을 저지르네.
온몸은 검은 먹칠을 한 듯 까맣고
두 눈은 붉은 주사라도 바른 듯 붉구나.
한가로이 시냇가에서 커다란 도끼를 갈고

답답함이 밀려오면 바위 곁에서 큰 소나무를 찍어내네.
힘은 소처럼 맹렬하고 강철처럼 단단하니
땅을 흔들고 하늘을 뒤흔드는 이규로다.

이규는 송강을 보더니 대종에게 물었다. "형님, 저 검둥이는 누구입니까?" 대종이 송강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압사님, 저놈이 저렇게 거칠고 무례하니 체면을 전혀 모르는군요." 그러자 이규가 말했다. "형님, 거칠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대종이 대답했다. "아우야, 너는 그냥 이 어른이 누구신지 여쭈어보면 될 것을, 어찌 '저 검둥이는 누구냐'고 묻느냐? 이게 거친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 내가 알려주마. 이 형님이야말로 네가 예전부터 찾아가려 했던 의사(義士) 형님이시다." 이규가 말했다. "설마 산동의 '급시우' 검둥이 송강 형님 말씀입니까?" 대종이 꾸짖었다. "이놈! 감히 어른 앞에서 함부로 이름을 부르다니, 위아래도 모르고 무례하기 짝이 없구나. 어서 절을 올리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 이규가 말했다. "만약 정말로 송공명 형님이라면 절을 올리겠지만, 만약 모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왜 절을 하겠습니까! 절급 형님, 저를 속여서 절하게 해놓고 비웃지 마십시오." 송강이 나서서 말했다. "내가 바로 산동의 검둥이 송강이라네." 이규는 손뼉을 치며 외쳤다. "아이고, 형님!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철우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고는 덥석 몸을 굽혀 절을 올렸다. 송강이 급히 답례하며 말했다. "장사 어른, 어서 앉으십시오." 대종이 말했다. "아우야,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아 술이나 마시자." 이규가 말했다. "작은 잔으로 마시는 건 성미에 안 맞으니, 큰 사발로 하나 가져다 따라주시오."

송강이 물었다. "그런데 형님, 아까 아래층에서 왜 그리 화를 내셨습니까?" 이규가 대답했다. "큰 은덩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전당잡혀 작은 은 열 냥을 마련해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 은 열 냥만 빌려 그 큰 은덩이를 도로 찾아온 뒤, 그것으로 갚고 저도 좀 쓰려 했지요. 그런데 괘씸하게도 이 망할 주인 놈이 빌려주려 하지 않기에, 제가 그놈과 한판 붙어 그 집을 박살내려던 참에 형님이 저를 불러 올리신 것입니다." 송강이 물었다. "단지 열 냥을 빌려가는 것뿐인데, 이자까지 쳐줘야 합니까?" 이규가 말했다. "이자는 이미 여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저 밑천 열 냥만 있으면 됩니다." 송강은 그 말을 듣고 곁에서 은 열 냥을 꺼내 이규에게 건네며 말했다. "형님, 이걸 가져가서 은덩이를 찾아 쓰십시오." 대종이 말리려 했으나 송강은 이미 돈을 건네준 뒤였다. 이규는 은을 받자마자 말했다. "좋습니다! 두 형님께서는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은을 찾자마자 바로 갚으러 오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송 형님과 함께 성 밖으로 나가 술 한잔 올리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잠시 앉아 계시오. 몇 잔 마시고 가도 괜찮으니." 이규가 대답했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는 휘장을 밀어젖히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대종이 말했다. "형님, 저놈에게 은을 빌려주지 마셨어야 했습니다. 제가 막 말리려던 참이었는데 형님께서 이미 손에 쥐여주셨군요." 송강이 물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대종이 말했다. "저놈이 성격은 곧으나 술과 도박을 너무 밝힙니다. 저놈에게 큰 은덩이 따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형님께서 저놈에게 속아 그 은을 날리신 것입니다. 저놈이 저렇게 급히 나가는 걸 보니 필시 도박하러 가는 것입니다. 만약 돈을 따오면 형님께 갚겠지만, 만약 다 잃으면 어디서 열 냥을 구해와 형님

께 갚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 체면도 말이 아니게 됩니다." 송강이 웃으며 말했다. "대종 형님, 어찌 그리 남의 일처럼 말씀하십니까. 이 정도 은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도박하다 잃게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보기엔 저 사람은 참으로 충직한 사내 같습니다." 대종이 말했다. "재주야 본디 있지만, 마음이 거칠고 담이 큰 게 문제입니다. 강주 감옥에 있을 때도 술만 취하면 죄수들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자기만큼 힘센 옥졸들만 골라 때리곤 했습니다. 저도 저놈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워낙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힘센 자들을 때려잡고 다니니, 강주 성안 사람들 모두가 저놈을 무서워합니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뇌물을 받는 관리가 법을 굽게 집행하니, 죄인들은 억울한 피해를 많이 입는구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니 참으로 한스럽도다, 하늘의 심판은 이규의 주먹에 맡기리라.

송강이 말했다. "우리 술을 두어 잔 더 마시고 나서, 성 밖으로 나가 구경이나 한번 합시다." 대종이 말했다. "저도 마침 형님과 함께 강가 경치를 보러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저도 강주의 경치를 보고 싶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군요."

두 사람이 다시 술을 마시는 것은 차치하고, 이규는 은 열 냥을 손에 쥐자 속으로 생각했다. '송강 형님은 나와 깊이 아는 사이도 아닌데 선뜻 은 열 냥이나 빌려주시니, 과연 의기로 재물을 아끼지 않는다는 명성이 헛되지 않구나. 그런데 요 며칠 도박에서 돈을 다 잃는 바람에 형

님을 대접할 돈 한 푼 없었던 게 참으로 한스러웠는데, 이제 이 열 냥을 얻었으니 가서 한판 걸어보자. 만약 돈을 몇 관이라도 따게 되면 형님께 제대로 한턱내야겠다.'

그때 이규는 성 밖 소장 을(小張乙)의 도박장으로 허겁지겁 달려가, 판 위에 이 열 냥을 홱 던져놓으며 외쳤다. "던질 돈 이리 내놔라, 내가 던지겠다!" 소장 을은 이규가 평소 도박을 정직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말했다. "형님, 일단 좀 쉬시지요. 이번 판이 끝나야 다음 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규가 말했다. "나는 이번 판부터 먼저 걸겠다." 소장 을이 말했다. "그럼 곁에서 찍는 쪽으로 거셔도 좋습니다." 이규가 대답했다. "곁에서 찍는 건 싫다. 딱 이번 판에 은 다섯 냥을 한 판돈으로 걸고 던지겠다."

마침 함께 던지려던 도박꾼이 있었는데, 이규가 덥석 던질 돈을 낚아채며 소리쳤다. "내가 누구랑 붙는 거냐?" 소장 을이 말했다. "저랑은 다섯 냥을 걸고 던지시지요." 이규가 소리를 한 번 지르더니, 철그덕 하고 던졌는데 그만 지는 패(叉)가 나왔다. 소장 을이 은을 가져가자 이규가 외쳤다. "내 은은 열 냥이다!" 소장 을이 말했다. "다시 다섯 냥을 걸고 던지십시오. 그러면 그 은괴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규는 다시 던질 돈을 움켜쥐고 "빨리!"라고 외치더니, 철그덕 하고 또 지는 패를 던지고 말았다. 소장 을이 웃으며 말했다. "제가 던질 돈을 뺏지 말고 일단 한 판 쉬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말을 듣지 않더니 결국 연달아 두 판이나 지셨군요." 이규가 말했다. "이 은은 남의 것이다." 소장 을이 대꾸했다. "그게 누구 것이든 이미 소용없습니다. 잃으셨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규가 말했다. "어쩔 수 없

으니 일단 좀 빌려주시오. 내일 바로 가져와서 갚겠소." 소장 을이 말했다. "무슨 한가한 소리입니까? 예로부터 도박판에는 부자(父子)도 없는 법입니다. 분명히 잃으셨는데 어찌 도리어 와서 억지를 부리십니까?"

이규는 입고 있던 베적삼을 앞쪽으로 끌어올리고는 입으로 호통을 쳤다. "너희들, 내 돈 돌려줄 거냐 말 거냐!" 소장 을이 말했다. "이 형님, 평소에는 도박을 아주 정직하게 하시더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막무가내이십니까?" 이규는 대답도 하지 않고 바닥에 흩어진 은을 긁어모으더니, 다른 사람들이 걸어둔 돈 열 냥 남짓까지 몽땅 베적삼 자락에 쓸어 담았다. 그러고는 두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이 어르신이 평소에는 정직하게 도박했지만, 오늘은 잠시 한 번 정직하지 않기로 했다!"

소장 을이 급히 달려들어 빼앗으려 하자, 이규가 손가락으로 한 번 밀쳐 자빠뜨렸다. 그러자 도박하던 열두세 명이 일제히 달려들어 은을 뺏으려 했으나, 이규는 동쪽을 가리키고 서쪽을 치고 남쪽을 가리키고 북쪽을 치며 사람들을 두들겨 팼다. 이규가 이 무리를 숨을 곳도 없이 몰아붙이고는 문 앞까지 나가자, 문지기가 물었다. "큰 형님, 어디 가십니까?" 이규는 그 문지기를 한쪽으로 들어 밀쳐버리고는 발로 문을 걷어차고 밖으로 나갔다. 그 무리가 뒤따라 쫓아 나왔지만 문 앞에서 소리만 질러댔다. "이 형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은을 다 뺏어가시다니요!" 그들은 문 앞에서 소리만 지를 뿐, 감히 다가와 따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로 이르되,

세상 사람들은 일이 없어도 부질없이 다투기 마련이건만,
곧은 도리는 오직 도박판에서만 쓰이는구나.
이규가 정직하지 않은들 또한 무방하니,
도박판 도둑들에게 본보기를 보여 주는 셈이라네.

이규가 막 달려 나가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쫓아와 어깨와 팔을 붙잡으며 호통을 쳤다. "이놈아, 네가 어찌하여 남의 재물을 이리도 함부로 빼앗느냐?" 이규가 입으로 대꾸했다.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하고 고개를 돌려보니, 다름 아닌 대종이었고 그 뒤에는 송강이 서 있었다. 이규는 그들을 보자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가득하여 말했다. "형님, 부디 꾸짖지 마십시오. 저 철우가 평소에는 도박을 정직하게 해왔으나, 오늘은 형님께 빌린 은을 잃고 싶지 않았고, 또 형님을 대접할 돈도 없으니, 마음이 급한 나머지 순간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송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으며 말했다. "아우님, 돈이 필요하면 그냥 나에게 달라고 하게나. 오늘은 분명히 저 사람에게 돈을 잃은 것이니, 어서 가서 돌려주게." 이규는 하는 수 없이 베옷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송강의 손에 모두 건넸다. 송강이 소장 을을 불러 그 돈을 모두 전달했다. 소장 을이 돈을 받아 들고 말했다. "두 어른께서 계시니 소인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제 것만 챙겼습니다. 이 은 열 냥은 비록 이 형님이 두 판을 연달아 져서 저에게 넘긴 것이지만, 이제 소인이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원한을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그저 가져가게나. 마음속에 앙심을 품지 말고." 하지만 소장 을이 어찌 그러겠는가. 송강이 다시 물었다. "그가 자네들을

때려 다치게 하지는 않았는가?" 소장 을이 대답했다. "판을 주관하는 사람과 돈을 줍는 사람, 그리고 문지기까지 모두 안에서 그에게 얻어맞아 쓰러졌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 돈은 그 사람들에게 치료비로 주게나. 우리 형제들은 다시는 오지 않겠지만, 내가 저 녀석을 잘 타일러서 돌려보내겠네." 소장 을은 은을 챙기고 절하며 감사의 인사를 하고 물러갔다.

송강이 말했다. "우리 이 형님과 함께 술을 세 잔 마시러 가세." 대종이 말했다. "앞쪽 강가에 비파정이라는 주막이 있는데, 그곳은 당나라 백낙천(백거이)의 옛 자취가 남은 곳입니다. 그 정자에 올라 술을 몇 잔 마시며 강 풍경을 구경하면 딱 좋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성 안에서 안주 거리를 좀 사서 가는 게 어떻겠나?" 대종이 대답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 정자 안에서도 술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그렇다면 잘되었네."

그때 세 사람은 비파정을 향해 갔다. 정자에 이르러 보니, 한쪽은 심양강(潯陽江)에 맞닿아 있고 다른 한쪽은 주막 주인의 집채였다. 비파정에는 십여 개의 자리가 있었는데, 대종이 깨끗한 자리 하나를 골라 송강을 상석에 앉히고 자신은 맞은편에 앉았으며, 그 아래 자리에 이규가 앉았다. 세 사람이 자리를 잡자, 점소이를 불러 채소와 과일, 해산물 등 안주 종류를 차려 내오게 했다. 점소이가 옥호춘(玉壺春) 술 두 동이를 가져왔는데, 이는 강주에서 이름난 좋은 술로, 봉한 진흙 마개를 땄다. 송강이 눈을 들어 그 강을 바라보니 경치가 참으로 비범하였다. 보아하니 이러하였다:

구름 너머 먼 산은 푸르게 솟아 있고, 강가 멀리 흐르는 물은 은빛으로 넘실거리네.
희미한 모래톱 위로 갈매기와 해오라기 몇 줄 날아오르고,
아스라한 갈대밭 사이로 고기잡이 배 몇 척 노 저어 돌아오네.
출렁이는 흰 물결은 높은 하늘까지 치솟고, 살랑이는 시원한 바람은 수면을 스치네.
자소봉(紫霄峰)은 위로 푸른 하늘에 닿았고, 비파정은 강기슭에 반쯤 걸쳐 있네.
사방은 탁 트여 넓고, 팔방은 영롱하구나.
난간 그림자는 유리에 잠긴 듯하고, 창밖의 빛은 옥벽처럼 떠도네.
옛날 백낙천(백거이)은 그 명성이 드높았고, 그 시절 강주사마(江州司馬)였던 그는 눈물 자국이 많았네.

세 사람이 자리에 앉자마자 이규가 말했다. "술은 큰 사발에 가득 따라 주시오. 작은 잔으로 홀짝거리는 건 답답해서 못 마시겠소!" 대종이 꾸짖었다. "아우, 참 촌스럽구나. 잔말 말고 술이나 마시게." 송강이 점소이에게 분부했다. "우리 둘 앞에는 잔 두 개를 놓고, 이 형님 앞에는 큰 사발을 하나 놓아주게." 점소이가 대답하고 내려가 사발을 가져와 이규 앞에 놓고는, 한편으로 술을 거르고 한편으로 안주를 차려 냈다. 이규가 웃으며 말했다. "정말 좋은 송 형님이시다. 사람들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 아우 된 자의 성미를 잘 아시는구나. 이런 형님과 의형제를 맺었으니 헛되지 않았다." 점소이가 술을 따라 연거푸 대여섯 차례 거르고 따랐다. 송강은 이 두 사람을 보니 마음이 즐거워져 몇 잔 마시다가 문득 매콤한 생선탕이 먹고 싶어져 대종에게 물었다. "이곳에 좋은

신선한 생선이 좀 있는가?" 대종이 웃으며 말했다. "형님, 강에 어선이 가득한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곳이 바로 물 좋고 쌀 좋은 고장인데 신선한 생선이 없을 리 있겠습니까?" 송강이 말했다. "매콤한 생선탕을 좀 먹으면 술이 깨겠네." 대종이 점소이를 불러 백어(흰 살 생선)로 매콤하고 붉게 양념한 생선탕 세 그릇을 끓여 오라고 했다. 잠시 후 탕이 나오자 송강이 보고 말했다. "좋은 음식도 좋은 그릇만 못하다 했거늘, 비록 주막이라 해도 그릇이 참으로 정갈하구나." 송강은 젓가락을 들어 대종과 이규에게 권하고 자신도 생선을 좀 먹고 국물을 몇 모금 마셨다. 이규는 젓가락도 쓰지 않고 손을 그릇에 넣어 생선을 건져 뼈째 씹어 먹었다. 송강은 그 모습에 웃음을 참지 못하다가 국물을 두어 모금 마시고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더 먹지 않았다. 대종이 말했다. "형님, 이 생선이 절인 것이라 형님 입에 맞지 않는 모양입니다." 송강이 말했다. "내가 술 뒤에 입맛이 까다로워 그저 신선한 생선탕만 즐기는데, 이 생선은 정말 그리 좋지 않네." 대종도 맞장구쳤다. "저도 못 먹겠습니다. 절인 것이라 먹을 만하지 못합니다." 이규는 제 그릇의 생선을 씹어 먹고는 말했다. "두 형님이 안 드시니 제가 대신 먹겠습니다!" 그러고는 송강의 그릇에 손을 넣어 건져 먹고 대종의 그릇에서도 건져 먹으니, 국물이 탁자 위로 뚝뚝 떨어져 흥건했다. 송강은 이규가 생선 세 그릇을 뼈까지 다 씹어 먹는 것을 보고 점소이를 불러 분부했다. "이 형님이 시장한 모양이니 큰 덩어리 고기를 두 근만 썰어다 드리게. 조금 있다 함께 값을 치르겠네." 점소이가 말했다. "소인 가게에서는 양고기만 팔고 소고기는 없습니다. 기름진 양고기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생선 국물을 얼굴에 확 끼얹어 점소이의 온몸을 적셔버렸다. 대종이 호통쳤다. "또 왜 이러는가!" 이규가 대꾸했다. "이놈이 무례하게도 내가 소고기만 먹는다고 깔보며 양고기는

팔지 않겠다 하지 않습니까!" 점소이가 말했다. "소인은 한마디 여쭌 것뿐,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그냥 가서 썰어 오게. 내가 값을 치르겠네." 점소이는 화를 꾹 참고 양고기 두 근을 썰어 한 접시 담아 탁자에 올려놓았다. 이규는 그것을 보자 사양도 없이 손으로 큼직하게 움켜쥐고 먹어 치우니, 순식간에 양고기 두 근을 다 먹어버렸다. 송강이 보고 말했다. "장하다, 참으로 호걸이로구나!" 이규가 말했다. "송 형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는군요. 고기를 먹는 게 생선 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대종이 점소이를 불러 물었다. "방금 그 생선탕은 그릇은 참 정갈하나 생선이 절여져 먹을 수 없었네. 따로 좋은 신선한 생선이 있거든 매콤한 탕을 새로 끓여 이 어른의 술을 깨게 해 드리게." 점소이가 대답했다. "원장님(院長)께 감히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면, 그 생선은 정말 어젯밤 것입니다. 오늘 잡은 활어는 아직 배 안에 있는데, 어아(魚牙) 주인이 오지 않아 아직 감히 팔지 못해 좋은 신선한 생선이 없습니다." 이규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내가 직접 가서 활어 두 마리를 구해다 형님께 드리겠소!" 대종이 말렸다. "가지 말게. 그냥 점소이에게 부탁해 몇 마리 가져오라 하면 될 것을." 이규가 말했다. "배에서 고기 잡는 놈들이 감히 나를 안 줄 리 있겠소? 그까짓 게 뭐라고!" 대종이 말릴 새도 없이 이규는 곧장 가버렸다. 대종이 송강에게 말했다. "형님, 제가 이런 자를 데려와 만나게 하여 도무지 체면이 서지 않으니,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저 사람 천성이 그러한데 어찌 고치게 하겠는가? 나는 오히려 거짓 없이 진솔한 그가 마음에 드네." 두 사람은 비파정에서 웃고 이야기하며 즐겼다.

시로 이르되,

분강(溢江)의 안개 어린 경치는 속세를 벗어난 듯하고,
강 위에 솟은 봉우리들은 여인의 쪽 진 머리를 둘러친 듯하네.
밝은 달 아래 비파 타던 사람은 보이지 않고,
누런 갈대와 쓴 대나무 사이로 저녁 조수가 돌아오네.

한편, 이규가 강가로 가서 보니 어선들이 한 줄로 늘어서 있었는데, 그 수가 대략 여든에서 아흔 척쯤 되어 보였다. 배들은 모두 푸른 버드나무 아래에 밧줄로 매여 있었다. 배 위의 어부들 중에는 고물(뱃고물)에 비스듬히 기대어 잠자는 이도 있었고, 뱃머리에서 그물을 깁는 이도 있었으며, 물속에서 멱을 감는 이도 있었다. 때는 바야흐로 오월 중순이라 둥근 붉은 해가 막 서쪽으로 지려 하는데, 아직 어창(魚艙)을 열어 생선을 팔 주인은 오지 않았다. 이규가 배 가까이 가서 외쳤다. "너희 배에 있는 활어 두 마리만 나한테 내놔라!" 어부가 대답했다. "우리는 어아(魚牙)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중이라 감히 어창을 열 수 없소. 보시오, 저 행상들도 모두 강기슭에 앉아 기다리고 있지 않소." 이규가 말했다. "그놈의 주인을 뭘 기다려? 먼저 생선 두 마리부터 내놓아라!" 어부가 다시 대답했다. "아직 고사 지낼 지전(紙)도 사르지 않았는데 어찌 감히 어창을 열겠소? 어디서 먼저 생선을 꺼내 준단 말이오?" 이규는 사람들이 생선을 내놓지 않으려 하자 곧장 배 한 척 위로 뛰어올랐고, 어부들은 막을 수 없었다. 배 안 사정을 모르는 이규는 그저 대나무 발(竹笆篾)을 확 뽑아버렸고, 어부들은 강기슭에서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외칠 뿐이었다. 이규가 손을 뻗어 갑판 널 밑을 더듬어 보았으나 그 안에 생선은 한 마리도 없었다. 원래 이 큰 강의 어선은 뱃고물에 반쯤 큰 구멍을 뚫어 강물이 드나들게 하고 그 안에 활어를 키우되, 대나무 발로 막아 두어 어창 안으로 산 물이 오가며 활어를 살

려 두는 까닭에, 강주에 좋은 신선한 생선이 있었던 것이다. 이규는 이 사실을 모르고 도리어 먼저 대나무 발을 들어 올려 버려, 어창 안의 활어가 모두 빠져나가 버렸다. 이규가 또 옆 배로 건너가 대나무 발을 뽑으려 하자, 칠팔십 명의 어부가 모두 배 위로 달려들어 삿대로 이규를 때렸다. 이규는 크게 노하여 성을 내며 베적삼을 벗어 던졌는데, 안에는 바둑판무늬 수건 한 장만 두르고 있었다. 어지러이 삿대가 날아들자 두 손으로 막으며 어느새 대여섯 개를 빼앗아 마치 파를 비틀 듯 모조리 비틀어 꺾어버렸다. 어부들은 그 모습에 모두 깜짝 놀라 밧줄을 풀고 배를 멀리 저어 가버렸다. 이규는 분이 나서 발가벗은 채 부러진 삿대 두 토막을 들고 기슭으로 올라가 행상들을 쫓아가며 때리니, 행상들은 우르르 짐을 짊어지고 달아났다.

한창 소란스러운 와중에 한 사람이 샛길로 걸어 나왔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외쳤다. "주인이 오셨다! 저 검은 덩치가 여기서 생선을 빼앗는 바람에 어선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검은 덩치라니, 감히 누가 이토록 무례하게 구느냐!"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놈이 아직도 강기슭에서 싸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달려가며 호통쳤다. "이놈아, 네가 표범의 심장과 호랑이의 쓸개라도 삼켰느냐? 감히 이 어르신이 가는 길을 어지럽히다니!" 이규가 그 사람을 보니, 키는 육 척 오륙(약 190~200cm)에 나이는 서른둘이나 셋쯤 되어 보였다. 입가를 덮은 검은 수염은 세 갈래로 드리워졌고, 머리에는 청색 사로 만든 만자건(萬字巾)을 썼는데, 그 사이로 한가운데가 붉은 점처럼 물든 멋스러운 머리 타래(髻)가 언뜻언뜻 비쳤다. 위에는 흰 무명 적삼을 입고 허리에는 비단 띠를 둘렀으며, 아래로는 청백색 행전을 둘렀고 귀가 여럿 달린 삼베 신을 신고, 손에는 장

사용 저울을 들고 있었다. 그 사람은 마침 생선을 팔러 오던 길이었는데, 이규가 거기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저울을 행상에게 넘겨주고는 앞으로 달려 나와 크게 꾸짖었다. "이놈아, 누구를 때리려는 게냐!" 이규는 대꾸도 없이 삿대를 휘둘러 그 사람을 내리쳤다. 그 사람이 달려들어 단번에 삿대를 빼앗자, 이규는 그 사람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움켜쥐었다. 그 사람은 이규의 하체 쪽으로 파고들어 이규를 메다꽂으려 했으나, 물소 같은 이규의 힘을 어찌 당하랴. 이규가 곧장 밀쳐내는 바람에 몸을 붙일 수조차 없게 되자, 그 사람은 이규의 옆구리를 향해 주먹을 몇 대 질렀으나 이규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 사람이 다시 발을 날려 차자, 이규는 그의 머리를 아래로 짓눌러 쇠망치만 한 주먹을 들어 그 사람의 등줄기를 북 치듯 두들겼다. 그 사람이 어찌 몸부림쳤겠는가. …… 이규가 한창 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뒤에서 허리를 끌어안고 또 한 사람이 달려와 손을 붙잡으며 외쳤다. "안 되네, 안 돼!" 이규가 고개를 돌려 보니 바로 송강과 대종이었다. 이규가 손을 놓자 그 사람은 가까스로 몸을 빼내 연기처럼 달아나 버렸다.

대종이 이규를 나무라며 말했다. "내가 생선 구하러 가지 말라 했거늘 또 여기서 사람과 싸우느냐! 만약 주먹질에 사람을 때려죽이기라도 하면 네가 목숨으로 갚고 옥살이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규가 대답했다. "형님은 제가 형님께 누를 끼칠까 걱정이시군요. 제가 한 사람 때려죽인들 제가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아우야, 입씨름은 그만하고 적삼을 챙겨 어서 술이나 마시러 가자." 이규는 버드나무 뿌리께에서 적삼을 집어 팔에 걸치고 송강과 대종의 뒤를 따라갔다.

열 발짝도 못 갔을 때 등 뒤에서 누군가 욕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검은 살인마 놈아, 이번에야말로 네놈과 끝장을 보자!" 이규가 고개를 돌려 보니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발가벗고 잠방이 하나만 바짝 동여맨 채, 눈처럼 흰 살결을 온몸에 드러내고 있었다. 머리에서는 두건을 벗어, 한가운데가 붉은 점처럼 물든 그 멋스러운 머리 타래(髽)를 드러냈다. 그는 강가에서 홀로 삿대로 어선 한 척을 저어 다가오며 입으로 크게 욕을 퍼부었다. "천 갈래 만 갈래 찢겨 죽을 검은 살인마 놈아! 이 어르신이 네놈을 두려워한다면 사내대장부가 아니고, 달아난다면 사내자식이 아니다!"

이규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한 번 으르렁거리고는 적삼을 내던지고 몸을 돌렸다. 그 사람은 배를 슬쩍 기슭 가까이 붙여 대고 한 손으로 삿대를 짚어 배를 고정한 채 계속 욕을 해댔다. 이규도 욕하며 외쳤다. "사내라면 어서 기슭으로 올라오너라!" 그 사람이 삿대로 이규의 다리를 쿡 찌르자,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이규가 땅을 박차고 배 위로 뛰어올랐다. 말이 더디지 그때는 빨랐으니, 그 사람은 이규를 배에 끌어들이기만을 노렸던 터라 삿대로 기슭을 한 번 짚고 두 발로 힘껏 구르자, 그 어선은 마치 광풍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화살처럼 강 한복판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이규도 물을 다룰 줄은 알았으나 그리 능숙하지 못해 그만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그 사람은 욕도 멈추고 삿대를 내던지며 "이리 오너라, 이번엔 반드시 너와 끝장을 보겠다!" 하고 외치고는 이규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싸움은 나중에 하고, 먼저 물맛 좀 보여 주마." 그러고는 두 발로 배를 한 번 흔들어 배 밑바닥이 하늘로 가도록 뒤집으니, 영웅이 물에 빠져 두 호걸이 풍덩 곤두박질치며 강물 속으로 떨어졌다.

송강과 대종이 급히 기슭으로 달려갔을 때 배는 이미 강물에 뒤집혀 있었고, 두 사람은 기슭에서 발만 동동 굴렀다. 강기슭에는 어느새 삼사백 명이 몰려들어 버드나무 그늘 아래서 구경하며 모두 말했다. "저 검은 덩치가 이번엔 제대로 걸려들었구먼. 목숨은 건진다 해도 뱃속 가득 물은 마시겠어." 송강과 대종이 기슭에서 바라보니, 강물이 갈라지는 곳에서 그 사람이 이규를 끌어올렸다가 다시 물속으로 처박고 있었다. 두 사람은 푸른 물결이 일렁이는 강 한복판에서, 하나는 온몸의 검은 살을, 하나는 온몸의 서리 같은 흰 살을 드러낸 채 한 덩어리로 뒤엉켜 싸웠다. 강기슭의 삼사백 명 중 갈채를 보내지 않는 이가 없었다. 보아하니,

한 명은 기수현에서 나타난 기이한 요물 같고, 한 명은 소고산에서 나타난 요괴 같구나. 한 명은 졸인 연유(酥)를 빚어 만든 듯 희고 매끄러운 살결이요, 한 명은 숯가루를 뭉쳐 만든 듯 검은 피부로다. 한 명은 마영관의 백사가 화신한 듯하고, 한 명은 조원수의 흑호가 환생한 듯하네. 한 명은 만 번의 망치로 두드려 만든 은인 같고, 한 명은 천 번의 불길로 달궈 만든 철한 같구나. 한 명은 오대산의 은빛 엄니를 가진 흰 코끼리요, 한 명은 구곡하의 철갑을 두른 늙은 용이라. 한 명은 옻칠한 나한이 신통력을 부리는 듯하고, 한 명은 옥으로 갈아 만든 금강역사가 용맹을 떨치는 듯하네. 한 명은 한참을 뒤엉켜 싸우니 온몸에 흐르는 땀방울이 진주처럼 튀어 오르고, 한 명은 오랫동안 끌어당기며 싸우니 온몸이 검은 먹물처럼 물에 젖어 드는구나. 한 명은 화광교주처럼 푸른 물결 깊은 곳에서 그 형체를 드러내고, 한 명은 흑살천신처럼 하얀 물결 더미 속에서 그 얼굴을 드러내니, 정말로 옥룡이 어두운 하늘의 해를 휘저어 놓은 듯하고, 흑귀가 물밑의 하늘을 뒤엎어 놓은 듯하구나.

그때 송강과 대종이 보니, 이규는 그 사람에게 붙들려 물속에 처박힌 채 눈이 뒤집힐 정도로 물을 들이켰다. 그 사람은 이규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물속으로 처박기를 수십 번은 족히 넘게 반복하고 있었다. 과연 이러하였다.

배를 타고 육지에 있을 땐 힘을 다 쓸 수 있었건만,
주먹을 휘둘러 강 한복판에 이르니 속수무책이라.
정말이지 검은 바람이 흰 파도를 몰아치니,
쇠로 만든 소(철우)가 물소가 되어버렸구나.

송강은 이규가 고전하는 것을 보고 대종에게 사람을 보내 구하라고 말했다. 대종이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덩치 큰 사내는 누구인가?" 그 중 아는 사람이 대답했다. "저 호걸은 이곳에서 생선을 파는 주인인데, 장순이라 부릅니다." 송강이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혹시 별호가 '낭리백조'인 장순이 아니냐?" 사람들이 대답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송강이 대종에게 말했다. "내 수용소에 그의 형인 장횡의 편지가 있다네."

대종은 그 말을 듣고 강가로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장 형님, 손을 떼십시오! 형님 장횡의 편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 검은 사내는 우리 형제이니, 일단 그를 놓아주고 육지로 올라와 이야기합시다!" 장순은 강 한가운데에서 대종이 자신을 부르는 것을 보고 평소 안면이 있던 터라, 이규를 놓아주고 강가로 헤엄쳐 올라왔다. 그는 강가에 도착해 대종을 향해 깍듯이 인사하며 말했다. "양원 관리님, 소인이 무례를 범한 것을

꾸짖지 마십시오." 대종이 말했다. "자네, 내 얼굴을 보고 이 형제를 먼저 구해 올려주게나. 그러면 자네가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겠네."

장순은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어 이규에게 다가갔다. 이규는 강물 속에서 머리를 내밀었다가 잠갔다 하며 억지로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장순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이규의 한쪽 손을 붙잡은 뒤, 두 다리로 물결을 딛고 서니 마치 평지를 걷는 듯했다. 물은 그의 배꼽 아래까지만 차올랐고, 그는 한쪽 팔을 뻗어 이규를 번쩍 들어 올려 강가로 옮겨 놓았다. 강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송강은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한참 뒤 장순과 이규가 모두 육지로 올라왔다. 이규는 숨을 헐떡이며 입으로 하얀 침을 내뱉고 있었다. 대종이 말했다. "우선 모두 비파정으로 가서 이야기합시다." 장순은 베옷을 찾아 입었고 이규도 베옷을 챙겨 입었다. 그렇게 네 사람은 다시 비파정으로 향했다.

대종이 장순에게 물었다. "둘째 형님, 저를 알아보겠소?" 장순이 대답했다. "소인이 관리님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인연이 닿지 않아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대종이 이규를 가리키며 장순에게 물었다. "자네, 이 친구를 평소에 알고 있었나? 오늘 이 친구가 자네를 제대로 건드렸구먼." 장순이 말했다. "이 형님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다만 한 번도 겨루어본 적이 없을 뿐입니다." 이규가 끼어들었다. "자네도 나를 아주 물속에 처박아버렸지 않은가!" 장순이 맞받아쳤다. "자네도 나를 아주 두들겨 팼지 않았나!" 대종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들 둘은 이번 기회에 아주 친한 형제 사이가 되어보게나. 흔히들 '한 번 싸워봐야 서로를 안다'고 하지 않는가." 이규가 툭 내뱉었다. "길 가다 나랑 부딪히지나

말게나." 장순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저 물속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만 있겠네." 네 사람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서로 예의를 갖추며 인사를 나누었다.

대종이 송강을 가리키며 장순에게 물었다. "둘째 형님, 이 형님은 아시는 분인가?" 장순이 살펴보더니 말했다. "소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뵌 적은 없습니다." 이규가 벌떡 일어나 외쳤다. "이 형님이 바로 검은 송강이라네!" 장순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혹시 산동의 '급시우' 운성현의 송 압사(아전)님이십니까?" 대종이 말했다. "그렇다네, 바로 공명 형님이시지." 장순은 즉시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올렸다. "성함은 익히 들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강호 사람들에게 형님께서 덕망이 높으시고, 위기에 처한 이를 돕고 의로움을 위해 재물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송강이 대답했다. "그저 미천한 사람일 뿐인데 무엇을 말하겠는가! 며칠 전 이곳에 올 때, 개양령 아래에서 '혼강룡' 이준의 집에 며칠 머물렀다네. 그 후 심양강에서 목홍을 만나 자네 형님인 장횡을 만났고, 그에게 편지를 한 통 받아 자네에게 전해주려고 수용소에 맡겨두었네. 미처 가져오지는 못했네만 말이야. 그래서 오늘 대종 관리, 그리고 이 형님과 함께 이 비파정에 와서 술 세 잔을 나누며 강 경치를 구경하려던 참이었네. 그런데 내가 술을 마시다 보니 문득 생선탕이 생각나서 속을 달래고 싶어 했더니, 이 친구가 기어코 생선을 뺏으러 가겠다고 나서서 도저히 말릴 수가 없었네. 강가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기에 주막 주인에게 확인해보니 검은 사내가 누군가와 싸우고 있다기에 급히 와서 말리러 왔더니, 뜻밖에 이렇게 용맹한 장사들을 만나게 되었

구먼. 오늘 송강이 세 분의 호걸을 만났으니, 이 어찌 하늘이 도운 행운이 아니겠는가! 자, 어서 앉게나. 안주와 술을 세 잔씩 나누세." 송강은 다시 주막 주인을 불러 안주와 술상을 새로 차리라고 일렀다.

장순이 말했다. "형님께서 싱싱한 생선을 드시고 싶다면, 제가 가서 몇 마리 잡아 오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그러면 참 좋겠네." 이규가 거들었다. "나도 같이 가서 뺏어오겠네!" 대종이 꾸짖었다. "또 시작이군! 아까 물을 그렇게 들이켜고도 아직 분이 안 풀렸나?" 장순이 웃음을 터뜨리며 이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자네와 함께 생선을 잡으러 가겠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나!"

시로 이르되,

높은 곳에서 다투는 모습은 호랑이 같고,
물에 빠져 싸우는 기세는 용과 같구나.
과연 화합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니,
이들이 바로 늪지대의 영웅이라네.

두 사람(장순과 이규)이 비파정에서 내려와 강가에 이르자, 장순이 휘파람을 한 번 짧게 불었다. 그러자 강 위에 떠 있던 어선들이 모두 노를 저어 강가로 모여들었다. 장순이 물었다. "어느 배에 금빛 잉어가 있소?" 그러자 한 사람이 "제 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고, 또 다른 사람이 "제 배에도 있습니다!" 하고 응답했다. 순식간에 금빛 잉어 십여 마리가 한데 모여들었다. 장순은 그중 커다란 것 네 마리를 골라 버들가지로 꿰어, 먼저 이규에게 건네며 정자에 가져다 놓으라고 일렀

다. 그러고는 장순이 직접 생선 장수들을 점검하고, 조수에게 시켜 저울을 가져와 생선을 팔게 했다. 장순은 다시 비파정으로 돌아와 송강을 모시러 왔다.

송강이 고마워하며 말했다. "그리 많이 필요치 않네. 그저 한 마리만 주어도 충분하네." 장순이 대답했다. "이런 사소한 물건이 무엇 대수겠습니까! 형님께서 여기서 다 드시지 못한다면, 나중에 숙소로 가져가 반찬으로 드십시오."

네 사람이 나이를 따져 자리를 잡으니, 이규가 가장 연장자라 세 번째 자리에 앉았고, 장순이 네 번째 자리에 앉았다. 다시 주막 주인에게 명하여 옥호춘(玉壺春) 같은 좋은 술 두 병과 해산물, 안주, 과일 따위를 가져오게 했다. 장순은 주막 주인에게 한 마리는 매운탕으로 끓이고 술을 넣어 찌게 하며, 또 한 마리는 회로 썰어 내라고 일렀다. 네 사람이 술을 마시며 저마다 가슴속에 품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야기가 한창 흥미진진하게 무르익었을 때였다.

열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한 젊은 여인이 비단옷을 입고 나타나, 네 사람 앞에서 깊숙이 절을 올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규가 한창 호걸들의 무용담을 늘어놓으려던 참에 여인의 노래가 끼어드는 바람에, 세 사람 모두 노래를 듣느라 이규의 말문이 막혀버렸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이규가 벌떡 일어나 손가락 두 개를 그 여인의 이마에 척 갖다 대니, 여인이 비명을 지르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와 살펴보니, 여인은 복숭아빛깔 같던 뺨이 흙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은 굳게 다문 채 아무 말이 없

었다. 주막 주인이 앞을 가로막으며 네 사람을 관가에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시로 이르되,

아름다운 여인을 아끼는 마음은 간데없고, 즐거운 흥을 깨뜨려 시비가 일어났구나.

결국 송강 일행 네 사람이 주막에서 어떻게 빠져나갈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39회 — 순양루에서 송강이 반역의 시를 읊고, 양산박에서 대종이 가짜 편지를 전하다

潯陽樓宋江吟反詩 梁山泊戴宗傳假信

이야기는 이러하다. 이규가 손가락으로 여인을 꾹 눌러 쓰러뜨리자, 주점 주인이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네 분 나으리,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주인은 겁이 나서 술을 파는 점원들을 모두 불러와 구제하려 했다. 점원들이 바닥에 물을 뿜어가며 애를 쓴 끝에 여인이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켰다. 확인해 보니 여인의 이마 쪽 살갗이 조금 벗겨져 있었고 그 때문에 여인이 까무러쳤던 것인데, 정신을 차렸으니 천만다행이었다. 여인의 부모는 그가 '흑선풍'이라는 말을 듣고는 한동안 겁에 질려 멍하니 있을 뿐 감히 입도 떼지 못했다. 여인이 스스로 말을 하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손수건을 가져와 여인의 머리를 감싸고 비녀와 장신구도 정리해 주었다. 송강이 물었다. "성씨가 무엇이며, 어디 사는 사람인가요?" 노파가 대답했다. "나으리께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 두 사람은 성이 송씨이며 원래 경사(수도) 사람입니다.

이 딸아이 하나만 있는데 아명이 옥련이고, 그 아비가 곡조 몇 가지를 가르쳐주어 이 비파정에서 노래를 팔아 입에 풀칠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성격이 급해 눈치도 볼 줄 모르고 나으리 말씀은 아랑곳없이 제 노래만 부르다가, 오늘 이 형님께서 실수로 딸을 조금 다치게 했습니다. 설마 관가에 고발하여 나으리들께 폐를 끼치는 일이야 있겠습니까." 송강은 노파의 말이 분수에 맞고 참됨을 보고 말했다. "사람을 시켜 나를 따라 영내로 보내시오. 내가 은자 스무 냥을 줄 테니 딸아이를 돌보며 치료하게 하고, 나중에 좋은 사람에게 시집보내어 다시는 이곳에서 노래를 팔지 않게 하시오." 노부부는 절하며 말했다. "어찌 그런 큰 은혜를 바라겠습니까!" 송강이 말했다. "나는 한 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오. 당신 노인이 직접 나를 따라와서 받아 가시오." 노부부는 다시 절하며 "나으리의 구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대종이 이규를 나무라며 말했다. "이놈아, 네가 걸핏하면 남과 시비를 벌이는 바람에 형님 돈을 또 이렇게 많이 쓰게 만들었느냐!" 이규가 대꾸했다. "손가락으로 살짝 한 번 스쳤을 뿐인데 저절로 쓰러지더라고요. 저렇게 약해 빠진 계집애는 처음 봅니다. 차라리 내 얼굴을 백 대 때리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송강과 일행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장순이 점원을 불러 말했다. "이 술값은 내가 내겠소." 점원이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송강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말했다. "아우님, 내가 두 분을 술 대접하려 모셨는데 어찌 아우가 돈을 내게 한단 말이오!" 장순은 기어코 값을 치르겠다며 말했다. "형님을 뵙기가 이토록 어려운데, 형님이 산동에 계실 때 저희 형제 두 사람도 형님을 찾아뵈려 했습니다. 오늘 다행히 하늘이 도와 형님의 존안을 뵈었으니, 작은 정성이나마 표하는 것일 뿐 예를 차리기에는 부족합니다." 대종이 거들었다. "공명 형님, 장 둘째

아우의 공경하는 마음이니 부디 굽혀 받아주십시오." 송강이 말했다. "아우가 값을 치렀으니, 다음에 다시 잔을 차려 답례하겠소." 장순은 매우 기뻐하며 잉어 두 마리를 챙겨 대종, 이규, 그리고 송 노인을 데리고 송강을 비파정에서 배웅하여 영내로 갔다. 다섯 사람은 모두 초사방(행정 사무실)에 들어가 앉았다. 송강은 먼저 작은 은자 두 덩이 스무 냥을 꺼내 송 노인에게 주었고, 노인은 절을 하고 물러갔다. 날이 이미 저물자, 장순은 물고기를 전해주었고 송강은 장횡의 편지를 꺼내 장순에게 건네준 뒤 작별을 고했다. 송강은 다시 은자 오십 냥짜리 큰 은괴 하나를 꺼내 이규에게 주며 말했다. "아우야, 이걸 가져가서 쓰거라." 대종과 이규도 작별 인사를 나누고 성안으로 돌아갔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송강은 잉어 한 마리를 영내 관리에게 주고, 나머지 한 마리는 자신이 먹으려고 남겨두었다. 송강은 생선이 워낙 싱싱하고 맛이 좋아 욕심을 내어 과식하였는데, 그날 밤 사경(새벽 1시~3시 사이)이 되자 배가 뒤틀리고 속이 뒤집히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날이 밝자마자 설사를 스무 차례 넘게 쏟아낸 송강은 어지러워 정신을 잃고 방에 쓰러져 누웠다. 송강은 평소 인품이 좋아 영내 사람들이 모두 죽을 쑤고 국을 끓여오며 그를 간호하고 시중을 들었다.

다음 날, 장순은 송강이 생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아주 좋은 금빛 대잉어 두 마리를 다시 가져왔다. 송강이 보내준 편지에 담긴 고마운 뜻에 보답하려던 차에, 장순은 송강이 배탈이 나 침상에 쓰러져 있고 죄수들이 모두 방 안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장순이 의원을 불러 치료하려 하자 송강이 말했다. "내가 먹는 것을 탐내 싱싱한 생선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배탈이 났구려. 그저 설사를 멈추게

하는 육화탕(止瀉六和湯) 한 첩만 구해다 주면 괜찮을 것이오." 그러고는 장순에게 이 잉어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왕 관리에게 주고, 나머지 한 마리는 조 차발(差撥, 하급 관리)에게 주라고 일렀다. 장순은 물고기를 전달하고 육화탕 한 첩을 구해 송강에게 준 뒤 돌아갔다. 영내의 사람들이 약을 달여 송강을 정성껏 돌보았다.

다음 날, 대종과 이규가 술과 고기를 준비해 곧장 초사방으로 송강을 문병하러 왔다. 하지만 송강은 갑작스러운 병 때문에 술과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 두 사람은 송강의 방 앞에서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작별을 고하고 떠났다. 이야기는 이로써 일단락된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송강이 영내에서 닷새에서 이레가량 요양하며 몸이 괜찮아지고 병세도 다 나은 것을 느끼자, 성안으로 들어가 대종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루가 더 지났으나 대종이 찾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진패(辰牌, 오전 7시~9시 사이) 무렵이 되자, 송강은 은자를 좀 챙겨 넣고 방문을 잠근 뒤 영내를 나섰다. 그는 한가로이 거리를 거닐다 곧장 성안으로 들어갔다. 먼저 주아(州衙, 주 관청) 왼쪽에서 대원장(대종)의 집을 찾아 물었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그는 노인도 아이도 없이 혼자 지내는데, 성황묘 옆 담벼락에 있는 관음암에서 쉬고 있습니다." 송강은 그 말을 듣고 그곳까지 찾아갔으나, 이미 문을 잠그고 나가 버린 뒤였다. 송강은 다시 '흑선풍' 이규를 찾아 물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은 워낙 정처 없이 떠도는 위인인 데다 처자식도 없어, 그저 뇌옥에 몸을 붙이고 지냅니다. 마치 관할 구역도 없는 순검처럼 동쪽에서 이틀 묵었다 서쪽에

서 한동안 빈둥거리니, 도대체 그가 어디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송강이 또 생선 거간꾼 장순을 찾아 물으니, 역시 어떤 사람이 대답했다. "그는 성 밖 마을에 삽니다. 생선을 팔 때도 그저 성 밖 강가에 있을 뿐이지요. 외상값을 받으러 성안에 들어올 때를 제외하면 말입니다."

송강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성 밖으로 나가 끝까지 찾아보려 했으나, 혼자 몸이라 마음만 답답할 뿐이었다. 그는 한가로이 성 밖을 거닐다 보니 눈앞에 펼쳐진 강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 주루 앞에 다다랐는데,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옆에 세워진 깃대에 푸른 천으로 만든 술집 깃발이 걸려 있었고, 거기에는 '심양강 정고(潯陽江正庫)'라고 쓰여 있었다. 또한 조각된 처마 밖에 걸린 현판에는 소동파가 큰 글씨로 쓴 '심양루(潯陽樓)'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송강은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내가 운성현에 있을 때, 강주에 아주 좋은 심양루가 있다는 말만 들었는데, 그게 바로 여기였구나. 비록 나 혼자뿐이지만, 이 좋은 곳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으니 올라가서 구경이라도 한 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송강이 누각 앞에 이르러 살펴보니, 문 옆의 붉은 화표(華表) 기둥에 세워진 두 개의 하얀 분칠 판에는 각각 다섯 글자씩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세상에 비길 데 없는 술이요, 천하에 이름난 누각이라." 송강은 곧장 누각 위로 올라가 강이 잘 보이는 별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난간에 기대어 눈을 들어 바라보니, 참으로 근사한 주루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조각된 처마엔 햇살이 비치고, 채색된 대들보엔 구름이 흐르네.
푸른 난간은 낮게 처마와 창을 잇고, 비취빛 발은 높이 문과 창가에 걸

렸네.
취한 눈을 아득히 사로잡으니, 푸른 하늘 겹겹이 쌓인 구름 산이 기대어 섰고,
시 읊는 넋을 끌어내니, 온 강의 안개 낀 물결이 상서로운 눈처럼 뒤집히네.
흰 마름 핀 나루터에선 이따금 어부가 뱃전 두드리는 소리 들리고,
붉은 여뀌 핀 여울가에선 매번 낚시하는 노인이 노를 두드리는 모습 보이네.
누각 곁 푸른 회화나무엔 들새가 울고, 문 앞 푸른 버드나무엔 오화마 준마가 매여 있네.

송강은 풍경을 보고 연신 감탄을 터뜨렸다. 주막 점원이 올라와 물었다. "손님, 손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혼자 즐기시겠습니까?"

송강이 말했다. "손님 두 분을 모시려는데 아직 오지 않으셨으니, 우선 좋은 술 한 병을 가져오시오. 과일과 고기 요리는 마음껏 내오되, 생선은 빼고 가져오시오." 점원은 그 말을 듣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잠시 후, 점원이 쟁반을 받쳐 들고 올라왔다. '남교풍월'이라는 이름의 명주 한 병과 채소, 제철 과일이 차려졌고, 술에 곁들일 양고기, 닭고기, 거위 요리, 정갈한 고기 요리 등이 붉은 접시에 담겨 줄지어 놓였다. 송강은 이를 보고 속으로 기뻐하며 혼잣말로 감탄했다.

"음식은 이토록 정갈하고 그릇은 이리도 훌륭하니, 참으로 강주는 살기 좋은 곳이로구나. 내가 죄를 지어 멀리 유배되어 왔으나, 그래도 이런 진경을 구경하게 되니 다행이다. 내 고향에도 명산과 고적들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 이만한 경치는 없구나."

홀로 앉아 술 한 잔에 잔 두 개를 놓고 난간에 기대어 호탕하게 마시다 보니, 어느덧 술기운이 올라 취기가 돌았다. 문득 생각이 떠올라 자책하며 말했다. "나는 산동에서 태어나 운성에서 자랐고, 이리(吏)의 신분으로 살며 강호의 수많은 호걸과 인연을 맺어왔다. 비록 허명이라 해도 이름은 남겼건만, 이제 서른 살이 넘도록 명성도 이루지 못했고 이득도 얻지 못한 채, 도리어 양 볼에 문신을 새기고 이곳까지 유배를 오게 되었구나. 고향에 계신 노부모님과 형제들은 어찌 얼굴을 보겠는가?"

자기도 모르게 술기운이 울컥 치밀어 오르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람을 맞으며 눈앞의 풍경을 보니 서글픈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는 문득 《서강월》 한 수를 지어 부르고는, 점원을 불러 붓과 먹을 가져오라고 일렀다. 자리에서 일어나 구경하다 보니 하얀 벽에 앞서 다녀간 이들이 남긴 시문이 많았다. 송강은 생각했다.

'여기에 글을 남겨두면 어떨까? 만약 훗날 내가 다시 영광을 되찾아 이곳을 지나게 된다면, 오늘의 이 고통을 되새기며 지나온 세월을 다시금 추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는 술기운을 빌려 먹을 진하게 갈고 붓에 먹을 듬뿍 적셔, 하얀 벽 위에 붓을 휘두르며 다음과 같이 써 내려갔다.

어릴 적부터 경전과 역사를 공부했고,
자라나서는 지략과 꾀도 갖추었네.
마치 거친 언덕에 누워 있는 맹호처럼,
발톱과 이빨을 숨긴 채 때를 기다리네.

불행히도 두 뺨에 죄를 새기는 글이 박혔으니, 어찌 강주 땅에 유배됨을 견디겠는가.
훗날 원수를 갚을 날이 온다면, 심양의 강어귀를 피로 붉게 물들이리라.

송강은 글을 다 쓰고 나서 스스로 읽어보고는 크게 기뻐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다시 술을 몇 잔 더 들이켰는데, 어느덧 기분이 좋아져 절로 흥이 난 그는 춤을 추듯 몸을 흔들며 들떠 있었다. 그러더니 다시 붓을 들어 아까 쓴 《서강월》 뒤에 네 구절의 시를 더 써 내려갔다.

시로 이르되,

마음은 산동에 있으나 몸은 오나라 땅에 있어,
강과 바다를 떠도는 부평초 신세 부질없이 탄식만 하네.
훗날 만약 구름을 뚫고 솟구칠 뜻을 이룬다면,
감히 황소(黃巢)조차 대장부가 못 된다 비웃어 주리라!

송강은 시를 다 쓰고 나서 그 뒤에 커다란 글씨로 다섯 글자를 덧붙여 썼다.

「운성 송강 지음.」

글을 다 쓴 그는 붓을 탁자 위에 던져두고는 다시 한 차례 노래를 불렀다. 그러고는 술을 몇 잔 더 마시니 어느덧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취기가 올랐다. 술기운을 이기지 못한 그는 점원을 불러 술값을 계산하게 한 뒤, 은자를 꺼내 남는 돈은 모두 점원에게 상금으로 주고 소매를 휘저으며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영내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갔다. 방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고, 그대로 오경(새벽 3시~5시 사이)까지 푹 잠을 잤다. 술에서 깨어난 송강은 어제 심양루(潯陽樓)에서 시를 남겼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당시에는 술에 잔뜩 취해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니, 말할 것도 없는 일이었다.

한편, 강주 건너편에는 무위군이라 불리는 또 다른 성이 있었는데, 그곳은 참으로 한적하고 외진 곳이었다. 그 성에는 현직에서 물러나 한가로이 지내는 통판(通判, 지방관을 보좌하는 관직) 황문병이 있었는데, 성은 황이고 이름은 문병이었다. 이 사람은 비록 경서를 읽은 선비였으나, 아첨하고 알랑거리는 무리로서 마음씨가 좁고 편협하여 오로지 재능 있는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기만 했다. 자기보다 뛰어난 자는 해치고, 자기보다 못한 자는 농락하며 오로지 고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강주의 채구 지부가 조정의 채 태사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줄을 대기 위해 자주 강을 건너와 채구 지부를 찾아가곤 했다. 채구가 자신을 추천해 주어 다시 관직에 올라 벼슬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송강이 고난을 겪게 된 것도 운명이었으니, 하필이면 이런 원수 같은 자와 마주치고 만 것이다.

그날 황문병은 집에서 한가로이 앉아 있다가 마땅히 소일거리가 없자, 하인 둘을 데리고 제철을 맞은 선물 몇 가지를 사서 챙겼다. 그러고는 직접 빠른 배를 타고 강을 건너 곧장 관아로 채구 지부를 찾아갔다. 마침 지부의 공적인 잔치가 열리고 있었기에 감히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는 다시 배로 돌아왔는데, 마침 하인들이 배를 심양루(潯陽樓) 아래에 매어두고 있었다. 황문병은 날씨가 무척 더운 데다 심심하기도 하여, 누각에 올라가 한바탕 구경하다 갈 생각이었다. 그는 발길 닿는 대로 술 창고 안을 둘러보고는 술집 위층으로 올라가 난간에 기대어 소일하였다. 벽에 적힌 시와 글귀가 무척 많은데, 잘 쓴 것도 있었지만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은 것도 있었다. 황문병은 그것들을 보며 냉소를 머금었다.

그러다 송강이 쓴 《서강월》 사(詞)와 그 뒤에 읊은 네 구절의 시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며 외쳤다. 「이것은 반역의 시가 아닌가? 대체 누가 여기에 쓴 것이냐!」

그 뒤에는 「운성 송강 지음」이라는 다섯 글자가 커다랗게 적혀 있었다. 황문병이 다시 읽어 내려갔다.

「어릴 적부터 경전과 역사를 공부했고, 자라나서도 권모술수에 능했네.」

황문병이 비웃으며 말했다. 「이놈 참으로 자만심이 대단하구나.」

그는 또 읽었다.

「마치 맹호가 거친 언덕에 엎드려, 발톱과 이빨을 숨긴 채 참고 견디는 듯하네.」

황문병이 말했다. 「저놈도 제 분수를 지키지 않는 놈이로군.」

또 읽었다.

「불행히도 양 뺨에 문신을 새겼으니, 어찌 강주에 유배되는 신세를 견디랴.」

황문병이 말했다. 「고결한 뜻을 품은 자도 아니군. 보아하니 그저 죄수병(배군)인 모양이야.」

다시 읽었다.

「훗날 원수를 갚을 날이 오면, 심양강 어귀를 피로 물들이리라.」

황문병이 말했다. 「이놈이 누구에게 복수를 한다는 말이냐? 여기서 분탕질을 치려 들다니! 기껏해야 죄수병 주제에 그래 봤자 무엇에 쓰겠느냐!」

그는 이어 시를 읽었다.

「마음은 산동에 있으나 몸은 오나라에 있고, 강해를 떠도는 나그네 신세에 부질없이 한숨만 짓네.」

황문병이 말했다. 「이 두 구절은 그나마 봐줄 만하구나.」

마지막으로 읽었다.

「훗날 구름 위로 솟구칠 뜻을 이룬다면, 감히 황소(黃巢)도 대장부가 못 된다 비웃으리라!」

황문병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놈 참 무례하구나. 황소를 능가하겠다니, 반란을 꾀하지 않고 무엇을 하겠다는 게냐?」

그는 다시 「운성 송강 지음」이라는 글자를 보더니 말했다. 「이 이름은 나도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마 하급 관리(小吏)일 것이다.」

그는 곧 점원을 불러 물었다. 「이 두 편의 시와 사를 쓴 자가 대체 누구냐?」

점원이 대답했다. 「어젯밤에 어떤 사람이 혼자 술 한 병을 다 비우더니, 취기가 올라 정신없이 휘갈겨 여기에 써놓고 갔습니다.」

황문병이 물었다. 「대충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

점원이 말했다. 「양 뺨에 금빛 문신이 두 줄로 있습니다. 보아하니 뇌성영(牢城營) 안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생김새는 검고 키가 작으며 뚱뚱합니다.」

황문병이 말했다. 「그렇군.」

그는 즉시 붓과 벼루를 빌려 종이 한 폭을 가져다 그 내용을 베껴 쓴 뒤 품속에 숨겼다. 그러고는 점원에게 그 글귀를 절대로 지우지 말라고 당부했다.

황문병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자신의 배로 돌아가 하룻밤을 쉬었다. 다음 날 식사를 마친 뒤, 하인들에게 선물 상자를 짊어지게 하고 곧장 지부의 관아 앞으로 향했다. 마침 채구 지부가 집무를 마치고 관아 안에서 물러나 쉬고 있을 때였으므로, 황문병은 사람을 들여보내 자신이 왔음을 알렸다. 한참 뒤 채구 지부가 사람을 보내 그를 후당으로 초대했다. 채구 지부는 직접 나와 황문병과 안부를 나눈 뒤, 선물을 받고 손님과 주인의 자리를 나누어 앉았다.

황문병이 아뢰었다. 「문병이 어젯밤 강을 건너 지부님을 뵈러 왔으나, 마침 공적인 잔치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감히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시 은상(恩相)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채구 지부가 말했다. 「통판은 나와 심복 같은 사이인데, 어찌 들어와 함께 앉는 것을 마다하겠는가! 내가 미처 마중 나가지 못했으니 내 실책이네.」

곁에 있던 집사들이 차를 올렸다. 차를 다 마시자 황문병이 다시 말했다. 「지부님, 무례를 무릅쓰고 여쭙건대, 최근 존부의 태사 어른께서 사람을 보내신 적은 없으신지요?」

지부가 대답했다. 「엊그제 막 편지가 왔네.」

황문병이 이어 물었다. 「송구하오나, 요즘 도성에는 무슨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지부가 말했다. 「아버님께서 보내신 편지에 이르기를, 최근 태사원(太史院)의 사천감(司天監, 천문을 관장하는 관직)이 밤에 천상을 관

찰하니 강성(罡星)이 오·초(吳楚) 지역을 비추고 있어, 혹시라도 난을 일으킬 자가 있거든 즉시 살펴 소탕하라고 하셨네. 게다가 저잣거리 아이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네 구절의 동요가 떠돈다더군.

'나라를 좀먹는 것은 집 가(家)에 나무 목(木)이요, 병란을 일으키는 것은 물 수(水)에 장인 공(工)이라. 서른여섯이 종횡하니, 산동에서 난리가 나리라.'

이 때문에 아버님께서 나에게 이 지역을 엄중히 지키라고 당부하셨네.」

황문병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웃으며 말했다. 「지부님,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황문병은 소매 속에서 베껴 쓴 시를 꺼내 지부에게 바치며 말했다. 「뜻밖에도 바로 이런 것이 이곳에 있을 줄이야 몰랐습니다.」

채구 지부가 시를 읽어보고는 말했다. 「이것은 반역의 시가 아닌가! 통판은 이것을 어디서 얻었는가?」

황문병이 대답했다. 「소생이 어젯밤 감히 관아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가로 돌아갔다가, 심심한 나머지 심양루(潯陽樓)에 올라 더위를 피하며 앞사람들이 읊은 글귀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얀 벽 위에 누군가 새로 써놓은 이 글을 발견했습니다.」

지부가 물었다. 「대체 어떤 자가 쓴 것이냐?」

황문병이 보고했다. 「지부님, 위에는 이름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운성 송강 지음'이라고 말입니다.」

지부가 다시 물었다. 「그 송강이라는 자는 대체 누구냐?」

황문병이 말했다. 「시 내용에 '불행히도 양 뺨에 문신을 새겼으니, 어찌 강주에 유배된 신세를 견디랴'라고 분명히 적혀 있으니, 보아하니 뇌성영(牢城營)에 죄를 짓고 갇힌 죄수병(배군)임이 분명합니다.」

지부가 말했다. 「기껏해야 죄수병 주제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황문병이 말했다. 「지부님, 이 자를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방금 지부님께서 말씀하신 아버님의 서신 속 동요가 바로 이 자에게 딱 들어맞습니다.」

지부가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는가?」

황문병이 설명했다. 「'나라를 좀먹는 것은 집 가(家)에 나무 목(木)'이라 했으니, 나라의 재물을 축낼 자는 '집 가(家)'자의 머리(갓머리 宀)에 '나무 목(木)'을 붙인 글자, 곧 분명히 '송(宋)'자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 구절 '병란을 일으키는 것은 물 수(水)에 장인 공(工)'이라 한 것은, 병란을 일으킬 자가 물 수(氵) 변에 '장인 공(工)'을 붙인 글자, 곧 분명히 '강(江)'자임을 뜻합니다. 이 자는 성이 송씨요 이름이 강이며 게다가 반역의 시까지 지었으니, 이는 분명 하늘의 운수요 만백성의 복입니다.」

지부가 다시 물었다. 「그럼 '서른여섯이 종횡하니, 산동에서 난리가 나리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황문병이 답했다. 「서른여섯이란 육육(六六)의 해이거나 혹은 육육이라는 수효를 뜻할 것이며, '산동에서 난리가 난다'는 것은 지금 운성현이 바로 산동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네 구절의 동요가 모두 딱 들어맞습니다.」

지부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이 근처에 그자가 있느냐?」

황문병이 보고했다. 「소생이 어젯밤 점원에게 물어보니, 그자가 엊그제 시를 쓰고 떠났다고 합니다.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뇌성영의 죄수 명부를 조사해 보면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부가 감탄하며 말했다. 「통판의 식견이 참으로 명철하구려!」

그러고는 부하를 불러 창고지기에게 뇌성영의 죄수 명부를 가져오게 했다. 부하가 창고에서 명부를 가져오니, 채구 지부가 직접 살펴보았다. 과연 뒤쪽에 지난 5월에 새로 유배되어 온 죄수 중 '운성현 송강'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황문병이 이를 보고 말했다. 「정말로 동요의 내용과 일치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만약 대응이 늦어진다면 소문이 새어 나가 버릴까 두려우니, 서둘러 사람을 보내 붙잡아 옥에 가둔 뒤 다시 의논해야 합니다.」

지부가 말했다. 「참으로 옳은 말이네.」

지부는 즉시 대청에 올라, 두 옥을 관장하는 압뢰절급(兩院押牢節級)을 불러오게 했다. 대종이 대청 아래에서 「예!」 하고 대답하자, 지부가 명령했다. 「너는 나를 위해 포졸들을 데리고 어서 뇌성영(牢城營)으로 내려가, 심양루(潯陽樓)에서 반역의 시를 읊은 죄인 운성현 송강을 붙잡아 오너라.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

대종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속으로 비명이 절로 나왔다. 그는 즉시 관아를 나와 여러 절급과 옥졸들을 점고한 뒤, 각자 집으로 가서 저마다 무기를 챙겨와 내 거처 옆에 있는 성황묘(城隍廟)에 모이라고 명했다. 대종은 사람들에게 지시를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한 뒤, 스스로 신행법(神行法, 매우 빠르게 이동하는 도술)을 펼쳐 먼저 뇌성영으로 달려가 초사방(抄事房, 서류를 관리하는 방)으로 곧장 들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송강이 방 안에 있었다. 송강은 대종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황급히 맞이하며 말했다. 「내가 엊그제 성안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두루 찾아다녔다네. 그런데 자네가 없어 적적한 나머지, 혼자 심양루(潯陽樓)에 올라가 술을 한 병 마셨다네. 요 이틀 정신이 흐릿하니 좋지 않아 여기서 술기운을 달래고 있었네.」

대종이 물었다. 「형님, 엊그제 누각 위에서 대체 무슨 글을 남기신 겁니까?」

송강이 대답했다. 「술에 취해 미친 소리를 한 것을 누가 기억하겠나.」

대종이 말했다. 「방금 지부께서 저를 대청으로 불러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부하들을 많이 거느리고 가서 '심양루에 반역의 시를 써놓은 죄인, 운성현 송강을 직접 붙잡아 관아로 압송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우인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우선 관원들을 성황묘에서 기다리게 하여 안심시켜 두었습니다. 이제 형님께 먼저 이 사실을 알리러 왔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송강은 그 말을 듣고 머리를 긁적이며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탄식했다. 「이번에는 필시 죽게 생겼구나.」

대종이 제안했다. 「형님께 빠져나갈 한 가지 방도를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어떠실지요? 지금 아우가 지체할 수가 없어서, 돌아가서 사람들과 함께 형님을 잡으러 올 것입니다. 그때 형님께서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바닥에 똥오줌을 뿌린 채 그 속에 드러누워 미친 사람 흉내를 내십시오. 저희가 들이닥칠 때 형님께서는 입으로 헛소리를 지껄이며 실성한 사람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지부께 잘 둘러대보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현제의 가르침에 감사하네. 부디 잘 좀 도와주게나.」

대종은 황급히 송강과 작별하고 성안으로 돌아와 성황묘로 향했다. 그는 관원들을 불러 모아 곧장 옥사로 달려가더니, 짐짓 엄하게 물었다. "새로 배정받은 죄인 송강이 누구냐?"

포교가 사람들을 이끌고 초사방으로 안내하니, 그곳에는 송강이 머리를 산발한 채 오물 구덩이 속에 드러누워 뒹굴고 있었다. 송강은 대종과 관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소리쳤다. "네놈들은 대체 어떤 놈들이냐?"

대종은 일부러 크게 호통을 쳤다. "이놈을 잡아라!"

그러자 송강은 눈을 뒤집으며 삿대질을 해대고 입으로는 헛소리를 지껄였다. "나는 옥황상제의 사위다! 장인어른께서 나에게 십만 천병을 거느리고 와서 너희 강주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 염라대왕을 선봉으로 세우고 오도장군을 후방에 배치하여, 나에게 팔백 근이 넘는 황금 인장을 주셨으니, 너희 같은 놈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관원들이 말했다. "알고 보니 정신이 나간 미친놈이었군요. 이런 자를 잡아다가 어디에 쓰겠습니까?"

대종이 대답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일단 가서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다시 잡으러 옵시다."

사람들은 대종을 따라 주 관아로 돌아갔다. 채구 지부는 집무실에서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종과 관원들이 대청 아래에서 지부에게 보고했다. "송강이라는 자는 알고 보니 정신이 나간 미친놈이었습니다. 오물을 뒤집어쓰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입으로는 헛소리를 지껄여대

며, 온몸에서 악취가 진동하여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채구 지부가 이제 막 그 연유를 물으려는데, 황문병이 일찌감치 병풍 뒤에서 나타나 지부에게 말했다.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자가 쓴 시와 글씨를 보니 정신이 나간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분명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어쨌든 일단 잡아 오십시오. 설령 움직이지 못한다면 짊어서라도 가져와야 합니다."

채구 지부가 말했다. "통판의 말이 옳소."

그러고는 대종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그를 잡아 오너라."

대종은 명령을 받들고 속으로 탄식할 뿐이었다. 그는 다시 사람들을 데리고 옥사로 내려가 송강에게 말했다. "형님, 일이 틀어졌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나셔야겠습니다."

대종은 커다란 대나무 바구니를 가져와 송강을 짊어지고 곧장 강주 관아로 가서 대청에 내려놓았다. 지부가 명령했다. "저놈을 끌어내라."

관원들이 송강을 잡아다 계단 아래에 꿇어앉혔다. 그러나 송강은 무릎을 꿇기는커녕 눈을 부릅뜨고 채구 지부를 노려보며 말했다. "네놈은 대체 어떤 놈이기에 감히 나를 심문하려 드느냐! 나는 옥황상제의 사위다! 장인어른께서 나에게 십만 천병을 거느리고 와서 너희 강주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 염라대왕을 선봉으로 세우고 오도장군

을 후방에 배치하며, 나에게 팔백 근이 넘는 황금 인장을 주셨으니, 너도 어서 나를 피해 숨어라. 머지않아 너희를 모두 죽여버릴 테니!"

채구 지부는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황문병이 다시 지부에게 말했다. 「우선 우리 관아의 차발(差撥, 하급 관리)과 패두(牌頭, 포교)를 불러 물어보십시오. 이자가 올 때부터 정신이 나간 상태였는지, 아니면 최근에 갑자기 병이 생긴 것인지 말입니다. 만약 올 때부터 그랬다면 진짜 병증이겠지만, 최근에 갑자기 생긴 것이라면 분명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지부가 말했다. 「그 말이 아주 일리가 있소.」

지부는 즉시 사람을 시켜 관영(管營)과 차발을 불러오게 했다. 지부가 그 두 사람에게 물으니, 그들은 감히 사실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대답했다. 「이 사람이 올 때는 정신이 나간 기색이 전혀 없었는데, 최근 들어 갑자기 이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부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했다. 그는 옥졸들을 불러 송강을 묶어 엎어놓은 뒤, 연달아 쉰 대를 때렸다. 매질이 어찌나 매서운지 송강은 죽었다 살아나기를 거듭하듯 살점이 터지고 피가 철철 흘렀다. 대종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탄식할 뿐, 도저히 손을 쓸 방도가 없었다. 송강은 처음에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버텼으나, 매질을 견디다 못해 결국 자백했다. 「술기운에 잠시 정신이 흐려져 실수로 반역의 시를 썼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채구 지부는 즉시 자백서를 받아낸 뒤, 스물다섯 근짜리 사형수용 칼(枷, 죄인의 목에 씌우는 형구)을 씌워 송강을 대옥에 가두었다. 송

강은 매를 너무 맞아 두 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였기에, 대청에서 칼을 채운 채 그대로 사형수 감옥으로 압송되었다. 다행히 대종이 정성을 다해 힘써 주선하며 어린 옥졸들에게 송강을 잘 살피라고 일러두었다. 대종은 직접 송강의 식사를 챙기며 정성껏 보살폈다.

한편, 채구 지부는 집무실을 물러나 황문병을 후당으로 불러 대접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통판(通判, 부지사급 관리)께서 통찰력이 뛰어나시니, 하관이 하마터면 저놈에게 속아 넘어갈 뻔했소."

황문병이 다시 말했다. "사또, 이 일은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서둘러 서신 한 통을 써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경사(京師, 수도)로 보내 사또의 댁 어른께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또께서 국가의 중대사를 처리하셨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 아닙니까? 서신에는 이렇게 적으십시오. '살려두려면 죄인을 수레에 태워 경사로 압송하게 하시고, 만약 살려둘 필요가 없다면 도중에 도주할까 염려되오니, 이곳에서 즉시 참수하여 큰 화근을 없애도록 허락해 주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황제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채구 지부가 말했다. "통판의 말이 아주 일리가 있소. 하관도 즉시 사람을 시켜 집으로 보내겠소. 서신에는 통판의 공을 치하하는 내용을 담아, 내 아버님께서 천자께 직접 말씀드려 통판께서 하루빨리 높은 관직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소."

황문병이 절하며 대답했다. "소생은 평생 사또의 문하에 의지할 몸이니, 마땅히 그 은혜에 보답해야지요."

황문병은 채구 지부를 부추겨 가문의 서신을 쓰게 하고 인장을 찍게 했다. 황문병이 물었다. "사또, 어떤 심복을 보내실 겁니까?"

지부가 대답했다. "우리 주에는 '신행법'을 부릴 줄 아는 양원절급(兩院節級, 지방의 특수직 관리) 대종이라는 자가 있소. 하루에 팔백 리를 갈 수 있는 자인데, 서둘러 그를 보내 경사로 가게 하면 열흘이면 다녀올 수 있을 것이오."

황문병이 말했다. "그토록 빠르다면 참으로 좋고말고요."

채구 지부는 후당에서 술을 차려 황문병을 대접했다. 황문병은 다음 날 지부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무위군으로 돌아갔다.

한편, 채구 지부는 두 개의 서신 바구니를 준비하고 금과 구슬, 보석 등 값비싼 장신구들을 채워 넣은 뒤 모두 봉투를 붙여 갈무리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지부는 대종을 후당으로 불러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내 이 선물들과 가문의 서신을 동경(東京, 수도)에 있는 태사부(太師府)로 보내려 하오. 우리 아버님의 6월 15일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함인데,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오직 자네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네. 수고스럽더라도 밤낮을 가리지 말고 한 번 다녀와 주게나. 답신을 받아오는 대로 즉시 돌아온다면 내 반드시 두둑이 상을 내리겠네. 자네가 가는 길은 내가 다 꿰뚫고 있으니, 신행법을 써서 가는 날짜를 미리 계산해 두고 자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겠네. 절대로 도중에 지체하여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게."

대종은 그 말을 듣고 감히 거절하지 못했다. 그는 서신과 바구니를 챙겨 지부에게 작별을 고한 뒤, 일단 자기 거처로 돌아가 짐을 정리하고 다시 옥으로 가서 송강에게 말했다.

"형님, 안심하십시오. 지부께서 저를 경사로 보내시는 것이니 열흘이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태사부에 가서 내력을 잘 말해 형님을 구해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매일 드시는 밥은 제가 이규에게 일러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챙겨 보내라고 일러두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며칠만 더 견뎌 주십시오."

송강이 말했다. "부디 아우가 송강의 목숨을 구해주길 바라네."

대종은 이규를 불러 앞에 두고 단단히 당부했다. "네 형님이 반역의 시를 읊는 실수를 저질러 여기서 관재수(官災)를 겪고 있는데, 형편이 어찌 될지 모르겠구나. 나는 이제 경사로 심부름을 가게 되었으니 조만간 돌아올 것이다. 형님의 식사는 아침저녁으로 네가 온전히 잘 보살펴 드려야 한다."

이규가 대답했다. "반역의 시를 좀 읊었다고 뭐가 그리 대수라고! 반역을 일삼는 놈들도 다 높은 관직에 오르지 않습니까? 아우님은 걱정 말고 경사로 다녀오십시오. 이 옥 안에서 누가 감히 형님을 건드리겠습니까? 잘되면 좋고, 만약 잘못된다면 내 이 커다란 도끼로 그놈의 어미를 찍어버릴 테니까요!"

대종은 떠나기 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아우야, 조심해라. 술에 빠져 형님 식사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밖에서 술에 취해 헤매다가 형님을 굶기지 말거라."

이규가 말했다. "형님, 걱정 말고 다녀오십시오. 만약 이런 의심을 사는 시기라면, 저는 오늘부터 당장 술을 끊고 형님이 돌아오시면 그때 다시 마시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옥에서 송강 형님을 모시는 것쯤이야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대종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아우가 정녕 그렇게 마음을 먹어준다면, 형님을 지키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겠구나."

말을 마친 대종은 그 길로 떠났다. 이규는 정말로 술을 끊고 아침저녁으로 옥에서 송강을 모시며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규가 송강을 정성껏 보살피는 동안, 대종은 자기 거처로 돌아가 다리에 두르는 행전(行纏)과 무릎 보호대를 차고 여덟 가닥으로 엮은 삼베 짚신을 신고, 살구색 적삼을 입고 전대(搭膊)를 둘렀다. 허리에는 신분을 증명하는 선패(宣牌)를 꽂고 두건을 고쳐 쓴 뒤, 전대 주머니에 서신과 노자를 챙겨 넣고 서신 바구니 두 개를 짊어졌다. 그는 성 밖으로 나가 몸에 지닌 갑마(甲馬, 말 그림을 그린 종이 부적) 네 개를 꺼내 양쪽 다리에 각각 두 개씩 묶고는, 입으로 신행법의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신행법의 효험이 어떠했는지는 다음과 같다.

마치 안개를 몰고 가는 듯하고, 어렴풋이 구름을 타고 오르는 듯하네.
나는 듯한 두 발은 붉은 먼지를 일으키며, 고개를 넘고 산을 오르는 걸음이 빠르기만 하네.
순식간에 고을을 떠나더니, 잠깐 사이에 또 주성(州城)을 지나치는구나.

종이돈과 갑마(甲馬, 부적)가 과연 신통하여, 천 리 길도 눈앞처럼 가깝네.

그날 대종은 강주를 떠나 하루 종일 달려 저녁 무렵에 어느 객점에 들러 하룻밤 쉬었다. 그는 갑마를 풀어 놓고 여러 다발의 지전(紙錢)을 꺼내 태워 보냈다.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술과 음식을 먹고 객점을 나섰다. 그는 다시 갑마 네 개를 묶고 서신 바구니를 짊어진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귓가에는 바람과 비 소리가 들리고 발은 땅에 닿지 않는 듯했다. 길을 가며 채소 밥과 술, 간식 등으로 끼니를 때우며 계속 걸었다. 어느덧 해가 저물자 대종은 일찍 쉬려고 다시 객점에 들어 하룻밤을 묵었다.

이튿날 오경(새벽녘)에 일어나 서늘할 때 서둘러 길을 나선 그는 다시 갑마를 묶고 서신 바구니를 짊어진 채 길을 떠났다. 이삼백 리쯤 갔을 무렵, 시각은 이미 사패시(巳牌時, 오전 9시~11시 사이)가 되었으나 주변에는 깨끗한 주막 하나 보이지 않았다. 마침 6월 초순이라 날씨가 무척 더워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온몸이 젖어 더위 먹을까 걱정될 정도였다. 한창 목마르고 배고플 때쯤, 저 멀리 앞쪽 숲 옆으로 호숫가에 자리 잡은 주막 하나가 보였다.

대종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앞에 다다라 살펴보니, 아주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었다. 스무 벌 정도의 자리가 있었는데 모두 붉은 기름을 칠한 탁자와 의자였고, 창문은 모두 격자창으로 되어 있었다. 대종은 서신 바구니를 짊어진 채 안으로 들어가 편안한 자리 하나를 골라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허리에 둘렀던 전대를 풀고 살구색 적삼을 벗어 물을 뿜은 뒤 창틀에 널어 말렸다.

대종이 자리에 앉자 점원이 다가와 물었다. "손님, 술은 몇 각이나 드릴까요? 안주로는 고기가 필요하십니까? 돼지고기, 양고기, 혹은 소고기 중에 무엇으로 드릴까요?"

대종이 말했다. "술은 많이 필요 없으니, 그냥 밥이나 한 그릇 지어다 주시오."

점원이 다시 말했다. "이곳은 술과 밥뿐만 아니라 만두와 분탕(粉湯)도 팝니다."

대종이 말했다. "나는 고기나 비린 것은 먹지 않으니, 밥과 함께 먹을 채소 국물이 있소?"

점원이 말했다. "양념을 더한 매콤한 두부조림은 어떻습니까?"

대종이 대답했다. "그게 제일 좋겠소, 좋겠소."

점원이 잠시 자리를 비우더니 곧 두부조림 한 그릇과 채소 두 접시를 내오고, 술 세 사발을 가득 채워 왔다. 대종은 마침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던 터라 술과 두부를 단숨에 먹어 치웠다. 그런데 막 밥을 달라고 하려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눈앞이 아찔해지더니, 그대로 의자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점원이 소리쳤다. "쓰러졌다!"

그때 가게 안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는데, 그 생김새는 이러하였다.

팔은 넓고 다리는 길며 허리는 가늘고,
손님 맞이할 때면 온화한 기운이 넘치네.
양산박의 눈(척후)이 된 영웅이니,
바로 '한지홀률(旱地忽律)' 주귀로다.

그때 주귀가 안에서 걸어 나오며 말했다. "일단 서신 바구니를 안으로 들여놓고, 저놈 몸에 든 게 뭐가 있는지부터 뒤져보게."

그러자 점원 두 명이 달려가 그의 몸을 수색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종이 꾸러미 하나가 나왔는데, 그 안에는 서신 한 통이 들어 있었다. 그것을 가져와 주귀 두령에게 건네자, 주귀가 펼쳐 보니 한 통의 집안 편지였다. 봉투 겉면에는 '평안을 전하는 집안 편지, 백배(百拜)하며 아버님 슬하에 올립니다. 아들 채덕장이 삼가 봉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주귀가 편지를 뜯어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니, 내용은 이러했다. "지금 동요(童謠)의 예언에 들어맞아 반역의 시를 지은 산동의 송강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처분의 분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귀는 편지를 다 읽고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서 말을 잇지 못했다. 점원들이 막 대종을 둘러메고 사람을 잡아 죽이는 작업방으로 끌고 가 배를 가르고 살을 벗기려 할 때였다. 의자 옆에 흘러내린 전대를 보니, 그 위에 주홍색과 녹색 칠을 한 선패(宣牌)가 걸려 있었다. 주귀가 그것을 집어 들어 보니, 은색 글자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강주 양원(兩院) 압뢰절급(押牢節級) 대종.'

주귀가 이를 보고 말했다. "잠깐, 손대지 마라! 내가 평소 군사(軍師)께 듣기로 강주에 '신행태보' 대종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아주 아끼는 지인이라 하셨다. 설마 바로 이 사람인가? 그런데 어찌 송강을 해치는 서신을 보낸단 말인가? 이 편지가 뜻밖에도 하늘이 도와 내 손에 들어왔구나. 점원들은 어서 해독약을 가져와 이 사람을 깨워라. 그리고 무슨 사정인지 진위를 물어봐야겠다."

그때 점원들이 물에 해독약을 타서 대종을 부축해 일으킨 뒤 입에 부어 넣었다. 잠시 후, 대종이 눈썹을 펴고 눈을 번쩍 뜨며 몸을 일으켰다. 주귀가 손에 집안 편지를 펼쳐 들고 읽고 있는 것을 보자 대종이 호통을 쳤다. "네놈은 누구냐? 겁도 없이 몽한약(蒙汗藥)으로 나를 쓰러뜨리다니! 게다가 태사부(太師府)의 서신을 함부로 뜯어 봉피까지 망가뜨렸으니, 이 죄를 어찌 다스릴 것이냐?"

주귀가 웃으며 말했다. "이까짓 편지가 무슨 대수냐! 태사부의 편지를 뜯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이곳에서 대송(大宋) 황제와 맞서 싸울 작정인 사람들이다."

대종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물었다. "호걸이시여, 대체 누구십니까? 존함을 알려주십시오."

주귀가 대답했다. "나는 다녀도 이름을 갈지 않고 앉아서도 성을 바꾸지 않는다. 양산박 호걸 '한지홀률' 주귀가 바로 나다."

대종이 말했다. "양산박의 두령이시라면 오학구(吳學究) 선생을 분명 아시겠군요."

주귀가 말했다. "오학구는 우리 대채(大寨)의 군사로서 병권을 쥐고 계신다. 그대는 어찌 그분을 아는가?"

대종이 말했다. "그분은 저와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주귀가 다시 물었다. "형님은 혹시 군사께서 자주 말씀하시던 강주의 '신행태보' 대원장(戴院長)이 아니십니까?"

대종이 대답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이오."

주귀가 또 물었다. "전번에 송공명(宋公明)이 강주로 유배될 때 우리 산채를 지나갔고, 오 군사께서 그대에게 서신을 한 통 부치셨는데, 어찌하여 지금은 도리어 송삼랑(宋三郎)의 목숨을 해치러 가는 것이오?"

대종이 말했다. "송공명은 나와 더없이 가까운 형제인데, 그가 반역의 시를 읊은 일로 갇혀 구할 길이 없소. 나는 지금 그를 구할 방도를 찾으러 서울로 가려던 참인데, 어찌 그의 목숨을 해치겠소?"

주귀가 말했다. "믿기지 않거든 채구 지부가 보내는 편지를 보시오."

대종은 편지를 읽고는 스스로 크게 놀랐다. 그러고는 오학구가 처음에 부쳤던 편지 이야기와 송공명을 만났던 일, 그리고 송강이 심양루(潯陽樓)에서 술에 취해 실수로 반역의 시를 써넣은 경위를 하나하나 자세히 털어놓았다.

주귀가 말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대원장께서 직접 산채로 가시어 여러 두령과 함께 좋은 방책을 논의합시다. 그래야 송공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오."

주귀는 황급히 술과 음식을 준비하라고 일러 대종을 대접한 뒤, 수정(水亭, 물가 정자)으로 올라가 건너편 항구를 향해 신호용 화살 한 대를 쏘아 올렸다. 신호 화살이 날아가자마자, 이미 기다리고 있던 부하들이 배를 흔들며 다가왔다.

주귀는 대종과 함께 서신을 챙겨 배에서 내린 뒤, 금사탄(金沙灘)에 상륙하여 양산박 산채로 그를 안내했다. 소식을 들은 오용은 서둘러 관문 밖까지 마중을 나갔다. 오용은 대종을 보자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헤어진 지 참으로 오래되었는데, 오늘 무슨 바람이 불어 이곳까지 오셨소! 우선 대채로 들어가 여러 두령과 인사를 나누시지요."

주귀가 대종이 오게 된 경위와, 지금 송공명이 그곳 옥에 갇혀 있는 사정을 전했다. 이 말을 들은 조개는 황급히 대원장을 자리에 앉히고, 송삼랑이 무슨 일로 관가에 잡혀갔는지 그 까닭을 자세히 물었다. 대종은 송강이 반역의 시를 읊게 된 일을 하나하나 상세히 털어놓았다.

조개는 이야기를 다 듣고는 크게 놀라, 즉시 여러 두령에게 인마를 점고하게 하여 산을 내려가 강주를 치고 송삼랑을 구해 산채로 데려오자고 하였다. 그러자 오용이 간언했다. "형님, 경솔하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강주는 이곳에서 길이 매우 멉니다. 군마를 몰고 갔다가 자칫 화를 부르고, 풀을 쳐서 뱀을 놀라게 하듯(打草驚蛇) 하면 오히려 송공명의 목숨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힘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지혜로 빼내야 합니다. 저 오용이 재주는 없으나 작은 계책을 하나 내어, 바로 대원장님을 통해 반드시 송삼랑의 목숨을 구하겠습니다."

조개가 말했다. "군사의 묘책을 듣고 싶소."

오학구가 말했다. "지금 채구 지부가 대원장에게 동경(東京)으로 서신을 보내 태사의 회신을 받아오게 하였으니, 바로 이 편지를 가지고 그 계책을 역이용하는 것입니다(將計就計). 가짜 회신을 한 통 써서 대원장에게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만 적습니다. '죄인 송강을 결코 그곳에서 처형하지 말고, 반드시 은밀히 믿을 만한 관원을 시켜 동경으로 압송하라. 상세히 심문한 뒤에 반드시 처형하여 대중 앞에 본보기로 내걸어 동요(童謠)를 근절하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그를 압송해 이곳을 지나가게 될 때, 우리가 사람을 보내 산을 내려가 빼앗으면 됩니다. 이 계책이 어떻습니까?"

조개가 말했다. "만약 그가 이 길로 지나가지 않는다면, 도리어 큰일을 그르치는 게 아니오!"

그러자 공손승이 말했다. "그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내 원근을 두루 탐문하며 그가 어느 길로 오든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든 빼앗으면 됩니다. 다만 그를 이리로 압송해 오게 만들 수 있을지가 염려될 뿐입니다."

조개가 말했다. "계책은 참 좋소만, 채경의 필체를 흉내 낼 사람이 없지 않소?"

오학구가 말했다. "오용이 이미 마음속으로 다 생각해 두었습니다. 요즘 천하에는 네 명의 서예가가 쓴 글씨가 널리 유행하고 있는데, 바로 소동파, 황노직, 미원장, 그리고 채경입니다. 이들 소·황·미·채 네 사람은 송나라의 '사절(四絶)'이라 불리지요. 저에게 제주성에 아는 수재가 한 명 있습니다. 성은 소요, 이름은 양이라 합니다. 여러 명가의

글씨체를 모두 쓸 줄 알아 사람들이 '성수서생'이라 부르며, 창과 곤봉을 휘두르고 검과 도를 다루는 무예에도 능합니다. 오용이 알기로 그는 채경의 필체를 흉내 낼 수 있으니, 대원장(대종)을 곧장 그 집으로 보내 '태안주 악묘에 비문을 써야 하니, 우선 정착 자금으로 은자 50냥을 보낸다'라고 꾀어 데려오게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을 보내 그의 식구들을 산채로 데려온 뒤, 본인도 함께 무리에 들게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조개가 말했다. "글을 써줄 사람이 있다면 좋겠소. 하지만 도장과 인장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오."

오학구가 다시 말했다. "저에게 또 다른 지인이 한 명 있는데, 이 역시 중원의 일절(一絶)로 제주성에 살고 있습니다. 성은 금, 이름은 대견이라 하며, 비문을 아주 잘 새기고 도장이나 옥석 인장도 솜씨 좋게 다듬으며 창과 곤봉을 쓰는 무예에도 능합니다. 옥석을 아주 잘 조각하기에 사람들이 '옥비장'이라 부르지요. 그에게도 은자 50냥을 가져가 비문을 새겨달라고 꾀어 데려온 뒤, 오는 길 도중에 앞서 말한 방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산채에 들어와도 요긴하게 쓸 데가 있을 것입니다."

조개가 감탄하며 말했다. "묘책이로다!"

그날은 대종을 대접하기 위해 연회를 베풀고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대종에게 (악묘) 태보의 차림새로 분장하게 한 뒤 은자 일이백 냥을 챙겨주었다. 그는 갑마(甲馬, 빠른 걸

음을 부리는 주술용 부적)를 다리에 매고 산을 내려가 배를 타고 금사탄을 건너 상륙한 뒤, 발걸음을 재촉하여 제주성으로 달려갔다. 두 시진도 채 되지 않아 성안에 도착한 대종이 '성수서생' 소양의 거처를 물으니, 어떤 이가 "주아(州衙, 관아) 동쪽 끝 문묘 앞에 삽니다"라고 알려주었다.

대종은 곧장 집 앞으로 가서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물었다. "소양 선생 계십니까?"

그러자 안에서 한 수재가 걸어 나왔다. 그는 대종을 알아보지 못하고 물었다. "태보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지요?"

대종이 예를 갖춘 뒤 말했다. "저는 태안주 악묘에서 공양을 올리는 태보입니다. 이번에 본 사당에서 오악루를 중수하게 되어, 본주의 상호(上戶, 세금을 많이 내는 부유한 집안)에서 비문을 새기고자 합니다. 이에 특별히 은자 50냥을 가져왔으니, 정착 자금으로 쓰시고 선생께서 직접 사당으로 오셔서 글을 좀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날짜를 정해 두었으니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소양이 말했다. "저는 글을 짓고 비석에 새길 글씨를 붉게 쓰는 일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비석을 세우려면 글자를 새길 석공이 따로 필요할 것입니다."

대종이 말했다. "은자 50냥을 더 내어 옥비장 금대견에게 돌을 새기게 할 생각입니다. 좋은 날을 골라 주시고, 부디 그를 찾아 함께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양은 은자 50냥을 받자마자 대종과 함께 금대견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문묘 앞을 지나는데, 소양이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오는 사람이 바로 '옥비장' 금대견입니다."

소양은 즉시 금대견을 불러 세워 대종과 대면하게 하고는, 태안주 악묘에서 오악루를 중수하게 되어 여러 상호가 도비와 각석을 세우려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태보께서 특별히 은자 50냥씩을 가져와 나와 당신 두 사람을 청하러 왔다고 설명했다. 금대견은 은자를 보자 마음속으로 무척 기뻐했다. 두 사람은 대종을 데리고 주막으로 가서 술 세 잔을 사고 채소를 곁들인 음식을 차려 대접했다. 대종은 금대견에게 정착 자금으로 은자 50냥을 건네주며 말했다. "음양사(陰陽人, 길일을 택하는 사람)가 이미 날짜를 골라 두었으니, 두 분께서는 오늘 바로 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양이 말했다. "날이 무척 더우니 오늘 바로 출발한다 해도 갈 길이 그리 멀지 않아 앞길에 숙소를 잡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내일 새벽 오경(五更, 새벽 3시~5시 사이)에 맞춰 문을 나서도록 합시다."

금대견도 말했다. "그게 좋겠소."

두 사람은 내일 일찍 일어나기로 약속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짐을 꾸리기로 했다. 소양은 대종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다.

다음 날 새벽 오경, 금대견이 짐 꾸러미를 챙겨 들고 나와 소양, 대종 세 사람과 함께 길을 나섰다. 제주성을 벗어나 십 리 남짓을 가자 대종이 말했다. "두 분 선생께서는 천천히 오십시오. 재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여러 상호에게 두 분이 오신다고 알려두겠습니다."

그러고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앞서 달려갔다. 짐을 멘 두 사람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한참을 걸어 미시(未時, 오후 1시~3시 사이)쯤 되었을 때, 대략 칠팔십 리쯤 온 것 같았다. 그때 앞쪽에서 휘파람 소리가 울리더니, 산성 고개 아래에서 한 무리의 호걸들이 튀어나왔는데 그 수가 마흔에서 쉰 명쯤 되었다. 그 선두에 선 호걸은 바로 청풍산의 왕애호였다. 그가 크게 외쳤다. "너희 둘은 누구냐? 어디로 가는 길이냐? 얘들아, 저놈들을 잡아다 술안주로 삼자!"

소양이 말했다. "저희는 태안주에 비석을 새기고 글을 쓰러 가는 사람입니다. 가진 재물은 하나도 없고 그저 옷 몇 벌뿐입니다."

왕애호가 호통을 쳤다. "재물이나 옷 따위는 필요 없다! 너희 같은 똑똑한 놈들의 간을 술안주로 삼으려는 것이다!"

소양과 금대견은 마음이 다급해져 각자 품은 재주를 믿고 막대를 치켜든 채 곧장 왕애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왕애호 역시 박도를 휘두르며 두 사람과 맞서 싸웠다. 세 사람이 각자의 무기로 대여섯 합 정도 싸우자, 왕애호가 몸을 돌려 달아나려 했다. 두 사람이 뒤쫓으려는데, 산 위에서 징 소리가 울려 퍼졌다. 왼쪽에서는 '운리금강' 송만이, 오른쪽에서는 '모착천' 두천이 나타났고, 그 뒤로는 '백면낭군' 정천수가 뒤따라 나왔다. 그들은 각각 서른 명 남짓한 부하를 거느리고 달려들어 소양과 금대견을 억지로 끌어당겨 숲속으로 잡아갔다.

네 명의 호걸이 말했다. "두 분은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조개 천왕의 명령을 받들어, 두 분을 특별히 산으로 모셔와 일원으로 삼으러 왔습니다."

소양이 말했다. "산채에서 저희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닭 한 마리 잡을 힘도 없는 선비라 그저 밥이나 축낼 뿐입니다."

두천이 말했다. "첫째는 오 군사가 당신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당신들의 무예 재주를 알고 있어 특별히 대종을 보내 집까지 찾아가 청하게 한 것입니다."

소양과 금대견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곧장 '한지홀률' 주귀의 주막으로 옮겨져 정해진 양의 술과 음식을 대접받았고, 밤을 도와 배를 불러 산 위로 보내졌다. 양산박에 도착하니 조개와 오용, 그리고 여러 두령이 모두 마중 나와 있었다. 그들은 즉시 잔치를 베풀어 대접하며, 채경에게 보낼 답신을 쓰는 일과 두 사람을 양산박의 일원으로 맞아 대의를 함께 모으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오학구에게 매달리며 말했다. "저희가 이곳에서 모시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걱정인 것은 각자 집에 식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관가에서 알게 되면 분명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오용이 말했다. "두 현제께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날이 밝으면 다 밝혀질 것입니다."

그날 밤은 오직 술을 마시고 쉬는 데만 전념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졸개 하나가 달려와 "모두 도착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오용이 말했다. "두 현제께서는 직접 가셔서 가족들을 맞이하십시오."

소양과 금대견은 그 말을 듣고도 반신반의했다. 두 사람이 산 중턱까지 내려가 보니, 정말로 가마 여러 대에 두 집안의 노소(老小, 노인과 아이들)가 실려 산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자세한 사정을 물었다. 노인 한 명이 말했다. "어제 당신들이 집을 나선 뒤에, 갑자기 이 일행이 가마를 타고 나타나더니, 집안 어른들이 성 밖 객주에서 더위를 먹었으니 어서 가족들을 데려와 살피라고 하더랍니다. 성을 나설 때도 저희가 가마에서 내릴 틈도 주지 않고 곧장 여기까지 메고 왔습니다."

두 집안의 사정이 모두 같았다. 소양과 금대견은 이 말을 듣고는 입을 떼지 못한 채, 결국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산채로 들어가 양산박의 일원이 되었다. 두 집안의 가족들을 모두 안착시킨 뒤, 오용은 소양을 불러 채경의 필체를 흉내 내어 송강을 구출할 답신을 쓰는 일을 상의했다. 금대견이 말했다. "전부터 채경의 여러 도서와 이름, 글자들을 새겨왔으니 문제없습니다."

그들은 즉시 작업을 시작하여 답신을 완성했고, 잔치를 베풀어 대접한 뒤 대종에게 출발을 알리며 세세한 지시 사항을 일러주었다. 대종은 여러 두령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산을 내려왔다. 졸개들이 이미 배를 금사탄 건너편까지 실어 나른 덕분에 대종은 주귀의 주막에 도착할 수 있었다. 대종은 네 마리의 갑마(甲馬, 말 모양의 장식물)를 가져다 다리에 묶고는 주귀와 작별한 뒤, 발걸음을 재촉하여 길을 떠났다.

한편, 오용은 대종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을 배웅한 뒤, 여러 두령과 함께 다시 대채로 돌아와 잔치에 참여했다. 한창 술을 마시던 중, 오

용이 갑자기 괴로운 비명을 내지르니 무슨 일인지 알 길이 없었다. 두령들이 물었다. "군사께서 어찌하여 괴로워하십니까?"

오용이 대답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내가 쓴 이 답신이 도리어 대종과 송강의 목숨을 앗아갈 판입니다."

두령들이 크게 놀라 급히 물었다. "군사여, 답신에 대체 어떤 실수가 있었기에 그러십니까?"

오용이 말했다. "내가 앞뒤를 살피지 못하고 서두르다 보니, 글 속에 아주 큰 탈묘(脫卯, 글자나 문장의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생겼소."

그러자 소양이 말했다. "소생이 쓴 글씨는 채 태사의 필체와 똑같고 문장 또한 틀린 데가 없었습니다. 군사님, 부디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알려주십시오."

금대견 또한 말했다. "소생이 새긴 도장과 글자들은 티끌만큼의 오차도 없다고 자부해 왔는데, 어찌 탈묘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오용은 두 손가락을 겹쳐 그 실수가 무엇인지 가리켜 보여주었다.

시로 이르되,

강주성을 뒤흔들며 호걸들이 날뛰고 백룡묘는 끓는 솥처럼 소란스럽구나. 화살과 활이 빗발치는 가운데 목숨을 건지고 칼과 창이 숲을 이룬 곳에서 영웅을 구하리라.

결국… 오용 군사가 말한 그 치명적인 실수가 과연 무엇일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40회 — 양산박 호한들이 법장을 습격하고, 백룡묘 영웅들이 소규모로 의를 모으다

梁山泊好漢劫法場 白龍廟英雄小聚義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시 조개가 사람들에게 물었다. "군사님, 이 서신에 어찌 그런 실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용이 대답했다. "오늘 아침 대종이 가져가던 회신을 제가 잠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서신에 들어간 도장 모양을 미처 보지 못했군요. 저 도장이 어찌 하면 옥저전문(玉箸篆文, 옥젓가락 모양의 정교한 전서체)으로 쓴 한림학사 채경의 네 글자가 아니겠습니까? 저 도장 때문에 대종이 관가에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금대견이 거들었다. "제가 채 태사의 서신이나 글을 볼 때마다 늘 저런 모양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새겼는데, 어찌 빈틈이 생겼단 말입니까?"

오용이 다시 말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강주의 채구 지부는 채 태사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글을 쓰면서 어찌 피해야 할 이름인 휘(諱)를 도장에 그대로 써 넣겠습니까? 바로 그 점 때문에 실수가 생긴 것입니다.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대종이 강주에 도착하면 반드시 심문을 받을 것이고, 실상이 탄로나면 매우 위험해질 것입니다."

조개가 다급히 말했다. "어서 사람을 보내 대종을 불러오게 하시오. 서신을 다시 쓰면 되지 않겠소?"

오용이 말했다. "어떻게 따라잡겠습니까? 그가 신행법을 펼치며 달린다면, 벌써 오백 리는 족히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우리는 이 방법으로 그 둘을 구해야 합니다."

조개가 물었다. "어떻게 구한단 말이오? 어떤 좋은 계책이 있소?"

오용은 조개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주장이 몰래 명령을 내려 사람들에게 알리되,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절대로 날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호걸이 장수의 명령을 받들고 각자 행장을 챙겨 밤을 도와 산을 내려왔다. 그들은 곧장 강주를 향해 달렸으니, 그 과정은 말할 것도 없이 빨랐다.

과연 어떤 계책을 썼을까. 이야기는 이어진다.

한편, 대종은 약속한 날짜를 맞춰 강주에 도착하여 관청 마당에서 곧장 회신을 올렸다. 채구 지부는 대종이 제때 돌아온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먼저 술을 가져오게 하여 세 잔을 내려 보상했다. 그러고는 직접 회신을 건네받으며 물었다. "네가 우리 태사를 뵙고 왔느냐?"

대종이 아뢰었다. "소인은 하룻밤 머물다 바로 돌아왔을 뿐, 은사님을 뵙지는 못했습니다."

지부가 서신의 봉투를 뜯어보니, 앞부분에는 서신함에 담긴 물건들을 모두 거두어들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뒷부분에는 요망한 자 송강에 대하여, 황제께서 직접 살펴보기를 원하시니 반드시 죄수를 옥차(牢車, 죄수를 실어 나르는 수레)에 단단히 가두고 틈이 없게 실어, 명을 받은 관리가 밤을 도와 곧장 경사로 압송하되 도중에 도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서신 끝에는 황문병이 조만간 천자께 보고할 것이니 반드시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말도 적혀 있었다.

채구 지부는 이 글을 읽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은 스물다섯 냥을 가져오게 하여 대종에게 상으로 내리고, 한편으로는 죄수를 수레에 가두고 압송할 사람을 누구로 할지 상의하여 바로 출발시키라고 명령했다. 대종은 감사를 표하고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 술과 고기를 좀 사 들고 감옥으로 가서 송강을 살피러 갔으니, 그 과정은 말할 것도 없이 자연스러웠다.

한편, 채구 지부는 죄수를 가두는 옥차를 서둘러 준비하게 했다. 하루 이틀이 지나 마침 출발하려던 참에, 문지기가 들어와 보고했다. "무위군의 황 통판께서 특별히 찾아오셨습니다."

채구 지부는 그를 후당으로 불러 만나게 했다. 황문병은 제철을 맞은 술과 과일 등 선물을 가져왔다. 지부가 말했다. "과분한 정성을 보내주시니, 제가 어찌 다 갚겠습니까."

황문병이 말했다. "시골뜨기의 보잘것없는 물건인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부가 다시 말했다. "조만간 반드시 영광스러운 승진의 경사가 있을 것이니 축하드립니다."

황문병이 물었다. "지부님께서는 어찌 그것을 아십니까?"

지부가 대답했다. "어제 서신을 전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요망한 자 송강을 경사로 압송하라고 하더군요. 통판께서 조만간 황제께 보고만 올리시면 높은 관직으로 승진할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보내신 회신에 그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황문병이 말했다. "그렇다면 은상의 추천에 깊이 감사드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서신을 전한 그 사람은 참으로 신행법을 쓰는 신인(神人)이군요."

지부가 말했다. "통판께서 믿기지 않으신다면 제 집안의 서신을 직접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황문병이 말했다. "소생은 감히 집안 서신을 함부로 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지부가 흔쾌히 말했다. "통판께서는 저와 심복 같은 사이인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지부는 즉시 종을 시켜 집안 서신을 가져오게 하여 황문병에게 건네주었다. 황문병은 서신을 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었다. 다 읽고 나서 봉투를 살펴보니 도장의 모양이 아주 새것 같았다. 황문병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서신은 진짜가 아닙니다."

지부가 의아해하며 말했다. "통판께서 틀리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아버님께서 직접 쓰신 필체이자 진짜 글씨인데, 어찌 진짜가 아니란 말입니까?"

황문병이 말했다. "지부님,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평소에 오가는 집안 서신에 이런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까?"

지부가 대답했다. "평소에 오가는 서신에는 이런 도장이 없었습니다. 그저 손 가는 대로 쓰셨을 뿐이지요. 이번에는 마침 도장함이 손 닿는 곳에 있기에 봉투에 이 도장을 찍은 것뿐입니다."

황문병이 말했다. "지부님, 제가 참견한다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이 서신은 누군가 지부님을 속인 것입니다. 지금 천하에 소식(蘇軾)·황정견(黃庭堅)·미불(米芾)·채경(蔡京) 네 사람의 글씨체가 널리 퍼져 있는데, 이를 익히지 않은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 도장은 지부님의 아버님께서 한림학사로 계실 때 쓰시던 것이라, 법첩(法帖, 서예의 본보기)을 통해 이미 많은 사람이 본 것입니다. 이제 태사 겸 승상까지 오르셨는데, 어찌 한림학사 시절에 쓰던 도장을 다시 쓰시겠습니까? 게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찌 피해야 할 이름인 휘

(諱)를 도장에 그대로 쓰겠습니까? 지부님의 아버님이신 태사 은상께서는 천하를 꿰뚫어 보시는 명철하고 안목 높은 분이신데, 어찌 그런 경솔한 실수를 하시겠습니까? 만약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신다면, 서신을 전한 자를 자세히 심문하여 관아의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사실과 다르다면 이것은 가짜 서신입니다. 저를 두터이 아껴주시는 마음에 감히 주제넘은 말을 올리는 것이니 부디 나무라지 마십시오."

채구 지부는 그 말을 듣고 말했다. "그 일은 어렵지 않다. 그자가 원래 도성에 온 적이 없으니, 자세히 물어보면 곧 진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채구 지부는 황문병을 병풍 뒤에 앉아 기다리게 한 뒤, 곧바로 집무실로 올라가 대종에게 맡길 일이 있다며 그를 불러오라 했다. 그러자 포졸들이 명령을 받들고 사방으로 흩어져 대종을 찾아 나섰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반역의 시와 가짜 편지가 서로 얽히니,
양산박 도적들과 결탁한 탓이라.
황봉(황문병)이 아픈 곳을 찌르지 않았던들,
채씨 거북(채구 지부)이 아무리 크다 한들 모두 헛되었으리.

한편, 대종은 강주로 돌아오자마자 먼저 감옥으로 가서 송강을 만났다. 그는 송강의 귀에 대고 지난 일을 낮게 속삭이며 말해주었고, 송강은 마음속으로 은밀히 기뻐했다. 이튿날, 대종이 주막에서 술을 마시

고 있는데 누군가 그를 술자리에 초대했다. 그때 관청의 하급 관리가 사방으로 그를 찾아다니더니, 대종을 집무실로 불러냈다.

채구 지부가 대종을 불러 묻기를, "지난번에 고생하며 먼 길을 다녀오느라 참으로 일을 잘 처리해주었는데, 내가 아직 제대로 상을 주지 못했구나."

대종이 대답했다. "소인은 은사님의 명을 받들어 움직이는 사람인데, 어찌 감히 게을리하겠습니까?"

지부가 다시 물었다. "요 며칠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네 사정을 자세히 묻지 못했다. 너는 지난번에 나와 함께 도성에 갔을 때, 어느 문으로 들어갔느냐?"

대종이 말했다. "도성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문 뒤라, 그 문이 무슨 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부가 또 물었다. "우리 관아 문앞에서 누가 너를 맞이했느냐? 그리고 너를 어디에 머물게 했느냐?"

대종이 대답했다. "관아 앞에 도착하니 문지기 하나가 저를 맞아 서신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 문지기가 나와서 서신 바구니를 받아 가더니, 소인에게는 알아서 객주를 찾아가 쉬라고 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다섯 시경에 다시 관아 문앞으로 마중을 나갔더니, 그 문지기가 회신을 들고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인은 날짜를 어길까 두려워 차마 자세한 것을 더 묻지 못하고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지부가 다시 물었다. "우리 관아의 그 문지기가 어떻게 생겼더냐? 나이가 어느 정도였느냐? 검고 마른 체격이었느냐, 아니면 희고 통통한 체격이었느냐? 키가 컸느냐, 아니면 작았느냐? 수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대종이 말했다. "관아에 도착했을 때는 날이 어두웠고, 다음 날 돌아올 때도 새벽 다섯 시라 날이 희미했습니다. 아주 자세히 보지는 못했으나, 키가 아주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체격이었고 수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부는 크게 노하여 호통을 쳤다. "저놈을 끌어내라!"

곁에 있던 십여 명의 옥졸과 뇌자(牢子, 감옥지기)들이 달려들어 대종을 바닥에 거꾸러뜨렸다. 대종이 외쳤다. "소인은 죄가 없습니다!"

지부가 호통을 쳤다. "이놈,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우리 관아의 늙은 문지기 왕공(王公)은 죽은 지 벌써 몇 년이나 되었다. 지금은 그저 어린 왕가(小王)가 문을 지키고 있을 뿐인데, 어찌 나이가 많고 수염까지 났다느니 하는 소리를 지껄이느냐? 게다가 문지기인 소왕은 관아 안채(府堂)까지 들어갈 수도 없다. 각지에서 온 서신이나 봉투는 반드시 부당(府堂)의 장 간판(張幹辦)을 거쳐야 비로소 이도관(李都管)에게 가서 보이고, 그런 다음에야 안쪽에 전해져 선물을 받는 법이다. 회신을 받으려 해도 사흘은 기다려야 한단 말이다. 그런데 내가 보낸 이 두 바구니 물건을, 어찌 심복 하나 나와서 평소의 절차를 자세히 묻지도 않고 이따위로 함부로 받아버렸단 말이냐! 어제는 내가 워낙 경황이

없어 네놈에게 속아 넘어갔다. 이제 숨기지 말고 똑바로 불어라. 이 서신을 어디서 얻었느냐!"

대종이 말했다. "소인이 잠시 당황한 데다 길을 서둘러야 하는 바람에 미처 자세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채구 지부가 호통을 쳤다. "헛소리 마라! 이 도둑놈 같은 놈,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여봐라, 힘껏 저놈을 쳐라!"

상황이 좋지 않음을 직감한 옥졸과 뇌자(牢子, 감옥지기)들은 차마 그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채, 대종을 꽁꽁 묶어 바닥에 엎어놓고 살점이 터져 나가고 선혈이 낭자할 정도로 사정없이 매질을 해댔다. 대종은 모진 고문을 견디다 못해 결국 자백했다. "이 서신은 정말 가짜입니다."

지부가 물었다. "이놈, 어찌하여 이런 가짜 서신을 손에 넣었느냐?"

대종이 고했다. "소인이 양산박을 지나다가 그 강도 무리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붙잡아 산으로 끌고 가서는 배를 가르고 심장을 꺼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다 제 몸에서 서신을 찾아내어 읽어보더니, 서신이 든 바구니를 전부 빼앗고는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봐야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을 알고 산에서 굶어 죽으려 하니, 그들이 저더러 이 서신을 가지고 돌아가 몸을 빼내 보라고 이 편지를 써준 것입니다. 소인이 죄를 입을까 두려워 은상(채구 지부)께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지부가 말했다. "그럴듯한 구석이 있긴 하나 중간중간 헛소리가 섞여 있구나. 네놈이 양산박 도적들과 내통하여 내 서신 바구니와 물건들을 가로채려 한 것이 분명한데, 어찌 그런 말을 지껄이느냐? 여봐라, 저놈을 다시 쳐라!"

대종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양산박과 내통했다는 사실만큼은 끝내 자백하지 않았다. 채구 지부가 다시 한번 대종을 심문했으나 대답이 앞뒤가 똑같았다. 지부가 말했다. "더 물을 필요도 없겠다. 커다란 칼(가형, 목을 죄는 형구)을 가져와 씌우고 감옥에 가두어라."

그러고는 집무실을 물러나며 황문병에게 감사를 표했다. "통판의 식견이 아니었다면, 소관이 하마터면 큰일을 그르칠 뻔했습니다."

황문병이 다시 말했다. "이놈을 보니 양산박과 연계하여 함께 모의하고 반역의 무리를 이룬 자임이 분명합니다. 만약 이들을 뿌리 뽑지 않는다면 반드시 후환이 될 것입니다."

지부가 말했다. "그럼 이 두 놈의 자백을 받아 조서를 작성하고 문서를 꾸민 뒤, 시조(市曹, 저자 형장)로 압송하여 참수하고, 조정에 보고할 상소문을 올리도록 하라."

황문병이 말했다. "사또의 식견이 참으로 명철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첫째로 조정에서 사또의 큰 공을 알게 될 것이요, 둘째로는 양산박 도적들이 감옥을 습격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부가 말했다. "통판의 안목이 매우 멀리 내다보시는군요. 소관이 마땅히 문서를 올려 통판을 직접 추천하겠습니다."

그날 지부는 황문병을 대접하여 관아 문밖까지 배웅했고, 황문병은 무위군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채구 지부가 집무실로 나아가 담당 기록관인 공목을 불러 명령했다. "어서 문서를 꾸며서 송강과 대종의 자백서를 붙여라. 죄목을 적은 패를 작성하여 내일 저잣거리(市曹)로 압송해 참수하도록 준비하라. 예로부터 반역을 꾀한 자는 결코 때를 기다려주지 않는 법이니, 송강과 대종을 속히 베어 후환을 없애야 한다."

사건을 기록하던 공목은 다름 아닌 황(黃) 공목이었다. 그는 본래 대종과 사이가 꽤 좋았으나, 힘이 닿지 않아 그를 구해줄 길은 없고 그저 대신 안타까워할 뿐이었다. 황 공목이 보고했다. "내일은 국가의 기일(忌日)이고, 모레는 칠월 보름 중원절이니 형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날 역시 국가의 큰 경명(景命, 길일)입니다. 하여 닷새가 지나야 비로소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늘이 송강을 도운 덕분이기도 했고, 양산박의 호걸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채구 지부는 황 공목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드디어 여섯째 날 아침이 되자, 먼저 사람을 보내 사거리의 처형장을 청소하게 했다. 점심을 먹은 뒤에는 토병(지방 군사)과 칼을 든 망나니 등 오백여 명을 불러 모아 대감옥 문 앞에서 대기하게 했다. 사패(巳牌, 오전 9시~11시 사이) 무렵이 되자 옥관이 지부에게 보고하였고, 지부는 직접 감참관(監斬官)이 되어 처형을 감독했다. 황 공목은 죄목이 적힌 패를 올린 뒤, 집무실에서 직접 '참수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그 위에 갈대 돗

자리를 붙였다. 강주 관아의 수많은 하급 옥리(節級)와 옥졸(牢子)들이 비록 송강, 대종과 사이가 좋았으나, 그들을 구할 방도가 없어 그저 두 사람을 위해 안타까워하며 탄식할 뿐이었다.

그사이 처형 준비가 모두 끝났다. 감옥 안에서 송강과 대종을 꽁꽁 묶은 뒤, 머리카락에 풀을 발라 거위배 모양의 상투를 틀고 붉은 비단 종이꽃을 하나씩 꽂아 주었다. 이어 청면성자(青面聖者)의 신단 앞으로 그들을 몰고 가, 마지막 식사인 장휴반(長休飯)과 작별의 술인 영별주(永別酒)를 한 사발씩 대접했다. 음식을 다 먹은 뒤 신단에 절을 올리고 몸을 돌려 처형대에 올랐다. 예순에서 일흔 명에 달하는 옥졸들이 송강을 앞세우고 대종을 뒤에 세워 감옥 문밖으로 밀어냈다. 송강과 대종은 서로를 마주 보았으나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송강은 그저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고, 대종은 고개를 떨군 채 한숨만 내쉬었다. 처형장을 구경하러 온 강주 사람들은 어깨가 맞닿고 등이 겹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니, 그 수가 어찌 천 명, 이천 명뿐이겠는가. 그 광경은 이러하였다.

슬픈 구름은 흐릿하고, 원망하는 기운은 자욱하구나.
머리 위 햇살은 빛을 잃었고, 사방에선 슬픈 바람이 거칠게 울부짖네.
창과 칼이 짝을 지어 마주하니, 북소리 몇 번에 삼혼(三魂)이 다 빠져나가고;
몽둥이와 곤봉이 빽빽이 늘어서니, 징소리 몇 번에 칠백(七魄)마저 흩어지네.
죄목을 적은 패가 높이 붙어 있으니, 사람들은 저들이 언제 돌아올까 묻고;

하얀 종이꽃 한 쌍이 흔들거리니, 모두들 이번에는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 하네.

마지막 식사인 장휴반은 목구멍에 걸려 삼키기 어렵고, 작별의 술인 영별주는 입안에서 도무지 넘어가지 않는구나! 험상궂은 망나니들은 강철 칼을 휘두르고, 추악한 옥졸들은 형구(刑具)를 들고 서 있네. 검은 큰 깃발(纛) 아래에는 수많은 도깨비가 뒤따르고, 네거리 어귀에는 무수한 망령들이 기다리고 있구나. 감참관(監斬官)은 바삐 명령을 내리고, 시신을 운반할 오작(仵作)은 시체를 메고 나갈 준비를 하네.

망나니들이 악을 쓰며 처형을 알리자, 옥졸들은 송강과 대종을 앞뒤로 밀고 몰아붙이며 저잣거리(市曹)의 네거리로 압송했다. 사람들은 창과 몽둥이로 그들을 둥그렇게 에워쌌고, 송강은 얼굴을 남쪽으로 등을 북쪽으로 향하게, 대종은 얼굴을 북쪽으로 등을 남쪽으로 향하게 하여 차례로 자리에 앉혔다. 오시 삼각(午時三刻, 정오 무렵)이 되어 감참관(監斬官)이 도착해 칼을 휘두르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구경꾼들은 죄목이 적힌 패를 올려다보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주부 죄인 송강은 반역적인 시를 읊고 요망한 말을 퍼뜨렸으며, 양산박의 강도들과 결탁하여 함께 모반하였으므로 법에 따라 참수한다. 죄인 대종은 송강과 몰래 서신을 주고받으며 양산박의 강도들과 결탁하여 함께 모반을 도모하였으므로 법에 따라 참수한다. 감참관 강주부 지부 채 모(蔡某)."

그때 지부가 말을 멈춰 세우고 보고가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보니, 법장 동쪽에서는 뱀을 부리는 거지 무리가 억지로 법장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 하여 토병들이 밀어내며 때렸으나 좀처럼 물러나지 않았다. 한창 실랑이를 벌이는데, 이번에는 법장 서쪽에서 창과 몽둥이를 휘두르며 약을 파는 무리가 역시 억지로 밀고 들어왔다. 토병이 호통을 쳤다. "이놈들, 도대체 눈치도 없느냐! 여기가 어디라고 멋대로 밀고 들어와 구경을 하려 들어!"

그러자 창과 몽둥이를 든 무리가 대꾸했다. "네놈이야말로 촌뜨기로구나! 우리는 주(州)와 부(府)를 두루 들이닥치며 안 가본 곳이 없고, 어디서든 사람 처형하는 구경을 하는 놈들이다. 설령 경사(京師)에서 천자가 사람을 죽인다 해도 구경은 하게 해주는 법이다. 이까짓 작은 곳에서 사람 두 명 죽인다고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으냐? 우리도 그냥 들어와서 좀 보겠다는데 뭐가 그리 대수냐!"

토병들과 한창 싸움이 벌어지려는데, 감참관이 소리쳤다. "어서 쫓아버려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

소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법장 남쪽에서 짐을 지고 가는 짐꾼 무리가 또 밀고 들어오려 했다. 토병이 꾸짖었다. "여기서 사람을 죽이는 중인데, 그 짐을 어디로 가져가겠다는 거냐?"

짐꾼 무리가 말했다. "우리는 지부 나리께 물건을 가져다드리는 길이다. 네놈들이 감히 우리를 막아서느냐?"

토병이 말했다. "나리 댁 사람이라 해도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자 짐꾼들은 짐을 내려놓고는 멜대(匾擔)를 뽑아 들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서서 구경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법장 북쪽에서 객상 무리가 수레 두 대를 밀고 오더니, 기어코 법장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토병이 소리쳤다. "이놈들, 어디로 가는 길이냐?"

객상이 대답했다. "우리는 길을 서둘러 가야 하니, 우리를 지나가게 해주시오."

토병이 말했다. "여기서 사람을 죽이는데 어찌 보내주겠느냐? 길을 서두르고 싶으면 다른 길로 돌아가거라!"

객상들이 비웃으며 말했다. "말 참 잘하는구나! 우리는 바로 경사(京師)에서 온 사람들이라, 이 빌어먹을 좁은 길 따위는 알지 못한다. 그저 이 큰길로 갈 뿐이다!"

토병이 허락할 리 없었기에, 객상들은 일제히 길을 막고 서서 움직이지 않았고 사방에서 소란이 끊이지 않았다. 채구 지부는 이 소란을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저 객상들까지 수레 위에 올라타 버티고 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법장 가운데 사람들이 갈라진 틈으로 한 전령이 외쳤다. "오시 삼각(午時三刻, 정오 무렵)이다!"

그러자 감참관이 명령했다. "처형을 마치면 보고하라."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칼과 몽둥이를 든 망나니들이 달려들어 죄수들의 칼(枷, 죄수를 결박하는 나무틀)을 풀어헤쳤고, 집행관들은 법도

에 맞는 처형용 칼을 손에 쥐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 눈을 크게 뜨고 보려 하면 이미 늦었고,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소란스러운 움직임이 일제히 터져 나왔다.

그때 수레 위에 있던 객상 무리가 '참수하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 중 한 객상이 품속에서 작은 징을 꺼내더니 수레 위에 서서 챙챙 소리가 나도록 두세 번 두드렸다. 그러자 사방에서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한가로이 흥에 겨워 강가 누각에 오르니,
아득한 안개와 물결이 하얀 가을 하늘에 맞닿았네.
술을 불러 천 년의 한을 마구 쏟아붓고,
시를 읊어 백 겹의 시름을 쏟아내려 하네.
기러기가 전하는 소식에 영웅의 뜻은 이루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 도리어 감옥에 갇히고 말았구나.
양산의 의로운 형제들을 뒤흔드니,
모두가 구름처럼 몰려와 강주를 뒤흔드네.

또 보니, 십자 교차로에 있는 찻집 누각 위에 호랑이처럼 덩치가 크고 검은 사내 하나가 있었다. 그는 옷을 홀랑 벗어 던진 채 양손에 판부(板斧, 날이 넓은 도끼)를 하나씩 쥐고는, 마치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커다란 포효를 내지르며 공중에서 뛰어내렸다. 사내가 도끼를 휘두르며 내려찍자, 집행을 하려던 망나니 둘이 순식간에 나동그라졌다.

사내는 곧장 감참관의 말 앞으로 도끼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토병들이 급히 창을 내질러 막으려 했으나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었고, 사람들은 모두 채구 지부를 에워싸고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바빴다.

동쪽에서는 뱀을 부리던 거지 무리가 품속에서 날카로운 칼을 뽑아 들고는 토병들을 향해 달려들며 칼질을 해댔고, 서쪽에서는 창봉을 휘두르던 무리가 크게 함성을 지르며 앞뒤 가리지 않고 난도질을 해대니 토병과 옥졸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남쪽에서는 짐을 짊어지고 가던 짐꾼들이 지게를 휘둘러 사방으로 내동댕이치니 토병들과 구경하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동그라졌다. 북쪽에서는 객상 무리가 수레에서 뛰어내려 수레를 밀어붙이며 사람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그중 두 명의 객상이 안으로 파고들어 한 명은 송강을 등에 업고, 다른 한 명은 대종을 등에 업었다. 나머지 사람들도 어떤 이는 활과 화살을 꺼내 쏘고, 어떤 이는 돌멩이를 던지며, 또 어떤 이는 투창을 던져 공격했다.

알고 보니 객상으로 변장했던 무리는 조개, 화영, 황신, 여방, 곽성이었고, 창봉을 휘두르던 무리는 연순, 유당, 두천, 송만이었으며, 짐꾼으로 변장했던 무리는 주귀, 왕왜호, 정천수, 석용이었고, 거지로 변장했던 무리는 완소이, 완소오, 완소칠, 백승이었다. 이처럼 양산박의 두령 17명과 그들을 따르는 부하 100여 명이 한데 어우러져 사방에서 몰아치며 싸우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뒤엉킨 무리 속에서 그 검은 사내는 양손에 판부(板斧)를 휘두르며 앞뒤 가리지 않고 난도질을 해댔다. 조개 일행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으나, 그가 가장 먼저 나서서 가장 많은 사람을 베어

넘기는 것을 보았다. 그제야 조개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생각했다. '대종이 말하기를, 흑선풍 이규라는 자가 송강과 가장 친한 사이인데 아주 성미가 급하고 거친 사람이라고 했었지.' 조개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앞에 계신 호걸께서는 혹시 흑선풍이 아니시오?" 하지만 사내는 응하려 하지 않고 씩씩거리며 커다란 도끼를 휘두르며 사람들을 베어 넘길 뿐이었다. 조개는 송강과 대종을 등에 업고 있던 두 부하에게 그 검은 사내를 따라가라고 명령했다.

일행이 십자 교차로로 내려가자, 군관이든 백성이든 가릴 것 없이 휘몰아치는 칼날에 시체가 들판을 메우고 피가 도랑처럼 흘러넘쳤으며, 쓰러지고 뒤집힌 것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두령들은 수레와 짐을 내팽개치고 모두 검은 사내를 따라 성 밖으로 돌진했다. 뒤를 따르던 화영, 황신, 여방, 곽성은 활을 들어 메뚜기 떼가 날아다니듯 뒤쪽을 향해 화살을 퍼부었다. 강주의 군민과 백성들 중 그 누가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겠는가? 검은 사내는 강변에 이를 때까지 온몸에 피를 뒤집어쓴 채 쉼 없이 사람들을 베어 넘겼다. 조개가 박도를 치켜들고 외쳤다. "백성들은 상관없으니 함부로 사람을 해치지 마시오!" 그러나 사내는 그 외침을 들을 리 만무했고,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한 명씩 차례로 베어 넘기며 앞장서 나갔다.

성을 벗어나 강변을 따라 5~7리쯤 달려갔을 때,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넓은 강물뿐이라 더 이상 육로가 없었다. 조개는 그 광경을 보고 탄식을 내뱉었다. 그제야 검은 사내가 외쳤다. "당황하지 마시오! 우선 형님들을 모시고 저 사당으로 가시오!"

모두가 살펴보니 강변에 커다란 사당 하나가 있었는데, 두 짝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검은 사내가 양손의 도끼로 문을 박차고 열더니 안으로 들이닥쳤다. 조개 일행이 보니 사당 양옆으로는 오래된 잣나무와 푸른 소나무가 우거져 숲을 이루고 있었고, 앞쪽 현판에는 금색 글씨로 '백룡신묘'라는 네 글자가 크게 쓰여 있었다. 부하들이 송강과 대종을 사당 안으로 업고 들어가 잠시 쉬게 하자, 그제야 송강은 눈을 뜨고 조개 일행을 발견하고는 울먹이며 말했다. "형님, 혹시 꿈속에서 만난 것입니까?" 조개가 그를 달래며 말했다. "의형님께서 산에 머물지 않으시니 오늘 같은 고초를 겪게 된 것이오. 그런데 저기서 힘껏 싸우던 검은 사내는 누구시오?" 송강이 대답했다. "저자가 바로 '흑선풍' 이규입니다. 저자가 몇 번이고 감옥에서 저를 꺼내 주려 했으나, 제가 도망치지 못할까 두려워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개가 말했다. "과연 저 자가 가장 큰 힘을 보태는구려. 칼과 도끼, 화살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말이오."

그때 화영이 "두 형님께 옷을 갈아입혀 드리라"고 일렀다. 한창 모여 있는데 이규가 양손에 도끼를 들고 복도 쪽에서 걸어 나왔다. 송강이 그를 불러 세우며 물었다. "아우님,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인가?" 이규가 대답했다. "그 빌어먹을 사당지기를 찾아가 단숨에 죽여버리려 했는데, 그놈이 우리를 맞으러 나오기는커녕 사당 문을 꽉 닫아걸었지 뭡니까. 그놈을 잡아다 문 앞에 제물로 바치려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일단 이쪽으로 오게. 먼저 우리 형님과 두령님들을 만나야 하네." 이규는 그 말을 듣고 도끼를 내려놓더니, 조개를 향해 무릎을 꿇고 절하며 말했다. "형님, 이 철우가 거칠게 행동한 것을 부디 꾸짖지 마십시오."

이규가 모두와 인사를 나누던 중, 주귀가 고향 사람임을 알아보고 두 사람은 매우 반가워했다. 화영이 말했다. "형님, 아우님께 사람들에게 이규 형님만 따라가라고 일러두었으나, 막상 여기까지 오니 앞에는 큰 강이 가로막고 있어 길이 끊겼습니다. 마중 나올 배 한 척 없으니, 만약 성안의 관군이 쫓아오면 어떻게 맞서 싸우고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이규가 즉시 대답했다. "당황하지 마시오! 내가 다시 성안으로 쳐들어 들어가서, 그 빌어먹을 채구 지부 놈까지 모조리 베어버리고 나서 떠나면 되지 않소."

그제야 정신이 든 대종이 외쳤다. "아우님, 너무 무모하게 굴어서는 안 되오. 성안에는 오칠천 명의 군마가 있으니, 섣불리 쳐들어갔다가는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오." 이때 완소칠이 말했다. "강 건너 멀리 보니 저기 강가에 배가 몇 척 보입니다. 우리 삼 형제가 물로 건너가 저 배들을 빼앗아 와서 일행을 태워 나르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개가 말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계책이오."

그때 완씨 삼 형제는 옷을 모두 벗어 던지고 각자 날카로운 칼 한 자루씩을 허리에 찬 채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반 리쯤 헤엄쳐 갔을 무렵, 강 상류에서 노를 젓는 배 세 척이 물살을 타고 내려오더니 바람 소리를 휘몰아치며 마치 날아오듯 무서운 기세로 다가왔다. 사람들이 살펴보니 배마다 십수 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손에 무기를 들고 있어 일행은 덜컥 겁이 났다. 송강은 이 소식을 듣고 "내 팔자가 어찌 이리도 기구하단 말인가"라며 탄식했다. 그가 사당 앞으로 달려나가 살펴보니, 맨 앞의 배에는 한 사내가 앉아 있었다. 그는 번쩍이는 오고창(五股叉)을 거꾸로 들고, 머리 위에는 가운데가 빈 붉은 머리끈을 동

여매어 상투 끝 한 가닥을 드러냈으며, 아래에는 흰 비단 물잠방이(水褌)를 걸치고 입으로는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송강이 보니 그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사람이었다.

동쪽으로 장강을 만 리나 달려가니, 그 가운데 한 영웅이 있네.
얼굴은 분을 바른 듯 고우며 몸은 기름처럼 부드러운데,
물 위를 걷는 모습이 마치 평지를 걷는 듯하구나.

담대하여 우의 동굴까지 살피고,
심장 웅장하여 여의주를 따려 하네.
파도를 넘나드는 성품은 물고기와 같으니,
장순의 이름 천 년토록 전해지리라.

그때 배 머리에서 상황을 살피던 장순이 크게 꾸짖듯 외쳤다. "네놈들은 누구냐! 감히 백룡신묘에 무리를 모으다니!" 송강이 몸을 추스르며 사당 앞으로 달려 나가 말했다. "아우님, 나를 구해주게!" 장순 일행이 송강임을 확인하고는 크게 소리쳤다. "좋다!" 세 척의 배는 마치 날아오듯 강가로 밀려왔고, 완씨 삼 형제도 그쪽으로 헤엄쳐 갔다. 일행은 모두 상륙하여 사당 앞으로 모여들었다. 송강이 보니 장순은 십수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맨 앞의 배 머리에 서 있었다. 장횡은 무홍, 무춘, 설영과 함께 십수 명의 장객을 데리고 두 번째 배에 타고 있었다. 세 번째 배에는 이준이 이립, 동위, 동맹과 함께 소금을 파는 일꾼 십수 명을 거느리고 창봉을 든 채 상륙했다.

장순은 송강을 보자 하늘에서 복이 내려온 듯 기뻐하며 절을 올렸다. "형님께서 관재구설에 휘말리셨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아우는 마음을 졸이며 도울 길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못했습니다. 최근에는 대(戴) 원장이 잡혀갔다는 소식까지 들었지요. 이(李) 형님과는 얼굴도 뵙지 못했고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 형님을 찾아가 무태공의 장원으로 모시고 아는 이들을 많이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강주로 쳐들어 가 감옥을 습격해 형님을 구출하려 했는데, 뜻밖에도 의형님께서 이미 호걸들의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오셨군요. 감히 여쭙건대, 이 호걸분들은 설마 양산박의 의사(義士)이신 조 천왕님의 부하들입니까?"

송강이 맨 앞줄에 서 있는 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이 바로 조개 형님이시다. 너희 모두 사당 안으로 들어와 인사를 나누어라." 장순 일행 아홉 명과 조개 일행 열일곱 명, 그리고 송강, 대종, 이규까지 합쳐 총 스물아홉 명의 호걸이 모두 백룡신묘로 들어가 모였다. 사람들은 이 일을 '백룡신묘의 소규모 모임'이라 불렀다.

그 자리에서 스물아홉 명의 호걸이 모두 인사를 나누고 의례를 마쳤을 때, 부하 하나가 허둥지둥 사당 안으로 뛰어 들어와 보고했다. "강주성 안에서 징과 북을 울리며 군마를 정비하더니, 성 밖으로 나와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니 깃발이 하늘을 가릴 듯 빽빽하고 칼과 창이 그물처럼 얽혀 있습니다. 앞쪽은 갑옷을 입은 기병들이 줄지어 있고, 뒤쪽은 창을 든 병사들이 가득하여 큰 칼과 도끼를 휘두르며 무서운 기세로 백룡신묘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규가 그 말을 듣고는 크게 소리쳤다. "가서 다 죽여버립시다!" 그러고는 쌍도끼를 치켜들고 사당 문을 나섰다. 조개가 외쳤다. "이미 일을 저질렀으니 끝을 봐야 한다! 호걸들은 나를 도와 강주의 군마를 모조리 소탕한 뒤에야 양산박으로 돌아가자!" 모든 영웅이 일제히 소리 높여 대답했다. "형님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백사오십 명(140~150명)의 장정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강주 강가로 무섭게 달려 나갔다.

시로 이르되,

핏빛 물결은 파도에 붉게 물들고 시체는 산더미처럼 쌓여가네 거센 파도 위 푸른 용은 독한 불을 뿜고 산 위 맹호는 하늘을 향해 포효하도다

결국 조개와 호걸들은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41회 — 송강이 지혜로 무위군을 취하고, 장순이 황문병을 생포하다

宋江智取無為軍 張順活捉黃文炳

이야기는 이러하다. 강주 성 밖 백룡묘에서 양산박 호걸들이 처형장을 습격하여 송강과 대종을 구해냈다. 그들은 바로 조개, 화영, 황신, 여방, 곽성, 유당, 연순, 두천, 송만, 주귀, 왕왜호, 정천수, 석용, 완소이, 완소오, 완소칠, 백승까지 총 열일곱 명이었으며, 이들은 용맹하고 건장한 부하 여든에서 아흔 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한편 훈양강에서 합류하기 위해 달려온 호걸들은 장순, 장횡, 이준, 이립, 목홍, 목춘, 동위, 동맹, 설영까지 아홉 명이었는데, 이들 역시 마흔여 명의 부하를 데리고 왔다. 이들은 모두 강 위에서 밀거래(私商)를 하는 패거리(火家)들로, 커다란 배 세 척을 몰고 구원하러 왔다. 성 안에서는 흑선풍 이규가 부하들을 이끌고 훈양강 변까지 들이닥쳤다. 이렇게 양쪽에서 모인 구원군은 모두 백사십에서 백오십 명에 달했으며, 모두 백룡묘에 모여 의기투합했다. 그때 부하가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강주 성 안에서 군사들이 북을 치고 깃발을 흔들며 징을 울리고 있습니다! 관군들이 함성을 지르며 이쪽으로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흑선풍 이규가 그 말을 듣고는 크게 포효하며 양손에 판부(板斧, 자루가 긴 도끼) 두 자루를 치켜들고 먼저 사당 문을 나섰다. 그러자 호걸들도 일제히 기합을 내지르며 손에 든 무기를 앞세워 적을 맞이하러 사당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유당과 주귀가 먼저 송강과 대종을 배로 호송하였고, 이준은 장순, 완씨 삼형제와 함께 배를 정돈했다. 강변을 살펴보니 성 안에서 출동한 관군이 기마병만 오천에서 칠천 명에 달했다. 선두에 선 군사들은 모두 투구와 갑옷을 갖춰 입고 활과 화살을 완비했으며, 손에는 긴 창을 들고 뒤로는 보병들이 구름처럼 에워싼 채 깃발을 흔들며 함성을 지르며 달려오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이규가 앞장서서 판부를 휘두르며 맨몸으로 돌진해 적진을 베어 넘겼고, 그 뒤를 화영, 황신, 여방, 곽성이 호위하며 따랐다. 화영은 앞서가는 군사들이 창을 꼿꼿이 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이규가 다칠까 염려되어, 몰래 활과 화살을 꺼내 들었다. 그는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겨 선두에 선 마병 한 명을 겨냥해 화살을 날렸는데, 화살이 날아가더니 그 마병이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돌아 말 아래로 떨어졌다. 이를 본 마병 무리는 혼비백산하여 각자 살길을 찾아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고, 그 바람에 뒤따르던 보병 무리의 절반이 먼저 들이받혀 쓰러졌다.

이때 수많은 호걸이 일제히 돌격하자, 관군들은 시체가 들판에 널브러지고 피가 강물을 붉게 물들일 정도로 처참하게 살육당했다. 호걸들의 기세는 강주 성 아래까지 몰아붙였으나, 성 위의 관군들이 미리 준

비한 투석기로 나무와 돌을 쏘아 대기 시작했다. 관군들은 황급히 성 안으로 도망쳐 성문을 굳게 닫아걸었고, 그 후 며칠 동안 감히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호걸들은 이규를 이끌고 다시 백룡묘 앞으로 돌아와 배에서 내렸다. 조개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정비를 마친 뒤, 모두 각자 배에서 내려 강을 따라 떠나자고 명령했다.

마침 바람이 순풍으로 불어 돛을 올리자, 수많은 인원과 우두머리들을 태운 커다란 배 세 척은 곧장 무태공의 장원으로 향했다. 순풍을 타고 가니 금세 강가 부두에 도착했다. 일행은 모두 배에서 내려 육지로 올라왔다. 목홍은 호걸들을 장원 안 대청으로 정중히 모셨고, 무태공이 직접 나와 그들을 맞이하며 송강 일행과 인사를 나누었다.

무태공이 말했다. "여러 두령께서 밤새 고생이 많으셨으니, 우선 객실에서 편히 쉬시며 기력을 회복하십시오."

사람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가 잠시 쉬며 몸을 추스르고 옷가지와 무기를 정돈했다. 그날 목홍은 장원의 하인들에게 명하여 황소 한 마리를 잡게 하고, 돼지와 양, 닭과 거위, 물고기와 오리 등 수십 마리를 잡아 진귀한 음식들을 차려내어 호걸들을 대접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그동안 있었던 여러 이야기가 오갔다.

조개가 말했다. "만약 목홍 아우와 여러분이 배로 구해 주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모두 포박당해 죽을 뻔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무태공이 물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길로 오게 된 것이오?"

이규가 대답했다. "저는 그저 사람이 많은 곳을 골라 휘젓고 다니며 베어 넘겼을 뿐입니다. 관군들이 알아서 저를 쫓아온 것이지, 제가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송강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말했다. "소인 송강입니다. 만약 여러 호걸께서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저와 대종은 모두 억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저 넓은 바다보다 깊으니, 이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황문병 그놈이 저희를 해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모함하고 독을 품었으니, 이 원수를 어찌 갚지 않겠습니까? 부디 여러 호걸께서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무위군을 치고 황문병 그놈을 죽여주신다면 송강의 이 맺힌 한을 풀 수 있겠습니다. 그때 돌아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조개가 말했다. "우리가 기습하여 적진을 털어버리는 것은 한 번은 가능해도, 어떻게 다시 할 수 있겠는가? 저 간악한 놈들이 이미 대비를 갖추었을 터이니, 차라리 산채로 돌아가 대부대를 모으세. 오학구(吳用)와 공손승 두 선생, 그리고 임충과 진명까지 모두 불러 모아 복수를 꾀해도 늦지 않을 것이네."

송강이 말했다. "만약 산채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이곳에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산이 멀고 길도 험할뿐더러, 강주 관가에서 분명히 공문(公文)을 내려 각지에서 엄중히 감시할 것이니 헛된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기회를 틈타 손을 써야지, 적이 대비를 마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화영이 말했다. "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곳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없어 지형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사람을 보내 성안의 형편을 살펴보고, 무위군이 주로 출몰하는 경로를 파악하여 황문병 그놈이 사는 곳을 알아내야 비로소 손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설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제가 강호를 떠돌며 경험이 많아 이곳 무위군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압니다. 제가 가서 한번 살펴보고 오면 어떻겠습니까?"

송강이 말했다. "현제께서 직접 다녀와 주신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설영은 그날 바로 사람들과 작별하고 길을 떠났다.

한편, 송강은 여러 호걸과 함께 무태공의 장원에서 무위군을 치기로 논의하며 창과 칼 같은 무기를 정돈하고, 활과 화살을 챙기며, 크고 작은 배들을 준비하는 등 만반의 채비를 갖추었다. 모든 준비가 끝날 무렵, 이틀 만에 설영이 사람 하나를 데리고 장원으로 돌아와 송강을 뵙게 했다.

송강이 물었다. "아우님, 이 장사는 누구인가?"

설영이 대답했다. "이 사람은 성은 후, 이름은 건이라 하며 홍도 출신입니다. 재봉 기술이 아주 뛰어나 바늘놀림이 마치 날아다니는 듯합니다. 게다가 창과 곤봉술에도 익숙하여 저를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검고 마른 체구에 몸놀림이 워낙 가벼워 사람들이 '통비원'이라 부릅니

다. 지금은 무위군 성안에 있는 황문병의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만난 인연이라 이곳으로 모셔왔습니다."

송강은 크게 기뻐하며 그를 자리에 앉혀 함께 논의하게 했다. 그 사람 또한 지살성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운을 타고나, 자연스럽게 뜻이 맞아 의기투합했다. 송강이 강주의 소식과 무위군의 경로를 묻자 설영이 말했다.

"지금 지부 채구가 관군을 동원하여 백성 오백여 명을 죽였고, 화살에 맞아 다친 자는 셀 수조차 없습니다. 현재 관아에서는 밤낮으로 조정에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성문은 정오가 지나면 닫아버리는데, 드나드는 사람들을 매우 엄격하게 심문합니다. 원래 형님께서 해를 입으신 일은 채구 지부의 소행이라기보다, 황문병 그놈이 몇 번이고 지부를 부추겨 두 분을 해치도록 꾸민 일입니다. 지금은 처형장이 습격당한 일로 성안이 매우 혼란스러워 밤낮으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위군 쪽을 살피러 갔다가 마침 밥을 먹으러 나오던 후건 형님을 만나 자세한 내막을 듣게 되었습니다."

송강이 물었다. "후 형은 어찌하여 그런 사정을 알고 있는가?"

후건이 말했다. "소인은 어려서부터 창과 곤봉 익히는 것만 좋아했는데, 설 스승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기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황문병 통판이 특별히 저를 불러 옷을 지어달라고 하여 그의 집에 갔다가, 마침 스승님을 만나 형님의 존함을 듣고 이 사정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형님과 인연을 맺고 자세한 내막을 알려드리고자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저 황문병에게는 친형이 하나 있는데, 이름

은 황문엽이라 하며 황문병과 한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입니다. 황문엽은 평생 선한 일만 하며 다리를 놓거나 길을 보수하고, 불상을 만들거나 승려를 공양하며, 위기에 처한 이를 돕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그래서 무위군 성안 사람들은 그를 '황불자'라고 부릅니다. 반면 황문병은 비록 한직인 통판을 맡고 있으나, 마음속에는 오로지 남을 해칠 생각뿐이고 악행을 일삼아 무위군 사람들은 그를 '황봉자'라 부릅니다. 두 형제는 서로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드나드는 골목은 하나이며 북문 안쪽에 그들의 집이 있습니다. 황문병은 성벽에 바짝 붙어 살고, 황문엽은 큰길 근처에 삽니다. 제가 그 집에서 일하다가 황문병이 집에 돌아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채구 지부는 이미 속아 넘어갔네. 내가 그를 부추겨서 먼저 처형하게 만든 뒤에 조정에 보고할 것이야.'라고 말입니다. 황문엽이 그 말을 듣고는 뒤에서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또 어찌 그리도 짧은 수명을 재촉하는 짓을 한단 말이냐! 너와는 상관도 없는 일인데 왜 굳이 그를 해치려 하느냐? 만약 천리에 어긋나 인과응보를 당하게 된다면, 그 화가 바로 너에게 미칠 것이다.' 이 이틀 동안 처형장이 습격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놀랐다고 합니다. 어제는 강주에 있는 채구 지부를 찾아가 따지러 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송강이 물었다. "황문병의 집이 그 형의 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후건이 대답했다. "원래는 한 집안이었으나 떨어져 살고 있으며, 지금은 중간에 채소밭 하나를 두고 마주 보고 있습니다."

송강이 다시 물었다. "황문병의 집에는 식구가 얼마나 되고, 몇 가구나 되는가?"

후건이 말했다. "남녀를 합쳐 사오십 명 정도 됩니다."

송강이 말했다. "하늘이 저에게 복수를 하라 명하시어 특별히 이 사람을 보내주셨군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오로지 여러 아우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이가 한목소리로 대답했다. "마땅히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 저런 간악한 무리를 몰아내어 형님의 원수를 갚고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송강이 다시 말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황문병 그놈 하나가 악한 것이지 무위군의 백성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의 형이 인덕이 높으니 그 또한 해쳐서는 안 됩니다. 천하 사람들이 우리를 인자하지 못하다고 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이 움직일 때 백성들에게는 조금도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이번에 제가 꾀를 하나 냈으니, 부디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호걸이 일제히 외쳤다. "오로지 형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무태공께서 자루(포대) 여든에서 아흔 개와, 갈대와 땔감 백여 묶음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배는 큰 배 다섯 척과 작은 배 두 척을 사용하되, 장순과 이준에게 작은 배 두 척을 맡겨 강 위에서 이와 같이 움직이게 하겠습니다. 큰 배 다섯 척에는 장횡과 완씨 삼형제,

동위, 그리고 물길을 잘 아는 자들을 배치하여 배를 호위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 계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목홍이 말했다. "이곳에 갈대와 땔감, 자루 등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 장원의 사람들은 모두 배를 몰 줄 아니, 형님께서는 그저 뜻대로 행하십시오."

송강이 다시 말했다. "우선 후건 형님이 길을 안내하여 설영과 백승을 무위군 성안으로 먼저 보내 숨게 하십시오. 날짜는 이틀 뒤 삼경(밤 11시~새벽 1시) 두 점(새벽 2시경)을 기한으로 삼겠습니다. 문밖에서 방울을 단 비둘기를 날려 신호를 보내면, 백승이 성 위로 올라가 호응하게 할 것입니다. 백승은 먼저 흰 비단 띠를 꽂아 신호를 보내는데, 그곳이 바로 황문병의 집 근처이며 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목입니다. 또한 석용과 두천에게는 거지로 변장시켜 성문 근처에 매복하게 하십시오. 그러다 불길이 치솟는 것을 신호로 삼아 성문을 지키는 군사들을 베어 넘겨야 합니다. 이준과 장순은 강 위에서 오가며 순찰하다가 상황을 보고 호응할 준비를 하십시오."

송강이 분부를 다 마친 뒤, 설영과 백승, 후건이 먼저 떠났다. 이어 석용과 두천도 거지로 변장한 채 몸에 단도와 암기를 숨기고 성안으로 향했다. 이곳에서는 모래와 흙을 담은 자루와 갈대, 땔감을 챙겨 배에 실었다. 약속한 날이 되자 호걸들은 저마다 무기를 갖추고 단단히 매듭을 묶었으며, 배 안에는 군사들을 매복시킨 뒤 각 두령에게 배를 나누어 맡겼다. 조개, 송강, 화영은 동위가 탄 배에 탔고, 연순, 왕왜호, 정천수는 장횡의 배에 탔다. 대종, 유당, 황신은 완소이의 배에, 여방, 곽성, 이립은 완소오의 배에 탔으며, 목홍, 목춘, 이규는 완소칠의 배에

나누어 탔다. 주귀와 송만만 무태공의 장원에 남아 강주의 성안 소식을 살피게 했다. 먼저 동맹에게 빠른 어선을 몰아 길을 살피러 가게 하고, 부하들과 군사들은 모두 배 밑창에 숨겼다. 장원의 사람들과 선원들이 배를 저어 몰아, 그날 밤 몰래 무위군을 향해 나아갔다. 이때는 마침 칠월이 저무는 무렵이라, 밤공기는 서늘하고 바람은 고요했다. 달빛은 하얗게 비치고 강물은 맑았으며,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산의 형상이 위아래로 온통 푸르른 빛을 띠고 있었다. 옛날 참료자가 이 강가의 풍경을 두고 시 한 수를 지어 이르기를,

거센 물결 출렁이며 안개 물결 넘실대고,
달빛은 옅고 바람은 맑은 구강(九江)의 새벽녘이라.
뱃사공에게 어떠한지 물어보려 하였으나,
다만 여산(廬山)이 눈 안에 작게 보일 뿐이네.

그날 밤 초경(저녁 7시~9시) 무렵, 크고 작은 배들이 모두 무위군 강가에 도착했다. 호걸들은 갈대가 우거진 곳을 골라 배들을 일렬로 늘어세워 닻을 내렸다. 그때 동맹이 배로 돌아와 보고했다. "성안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송강은 즉시 부하들에게 명하여 모래와 흙을 담은 자루, 그리고 마른 갈대와 땔감을 모두 육지로 옮겨 성 근처로 가져가게 했다. 북소리가 울리며 이경(밤 9시~11시)이 되자, 송강은 부하들에게 모래 자루와 갈대, 땔감을 파내어 성벽 근처에 쌓아 두게 했다. 호걸들은 저마다 손에 무기를 들고 성 근처로 달려 나갔으며, 오직 장횡과 완씨 삼형제, 그리고 동위·동맹 두 사람만이 배를 지키며 호응할 준비를 했다.

성벽을 바라보니 북문에서 약 반 리(약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송강이 방울을 단 비둘기를 날리라고 명령하자, 성 위로 대나무 장대 하나가 올라오더니 흰색 띠가 묶인 채 바람에 휘날렸다. 이를 본 송강은 군사들에게 성벽 근처에 모래 자루를 쌓게 하고, 군사들에게는 갈대와 땔감을 짊어지고 성 위로 올라가라고 분부했다.

백승은 이미 그곳에서 호응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군사들에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골목이 바로 황문병이 사는 곳입니다."

송강이 백승에게 물었다. "설영과 후건은 어디 있느냐?" 백승이 대답했다. "그 두 사람은 이미 황문병의 집 안으로 잠입했으니, 형님께서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강이 다시 물었다. "석용과 두천은 보았느냐?" "그 두 사람은 성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백승이 답했다.

송강은 말을 마치고 호걸들을 이끌고 성 아래로 내려와 곧장 황문병의 집 앞으로 향했다. 후건이 처마 밑에 숨어 있는 것을 보고 송강이 그를 불러 곁으로 오게 한 뒤, 귓속말로 나직이 일렀다. "너는 가서 채소밭 문을 열어 두어라. 그리고 그곳에 군사들이 갈대와 땔감을 쌓아 놓게 한 뒤, 설영이 와서 불을 붙일 수 있게 해라. 그러고 나서 황문병의 집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해라. '옆집 고관대작 댁에 불이 나서 짐짝을 잠시 맡기러 왔습니다'라고 말이다. 문이 열리면 그다음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송강은 호걸들에게 양쪽 끝을 각각 나누어 지키라고 일렀다. 먼저 후건이 가서 채소밭 문을 열자, 군사들이 갈대와 땔감을 실어 날라 그 안에 쌓아 두었다. 이어 후건은 불씨를 구해다가 설영에게 건네주어 불을 붙이게 했다. 그러고 나서 후건은 재빨리 몸을 숨겼다가 대문 앞으로 가서 소리치며 문을 두드렸다. 「옆집 고관대작 댁에 불이 나서 짐짝을 잠시 맡기러 왔으니, 어서 문을 여시오!」 안에서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옆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서둘러 문을 열고 나왔다. 그 순간 조개와 송강 등이 함성을 지르며 들이닥쳤고, 호걸들 또한 일제히 움직여 눈에 보이는 대로 베어 넘겼다. 한 명을 만나면 하나를 죽이고, 두 명을 만나면 둘을 모두 죽이며 몰아붙이니, 황문병의 집 안팎에 있던 마흔에서 쉰 명에 달하는 가솔들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모두 죽임을 당했다. 다만 황문병 한 사람만이 보이지 않았다. 호걸들은 황문병이 그동안 양민들을 가혹하게 괴롭히며 빼앗은 수많은 금은보화와 가재도구들을 모조리 챙겼다. 이윽고 커다란 나팔 소리가 울리자, 수많은 호걸이 상자와 궤짝 등 재물을 짊어지고 성 위로 달려 올라갔다. 한편, 불이 난 것을 본 석용과 두천은 각자 날카로운 칼을 뽑아 들고 문을 지키던 군사들을 베어 넘겼다. 그때 앞 거리의 이웃들이 양동이와 사다리를 들고 불을 끄러 달려왔다. 석용과 두천이 크게 호통을 쳤다. 「이 백성들아, 더는 다가오지 마라! 우리 양산박 호걸 수천 명이 이곳에 와서 황문병 일가를 몰살하고 송강과 대종의 원수를 갚는 것이니, 너희 백성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 숨거라, 괜히 참견하려 들지 말고!」 이웃 중에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발을 멈춘 이들도 있었으나, 그때 '흑선풍' 이규가 양손에 큰 도끼를 휘두르며 땅을 박차고 달려오는 것을 보고는, 그제야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사다리와 양동이를 챙겨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이때 뒷골목에서도 문을 지키

던 군사 몇 명이 부하들을 데리고 갈고리를 챙겨 불을 끄러 달려왔다. 그러나 화영이 이미 활을 당겨 맨 앞에 선 한 명을 화살 한 발로 쏘아 쓰러뜨리며 크게 외쳤다. 「죽고 싶거든 계속 와서 불이나 꺼라!」 그 소리에 군사들은 일제히 뒤로 물러났다. 그사이 설영이 횃불을 들고 황문병의 집 앞뒤로 불을 붙여 나가니, 집안 곳곳에서 불길이 어지럽게 치솟았다. 타오르는 불길의 모습은 이러하였다.

검은 구름이 땅을 뒤덮은 듯하고 붉은 불꽃은 하늘로 치솟으니, 마치 수만 마리의 금빛 뱀이 꿈틀대며 달리는 듯하고 거대한 불덩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날뛰었다. 광풍이 불길을 도와 조각된 들보와 화려한 기둥들도 순식간에 타버렸다. 불길은 허공을 향해 치솟았고, 높다란 대저택과 화려한 대청마루도 눈 깜짝할 사이에 잿더미로 변했다. 이것은 단순한 불이 아니라, 바로 이러하였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피어오르니
불의 신을 노엽게 하는구나.
남을 해치려 독한 불꽃을 휘두르다
결국 제 몸을 스스로 태우는도다.

그사이 석용과 두천은 이미 문을 지키던 군사들을 베어 넘겼고, 이규가 쇠사슬을 끊어버려 성문을 활짝 열었다. 호걸들은 절반은 성벽을 타고 나갔고, 나머지 절반은 성문 아래로 달려 나갔다. 장횡과 완씨 삼형제, 그리고 동씨 형제(동위·동맹)도 모두 마중을 나와 합세하였으니, 다 함께 재물을 짊어지고 배로 실어 날랐다. 무위군 군사들은 강주의 처형장이 양산박 호걸들에게 습격당해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

을 알고는, 감히 추격해 나올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저 몸을 피할 뿐이었다. 한편, 송강 일행의 호걸들은 황문병을 잡지 못한 것이 못내 한스러웠으나, 모두 배에 올라 노를 저어 목홍의 장원으로 향하였는데, 이 일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한편, 강주 성안에서는 무위군 쪽에서 불이 나 하늘이 붉게 물든 것을 보고 성안이 발칵 뒤집히자, 급히 지부에게 보고가 들어갔다. 마침 관아에서 일을 논의하던 황문병은 보고를 듣자마자 사색이 되어 지부에게 달려가 아뢰었다. "지부 어른, 저희 고을에 불이 났으니 급히 집에 가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채구 지부는 그 말을 듣고 서둘러 성문을 열게 한 뒤, 관선 한 척을 내주어 배웅하게 했다. 황문병은 지부에게 감사를 표하고는 곧장 나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황급히 배에 올랐다. 그는 노를 저어 강을 건너며 무위군 쪽을 바라보았다. 불길이 어찌나 거센지 강물 위까지 붉게 물들고 있었다. 사공이 "저 불은 북문 쪽에서 난 불입니다"라고 말하자, 황문병은 그 소리에 마음이 더욱 초조해졌다.

강 한가운데로 노를 저어 가는데, 멀리서 작은 배 한 척이 강 위를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잠시 후 또 다른 작은 배 한 척이 다가왔는데, 그냥 지나치지 않고 관선을 향해 곧장 들이받으며 달려왔다. 수행원이 호통을 쳤다. "어떤 배길래 감히 이렇게 들이받느냐!" 그때 작은 배 위에 있던 한 장사가 훌쩍 뛰어오르더니, 손에 갈고리를 든 채 대답했다. "강주에 불이 났다고 알리러 가는 배다!" 황문병이 급히 나서며 물었다. "어디에 불이 났단 말이냐?" 장사가 말했다. "북문 쪽 황문병 통판의 집에 양산박 호걸들이 들이닥쳐 식솔들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해 갔

소! 지금 한창 불타는 중이라오!" 황문병은 그 말을 듣고 비명을 지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그 장사는 말을 마치자마자 갈고리를 배에 걸고 훌쩍 뛰어올랐다. 눈치가 빠른 황문병은 상황을 알아채고는 얼른 배 끝으로 달려가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런데 갑자기 강물 위로 배 한 척이 나타나더니, 물속에서 누군가 쑥 솟아올라 황문병의 허리를 낚아채고는 머리채를 잡아 배 위로 끌어올렸다. 배 위에 있던 장사가 미리 마중 나와 기다리고 있다가 밧줄로 황문병을 단단히 묶어버렸다. 물속에서 황문병을 산 채로 잡아챈 이는 바로 '낭리백조' 장순이었고, 배 위에서 갈고리를 휘두른 이는 '혼강룡' 이준이었다. 두 호걸이 배 위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자, 관선을 젓던 사공은 겁에 질려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이준이 말했다. "우리는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다만 저 황문병이라는 놈을 잡으려는 것뿐이니, 너희는 돌아가서 채구 지부라는 도둑놈에게 전해라. 우리 양산박 호걸들이 일단 저놈의 머리통을 맡아두고 있을 테니, 조만간 직접 가지러 가겠다고 말이다!" 사공이 벌벌 떨며 대답했다. "소인이 가서 꼭 전하겠습니다." 이준과 장순은 황문병을 자신들의 작은 배로 옮긴 뒤, 관선은 그대로 보내주었다.

두 호걸은 빠른 배 두 척을 저어 곧장 무태공의 장원으로 향했다. 배가 기슭에 닿자, 이미 강가에서 상자들을 옮기며 기다리고 있던 우두머리들이 보였다. 황문병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자 송강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모든 호걸도 한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마침 이놈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소!」 이준과 장순이 서둘러 황문병을 데리고 육지로 올라오자, 사람들은 그를 감시하며 강가를 벗어나 무태공의 장

원으로 향했다. 주귀와 송만이 마중을 나와 일행을 장원 안 초가집으로 안내하여 자리에 앉혔다. 송강은 황문병의 젖은 옷을 벗겨 버린 뒤 버드나무에 묶어두고, 모든 우두머리를 불러 둥그렇게 둘러앉게 했다. 이어 송강은 술 한 항아리를 가져오게 하여 사람들에게 술잔을 돌렸다. 조개부터 백승에 이르기까지 서른 명의 호걸이 모두 빠짐없이 술을 나누어 마셨다. 송강이 황문병을 향해 크게 꾸짖었다. 「이놈아! 나는 너와 예전에 원한도 없었고 최근에 맺힌 것도 없거늘, 어찌하여 나를 해치려 들었느냐? 세 번이고 다섯 번이고 채구 지부를 부추겨 우리 두 사람(나와 대종)을 죽이려 들다니! 네놈이 성현의 글을 읽었다면서 어찌 이토록 독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 내가 네 아비를 죽인 원수도 아닌데 왜 기어코 나를 해치려 한단 말이냐! 네 형인 황문엽은 너와 한 배에서 난 형제인데 어찌 그리 덕을 쌓아 성안 사람들이 모두 그를 '황불자'라 칭송하는 것이냐? 나는 어젯밤 그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 너는 고을에서 그저 권세가와 결탁하고 관리들에게 아부하며 선량한 사람들을 핍박하기만 하니, 무위군 사람들이 너를 '황벌침(黃蜂刺)'이라 부른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오늘 내가 너라는 그 가시를 뽑아주마!」 황문병이 애걸하며 말했다. 「소인이 이미 잘못을 깨달았으니, 그저 빨리 죽여 주십시오.」 그러자 조개가 호통을 쳤다. 「이 도둑놈 같은 놈아! 네놈이 죽지 않을까 봐 겁이 나느냐? 진작 이럴 줄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지!」 송강이 다시 물었다. 「어느 형제가 내 원한을 풀어주겠느냐?」 그러자 '흑선풍' 이규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제가 형님을 대신해 이놈을 손봐주겠습니다. 제가 보니 이놈이 아주 살집이 좋아 구워 먹기에 딱 좋겠더군요!」 조개가 맞장구를 쳤다. 「옳은 말이다! 어서 날카로운 칼을 가져오고 숯불을 준비해라. 이놈을 잘게 썰어 구워 내어, 내 아우의 원한을 달래며 안주로 삼

도록 하자.」 이규는 날카로운 칼을 집어 들고 황문병을 보며 웃으며 말했다. 「네놈이 채구 지부의 뒤편에서 온갖 거짓말로 사람을 해치고 없는 일을 지어내어 부추기더니, 오늘 네놈은 빨리 죽고 싶겠지만 이 몸은 네놈을 아주 천천히 죽여줄 것이다!」 이규는 먼저 칼로 다리부터 도려내기 시작했다. 살점이 좋은 곳을 골라 눈앞에서 숯불에 구워 안주로 삼았다. 한 점을 베어내면 한 점을 구워 먹으니, 순식간에 황문병의 몸은 너덜너덜해졌다. 이규는 황문병의 살을 다 베어낸 뒤에야 칼로 가슴을 갈라 심장과 간을 꺼내어, 우두머리들에게 술을 깨우는 탕으로 대접했다. 수많은 호걸이 황문병이 처형되는 광경을 지켜본 뒤, 모두 초가집으로 모여들어 송강에게 축하를 건넸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겉으로는 밝은 척하며 권세에 아부하여 꾀를 부리더니
정작 충성스럽고 의로운 마음은 억지로 밀어내어 버렸네.
간사한 꾀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몸은 먼저 죽음을 맞이하고
속을 파내고 살을 굽는 고통스러운 재앙을 피하지 못하리.

송강이 먼저 바닥에 무릎을 꿇자, 모든 우두머리도 황급히 무릎을 꿇으며 일제히 말했다. 「형님, 무슨 일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저희 아우들이 어찌 듣지 않겠습니까.」 송강이 입을 열었다. 「부족한 제가 어려서부터 아전 노릇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부터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기를 꿈꿔왔지요. 하지만 힘도 부족하고 재주도 모자라 평생의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강주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조개 형님과 여러 호걸께서 저를 애써 붙잡아 주신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엄한 가르침이 생각나 차마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우셨는지, 길을 가다 심양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호걸을 만났습니다. 하필 제가 부족하여 술기운에 미친 소리를 내는 바람에 대종 형님의 목숨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호랑이 굴과 용의 못 같은 이곳까지 달려와 저의 남은 목숨을 구해주시고, 또한 원한까지 갚아주신 여러 호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토록 큰 죄를 지어 두 고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으니, 분명 조정에 보고가 올라가 군대가 출동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송강은 양산박으로 올라가 조개 형님께 의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저를 따르겠다면 지금 바로 채비를 하여 떠날 것이요, 만약 원치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일이 터져서 괜히 저 때문에 피해를 보실까 걱정되어 여쭙는 것입니다.」 송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규가 벌떡 일어나 외쳤다. 「모두 갑시다, 모두 갑시다! 만약 가지 않겠다는 놈이 있다면 내 도끼로 찍어 두 동강을 내버리겠다!」 송강이 말했다. 「네놈이 그리 무식하게 말하면 어떡하느냐. 이건 형제들의 마음이 어떠냐에 달린 문제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말했다. 「이미 수많은 관군을 죽이고 두 고을을 소란스럽게 만들었으니, 조정에 보고가 올라가면 분명 군대를 보내 잡아 가두려 할 것이오. 지금 형님을 따라 생사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대체 어디로 가겠소?」

송강은 크게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날 먼저 주귀와 송만에게 양산박으로 돌아가 소식을 전하라고 일렀다. 그러고 나서 일행을 다섯 무리로 나누어 길을 떠났다. 첫 번째 무리는 조개, 송강, 화영, 대종, 이규였고, 두 번째 무리는 유당, 두천, 석용, 설영, 후건이었다. 세 번째 무리는 이준, 이립, 여방, 곽성, 동위, 동맹이었으며, 네 번

째 무리는 황신, 장순, 장횡, 완씨 삼형제였다. 다섯 번째 무리는 연순, 왕왜호, 목홍, 목춘, 정천수, 백승이었다.

스물여덟 명의 우두머리와 그 부하들은 황문병의 집에서 탈취한 재물을 나누어 수레에 실었다. 목홍은 무태공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마땅히 챙겨야 할 가재도구와 금은보화를 수레에 실었다. 장원 식객 중에는 따라가지 않으려는 이들이 있었는데, 송강은 그들에게 은자를 나누어 주어 다른 주군을 찾아가도록 배려했다. 반면 함께 가고자 하는 일꾼들은 모두 일행에 합류했다. 앞선 네 무리는 차례로 길을 떠나 이미 행군을 시작했다. 목홍이 장원의 뒷정리를 마친 뒤에는 횃불 수십 개를 밝혀 장원을 불태워 버리고, 논밭을 뒤로한 채 양산박을 향해 떠났다.

다섯 무리의 인마가 차례대로 길을 떠나 20리 간격으로 행군하였다. 먼저 첫 번째 무리인 조개, 송강, 화영, 대종, 이규 다섯 기마병이 수레와 부하들을 거느리고 사흘간 길을 가는데, 앞에 황문산이라는 곳이 나타났다. 송강이 말 위에서 조개에게 말했다. 「이 산의 형세가 험악하고 괴이한 것을 보니, 분명 그곳에 세력이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시켜 뒤따라오는 이들을 재촉해 함께 가게 합시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 앞 산 입구에서 징과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송강이 말했다.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기다렸다가, 뒤따라오는 인마가 도착하면 함께 맞서 싸웁시다.」 화영은 즉시 활시위를 당겨 화살을 메웠고, 조개와 대종은 각각 박도를 잡았으며, 이규는 쌍도끼를 쥐었다. 그들은 송강을 호위하며 일제히 말을 몰아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자 산비탈 너머로 삼오백 명의 졸개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앞을 네 명의 호걸이 무기를 손에 든 채 에워싸며 큰 소리로 외쳤다.

「네놈들이 강주를 소란스럽게 하고 무위군을 약탈하며 수많은 관군과 백성을 죽이고는 양산박으로 돌아가려 하니, 우리 네 사람이 너희를 오래전부터 기다려 왔다! 사리를 아는 자라면 송강만 남겨두고 가라,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목숨을 살려주마!」 송강은 그 말을 듣고 몸을 앞으로 내밀어 땅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부족한 송강이 모함을 받아 억울함을 풀 길이 없던 차에, 여러 호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제가 어찌하여 네 분의 영웅께 결례를 범했는지 모르겠으나,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의 남은 목숨만은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네 명의 호걸은 송강이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고는 모두 당황하여 말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왔다. 그들은 무기를 내팽개치고 송강에게 달려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저희 형제 넷은 산동의 '급시우' 송공명 대인의 명성은 익히 들었으나, 죽는 한이 있어도 뵐 기회가 없었습니다. 형님께서 강주에서 관재구설에 휘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형제들이 의논하여 옥사를 습격하려 했으나, 확실한 소식을 얻지 못했을 뿐입니다. 엊그제 졸개들을 강주까지 보내 알아보게 했더니, '이미 수많은 호걸이 강주를 뒤엎고 처형장까지 습격해 사람들을 구해낸 뒤 계양진으로 떠났으며, 그 후 무위군을 불태우고 황문병의 집을 약탈했다'라고 보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형님께서 분명 이 길로 오실 거라 짐작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길목에서 사람을 보내 살피며 확인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결코 형님을 대적하려던 것이 아니니 부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렇게 형님을 뵙게 되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저희 작은 산채에 약소하게나마 술과

음식을 준비해 두었으니, 부디 호걸들께서 저희 산채로 가셔서 잠시 머물며 환영의 잔치를 즐겨 주십시오."

송강은 크게 기뻐하며 네 명의 호걸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 한 명씩 이름을 물었다.

우두머리인 사람은 성은 구, 이름은 붕이라, 고향은 황주 사람으로 대강(大江)을 지키던 군호(軍戶, 군역을 지는 가문) 출신이었다. 상관(본관)에게 밉보여 강호의 녹림으로 도망쳐 들어갔으며, 오랜 세월을 버텨낸 끝에 '마운금시'라는 이름을 얻었다.

두 번째 호걸은 성은 장, 이름은 경이라, 고향은 호남 담주 사람이다. 본래 과거를 보던 선비 출신이었으나 낙방한 뒤 글 대신 무예를 닦았다. 지략이 뛰어나고 산술에 정통하여, 수만 수천의 계산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해냈으며 창과 곤봉을 다루고 진을 짜며 군사를 배치하는 데도 능하여 사람들이 그를 '신산자'라 불렀다.

세 번째 호걸은 성은 마, 이름은 린이라, 고향은 남경 건강 사람이다. 본래 하급 관청의 잡역부 출신이었으나, 두 개의 철피리를 불고 커다란 굴도(滾刀, 휘두르기 좋은 칼)를 휘두르는 솜씨가 대단하여 백여 명의 장정이 그 근처에 접근하지 못했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철적선'이라 불렀다.

네 번째 호걸은 성은 도, 이름은 종왕이라, 고향은 광주 사람이다. 장원의 농부 출신으로 철삽을 다루는 데 익숙하며 힘이 장사였다. 또한 창과 도를 다루는 솜씨도 뛰어나 사람들이 그를 '구미구'라 불렀다.

이 네 명 호걸의 영웅다운 면모를 시로 증명하니, 서강월(西江月)의 가사가 이러하다.

힘이 세고 몸이 강해 대적할 자 없고,
달릴 때는 날아오르듯 빠르도다.
구름을 가르는 금빛 날개가 바로 구붕이니,
황산의 첫 자리를 당당히 차지했구나.

어린 시절 붓을 잃어 한이 맺혔으나,
오랫동안 지략을 닦아 정수를 모았네.
귀신 같은 계산으로 전쟁을 잘 이끄니,
문무를 겸비한 인재는 장경이라네.

쇠피리 한 소리에 산이 갈라지고, 구리 칼 두 자루에 신령도 놀라니,
마린의 모습은 더욱 험상궂어, 싸움터 한가운데서 신통한 힘을 부리네.

종왕의 힘은 맹호와 같아, 쇠삽이 닿는 곳마다 거침없으니,
아홉 꼬리 달린 신령한 거북처럼 재주가 뛰어나다,
모두가 영웅다운 우두머리들이로다.

이 네 명의 호걸이 송강을 맞이하자, 졸개들이 서둘러 과일 상자와 커다란 술 한 항아리, 그리고 고기 두 접시를 받쳐 들고 와 술잔을 올렸다. 먼저 조개와 송강에게 술을 권하고, 다음으로 화영, 대종, 이규에

게 차례로 권하며 모든 이와 인사를 나누고 술을 돌렸다. 두어 시간이 지나자 두 번째 무리의 우두머리들이 도착했고, 한 명씩 모두 인사를 나누었다. 술잔이 모두 돌자 그들은 사람들을 산 위로 초대했다. 두 무리의 우두머리 열 명이 먼저 황문산 채에 도착하자, 네 명의 호걸은 곧장 소를 잡고 말을 잡아 대접했다. 그러고는 졸개들을 차례로 산 아래로 보내 뒤따라오는 세 무리의 우두머리 열여덟 명을 산 위로 모셔와 연회를 베풀게 했다. 반나절이 채 지나기도 전에 세 무리의 호걸이 모두 도착하여, 모두 취의청에 모여 연회를 즐겼다.

송강이 술을 마시던 중, 자리에서 말을 꺼냈다. "이번에 저 송강이 형님 조개를 따라 양산박으로 가서 함께 의리를 모으고자 합니다. 혹시 네 분의 호걸께서도 이곳을 떠나 양산박 대채로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네 호걸이 일제히 대답했다. "만약 두 의사께서 저희 같은 미천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면, 기꺼이 형님들을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송강과 조개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네 분이 대의를 따르기로 하셨으니, 어서 채비를 하여 출발합시다." 많은 우두머리가 모두 기뻐했다. 산채에서 하루를 머물고 하룻밤을 보낸 뒤, 이튿날 송강과 조개가 여전히 첫 번째 무리로 앞장서서 산을 내려가 출발했다. 그 뒤를 따르는 이들도 관례에 따라 약 20리 정도의 간격을 두고 뒤따랐다. 네 명의 호걸은 재물과 금은보화를 챙기고 졸개 삼오백 명을 거느린 채, 산채의 울타리를 허물고 여섯 번째 무리가 되어 길을 떠났다.

송강은 이 네 호걸과 합류하게 된 것이 매우 기뻐서, 길을 가는 도중 말 위에서 조개에게 말했다. "소제가 강호를 떠돌며 몇 번의 풍파를 겪으며 조금 놀라기도 했으나, 덕분에 이렇게 많은 호걸을 알게 되었습니

다. 오늘 형님과 함께 산으로 가니, 이제는 오직 마음을 다해 형님과 생사를 함께하겠습니다." 길을 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주귀의 주막에 도착했다.

한편, 산채를 지키던 오용, 공손승, 임충, 진명, 그리고 새로 합류한 소양과 금대견은 이미 주귀와 송만에게 보고를 받은 상태였다. 그들은 매일 소두목들을 배에 태워 주막으로 보내 맞이하게 했고, 모두 금사탄에서 상륙하여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며 호걸들을 맞이했다. 호걸들은 말이나 가마를 타고 산채로 올라갔다. 관문 아래에 이르자 군사 오용을 비롯한 여섯 사람이 환영의 술을 차려놓고 모두 취의청에 모여 향을 피웠다. 조개가 송강에게 산채의 주인 자리를 내어주며 첫 번째 상석에 앉으라고 권했으나, 송강이 어찌 이를 받아들이겠는가. 송강이 말했다. "형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여러분께서 칼날과 도끼를 무릅쓰고 저 송강의 목숨을 구해 주셨는데, 형님이야말로 본래 이 산채의 주인 아니십니까? 어찌 저 같은 사람에게 양보하려 하십니까? 만약 계속해서 양보하시겠다면, 저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조개가 말했다. "아우님,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당초 아우님이 그 피비린내 나는 큰일을 도맡아 우리 일곱 명의 목숨을 구해 산으로 오게 하지 않았다면, 어찌 오늘 같은 대인원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아우님이야말로 이 산채의 은인이거늘, 아우님이 앉지 않으면 누가 앉겠는가?" 송강이 다시 말했다. "형님, 나이로 따지면 형님께서 저보다 열 살이나 위이신데, 제가 앉는다면 어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송강이 거듭 조개를 첫 번째 자리로 모셨다. 그리하여 조개가 첫 번째, 송강이 두 번째, 오용이 세 번째, 공손승이 네 번째 자리에 앉게 되었다. 송강이 말했다. "공로의 높고 낮음을 나누지 맙시다. 양산박의 기존 우두머리들은 왼쪽 상석에 앉

고, 새로 온 우두머리들은 오른쪽 객석에 앉으시오. 나중에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그때 가서 다시 정하도록 합시다." 모두가 일제히 말했다. "형님의 말씀이 지극히 옳습니다!"

왼쪽 자리에는 임충, 유당, 완소이, 완소오, 완소칠, 두천, 송만, 주귀, 백승이 앉았다. 오른쪽 자리에는 나이와 서열에 따라 서로 양보하며 화영, 진명, 황신, 대종, 이규, 이준, 목홍, 장횡, 장순, 연순, 여방, 곽성, 소양, 왕왜호, 설영, 금대견, 목춘, 이립, 구붕, 장경, 동위, 동맹, 마린, 석용, 후건, 정천수, 도종왕이 앉으니, 도합 마흔 명의 우두머리가 모였다. 그들은 북을 치고 악기를 울리며 성대하게 축하 연회를 벌였다.

송강이 강주 지부 채구가 억지로 모함을 꾸며냈던 일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말했다. "가증스러운 황문병 그놈을 보십시오. 자기와 상관도 없는 일에 지부 앞에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나라를 좀먹게 하는 것은 집안의 나무(耗國因家木)'라 하니, 나라의 재물과 곡식을 축내는 자는 반드시 갓머리(宀)에 '나무 목(木)' 자를 받친 글자, 곧 송(宋) 자가 아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또 '병장기를 일으키는 것은 물에 점 찍은 공(刀兵點水工)'이라 하니, 병장기를 일으켜 소동을 피우는 자는 반드시 삼수변(氵)에 '장인 공(工)' 자를 받친 글자, 곧 강(江) 자가 아니겠느냐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송강 제 몸에 딱 들어맞는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뒤의 두 구절 '종횡으로 서른여섯이 산동에서 난을 일으키리라(縱橫三十六, 播亂在山東)'는, 마땅히 이 송강이 산동에서 반란을 일으킬 것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이 일로 저를 붙잡았는데, 뜻밖에 대원장(대종)이 가짜 서신

을 전한 탓에, 황문병 그놈이 지부를 부추겨 기어이 선참후주(先斬後奏, 먼저 죽이고 나중에 보고함)하게 하려 했습니다. 만약 여러 호걸께서 구해 주지 않으셨다면, 어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이규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형님, 그 말은 하늘의 계시와도 같습니다! 비록 제가 고생을 좀 하긴 했지만, 황문병 그 도둑놈도 제가 아주 시원하게 베어버렸으니 됐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군사와 말이 있는데 반란이 뭐 어때서 겁날 게 있습니까? 조개 형님은 큰 황제가 되시고, 송강 형님은 소황제가 되시고, 오 선생은 승상이 되시고, 공손 도사님은 국사가 되시면 됩니다. 저희는 모두 장군이 되어 도성으로 쳐들어가 황제의 자리까지 빼앗고 거기서 호탕하게 즐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답답한 물가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대종이 급히 꾸짖었다. "철우, 이놈아! 네가 지금 무슨 망언을 하는 것이냐! 네가 오늘 이곳에 왔으면 강주에서 부리던 그 못된 버릇을 버려야 한다. 두 분 형님의 명령을 받들어 따르고, 함부로 헛소리를 하거나 참견해서는 안 된다. 만약 또다시 이렇게 입을 놀리며 끼어든다면, 네 머리부터 베어 후세의 경계로 삼을 것이다!"

이규가 대답했다. "에이, 참! 제 머리를 베어봤자 언제 다시 자라겠습니까? 전 그냥 술이나 마시겠습니다!" 모든 호걸이 그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다.

송강이 다시 관군을 물리쳤던 일을 꺼내며 말했다. "그때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 송강의 몸에 직접 닥칠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용이 말

했다. "형님께서 당초에 저희 말을 듣고 그저 산 위에서 즐겁게 지내며 강주까지 가지 않으셨더라면, 이토록 많은 일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늘이 정한 운명 아니겠습니까." 송강이 물었다. "황안 그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조개가 대답했다. "그놈은 붙잡혀 온 지 두세 달도 안 되어 병들어 죽었네." 송강은 탄식을 금치 못했다. 그날은 모두가 술을 마시며 마음껏 즐겼다.

조개는 먼저 무태공의 가족들을 잘 안돈시키게 했다. 그러고는 황문병의 재산을 가져오게 하여, 이번 일에 힘쓴 많은 졸개에게 상을 내렸다. 또한 원래 가지고 있던 서신 바구니를 꺼내 대종에게 돌려주며 잘 써보라고 했다. 그러나 대종은 이를 받지 않고 반드시 창고에 넣어 공금으로 사용하게 하겠다고 했다. 조개는 많은 졸개를 불러 새로 합류한 이준 등을 정식으로 배알하게 했다. 연일 산채에서는 소를 잡고 말을 도살하며 경축하는 연회를 베풀었으니, 그 흥겨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한편, 조개는 산 앞뒤로 집을 나누어 거처를 정하게 하고, 산채 안에 집을 새로 짓고 성벽을 수리하게 했다. 사흘째 되는 날, 술자리에서 송강이 일어나 여러 두령에게 말했다. "송강에게 아직 큰일이 하나 있어 형제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산을 내려가 한 번 다녀오고 싶은데, 며칠간 자리를 비워도 되겠습니까?" 조개가 곧 물었다. "아우는 지금 어디로 가려 하며, 무슨 큰일을 하려는 것인가?" 송강은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가려는 곳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이는 창칼이 숲을 이룬 곳에서 다시 한번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산등성이를 누비며 천 년의 공훈을 남기기 위함이었다.

시로 이르되, "현녀의 서책 세 권 때문에, 맑은 바람 같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기려 하네."

결국 송강은 어디로 떠나려 하는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42회 — 환도촌에서 세 권의 천서를 받고, 송공명이 구천현녀를 만나다

還道村受三卷天書 宋公明遇九天玄女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시 송강이 연석에서 호걸들에게 말했다.

"부족한 송강이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곳 양산박에 올라온 뒤, 연일 잔치를 벌이며 참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집에 계신 노부친께서 지금 어찌 지내고 계실지 걱정이 앞섭니다. 머지않아 강주에서 조정에 상주(上奏)하면 반드시 제주로 공문이 내려가고, 운성현에 명하여 저희 가족을 잡아들이는 한편 정범(저 송강)을 기한 내에 체포하도록 독촉할 것입니다. 그리되면 노부친의 안위가 위태로울까 두렵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쓰여 직접 집에 내려가 아버지를 모시고 양산박으로 올라와 이 걱정을 끊으려 합니다. 형제들께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조개가 말했다.

"아우님, 이것은 인륜의 큰일인데 우리가 즐거움을 누린다고 해서 집에 계신 아버님을 고생하게 할 수는 없지 않겠나. 어찌 허락하지 않겠는가? 다만 형제들이 연일 고생한 데다 아직 산채의 인마를 정비하는 중이니, 이틀만 더 기다려 주게나. 산채의 인마를 점검한 뒤 곧장 가서 모셔오도록 하겠네."

송강이 다시 말했다.

"형님, 며칠 더 걸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강주의 공문이 제주로 내려와 가족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면 일이 늦어질까 걱정됩니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을 데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 혼자 몰래 가서 아우 송청과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밤을 틈타 양산박으로 올라오겠습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도 귀신도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가면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여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조개가 걱정하며 말했다.

"아우님, 가는 길에 혹여라도 변이라도 생기면 구해줄 사람이 없지 않은가."

송강이 대답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송강은 아무리 만류해도 떠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그는 전립(氈笠)을 쓰고 짧은 몽둥이 하나를 챙긴 뒤, 허리춤에 날카로

운 칼을 차고 산을 내려갔다. 여러 두령은 금사탄까지 배웅하고 돌아갔다.

한편, 송강은 나루터를 건너 주귀의 주막에 상륙한 뒤, 큰길을 따라 운성현 쪽으로 향했다. 길을 가는 동안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며, 밤에는 숙소를 잡고 낮에는 길을 나아갔다. 어느 날 송가촌을 향해 서둘러 가던 송강은 날이 저물어 마을에 도착하지 못하자, 일단 객주에 들러 하룻밤 쉬기로 했다. 이튿날 송강은 서둘러 송가촌으로 향했다. 이른 시간에 도착했기에 그는 숲속에 몸을 숨긴 채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마을 장원에 들어가 뒷문을 두드렸다.

장원 안에서 소리를 들은 송청이 문을 열러 나왔다가 형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송청이 당황하며 말했다.

"형님, 집에 어찌 오신 겁니까?"

송강이 말했다.

"아버님과 너를 모시러 특별히 왔다."

그러자 송청이 말했다.

"형님, 형님이 강주에서 저지른 일이 이제 이곳까지 다 알려졌습니다. 현령께서 조 도두 두 사람을 보내 매일같이 저희를 감시하고 있으며, 한시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주의 공문만 도착하면 저희 부자를 잡아 옥에 가두고 형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백여 명의 토병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어서 양산박으로 가서 두령들을 모셔와 아버지와 저를 구해 주십시오."

송강은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깜짝 놀랐다. 감히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는 즉시 몸을 돌려 양산박으로 달려갔다. 그날 밤은 달빛이 흐릿하여 길이 분명치 않았기에, 송강은 오로지 인적이 드문 샛길만을 골라 나아갔다. 한참을 달렸을까, 뒤쪽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송강이 뒤를 돌아보니 한두 리쯤 떨어진 곳에서 횃불 무리가 밝게 빛나고 있었고, "송강, 거기 서라!" 하는 외침이 들려왔다. 송강은 앞만 보고 달리는 한편, 속으로 생각했다.

'조개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과연 오늘 같은 화를 당하는구나. 하늘이 불쌍히 여기시어 나 송강을 구해주시기를!'

멀리 보이는 곳을 향해 정신없이 달렸다. 잠시 후 바람이 엷은 구름을 걷어내자 밝은 달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제야 송강은 주변을 자세히 살필 수 있었으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괴로워했다. 가만히 살펴보니 그곳은 환도촌이라 불리는 마을이었다. 원래 그곳은 험준한 산봉우리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고, 산 아래로는 계곡물이 흐르며, 산 중턱에는 오직 외길 하나만이 나 있는 곳이었다. 마을 안으로 들어서도 좌우로 헤매다 보면 결국 이 길로 통하게 되어 있었고, 다른 길은 전혀 없었다. 송강이 마을 어귀에 이르러 뒤돌아 도망치려 했으나, 뒤쫓아온 사람들이 이미 길목을 가로막고 있었다. 횃불이 대낮처럼 밝게 비추자 송강은 어쩔 수 없이 마을 안으로 뛰어들어 몸을 숨길 길을 찾아 헤매야 했다. 숲 하나를 지나자마자 어느 고묘가 눈에 들어왔다.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담장은 허물어지고 무너졌으며, 전각은 비스듬히 기울었네.
두 벽의 그림에는 푸른 이끼 길게 끼고, 바닥의 꽃무늬 벽돌 사이엔 잡풀이 무성하네.
문 앞의 작은 귀신은 팔이 부러져 험악한 기세조차 없으며,
전 위의 판관은 관을 쓰지 못해 예법조차 갖추지 못했네.
제단 위에는 거미가 줄을 치고, 향로 안에는 개미가 집을 짓네.
여우는 종이 화로 속에서 늘 잠을 자고, 박쥐는 신령한 휘장 곁을 떠나지 않네.

송강은 어쩔 수 없이 사당 문을 밀고 들어가, 달빛에 의지해 사당 안으로 들어서며 몸을 숨길 곳을 찾았다. 앞전과 뒷전을 두루 살펴보았으나 마땅히 몸을 숨길 만한 곳이 없자 마음이 더욱 초조해졌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놈이 틀림없이 이 사당 안으로 들어갔겠지?" 하는 소리였다. 송강이 들어보니 바로 조능의 목소리였다. 급히 숨을 곳을 찾던 송강은 전각 위에 신주를 모신 신주(神廚, 감실 가마)를 발견하고는, 얼른 그 휘장을 걷어 올린 뒤 안을 살피며 그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그는 짧은 몽둥이를 챙겨 넣고 몸을 웅크려 신주 안에 납작 엎드린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곧이어 밖에서 횃불을 든 이들이 사당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송강이 가마 안에서 눈을 살짝 뜨고 밖을 살피니, 조능과 조득이 마흔댓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횃불을 든 채 여기저기를 비추며 앞전과 뒷전을 차례로 훑고 있었다. 송강은 속으로 빌었다.

'이번에 나는 죽을 자리에 놓였으니, 부디 신령님께서 저를 보살펴 주시고 신명께서 저를 굽어살펴 주소서.'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갔으나 아무도 가마 안을 살피지는 않았다. 송강은 '천운이 따랐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때 조득이 횃불을 들고 가마 쪽을 비추려 하자, 송강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번에는 정말 잡히고 말겠구나.'

조득이 한 손으로 박도(朴刀) 자루를 이용해 가마의 휘장을 툭 건드리며 횃불을 위아래로 비추었다. 그러자 불길에 연기가 치솟더니 검은 먼지가 한 움큼 쏟아져 내려와 마침 조득의 눈 속으로 들어갔다. 눈이 따가워진 조득은 횃불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발로 밟아 꺼버렸다. 조득은 전각 문밖으로 나가 토병들에게 말했다.

"이놈이 사당 안에 없구나. 다른 길이 없는데 대체 어디로 도망갔단 말이냐?"

토병들이 대답했다.

"아마 마을 안 숲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도망칠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마을은 환도촌이라 불리는데, 오직 이 길로만 드나들 수 있습니다. 마을 안에 높은 산과 나무가 우거져 있긴 해도 길 위로 다니는 길은 따로 없습니다. 도두께서 마을 입구만 지키고 계시면, 이놈이 날개가 달려 하늘로 날아간다 해도 절대 도망치지 못할 것입니다. 날이 밝는 대로 마을 안을 샅샅이 뒤져 찾아내겠습니다."

조득이 말했다.

"그 말이 맞다."

그러고는 토병들을 이끌고 전각 아래로 내려갔다.

송강은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신령님께서 보살펴 주시는구나. 만약 목숨을 건지게 된다면, 반드시 이 사당을 중수하고 사당을 다시 세워 신령님께 보답하리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당 문 앞에서 토병 몇 명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두님, 여기 있습니다!"

조능과 조득, 그리고 무리가 떼를 지어 사당 안으로 들이닥쳤다. 송강은 탄식하며 생각했다.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있나, 이번에는 정말 잡히고 말겠구나.'

조능이 사당 앞으로 다가와 물었다.

"어디에 있느냐?"

토병이 대답했다.

"도두님, 사당 문 위에 남은 두 손자국을 보십시오. 방금 문을 밀고 안으로 숨어든 것이 분명합니다."

조능이 말했다.

"그 말이 맞다. 다시 한번 샅샅이 뒤져보아라."

그 무리가 다시 사당 안으로 들어와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자, 송강은 속으로 탄식했다.

'내 운명이 이토록 기구하니, 이번에는 정말 끝이로구나.'

사람들이 앞전과 뒷전을 샅샅이 뒤졌으나, 바닥의 벽돌 하나하나까지 들춰보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한 차례 더 수색을 이어가며 횃불로 앞전을 비추고 있을 때, 조능이 말했다.

"아마 저 가마 안에 있을 것이다. 아까 형제들이 제대로 살피지 못한 모양이니, 내가 직접 비추어 보겠다."

토병 하나가 횃불을 들고 다가오자, 조능이 한 손으로 휘장을 걷어올렸고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머리를 들이밀며 안을 살폈다. 그런데 확인을 하려던 찰나, 갑자기 가마 안에서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횃불을 모조리 꺼뜨려 버렸다. 사당 안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맞은편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다.

조능이 말했다.

"또 괴이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난데없이 이런 거센 바람이 일다니, 필시 신령님께서 안에 계시다가 우리가 함부로 살피는 것을 노여워하여 이 바람으로 응답하신 것이 분명하다. 이만 물러가자. 마을 입구만 잘 지키고 있다가 날이 밝으면 다시 찾아오도록 하자."

조득이 말했다.

"하지만 가마 안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창으로 한 번 더 찔러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능이 대답했다.

"그것도 좋겠구나."

두 사람이 막 앞으로 나아가려는데, 갑자기 사당 뒤편에서 또 한 차례 괴상한 바람이 휘몰아쳤다. 바람은 모래와 돌을 거세게 휘날리며 굴러떨어지게 했고, 사당 건물 전체가 우르릉거리며 흔들리더니 검은 구름이 위아래를 뒤덮듯 내려앉았다. 순식간에 서늘한 기운이 엄습하니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쭈뼛 설 정도였다.

조능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조득에게 외쳤다.

"아우야, 어서 도망치자! 신령님께서 노하셨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앞다투어 사당 아래로 달려 내려가 사당 문 밖을 향해 도망쳤다. 그중 몇몇은 넘어져 굴렀고, 어떤 이들은 다리가 꼬여 비틀거렸으나, 겨우 몸을 일으켜 목숨을 구하려는 듯 사당 문 밖으로 필사적으로 뛰쳐나갔다.

그때 사당 안에서 누군가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능이 다시 안을 들여다보니, 토병 두세 명이 용이 새겨진 계단 위에 넘어지더니 나무뿌리에 옷이 걸려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

였다. 그들은 손에 들고 있던 박도를 놓친 채, 옷자락을 붙잡고 살려달라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가마 안에 숨어 이 광경을 듣던 송강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조능은 토병들의 옷을 풀어준 뒤 그들을 이끌고 사당 문 밖으로 나갔다. 앞서가던 토병 몇 명이 말했다.

"내가 이곳 신령님이 참으로 영험하다고 하지 않았소. 당신들이 굳이 안에서 헤집고 다니는 바람에 소귀신들을 들쑤셔 발작을 일으킨 것이오. 우리는 그저 마을 입구로 가서 지키고 있다가 그자를 기다립시다. 그러면 그자가 날아서 도망치지는 못할 것이오."

조능과 조득이 대답했다.

"옳은 말이다. 마을 입구 사방을 철저히 지키고 있기만 하면 된다."

사람들은 모두 마을 입구 쪽을 향해 갔다.

한편, 송강은 신령의 주방 안에 숨어 부끄러운 듯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비록 저놈들에게 붙잡히지는 않았으나, 마을 입구로 어떻게 나갈 수 있단 말인가?"

송강이 주방 안에서 온갖 방법을 궁리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뒤편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송강이 말했다.

"아, 이것 참 괴롭구나! 진작 밖으로 기어 나갈 걸 그랬어."

그때 푸른 옷을 입은 동자 둘이 곧장 주방 곁으로 다가와 입을 열었다.

"소동들이 마마의 법지를 받들어, 성주(星主)님께 말씀을 올리라 명하셨습니다."

송강이 감히 대답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자, 밖에 있던 동자가 다시 말했다.

"마마께서 부르시니, 성주님께서는 어서 나오십시오."

송강은 여전히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밖에서 동자가 다시 외쳤다.

"송 성주님,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마마께서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송강이 듣기에 그 목소리가 꾀꼬리나 제비처럼 맑고 고와 남자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신령의 보관 아래에서 기어 나왔다. 살펴보니 푸른 옷을 입은 여동자 둘이 침상 곁에 시종처럼 서 있었다. 송강은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진흙으로 만든 신상이었다. 그때 밖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송 성주님, 마마께서 부르십니다."

송강이 휘장을 헤치고 밖으로 나가보니, 소라 모양으로 머리를 말아 올린 푸른 옷의 여동자 둘이 나란히 몸을 굽히며 정중히 절을 올리고 있었다. 송강이 그 여동자들을 살펴보니 이러하였다.

붉은 얼굴에 검은 머릿결, 하얀 치아와 맑은 눈동자.
가볍게 떠다니며 먼지 하나 묻지 않고, 빛나는 모습은 하늘의 신선 같구나.
소라 모양 머리는 산봉우리처럼 솟아 있고, 봉황 모양 신발은 연꽃잎처럼 가볍네.
깊은 푸른빛 옷깃에는 은실이 한결같이 짜여 있고,
보랏빛 띠는 금빛 노을 같은 두 고리로 묶여 있네.
어렴풋이 신선 세계의 동쌍성이 떠오르고, 마치 봉래산의 꽃과 새를 다스리는 사자 같구나.

그때 송강이 물었다.

"두 선동(仙童)은 어디서 왔는가?"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대답했다.

"마마의 법지를 받들어, 성주님을 궁으로 모셔 오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선동이 잘못 알았구려. 내 성은 송이고 이름은 강이라, 무슨 성주라는 사람이 아니오."

동자가 말했다.

"어찌 잘못 알았겠습니까? 성주님께서는 그저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마마께서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송강이 다시 물었다.

"마마라니, 대체 어떤 분이란 말이오? 뵌 적도 없는 분께 어찌 감히 따라가겠소?"

동자가 대답했다.

"성주님께서 직접 가보시면 알게 될 터이니, 굳이 물으실 필요 없습니다."

송강이 물었다.

"마마는 어디 계신가?"

"바로 뒤편의 궁전에 계십니다."

동자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자 송강도 그 뒤를 따라 전각으로 들어갔다. 뒤쪽 전각을 돌아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문 앞에 이르자, 동자가 말했다.

"송 성주님, 이 문으로 들어오십시오."

송강이 그 문을 따라 들어가 보니, 하늘에는 별과 달이 가득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며 사방에는 울창한 숲과 곧게 뻗은 대나무가 가득했다. 송강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당 뒤에 이런 곳이 또 있었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이곳에 숨어들어 그토록 놀라지 않았을 것을.'

송강이 걸어가 보니, 향기로운 언덕 양옆으로 커다란 소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모두 성인 둘이 팔을 벌려 안아도 모자랄 만큼 굵었다. 그 사이로는 거북 등껍질처럼 평탄한 큰 길이 나 있었다. 송강은 길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옛 사당 뒤에 이토록 좋은 길이 있을 줄은 미처 몰랐구나.'

동자를 따라 1리쯤 가니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들려왔다. 앞을 보니 푸른 돌로 만든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다리 양옆에는 붉은 난간이 둘러져 있었다. 기슭에는 기이한 꽃과 풀, 푸른 소나무와 울창한 대나무, 버드나무와 복숭아나무가 심겨 있었고, 다리 아래로는 은빛 눈가루가 흩날리듯 물결이 돌 구멍 속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다리 기둥을 지나니 양옆으로 기이한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가운데로 커다란 주홍색 영성문(欞星門)이 서 있었다. 송강이 영성문을 통과하여 들어가 보니, 고개를 들었을 때 한 궁전이 나타났는데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금못 박힌 붉은 문과 푸른 기와, 조각된 처마.
기둥을 휘감아 도는 용이 여의주를 가지고 노는데, 쌍봉이 수놓인 병풍

위로 밝은 아침 해가 비치네.
붉은 흙으로 바른 벽 사이로 버드나무 꽃이 흩날리고,
푸른 안개 자욱한 누각에는 은은한 상서로운 빛이 감도네.
거북등 무늬 창문 너머로 향긋한 바람이 노란 비단 사이로 스며들고,
새우 수염 같은 발을 걷어 올린 발 너머로 밝은 달이 자줏빛 비단 위에 둥글게 걸렸네.
이곳이 하늘 위 신선의 집이 아니라면, 틀림없이 세상 임금의 집이리라.

송강은 그 광경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운성현에서 태어나 살면서 이런 곳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구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려움이 엄습하여 송강은 감히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그러자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성주님께 어서 가시라고 재촉했다. 동자가 앞장서서 문 안으로 인도하니, 용지(龍墀, 임금이 거니는 뜰)가 나타났고 양쪽 복도에는 주홍색 기둥들이 늘어서 있었으며 모두 수놓은 휘장이 걸려 있었다. 정중앙에는 커다란 대전이 하나 있었는데, 전각 위에는 등불과 촛불이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동자는 용지를 지나 한 걸음씩 월대(月臺) 위로 송강을 안내했다. 대전 계단 앞에서는 푸른 옷을 입은 동자 몇 명이 다시 말했다.

"마마께서 성주님께 안으로 들어오라 명하셨습니다."

송강이 대전에 이르자, 자신도 모르게 온몸이 떨리고 머리카락이 쭈뼛 섰다. 발밑에는 용과 봉황이 새겨진 전돌 계단이 깔려 있었다. 동자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 아뢰었다.

"송 성주님께서 계단 앞에 와 계십니다."

송강이 휘장 앞 어계(御階, 임금의 계단) 아래에 이르러 몸을 굽혀 다시 절을 올리고 땅에 엎드려 말했다.

"소인은 미천한 백성에 불과하여 성스러운 분을 뵙지 못하였사오니, 부디 자애로운 마음으로 굽어살펴 주시옵소서."

그러자 휘장 안에서 명이 내려왔다.

"성주님께 앉으라 일러라."

송강이 어찌 감히 고개를 들 수 있겠는가. 네 명의 동자가 송강을 부축하여 비단 방석 위로 안내하자, 송강은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다. 대전 위에서 호령이 떨어지자 동자들이 서둘러 구슬 휘장을 걷어 올려 금갈고리에 걸었다.

마마께서 물으셨다.

"성주, 그간 별거 없었는가?"

송강이 일어나 다시 절을 하며 말했다.

"소인은 미천한 백성이니, 감히 성스러운 용안을 뵙지 못하겠습니다."

마마가 말씀하셨다.

"성주가 여기까지 왔으니 격식을 차릴 필요 없다."

그제야 송강은 겨우 고개를 들어 눈을 뜰 수 있었다. 대전 안은 금빛과 벽옥빛이 찬란하게 교차하고 있었으며, 용등과 봉황 초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양옆으로는 푸른 옷을 입은 여동자들이 홀과 규를 들고, 깃발과 부채를 든 채 시종처럼 서 있었다. 그리고 정중앙의 칠보구룡상(七寶九龍床, 일곱 가지 보석과 아홉 마리 용이 새겨진 침상) 위에는 그 마마께서 앉아 계셨다. 송강이 살펴보니 이러하였다.

아홉 마리 용과 봉황이 날아오르는 머리 모양을 하고,
금실로 수놓은 붉은 비단옷을 몸에 걸쳤구나.
푸른 옥띠에 긴 치마를 늘어뜨리고,
하얀 옥패를 찬 채 화려한 소매를 들었네.
연꽃잎 같은 얼굴에 구름처럼 아름다운 눈썹이 있고,
앵두 같은 입술에 눈처럼 깨끗한 몸매가 단아하구나.
신선 같은 얼굴은 그려내기 어렵고,
위엄 있는 모습은 그림으로 담아내기 힘들도다.

마마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

"성주께서는 이리로 오시오."

마마의 명에 따라 동자가 술을 올리니, 양옆에 있던 푸른 옷의 여동자들이 기이한 꽃이 꽂힌 보병을 들고 술을 가져와 옥잔에 따랐다. 그

중 우두머리 격인 여동자가 옥잔을 받들어 송강에게 권했다. 송강은 일어나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옥잔을 받아 마마를 향해 무릎을 꿇은 채 한 잔을 마셨다. 송강이 느끼기에 그 술은 향기가 매우 그윽하여, 마치 정수리에 제호(醍醐)를 붓는 듯하고 마음속에 감로가 뿌려지는 듯했다. 이어 또 다른 동자가 선대추가 담긴 쟁반을 받쳐 들고 와 송강에게 권했다. 송강은 혹여 체면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며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레 대추 하나를 집어 입에 넣고는, 씨앗을 손에 쥐었다. 동자가 다시 술 한 잔을 따라와 권하자 송강은 또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마마께서 법지로 다시 한 잔을 권하라 명하시니, 동자가 다시 술을 따라 가져오자 송강은 또 마셨다. 선녀가 선대추를 건네자 송강은 두 알을 더 먹었다. 이렇게 송강은 총 세 잔의 선주와 세 알의 선대추를 먹게 되었다. 송강은 기분 좋게 술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으나, 술에 취해 체면을 잃을까 두려워 다시 절하며 말했다.

"소인의 술재주가 부족하오니, 부디 마마께서는 더 이상 권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대전 위에서 법지가 내려왔다.

"성주가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면 그만하게 하라. 대신 저 세 권의 '천서(天書)'를 가져다가 성주에게 하사하라."

동자가 병풍 뒤로 가서 옥쟁반에 담긴 황라보(黃羅袱, 황금빛 비단 보자기)를 들고 나오니, 그 안에는 세 권의 천서가 싸여 있었다. 동자가 그것을 송강에게 건네주었다. 송강이 살펴보니 천서는 길이가 다섯 치, 너비와 두께는 각각 세 치였다. 그는 감히 펼쳐보지 못하고 다시 절

을 올리며 공손히 받아 소매 속에 갈무리했다. 마마께서 법지로 말씀하셨다.

"송 성주여, 네게 세 권의 '천서'를 전하노니, 너는 하늘을 대신하여 도를 행하라. 주군을 위해서는 충성을 다하고 의를 지키며, 신하로서는 나라를 보필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며,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라. 또한 내게 네 구절의 '천언(天言)'이 있으니, 너는 이를 반드시 명심하여 평생 몸에 지니고 다니되, 결코 잊거나 누설하지 말지어다."

송강이 다시 절하며 말했다.

"천언을 받들겠나이다."

마마께서 말씀하셨다.

숙(宿)을 만나면 거듭 기쁘고
고(高)를 만나도 흉하지 않으리.
바깥 오랑캐와 안의 도적을
여러 곳에서 기이한 공으로 무찌르리라.

송강은 그 말을 다 듣고 다시 절하며 공손히 받들었다.

마마께서 법지로 말씀하셨다.

"옥제(玉帝)께서 성주의 마성(魔心, 마귀의 마음)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고 도행(道行) 또한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시어, 잠시 아래 세상

으로 벌을 내리신 것이다. 머지않아 다시 자부(紫府, 신선이 사는 곳)에 오를 터이니, 결코 한 치의 게으름도 피워서는 안 된다! 만약 훗날 죄를 지어 풍도(酆都, 저승의 도읍)로 떨어진다면, 나 또한 너를 구할 수 없느니라. 이 세 권의 책은 잘 살펴보고 익혀두되, 오직 천기성(天機星)과 함께 보는 것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보여서는 안 된다. 공을 이룬 후에는 이를 불태워 세상에 남기지 말지어다. 내가 당부한 말을 반드시 명심하라. 지금은 하늘과 인간의 사이가 멀어 오래 머물 수 없으니, 너는 속히 돌아가야 한다."

마마께서는 곧 동자에게 명하여 성주를 급히 돌려보내게 하며 덧붙이셨다.

"훗날 옥루금궐(瓊樓金闕, 신선이 사는 화려한 궁궐)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송강은 마마께 인사를 올린 뒤, 푸른 옷을 입은 여동자들을 따라 전각 뜰을 내려와 영성문을 나섰다. 여동자들은 그를 돌다리 근처까지 배웅했다. 여동자가 말했다.

"방금 성주께서 큰 놀라움을 겪으셨으나, 마마께서 보살펴 주신 덕분에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자연히 이 난관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주께서는 돌다리 아래 물속에서 두 마리 용이 노니는 것을 보십시오."

송강이 난간에 기대어 내려다보니, 과연 두 마리 용이 물속에서 노닐고 있었다. 그때 두 여동자가 아래로 송강을 홱 밀쳐버렸다. 송강이 크게 비명을 지르며 떨어지더니, 정신을 차려보니 신주(神廚, 신령스

러운 주방) 안이었다.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남가일몽, 즉 한바탕 꿈이었던 것이다.

송강이 기어 일어나 살펴보니 달그림자가 마침 중천(남쪽 한가운데)에 떠 있어, 아마도 삼경(三更, 밤 11시~새벽 1시 사이)쯤 된 모양이었다. 송강이 소매 안을 더듬어 보니 손안에는 대추 씨앗 세 알이 들어 있었고, 소매 속 손수건에는 천서(天書)가 싸여 있었다. 꺼내어 확인해 보니 과연 세 권의 천서가 들어 있었고, 입안에서는 술 향기가 감돌았다.

송강이 생각했다. '이 꿈은 참으로 기이하여 꿈인 듯 꿈이 아니구나. 만약 이것이 꿈이라면 어찌 천서가 소매 속에 있고 입안에 술 향기가 나며 손에 대추 씨앗이 있겠는가? 나에게 한 말들도 한 구절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꿈이 아니라면, 나는 분명 신주(神廚) 안에 있다가 고꾸라지듯 넘어져 들어온 것인데, 무엇이 이상하겠는가? 아마도 이곳의 신령이 지극히 영험하여 이토록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리라. 다만 어떤 신명인지는 알 수가 없구나.'

그가 휘장을 걷어 올려 살펴보니, 구룡의자(九龍椅) 위에 꿈속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이 아름다운 얼굴을 한 마마께서 앉아 계셨다. 송강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마마께서 나를 성주라 부르신 것을 보니, 나의 전생이 예사 인물은 아니었나 보다. 이 세 권의 천서도 분명 쓰임이 있을 것이다. 내게 당부하신 네 구절의 천언(天言) 또한 잊지 않았다. 푸른 옷을 입은 여동자가 "날이 밝으면 자연히 이 마을의 재앙에서 벗어날 것"이라 하지 않았던가. 이제 날이 점차 밝아 오니, 나는 밖으로 나가 봐야겠다.'

송강은 주방 안에서 짧은 막대기 하나를 찾아 손에 쥐고, 옷을 털어 닦은 뒤 한 걸음씩 전각을 내려왔다. 이어 왼쪽 회랑을 돌아 묘 앞으로 나아가 고개를 들어 보니, 낡은 편액에 금색 글자로 '현녀지묘(玄女之廟)'라는 네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송강은 손으로 이마를 가리고 절하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알고 보니 구천현녀 마마께서 제게 세 권의 천서를 전해주시고 목숨까지 구해주신 것이었군요. 만약 제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면, 반드시 이곳에 다시 와서 묘를 중수하고 전각을 새로 지어 올리겠습니다. 부디 성스러운 자비로 저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를 마친 송강은 마을 어귀를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묘를 떠나 얼마 가지 않아, 저 멀리 앞쪽에서 하늘을 찌를 듯한 외침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다. 송강은 속으로 생각했다. '또 일이 꼬이는구나. 일단 발을 멈추고 함부로 나가지 말아야겠다. 만약 저들 앞에 나타났다가는 분명 붙잡히고 말 것이다. 차라리 여기 길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게 낫겠다.'

송강이 얼른 나무 뒤로 몸을 숨기니, 토병 몇 명이 숨이 턱에 닿을 정도로 급히 달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칼과 창을 땅에 짚은 채 한 걸음씩 다가오며 연신 소리쳤다. "신성한 분이시여, 살려주십시오!"

나무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송강은 속으로 생각했다. '또 무슨 일이 터진 거지? 마을 어귀를 지키며 내가 나오기만을 기다려 잡으려 하더니, 왜 갑자기 이리 급히 달려오는 걸까?'

다시 살펴보니 조능도 뒤를 따라 급히 달려오며 소리치고 있었다. "우리 모두 죽게 생겼다!"

송강이 중얼거렸다. "저자가 왜 저렇게 당황하는 거지?"

그때 뒤쪽에서 한 거한이 쫓아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 거한은 상체를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귀신 같은 몸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손에는 강철을 덧댄 도끼 두 자루를 들고 호통을 쳤다. "이놈, 거기 서라!"

멀리서는 보이지 않았으나 가까이서 보니 분명 '흑선풍' 이규였다. 송강은 생각했다. '설마 이것도 꿈속의 일인가?' 그는 차마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그대로 있었다.

조능이 막 묘 앞으로 걸어가는데, 소나무 뿌리에 발이 걸려 그대로 땅바닥에 고꾸라졌다. 이규가 뒤쫓아와 그 기세를 몰아 조능의 등을 발로 짓밟더니, 손에 든 커다란 도끼를 치켜들고 내리치려 했다. 그때 뒤에서 호걸 두 명이 급히 달려오는데, 달려오느라 전립(氈笠)이 등 뒤로 젖혀진 채 저마다 박도를 꼬나들고 있었다. 앞선 이는 오붕이었고, 뒤따르는 이는 도종왕이었다. 이규는 이 두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공을 다투느라 의리를 저버릴까 염려되어 그대로 조능에게 도끼를 휘둘렀다. 도끼는 조능의 몸을 두 동강 내며 가슴팍까지 갈라놓았다. 이규는 그대로 뛰어올라 토병들을 몰아붙여 쫓아버렸고, 토병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송강은 여전히 감히 밖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뒤쪽에서 호걸 세 명이 더 달려오며 살기등등하게 들이닥쳤다. 앞장선 이는 '적발귀' 유당이었고, 두 번째는 '석장군' 석용, 세 번째는 '최명

판관' 이립이었다. 이 여섯 호걸이 서로 말했다. "저놈들을 다 쫓아버렸는데, 형님만 보이지 않으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때 석용이 소리쳤다. "저기 소나무 뒤에 서 있는 저 사람은 누구냐?"

그제야 송강은 겨우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오며 말했다. "형제들이 다시 와서 내 목숨을 구해 주었으니, 이 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한단 말이냐?"

여섯 호걸은 송강을 발견하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형님, 방법이 있습니다! 어서 가서 조두령님께 이 소식을 전합시다."

말을 마친 석용과 이립은 길을 나누어 달려 나갔다.

송강이 유당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고 나를 구하러 온 것인가?"

유당이 대답했다. "형님께서 산을 내려가셨을 때, 조두령님과 오 군사님께서 마음을 놓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즉시 대원장에게 명하여 형님의 행방을 알아보게 하셨지요. 조두령님께서는 직접 마음이 놓이지 않으셨는지 저희에게 형님을 맞이하러 가라고 다시 명하셨습니다. 혹여 형님께 무슨 변이라도 생길까 걱정하던 차에, 길 중간에서 대종을 만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두 도둑놈이 형님을 쫓아 잡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조두령님께서 크게 노하시어, 대종에게 산채로 돌아가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오직 오 군사님과 공손승, 완씨 삼형제, 여방, 곽성, 주귀, 백승에게만 산채를 지키게 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 이곳으로 불러 형님을 찾아 나서게 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송강이 환도촌으로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마을 입구를 지키던 놈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여버린 뒤 저희 몇 명만 마을 안으로 달려 들어온 것입니다. 곧이어 이 형님(이규)도 뒤따라오고 저희도 모두 들이닥쳤는데, 뜻밖에도 형님께서 이곳에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유당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석용이 조개, 화영, 진명, 황신, 설영, 장경, 마린을 이끌고 도착했다. 이어 이립이 이준, 목홍, 장횡, 장순, 목춘, 후건, 소양, 금대견 일행을 이끌고 오니, 수많은 호걸이 한자리에 모였다. 송강은 모든 두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조개가 말했다. "내가 아우더러 직접 산을 내려갈 것 없다고 일렀거늘, 이 못난 형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하마터면 또 큰일을 낼 뻔했구나."

송강이 말했다. "못난 아우가 그저 아버님 일로 마음이 타들어 가고 잠을 이룰 수 없어, 저도 모르게 발길이 이곳으로 향했습니다."

조개가 말했다. "동생을 기쁘게 할 소식이 있다. 아버님과 아우님 가족들은 내가 이미 대종에게 명하여 두천, 송만, 왕왜호, 정천수, 동위, 동맹을 딸려 보내어 이미 산채에 잘 도착하게 해두었다."

송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조개에게 절하며 말했다. "인형께서 이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송강은 죽어도 원망이 없습니다!"

조개와 송강은 모두 크게 기뻐하며 여러 두령과 함께 말을 타고 환도촌 입구를 떠났다. 송강은 말 위에서 손을 이마에 얹고 하늘을 향해 절을 올리며, 신령께서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를 표하고 언젠가 반드시 다시 와서 절을 올리겠노라 다짐했다. 송강의 충의가 하늘의 도움을 받았음을 노래한 옛 시가 있어 이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저무는 왕조의 운수가 이제 막 뒤집히려 하니, 천하의 영웅들이 미천한 집안에서 일어나도다.

빛나는 운수가 산동 땅에 나타나니, 천강성 서열 서른여섯이 하늘의 뜻에 응하도다.

상서로운 기운이 운성 땅을 휘감아 도니, 이 고을에서 송공명(송강)이 태어났도다.

어린 시절에는 여러 경전과 역사를 섭렵하며 학문을 닦았고, 자라서는 관리로서 사람의 정을 아끼며 살았도다.

인과 의, 예와 지, 그리고 신의까지 모두 갖추었으니, 구천현녀의 경전까지 전수받았도다.

호걸들이 천하에 가득하여 곳곳에서 교유하고, 흉한 일을 만나도 하늘이 도우니 길함으로 변하도다.

훗날 곧장 양산박으로 올라가,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하며 천병(天兵)을 움직이리라.

한편, 일행은 환도촌을 떠나 곧장 양산박으로 돌아왔다. 오용이 산을 지키는 두령들을 거느리고 금사탄까지 마중을 나왔으며, 대채의 취의청에 이르자 모든 호걸이 한자리에 모였다. 송강이 다급히 물었다. "아버님은 어디 계십니까?" 조개가 즉시 송 태공을 모셔 오라 일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철선자' 송청이 산가마를 메고 송 태공을 모시고 나타났고,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가마에서 내려 정청으로 들어왔다. 송강은 아버지를 보자 하늘에서 복이 내려온 듯 기뻐하며 얼굴 가득 웃음꽃을 피웠다. 송강이 다시 절을 올리며 말했다. "아버님, 그간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제가 불효하여 아버님께 누를 끼치고 큰 고생을 하게 해 드렸습니다." 송 태공이 말했다. "조능 그놈과 그 형제 놈들이 참으로 고약하더구나. 매일같이 사람을 보내 우리를 감시하며, 강주의 공문이 도착하기만 하면 우리 부자를 잡아다가 관아로 압송하려 기다리고 있더군. 네가 장원 뒤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앞쪽 초막에 있던 토병 여덟아홉 명이 갑자기 사라지더니 어찌 된 영문인지 쫓겨나 버리더구나! 그러다 삼경쯤 되니, 또 이백여 명의 사람이 장원의 문을 열고 들어와 나를 가마에 태워 메고 가더군. 네 아우 송청에게 짐을 챙기게 하고 장원을 불태워 버리라고 일렀다. 그때 사정을 물을 겨를도 없이 곧장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란다." 송강이 말했다. "오늘 부자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형제님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그러고는 아우 송청을 시켜 모든 두령에게 절하며 감사를 표하게 했다. 조개와 모든 호걸이 송 태공에게 인사를 마친 뒤, 소를 잡고 말을 잡아 잔치를 베풀어 송공명의 부자가 상봉한 것을 축하했다. 그날은 모두가 취할 때까지 즐긴 뒤에야 헤어졌고, 이튿날 다시 잔치를 열어 축하하니 크고 작은 두령들 모두가 매우 기뻐하였다.

셋째 날, 조개가 다시 잔치를 마련하여 송강 부자의 상봉을 축하하고 있었다. 그때 문득 공손승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계주에 계신 노모께서 집을 떠난 지 오래되었는데, 별고는 없으신지 모르겠구나.' 사람들이 한창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공손승이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두령에게 말했다. "그동안 여러 호걸께서 이 빈약한 도사를 거두어 주시니 그 은혜가 혈육과 다름없습니다. 다만 제가 조개 형님을 따라 양산박에 온 뒤로 날마다 잔치를 즐기느라, 고향에 계신 노모를 뵈러 가지 못했습니다. 스승님께서도 저를 걱정하고 계실까 두려우니, 잠시 고향에 내려가 노모를 뵙고 오고 싶습니다. 서너 달 정도 두령님들과 헤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와 뵙겠습니다. 그리하여 노모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조개가 말했다. "전에도 선생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북쪽에 홀로 계셔 모실 사람이 없다고 하셨지요. 이제 뜻이 그러하시다면 차마 막을 수는 없으나, 헤어지려니 마음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가시더라도 차마 지금 보낼 수는 없으니, 며칠 뒤에 다시 배웅하도록 합시다." 공손승이 감사를 표했다. 그날은 모두가 취할 때까지 즐긴 뒤에야 헤어졌고, 각자 방으로 돌아가 쉬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산채 관문 아래에 잔치를 베풀어 공손승을 떠나보내는 송별회를 열었다.

한편, 공손승은 평소처럼 구름처럼 떠도는 도사의 차림을 했다. 허리에는 주머니를 차고, 등에 암수 한 쌍의 보검을 멨으며, 어깨에는 삿갓을 걸치고 손에는 자라 껍데기로 만든 부채를 들고 산을 내려왔다. 두령들은 그를 맞이하여 관문 아래에서 송별 잔치를 베풀고 저마다 잔을 들어 작별을 고했다. 송별 인사를 모두 마친 뒤 조개가 말했다. "일청 선생, 가시는 길을 붙잡을 수는 없으나 결코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됩

니다. 본래 선생을 보내드리고 싶지 않으나, 노모(老尊堂)께서 위에 계신 까닭에 감히 막을 수가 없군요. 백 일 뒤에는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약속을 어기지 마십시오." 공손승이 대답했다. "그동안 여러 두령께서 저를 극진히 대접해 주셨는데, 제가 어찌 신의를 저버리겠습니까! 고향에 가서 스승님께 인사를 드리고 노모를 잘 모신 뒤에 곧장 산채로 돌아오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선생님, 사람 몇 명을 데려가서 노모를 모시고 산으로 올라오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야 아침저녁으로 봉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손승이 말했다. "노모께서는 평생 조용하고 한적한 것을 좋아하셔서 큰 소란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차마 모시고 오지는 못하겠습니다. 집에 전답과 산장이 있으니 노모께서도 스스로 잘 돌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저 한 번 찾아뵙고 올 뿐이니, 다녀와서 다시 모여 의리를 다지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정 그러하시다면 선생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저 하루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조개가 노잣돈이 될 만한 은자와 돈을 한 쟁반 가득 내어주자, 공손승이 말했다.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여비로 쓸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개는 결국 그중 절반을 거두어 공손승의 허리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공손승은 절을 올리고 사람들과 작별한 뒤, 금사탄을 건너 계주를 향해 떠나갔다.

두령들이 잔치를 마치고 산으로 돌아가려는데, 문득 '흑선풍' 이규가 관문 아래에서 목놓아 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송강이 급히 물었다. "아우님, 어찌 그리 슬퍼하는가?" 이규가 울며 말했다. "뭐가 이리 짜증 난단 말입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어른을 모시러 가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어머니를 뵈러 가는데, 이 철우는 대체 땅속 구덩이에

서 기어 나온 놈이란 말입니까!" 조개가 물었다. "자네는 이제 어찌할 셈인가?" 이규가 대답했다. "집에는 노모 한 분뿐입니다. 제 형님은 또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즐겁게 모시겠습니까? 저는 어머니를 이곳으로 모셔와서 잠시라도 즐겁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개가 말했다. "아우님 말이 맞네. 내가 사람 몇 명을 보내 자네와 함께 어머니를 모셔 오도록 하겠네. 그것 또한 참으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자 송강이 가로막았다. "안 됩니다. 이규 아우는 성질이 워낙 거칠어서 고향에 내려가면 분명 탈이 날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 함께 가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하물며 성격이 불같은 데다 길을 가다 충돌이라도 하면 어쩌겠습니까? 게다가 자네는 강주에서 사람을 여럿 죽였으니, 누가 자네를 '흑선풍'이라 모른단 말입니까? 지금쯤 관아에서 추적하는 공문이 이미 내려갔을 터이니, 분명 본적지로 수배가 내려올 것입니다. 자네는 인상도 험악하니,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겨 먼 길을 가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상황이 잠잠해진 뒤에 어머니를 모셔 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규는 조바심이 나 소리쳤다. "형님, 형님도 참 속이 좁으십니다! 형님의 아버지는 어서 산으로 모셔와 즐겁게 해드리면서, 우리 어머니는 마을에 홀로 고생하게 두시겠다는 겁니까? 정말이지 화가 치밀어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아우님, 너무 조급해하지 말게. 어머니를 모셔 오고 싶다면 내 말하는 세 가지 조건만 지키게. 그러면 보내주겠네." 이규가 말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송강이 손가락 두 개를 펴 보이며 그 세 가지 일을 말해주

었다. 이규가 천지를 뒤흔드는 손놀림으로 바산의 산골짜기를 뛰어넘는 벌레와 싸우게 되리라. 결국 송강이 이규에게 말한 그 세 가지 조건은 무엇일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43회 — 가짜 이규가 지름길로 홀로 가는 이를 겁탈하고, 흑선풍 이규가 이령에서 네 마리 호랑이를 죽이다

假李逵剪徑劫單人 黑旋風沂嶺殺四虎

이야기는 이러하다. 이규가 말했다. "형님,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송강이 대답했다. "네가 기주 기수현으로 가서 어머니를 모셔와야 하니, 첫째는 곧장 돌아오되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 것. 둘째는 네 성격이 워낙 급하니 누가 너와 함께 가겠느냐? 그러니 조용히 어머니만 모시고 바로 돌아오너라. 셋째는 네가 쓰는 그 도끼 두 자루는 가져가지 마라. 길 위에서 매사에 조심하고, 가급적 빨리 다녀오너라." 이규가 말했다. "그 세 가지가 무슨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형님은 걱정 마십시오. 저는 오늘 바로 떠나겠습니다. 더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이규는 곧바로 옷차림을 단정히 매만지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손에는 박도를 들었다. 커다란 은괴 한 덩이와 작은 은자 몇 개를 챙긴 그는 술을 몇 잔 들이켜고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읍하며 작별 인사를 올렸다. 그러고는 곧장 산을 내려가 금사탄을 지나갔다.

조개와 송강이 여러 두령과 함께 배웅을 마치고 양산박 대채로 돌아와 취의청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송강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규 아우는 이번 길에 분명히 사고가 날 것 같구나. 혹시 형제들 중에 그와 고향이 같은 사람이 있느냐? 있다면 그곳에 가서 소식을 좀 알아봐 주었으면 한다." 그러자 두천이 말했다. "주귀가 원래 기주 기수현 사람이라 이규와 고향이 같습니다." 송강이 그 말을 듣고 말했다. "아, 내가 깜빡했구나. 지난번 백룡묘에서 모였을 때, 이규가 이미 주귀와 고향이 같다고 알아보았었지." 송강이 즉시 사람을 보내 주귀를 청하게 했다. 심부름꾼이 산 아래 주막까지 가서 주귀를 청해 데려왔다. 송강이 말했다. "지금 이규 아우가 어머니를 모셔오려고 고향으로 떠났다. 이규가 워낙 술버릇이 좋지 않아, 혹여 길 위에서 사고가 날까 염려되어 사람을 붙여 동행시키지도 못했다. 그런데 네가 그곳 사람이라니, 가서 소식을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느냐?" 주귀가 대답했다. "저는 기주 기수현 사람입니다. 지금 주부라는 아우가 그 현 서문 밖에서 주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는 우리 현 백장촌 동점동(董店東)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달이라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은 남의 집에서 머슴(장공)으로 일합니다. 이규는 어릴 때부터 성격이 흉악하고 사나웠는데, 사람을 때려죽이고 도망쳐 강호를 떠돌게 되어 한 번도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서 소식을 알아오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주막을 돌볼 사람이 없을까 걱정입니다. 저도 고향에 간 지 오래되었으니, 이번 기회에 집에 가서 형제를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주막 걱정은 하지 마라. 내가 후건과 석용에게 잠시 맡아 관리하도록 하겠다." 주귀는 그 말을 듣고 여러 두령에게 작별 인사를 올린 뒤 산을 내려갔다. 곧장 주막으로 가서 짐을 꾸리고, 석용과 후건에게 가게를 맡긴 뒤 곧바로 기주를 향해 달려갔다.

한편, 양산박에 남은 송강과 조개는 매일 연회를 베풀며 술을 마시고 즐겁게 지냈고, 오용과 함께 천서를 공부하며 시간을 보냈으니, 그 이야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한편, 이규는 홀로 양산박을 떠나 길을 재촉하여 기수현 경계에 이르렀다. 길을 가는 동안 이규는 정말이지 술을 입에 대지 않았기에 별다른 사고도 일으키지 않았으니,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하자. 기수현 서문 밖까지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데 모여 방문(榜文)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규도 사람들 틈에 서서 방문 읽는 소리를 들었다. "방문의 첫 번째 수배자, 주범 송강은 운성현 사람이다. 두 번째 종범 대종은 강주 양원(兩院)의 압옥(押獄, 옥졸 우두머리)이었다. 세 번째 종범 이규는 기주 기수현 사람이다." 이규는 뒤에서 이 말을 듣고는 손가락질하며 소란을 피우려 했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앞쪽으로 달려오더니 이규의 허리를 덥석 끌어안으며 외쳤다. "장 형님,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규가 몸을 돌려 살펴보니, 바로 '한지홀률' 주귀였다. 이규가 물었다. "자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가?" 주귀가 말했다. "일단 나를 따라와서 이야기하세."

두 사람은 함께 서문 밖 가까운 마을에 있는 주막으로 들어가, 곧장 뒤편에 있는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주귀가 이규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아,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게시판에 송강을 잡으면 만 관, 대종은 오천 관, 이규를 잡으면 삼천 관을 상으로 준다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어찌하여 저기 저렇게 서서 게시판을 보고 있단 말이냐? 만약 눈치 빠른 놈들에게 붙잡혀 관가로 끌려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송 형님께서 네가 사고를 칠까 봐 같이 오기를 꺼리시더니, 혹시 네가 여기까지 와서 행패를 부릴까 봐 걱정되어 나를 특별히 보내 소식을 알아보고 오라 하셨다. 나는 산에서 내려온 지 하루가 지났는데 너보다 하루나 먼저 도착했거늘, 너는 어찌 이제야 여기 나타난 것이냐?"

이규가 말했다.

"형님께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바람에 길을 천천히 오느라 늦었다. 그런데 자네는 이 주막을 어찌 알고 있나? 자네는 이 동네 사람인가? 집은 어디에 있나?"

주귀가 대답했다.

"이 주막은 내 아우 주부의 집이라네. 나는 원래 이 지역 사람인데, 강호를 떠돌며 밑천을 다 써버리는 바람에 양산박에 들어가 산적 노릇을 하게 되었지. 이번에 겨우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라네."

그러고는 아우 주부를 불러 이규와 만나게 했다. 주부는 이규에게 술을 대접하며 극진히 대접했다. 이규가 말했다.

"형님께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셨지만, 오늘 드디어 고향에 도착했으니 술 두 사발 정도는 마셔도 상관없지 않겠나?"

주귀는 감히 그를 말리지 못하고 이규가 마시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날 밤 이규는 새벽 사경(四更) 무렵까지 술을 마셔댔다. 그러고는 밥을 좀 챙겨 먹고는, 오경(五更) 무렵 아직 새벽별이 남아 있고 지는

달이 걸린 채 노을빛이 환하게 밝아올 때 마을로 향했다. 주귀가 당부했다. "샛길로는 가지 말게. 큰 박나무가 있는 곳에서 꺾어 동쪽 큰길로 곧장 가다 보면 백장촌이 나오는데, 거기가 바로 동점동(董店東)이네. 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빨리 산채로 돌아가게나." 이규가 말했다. "샛길로 가는 게 더 가까운데, 누가 귀찮게 큰길로 가겠나?" 주귀가 말했다. "샛길은 호랑이도 많고, 기회를 틈타 봇짐을 빼앗는 도적들도 많다네." 이규가 대답했다. "그까짓 게 뭐가 무섭다고!" 이규는 전립(氈笠)을 쓰고 박도와 허리칼을 챙겨 든 뒤, 주귀와 주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는 백장촌을 향해 길을 떠났다.

수십 리쯤 갔을까,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다. 이슬 맺힌 풀숲 사이에서 흰 토끼 한 마리가 튀어나오더니 앞길을 향해 달려갔다. 이규가 그 뒤를 바짝 쫓아가며 웃으며 말했다.

"저 짐승 놈이 내 길을 안내해 주는구나!"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산길은 험하고 고요하며 깊어만 가고,
서풍에 누런 잎은 성긴 숲을 가득 채웠네.
우연히 토끼를 쫓다 앞 경계를 지나느라,
바삐 길을 걷던 마음조차 잊었노라.

한참을 가다 보니 앞쪽에 커다란 나무 수십 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었는데, 마침 초가을이라 잎들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규가 숲 근처에 다다랐을 때, 한 사내가 길을 가로막고 나타나더니 외쳤다.

"길을 지나가려면 통행료를 내놓아라! 안 그러면 봇짐을 다 뺏어버리겠다!"

이규가 그자를 살펴보니, 붉은 비단 머리띠를 두르고 거친 베로 만든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판도끼 두 자루를 들고 얼굴에는 검은 먹칠을 해놓은 상태였다. 이규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소리쳤다.

"이놈아, 네놈은 대체 뭐 하는 놈이냐? 감히 여기서 도둑질을 해!"

사내가 말했다.

"내 이름을 물어본다면 네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주마. 이 몸은 바로 '흑선풍'이라 하느니라! 통행료와 봇짐을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 보내주마."

이규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웃기지도 않는구나! 네놈은 대체 누구냐? 어디서 나타나서 감히 내 이름을 흉내 내며 여기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이규가 손에 든 박도를 치켜들고 그 사내에게 달려들었다. 사내는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어 도망치려 했으나, 이규가 박도로 그를 쳐서 땅바닥에 쓰러뜨리고는 발로 가슴을 짓누르며 호통을 쳤다.

"이제 나를 알아보겠느냐?"

사내가 바닥에 엎드린 채 울부짖었다.

"나으리,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규가 말했다.

"나는 강호의 호걸인 '흑선풍' 이규다. 네놈이 감히 내 이름을 더럽히다니!"

사내가 대답했다.

"소인이 성은 이 씨이나, 진짜 '흑선풍'은 아닙니다. 나으리께서 강호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그 성함만 들어도 귀신도 겁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인이 감히 나으리의 이름을 흉내 내어 여기서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저 혼자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흑선풍'이라는 세 글자만 듣고도 짐을 버려둔 채 도망가는 것을 보고, 그 짐들을 챙겨 먹고살 뿐입니다. 결코 사람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소인의 천한 이름은 이귀라고 하며, 바로 앞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이규가 말했다.

"이 무례한 놈 같으니라고! 감히 남의 짐을 뺏고 내 이름까지 더럽히다니. 판도끼 두 자루까지 똑같이 흉내 내다니, 우선 도끼 맛부터 좀 봐라!"

이규는 말과 동시에 사내의 손에서 도끼 하나를 낚아채 휘둘렀다. 이귀가 황급히 소리쳤다.

"나으리, 저를 죽이시면 두 명을 죽이는 셈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이규가 손을 멈추고 물었다.

"나를 죽이면 왜 두 명을 죽이는 게 된다는 말이냐?"

이귀가 말했다.

"소인이 원래 도둑질을 하려던 것은 아닙니다. 집에 아흔 살 된 노모가 계신데 모실 사람이 없어, 나으리의 유명한 이름을 빌려 사람들을 겁주고 혼자 있는 나그네의 짐이나 뺏어 노모를 봉양하려 했을 뿐입니다. 결코 사람을 해친 적은 없습니다. 이제 나으리께서 저를 죽이시면, 집에 계신 노모는 분명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이규는 비록 눈 하나 깜짝 않고 사람을 죽이는 마귀 같은 놈이었으나, 그 말을 듣고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어머니를 모셔 오려고 고향에 내려가는 길인데, 도리어 어머니를 봉양하는 놈을 죽인다면 하늘도 나를 돕지 않겠구나. 에이, 됐다, 됐어. 네놈의 목숨만은 살려주마.'

이규가 그를 놓아주자, 이귀는 도끼를 손에 든 채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이규가 말했다.

"내가 바로 진짜 '흑선풍'이다. 너는 앞으로 다시는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이귀가 대답했다.

"이번에 목숨을 건졌으니, 당장 집으로 돌아가 생업을 바꾸겠습니다. 다시는 나으리의 이름을 빌려 여기서 도둑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규가 말했다.

"효심이 가상하구나. 내가 밑천으로 은자 열 냥을 줄 테니, 가서 다른 일을 시작하거라."

이규는 곧바로 은자 한 덩이를 꺼내 이귀에게 건네주었고, 이귀는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한 뒤 떠나갔다.

이규가 혼자 웃으며 말했다.

"이놈이 하필 내 손에 걸리다니. 효심이 있는 놈이라니 분명 가서 생업을 바꿀 것이다. 내가 이놈을 죽인다면 천리에도 어긋나는 일이겠지. 됐다, 나도 이제 가보자."

이규는 박도를 챙겨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산속의 외진 오솔길을 향해 걸어갔다.

시로 이르되,

이규(李逵)가 어머니를 맞으러 가다 변고를 만났으니,
이귀(李鬼)가 어찌 노모를 봉양한 적이 있었던가.
세상의 충성과 효심을 살펴보건대,
사건과 말은 자세히 따져보아야 하는 법이다.

사시(巳時, 오전 9시~11시)쯤 되자, 이규는 배도 고프고 목도 말라 왔다. 사방에는 산길과 오솔길뿐이라 술집이나 음식점 하나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걷다 보니 멀리 산골짜기 사이에 초가집 두 채가 보였다. 이규는 그곳을 발견하자마자 달려갔다. 집 뒤편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오는데, 머리에는 들꽃 한 묶음을 꽂고 얼굴에는 연지와 분을 두껍게 바르고 있었다. 이규는 박도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주머니, 저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배가 너무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술집이나 밥집을 찾을 수가 없으니, 여기 엽전 한 꾸러미를 드릴 테니 술과 밥을 좀 차려 주십시오."

여인은 이규의 험상궂은 몰골을 보고는 감히 안 된다는 말을 못 하고 대답했다.

"술은 팔 곳이 없지만, 밥은 좀 해서 손님께 대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규가 말했다.

"그럼 됐습니다. 다만 밥을 좀 넉넉히 해 주십시오. 배가 고파서 창자가 뒤틀릴 지경입니다."

여인이 물었다.

"쌀 한 되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규가 말했다.

"쌀 세 되는 해 주셔야겠습니다."

여인은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지피고, 시냇가로 가서 쌀을 씻어 밥을 짓기 시작했다. 이규는 집 뒤편 산기슭으로 가서 손을 씻으려는데, 한 사내가 산 뒤편에서 허둥지둥 돌아오는 것이 보였다. 이규가 집 뒤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여인이 산에 나물을 캐러 가려고 뒷문을 열고 나가더니 사내를 보고 물었다.

"여보, 다리는 어쩌다 그렇게 절뚝거리게 됐어요?"

사내가 대답했다.

"여보, 하마터면 당신을 못 볼 뻔했소. 내가 얼마나 재수가 없는지 아시오? 혼자 지나가는 놈 하나 걸리기를 보름이나 기다렸는데, 오늘에야 겨우 하나를 만났지 뭐요. 그게 누구였는지 아시오? 바로 진짜 '흑선풍'이었소! 그런데 하필 그 재수 없는 놈을 만나는 바람에 내가 어떻게 당해내겠소? 박도에 맞아 바닥에 나동그라졌는데, 나를 죽이려 들기에 내가 거짓으로 외쳤지. '나 하나 죽이면, 다른 사람 하나까지 죽이는 꼴이 됩니다!'라고 말이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기에, '집에 아흔 살 된 노모가 계신데 돌볼 사람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말했더니, 그 재수 없는 놈이 정말 내 말을 믿고 목숨을 살려줬지 뭡니까. 게다가 밑천이라며 은자까지 한 덩이 주면서 생업을 바꿔 노모를 봉양하라고 하더군요. 혹시라도 그놈이 눈치를 챘을까 겁이 나서, 얼른 그 숲속 외진 곳에서 한숨 자고 나서 산 뒤편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인이 말했다.

"목소리를 낮추세요. 방금 검은 덩치 큰 사내가 와서 밥을 해달라고 했으니 분명 그놈일 겁니다. 지금 문 앞에 앉아 있을 테니 가서 슬쩍 살펴보세요. 만약 그놈이 맞으면 마비되는 약을 좀 구해다가 나물에 넣어 그놈이 먹고 쓰러지게 만듭시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그놈을 해치운 뒤에 금은을 털어서 현청 근처로 이사해 장사를 합시다. 여기서 노상강도질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요!"

이규는 그 말을 듣고는 말했다.

"이놈 보게나, 내가 은자까지 쥐여주고 목숨까지 살려줬더니 도리어 나를 해치려 들다니.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규는 몸을 돌려 뒷문 쪽으로 향했다. 마침 이귀가 밖으로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이규가 달려들어 그를 단숨에 덮쳤다. 여인은 당황하여 앞문 쪽으로 황급히 달아나 버렸다. 이규는 이귀를 붙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는, 옆구리에 차고 있던 허리칼을 뽑아 단숨에 그놈의 목을 베어버렸다.

이규는 칼을 든 채 앞문으로 가서 여인을 찾았으나, 여인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뒤져보았다. 대나무 바구니 두 개에는 헌 옷가지들이 들어있었는데, 그 밑바닥에서 은조각 몇 개와 비녀 몇 개를 찾아내어 모두 챙겼다. 이어 이귀의 몸을 뒤져 그놈이 가졌던 작은 은자 덩어리까지 찾아낸 뒤, 모두 보따리에 챙겨 넣었다.

다시 솥을 살펴보니 쌀 세 되로 지은 밥은 이미 다 익었으나, 함께 먹을 나물이 없었다. 이규는 밥을 한 그릇 떠서 먹다가 혼자 웃으며 말했다.

"이 어리석은 놈아, 눈앞에 좋은 고기를 두고도 먹을 줄을 모르는구나."

이규는 허리칼을 뽑아 이귀의 다리에서 고기 두 덩이를 베어냈다. 그러고는 물로 깨끗이 씻은 뒤, 아궁이에서 숯불을 가져와 고기를 굽기 시작했다. 그는 고기를 구우며 밥을 먹었고, 배불리 먹고 나자 이귀의 시체를 집 밖으로 끌어다 놓은 뒤 불을 질러버렸다. 그러고는 박도를 챙겨 들고 다시 산길을 향해 떠나갔다.

이규가 동점동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다. 그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러자 침상에 누워 있던 어머니가 묻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이규가 살펴보니, 어머니는 양쪽 눈이 완전히 멀어 침상에 앉아 불경을 외고 있었다. 이규가 말했다.

"어머니, 철우가 집에 왔어요."

어머니가 말했다.

"내 아들아, 네가 떠난 지가 벌써 한참인데…… 지난 몇 년간은 어디서 지낸 게냐? 네 형은 그저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있는데, 나를 봉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구나. 내가 늘 네 생각을 하느라 눈물이 말라붙어 눈이 멀어버렸다. 너는 그동안 별일 없이 잘 지냈느냐?"

이규는 속으로 생각했다.

'양산박에서 도적질하며 지낸다고 하면 어머니가 분명 허락지 않으실 테니, 그냥 적당히 둘러대야겠다.'

이규가 대답했다.

"철우는 이제 관직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려고 특별히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말했다.

"그거 참 잘되었구나! 그런데 네가 나를 어떻게 데려가려느냐?"

이규가 말했다.

"제가 어머니를 등에 업고 길을 가다가, 중간에 수레를 한 대 구해 타고 가면 됩니다."

어머니가 말했다.

"네 형이 오면 같이 상의해 보거라."

이규가 말했다.

"상의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저랑 같이 가시면 됩니다."

이규가 막 길을 나서려는데, 마침 형 이달이 밥 한 항아리를 들고 들어왔다.

이달이 문으로 들어오자, 이규가 그를 보고 절하며 말했다.

"형님, 여러 해 동안 뵙지 못했습니다."

이달이 욕설을 섞어 꾸짖었다.

"이놈아, 돌아와서 뭘 하려는 게냐? 도리어 사람한테 짐만 지우러 왔구나!"

어머니가 거들었다.

"얘야, 철우는 이제 관직에 올랐단다. 나를 모시려고 특별히 집으로 찾아왔어."

그러자 이달이 말했다.

"어머니, 저놈이 하는 헛소리를 믿지 마세요. 예전에 저놈이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제가 칼을 차고 쇠사슬에 묶여 온갖 고생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요즘은 양산박 도적놈들과 한패가 되어 처형장의 죄수를 탈취하고 강주를 뒤엎더니, 이제는 양산박에서 강도질이나 하고 다닌다더군요. 며칠 전 강주에서 관아로 공문이 내려왔는데, 본적지에서 그놈을 추적하여 본인을 잡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까지 관가로 끌려가 심문을 당할 뻔했는데, 다행히 재력가 한 분이 저를 위해 나서

서 사건을 잘 해결해 주었습니다. 제 형제는 십여 년 전부터 행방이 묘연하여 집에 온 적도 없으니,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일 뿐이라고 말이죠. 그분이 위아래로 돈을 써준 덕분에 겨우 매를 맞고 관가에 끌려가는 일은 면했습니다. 지금은 그놈을 잡으면 상금으로 돈 삼천 전을 주겠다고 방까지 붙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놈이 죽지도 않고 집구석에 기어 들어와서 헛소리를 늘어놓다니요!"

이규가 말했다.

"형님,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조만간 형님을 모시고 산으로 올라가 즐겁게 지내면 그만 아닙니까."

이달은 크게 화가 나 이규를 때려주려 했으나,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자 밥 항아리를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그대로 나가버렸다.

이규가 말했다.

"저놈이 저렇게 나가버리면 분명 나를 잡으러 사람을 보낼 테니,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겠구나. 차라리 하루빨리 떠나는 게 낫겠다. 우리 형님은 평생 저런 큰 은자를 구경도 못 해봤을 테니, 내가 침상 위에 은자 오십 냥짜리 한 덩이를 남겨두어야겠다. 형님이 돌아와서 이걸 보면 분명 나를 쫓아오지는 못할 게야."

이규는 곧바로 허리춤의 주머니를 풀어 은자 한 덩이를 꺼내 침상 위에 놓으며 어머니께 외쳤다.

"어머니, 제가 업고 갈 테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물었다.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게냐?”

이규가 말했다.

“묻지 마시고 그저 가서 즐겁게 지내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업고 가니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이규는 곧바로 어머니를 등에 업고 박도(朴刀)를 챙겨 들고는, 문밖의 작은 길을 따라 서둘러 떠나갔다.

한편, 이달은 급히 재력가의 집으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재력가가 장객(莊客, 집안의 일꾼이나 호위 무사) 열댓 명을 거느리고 바람처럼 집으로 달려와 살펴보니, 어머니는 간데없고 침상 위에 커다란 은자 한 덩이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달은 그 은자를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철우가 은자를 남겨두고 어머니를 업고 어디론가 숨어버렸구나. 분명 양산박 사람들이 그를 데리러 온 것이겠지. 내가 섣불리 쫓아갔다가는 도리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 어머니를 업고 갔으니 필시 산채로 들어가 즐겁게 지내려는 모양이로구나.'

사람들은 이규가 사라진 것을 보고도 딱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달이 장객들에게 말했다.

"이놈 철우가 어머니를 업고 어느 길로 갔는지 모르겠구나. 이 근처에 작은 길이 워낙 많으니 대체 어떻게 쫓아가야 한단 말이냐?"

장객들은 이달이 딱히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각자 제 갈 길로 돌아갔다.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일단락된다.

한편, 이규는 이달이 사람들을 이끌고 쫓아올까 두려워, 어머니를 업은 채 산속 깊은 곳의 한적한 작은 길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가는데, 하늘의 빛깔은 이러했다.

저녁 안개 멀리 솟은 산봉우리에 가로놓이고,
밤안개 기이한 봉우리들을 감싸 안았네.
자애로운 까마귀는 어지럽게 숲으로 날아가고,
온갖 새들은 나무 곁에서 떠들썩하게 우짖네.
줄지어 날아가는 기러기 떼는,
긴 강물에 떨어져 갈대꽃 모양으로 스며드네.
점점이 반짝이는 반딧불 빛은,
들길 위 썩은 풀 사이로 비스듬히 기댄 채 흐르네.
금빛 가을바람이 말려 올라 낙엽을 흩날리고,
서늘한 서리 기운은 불어와 깊은 산을 뒤덮네.

이규가 어머니를 업고 고개 아래에 이르니 이미 날이 저물어 있었다. 어머니는 눈이 보이지 않아 낮인지 밤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규는 이 고개가 어디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이곳을 기령이라 불

렀다. 고개를 넘어가야 비로소 민가가 나타날 터였다. 모자는 별빛이 밝고 달빛이 환한 것을 틈타 한 걸음 한 걸음 고개를 올라갔다.

어머니가 등에 업힌 채 말했다. "아들아, 어디 가서 물이라도 한 모금 얻어다 마실 수 있으면 좋겠구나."

이규가 대답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고개를 넘어가서 남의 집을 빌려 쉴 수 있게 되면, 밥이라도 좀 해 드립시다."

어머니가 말했다. "낮에 마른밥을 좀 먹었더니,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구나."

이규가 말했다. "저도 목구멍이 타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고개 위로 모셔다드린 다음에 물을 찾아다 드릴게요."

어머니가 말했다. "아들아, 정말 목이 말라 죽겠구나! 제발 좀 살려다오."

이규가 말했다. "저도 너무 졸려서 죽겠습니다."

이규는 기운을 짜내어 겨우 고개 위에 다다랐다. 그는 소나무 옆 커다란 청석 위에 어머니를 내려놓고, 옆에 박도를 꽂아둔 뒤 어머니에게 당부했다. "조금만 참고 앉아 계세요. 제가 물을 좀 구해 오겠습니다."

이규는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소리를 따라갔다. 산기슭을 두세 군데나 돌아 드디어 계곡가에 이르러 보니,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시로 이르되 다음과 같았다.

벼랑과 골짜기 뚫으며 수고로움 마다치 않으니
멀리 바라보고서야 그 근원이 높음을 알겠구나.
시냇물과 골짜기 물이 어찌 머물러 있겠는가
결국은 큰 바다로 돌아가 거센 파도가 되리라.

이규는 계곡가로 가서 물을 떠서 몇 모금 마셔보고는 생각했다. '이 물을 어떻게 가져가야 어머니께 드릴 수 있을까?'

그는 몸을 일으켜 동서로 두루 살펴보았다. 멀리 산꼭대기에 암자 하나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규가 말했다. "됐다!"

이규는 덩굴을 붙잡고 기어올라 암자 앞에 이르렀다. 문을 밀고 들어가 보니, 그곳은 바로 사주대성사당(泗州大聖祠堂)이었다. 앞에는 석제 향로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규가 손으로 향로를 들어 올리려 해 보니, 원래 받침대와 통째로 깎아 만든 것이었다. 이규가 한참을 힘껏 당겨보았으나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다. 순간 울컥 화가 치민 이규는 아예 받침대까지 통째로 뽑아내더니, 앞쪽 돌계단에 쾅 하고 내리쳐 향로를 받침대에서 떼어냈다.

향로를 챙겨 다시 계곡으로 내려간 이규는 향로를 물에 담그고 주변의 잡풀을 뽑아 깨끗이 씻어냈다. 그러고는 향로에 물을 반쯤 채워 두 손으로 받쳐 들고는, 다시 왔던 길을 헤매며 고개 위로 올라갔다.

소나무 숲 근처에 도착한 이규는 돌 위에서 어머니를 찾지 못하고, 그저 박도만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규가 어머니를 불러 물을 드시라고 외쳤으나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이규는 마음이 다급해져 향로

를 내팽개치고 눈을 부릅뜬 채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어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서른 걸음도 채 가기 전에 풀밭 위에 핏자국이 뭉쳐 있는 것이 보였다. 이규는 이를 보고 의아함이 극에 달해 핏자국을 따라가 보았다. 그러다 커다란 굴 입구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새끼 호랑이 두 마리가 사람의 다리 하나를 핥고 있었다. 시로 이르되 다음과 같았다.

가짜 흑선풍(이귀)은 참으로 못된 농간을 부렸으니,
살아서는 제 양심을 속이더니 죽어서는 그 다리가 구워졌네.
누가 알았으랴, 노모의 다리마저 화를 입을 줄을,
굶주린 호랑이도 굶주린 사람도 모두 먹기 위함이었네.

이규는 속으로 생각했다. '양산박에서 돌아오자마자 오로지 어머니를 모시려고 이 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네놈이 내 어머니를 잡아먹었구나! 저 짐승이 끌고 있는 저 다리가 우리 어머니 다리가 아니라면 대체 누구의 것이란 말이냐!'

울화가 치민 이규의 누런 수염이 빳빳하게 곤두섰다. 그는 손에 든 박도를 치켜들고 새끼 호랑이 두 마리를 찔러댔다. 새끼 호랑이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하여 발톱을 세우고 앞을 향해 달려들었으나, 이규가 먼저 칼을 휘둘러 한 마리를 찔러 죽였다. 남은 한 마리가 굴 안으로 잽싸게 도망치자, 이규도 굴 안까지 쫓아가 그놈마저 찔러 죽였다.

이규가 호랑이 굴 안으로 들어가 몸을 엎드린 채 밖을 살피고 있자니, 어미 호랑이가 발톱을 세우고 으르렁거리며 굴 안을 들여다보았

다. 이규가 외쳤다. "바로 네놈이 내 어머니를 잡아먹었구나, 이 짐승 같은 놈!"

그는 박도를 내려놓고 허리춤에서 단도를 뽑아 들었다. 어미 호랑이가 굴 입구에 이르더니, 먼저 꼬리를 굴 안으로 휙 집어넣더니 몸의 뒷부분을 굴 안으로 밀어 넣었다. 굴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이규는 어미 호랑이의 꼬리 밑을 향해 평생의 힘을 다해 단도를 내질렀다. 칼날은 어미 호랑이의 항문을 정통으로 꿰뚫었다. 이규가 워낙 힘껏 내지른 데다 칼자루까지 곧장 놈의 뱃속까지 깊숙이 박혔다. 어미 호랑이는 비명을 한 번 지르더니, 칼이 박힌 채 굴 입구에서 계곡 너머로 뛰어내려 갔다. 이규가 박도를 챙겨 굴 밖으로 쫓아 나가자, 고통을 견디지 못한 호랑이는 바위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이규가 막 뒤쫓으려는데, 갑자기 나무 근처에서 광풍이 휘몰아치더니 마른 잎과 나뭇가지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예부터 '구름이 일면 용이 따르고, 바람이 일면 호랑이가 따른다'고 했다. 그 바람이 일어난 곳에서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들리더니, 별빛과 달빛 아래에서 눈초리가 치켜올라간 백액호(白額虎, 이마가 하얀 호랑이) 한 마리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호랑이가 기세를 몰아 이규를 향해 맹렬히 달려들었으나, 이규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호랑이의 달려드는 기세를 이용해 칼을 휘둘러 호랑이의 턱 밑을 정확히 찔렀다. 호랑이는 고통 때문에 몸을 가누지도 못했고, 기도가 상해 다시는 덤벼들지 못했다. 호랑이가 채 다섯 일곱 걸음도 물러나지 못했을 때, 마치 산 절벽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이규는 단숨에 새끼와 어미 호랑이 네 마리를 모두 죽이고는, 혹시 더 큰 짐승이 있을까 싶어 다시 한번 호랑이 굴 주변을 칼을 든 채 샅샅이 살폈으나 더는 아무런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이규도 기운이 다 빠져 피곤해진 탓에 사주대성사로 가서 날이 밝을 때까지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이규는 어머니의 다리와 남은 유골을 거두어 천 옷에 정성껏 싸고는 사주대성암 뒤편에 구덩이를 파서 장사를 지내 드렸다. 이규가 통곡하며 슬퍼하니,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았다.

기령의 서풍 부는 구월 가을날,
암수 호랑이 새끼들이 숲 언덕에 모여드네.
늙은 어머니의 여윈 몸을 제 먹이로 삼으니,
영웅의 가슴에는 피눈물이 흐르네.
목숨 걸고 호랑이 굴로 뛰어들어,
네 마리 호랑이를 베어 원수를 갚았네.
사주 묘 뒤편에 정성껏 묻어주니,
이철우의 이름 천년토록 전해지리라.

이규는 배도 고프고 목도 말라 짐을 챙기고 박도를 챙긴 뒤, 길을 찾아 천천히 고개를 넘어갔다. 가보니 사냥꾼 대여섯 명이 그곳에서 활과 화살, 쇠뇌를 거두고 있었다. 피칠갑이 된 이규가 고개를 넘어 내려오는 것을 본 사냥꾼들은 깜짝 놀라 물었다. "손님, 혹시 산신령이나 토지신이십니까? 어찌 감히 홀로 이 고개를 넘으시는 겁니까?"

이규는 그 물음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기수현(沂水縣) 현청에서 나를 잡으면 삼천 관(貫)의 돈을 상으로 주겠다고 방을 붙였는데, 내가 어찌 사실대로 말하겠는가? 그냥 거짓말을 해야겠다.'

이규가 대답했다.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요. 어젯밤 어머니를 모시고 이 고개를 넘는데, 어머니가 물을 찾으셔서 내가 고개 아래로 물을 뜨러 갔소. 그사이 호랑이가 나타나 내 어머니를 끌고 가 잡아먹었지 뭐요. 내가 곧장 호랑이 굴까지 쫓아가서 새끼 호랑이 두 마리를 먼저 죽이고, 뒤이어 어미 호랑이 두 마리를 죽였소. 그러고는 사주대성사에서 날이 밝을 때까지 잠을 자다가 이제 내려오는 길이오."

그러자 사냥꾼들이 일제히 외쳤다. "믿을 수가 없군! 당신 혼자서 어떻게 호랑이 네 마리를 다 잡았단 말이오? 그건 이존효나 자로 같은 전설적인 영웅이라 해도 호랑이 한 마리밖에 못 잡았을 텐데! 새끼 호랑이 두 마리는 그렇다 쳐도, 어미 호랑이 두 마리는 보통내기가 아니란 말이오. 우리도 저 짐승들 때문에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모른다오. 이 기령에 호랑이 굴이 생긴 지 서너 달 동안은 아무도 이 고개를 넘지 못했소.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는 것 아니오?"

이규가 말했다. "내가 이 근처 사람도 아닌데 왜 당신들을 속이겠소? 못 믿겠다면 지금 당장 고개 위로 올라가서 확인시켜 주리다.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저놈들을 다 메고 내려오겠소."

사냥꾼들이 말했다. "만약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두둑이 사례를 하겠소. 그러면 아주 좋겠구려!"

사냥꾼들은 일제히 호루라기를 불어 신호를 보냈고, 순식간에 서른에서 쉰 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갈고리 창과 몽둥이를 챙겨 들고 이규를 따라 다시 고개 위로 올라갔다. 이때는 날이 아주 밝아 산 정상에 다다르자 멀리서도 호랑이 굴 주변의 광경이 훤히 보였다. 과연 새끼 호랑이 두 마리가 죽어 있었는데, 한 마리는 굴 안에 있고 다른 한 마리는 굴 밖에 있었다. 어미 호랑이는 바위 곁에서 죽어 있었고, 수컷 호랑이는 사주대성사 앞에 죽어 있었다. 호랑이 네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본 사냥꾼들은 모두 기뻐하며 짐승의 사체를 밧줄로 묶어 메고 고개를 내려왔다. 그러고는 이규를 데리고 가서 사례를 받게 하려고 했다.

먼저 마을의 이정(里正)과 부호(上戶)들에게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하자, 그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마중을 나왔다. 사람들은 이규를 데리고 어느 부유한 집안인 조태공의 장원으로 향했다. 그 집 주인인 조태공은 원래 한가한 아전이었으나, 마을에서 온갖 횡포를 부리며 백성을 괴롭히는 자였다. 근래에 재물을 꽤 모았으나 행실이 매우 나빴다. 조태공은 직접 이규를 맞이하여 초당에 앉히고는, 호랑이를 잡게 된 경위를 자세히 물었다. 이규는 어젯밤 어머니를 모시고 고개를 넘다 물을 찾으려 했던 일과 그 과정에서 호랑이를 죽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넋을 잃고 어안이 벙벙해졌다. 조태공이 이 용맹한 장사의 성명과 존함을 묻자, 이규가 대답했다.

"성은 장 씨이고 이름은 없소. 그저 장대담이라 불리니 그렇게 부르시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았다.

사람들은 가짜 이규만 있을 뿐이라 말하지만,
본래 이규가 가짜인 적은 없었다네.
어찌하여 이사(李四)가 장삼(張三) 행세를 하는가,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인지 모두 장난질이로구나.

조태공이 말했다. "참으로 대담한 분이로구려! 장사께서 이토록 담력이 크지 않으시다면 어찌 호랑이 네 마리를 다 잡을 수 있었겠소?"

그는 즉시 사람을 시켜 술과 음식을 차려 대접하게 하였으니, 그 대접이 매우 극진하였다.

한편, 마을에 기령 고개에서 호랑이 네 마리를 잡았다는 소문이 퍼지자, 호랑이 사체들은 조태공의 집에 옮겨졌다. 이 소식은 마을의 모든 골목과 주막까지 퍼져나가 앞마을과 뒷마을, 산골짜기의 외딴집까지 들썩이게 했다. 장정부터 어린아이까지 무리를 지어 구름처럼 몰려와 호랑이를 구경했고, 조태공을 찾아가 호랑이를 잡은 장사를 대접하며 대청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무리 중에는 이귀의 아내도 있었다. 그녀는 앞마을 친정집으로 도망쳐 숨어 있었으나, 사람들을 따라 호랑이를 구경하러 왔다가 이규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사색이 되어 친정 부모에게 달려가 말했다. "저 호랑이를 잡은 검은 사내가 바로 제 남편을 죽이고 우리 집을 불태운 놈이에요! 저 자가 바로 양산박의 '흑선풍' 이규예요!" 그 말을 들은 부모는 급히 마을 우두머리인 이정에게 달려가 알렸다. 이정은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그가 만약 '흑선풍'이라면, 고개 너머 백장촌에서 사람을 죽이고 강주로 도망쳤다가 또 사고를 쳐서, 우리 현의 본적지로 수배령

이 내려진 바로 그 이규로구나. 지금 관가에서 그를 잡는 자에게 상금으로 삼천 관(貫)을 내걸었는데, 그가 하필 이곳에 나타나다니!" 이정은 몰래 사람을 보내 조태공을 불러와 상의하게 했다. 조태공은 옷을 갈아입으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서둘러 이정의 집으로 향했다. 이정이 호랑이를 잡은 장사가 사실은 백장촌의 '흑선풍' 이규이며, 지금 관가에서 그를 잡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하자 조태공이 말했다. "확실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그가 아니라면 큰 화를 부를 것이고, 진짜라면 상관없겠지만요. 그를 잡는 건 쉬운 일이나, 그가 아닌데 잘못 건드리는 건 어려운 법입니다." 이정이 대답했다. "이귀의 아내가 그를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그가 이귀의 집에 와서 밥을 해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 바로 그가 이귀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태공이 말했다. "정 그렇다면 우선 술과 음식을 차려 대접하며 이렇게 물어봅시다. '이번에 호랑이를 잡으셨으니 현청에 가서 공을 치하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사례를 받으시겠습니까?' 만약 그가 현청에 가기를 거절한다면, 그자가 바로 '흑선풍'이 확실합니다. 그때는 사람을 시켜 번갈아 가며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든 뒤, 이곳에 꽁꽁 묶어 둡시다. 그러고 나서 현에 보고하여 도두(都頭)를 보내 데려가게 하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았다.

겨자씨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듯, 좁은 길에서 매번 원수를 만나는구나.
가짜 이규는 귀신처럼 떠나지 않고, 이규의 험악한 기세는 달갑지 않네.
호랑이 잡은 공으로 현령의 상을 바라더니, 사람을 죽여 관가에 붙잡히

는구나.
사마귀와 참새의 관계를 보아하니, 일이 잘 풀린다고 뽐내지 마시게.

사람들이 모두 말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오."

이정과 사람들은 상의 끝에 계획을 세웠다. 조태공은 집으로 돌아와 이규를 정중히 모셔 앉히고, 술과 음식을 차려 대접하며 말했다. "방금 잠시 자리를 비워 소홀히 대접한 점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부디 장사께서는 허리에 찬 보따리를 풀고 박도(朴刀, 큰 칼)도 내려놓으신 채 편히 앉으시지요." 이규가 대답했다. "좋소, 좋소. 내 허리칼은 이미 암호랑이 배 속에 찔러 넣어두었으니 여기 칼집만 있소. 나중에 호랑이 가죽을 벗길 때 칼이 나오거든 챙겨 돌려주시오." 조태공이 말했다. "장사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여기 좋은 칼이 아주 많으니, 하나를 새로 드려 허리에 차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규는 허리칼(腰刀)과 단도(尖刀), 그리고 전대(纏袋)와 보따리를 모두 풀어 장객(莊客, 집안 일꾼)에게 맡겨 두게 하고는, 박도를 벽에 기대어 놓았다. 조태공은 즉시 커다란 고기 접시와 큰 술 항아리를 가져오게 했다. 마을의 유력자들과 이정, 사냥꾼들이 차례로 잔을 들고 큰 사발과 큰 술잔에 술을 가득 채워 이규에게 권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조태공이 다시 물었다. "장사께서는 이 호랑이들을 관가에 가져가 공을 치하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이곳에서 사례를 좀 받으시겠습니까?" 이규가 말했다. "나는 그저 지나가던 손님이라 바쁜 몸이오. 우연히 이 맹수들을 잡았을 뿐이니, 굳이 현청까지 가서 공을 치하받을 필요는 없소. 그저 여기서 사례를 조금 받을 수 있다면 좋겠고, 만약 없

다면 그냥 가겠소." 조태공이 말했다. "어찌 감히 장사를 홀대하겠습니까? 잠시 후 마을 사람들에게 여비를 거두어 보내드리겠습니다. 호랑이를 현청까지 옮기는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규가 말했다. "그럼 우선 베옷 한 벌만 빌려주시오. 지금 입은 겉옷을 갈아입게." 조태공이 대답했다. "그럼요, 당연히 있습니다." 조태공은 즉시 가는 푸른 무명으로 만든 누비옷을 가져와 이규의 피칠갑이 된 옷과 갈아입게 했다. 문밖에서는 북소리와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술을 계속 가져와 이규와 함께 축하 잔치를 벌였다. 차가운 술 한 잔, 뜨거운 술 한 잔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규는 계략인 줄도 모르고 송강이 당부했던 말은 까맣게 잊은 채 그저 흥에 겨워 술을 마셔댔다.

두 시진(약 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이규는 발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고 말았다. 사람들은 이규를 부축해 뒷방 빈방으로 데려가 긴 의자에 눕힌 뒤, 밧줄 두 줄로 이규와 의자를 통째로 꽁꽁 묶어 버렸다. 그러고는 곧바로 이정을 시켜 사람들을 데리고 현청으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리게 했다. 또한 이귀의 아내를 원고로 내세워 고소장까지 작성하게 하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기수현(沂水縣) 전체가 들썩였다. 소식을 들은 현령은 깜짝 놀라 급히 집무실로 나와 물었다. "흑선풍 이규를 어디에 잡아두었느냐? 그는 반역을 꾀한 자이니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자 고소인들과 사냥꾼들이 대답했다. "지금 이 마을의 조태공 댁에 묶어 두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어서, 혹시라도 길을 가다 사고라도 날까 두려워 함부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령은 즉시 현청의 도두(都頭)를 불러오라고 명령했다. 곧이어 집무실 앞으로 한 도

두가 들어와 인사를 올렸는데, 그가 누구인가?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얼굴은 넓고 눈썹은 짙으며 수염은 붉은빛인데,
두 눈은 푸른빛이 돌아 마치 외국인 같구나.
기수현(沂水縣)에서 푸른 눈을 가진 호랑이(청안호, 青眼虎)라 불리니,
호걸인 도두(都頭)가 바로 이운이라네.

현령은 즉시 이운을 불러 집무실로 오게 한 뒤 명령했다. "기령 아래 조태공의 장원에서 흑선풍 이규를 붙잡아 두었다 하니, 네가 사람들을 넉넉히 데리고 가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압송해 오너라. 마을이 소란스러워져 그가 도망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 도두는 명령을 받들어 집무실을 내려온 뒤, 무기를 갖춘 서른 명의 토병(현지 군사)을 소집하여 곧장 기령 마을을 향해 달려갔다.

기수현(沂水縣)은 워낙 작은 곳이라 어떻게 소문을 숨길 수 있었겠는가? 이미 저잣거리는 이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강주에서 난동을 부리던 흑선풍을 잡았대!" "지금 이 도두가 그를 압송하러 간다더군." 주귀는 동쪽 장원 문밖에 있는 아우 주부의 집에서 이 소식을 듣고는, 황급히 주부의 뒤로 다가가 말했다. "이 망할 놈이 또 사고를 쳤구나! 이를 어찌 구해야 한단 말이냐? 송강 형님이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 걱정되어 나를 보내 소식을 알아보게 하셨는데, 이제 그가 잡히고 말았으니 내가 그를 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양산박으로 돌아가 형님을 뵙겠느냐?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주부가 말했다. "형님,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 도두는 실력이 아주 출중해서 서른에서 쉰 명의 장정이라도 그에게 함부로 다가가지 못합니다. 저와 형님 둘뿐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에게 맞서겠습니까? 힘으로 맞서지 말고 지혜를 써야 합니다. 이운은 평소 저를 무척 아껴서 자주 무기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곤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곳에 계속 머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고기 스무에서 서른 근 정도를 삶고 술도 열댓 병 준비하겠습니다. 고기를 큼직하게 썰어 넣고 그 안에 몽한약(蒙汗藥)을 섞어 놓는 겁니다. 우리 둘이 새벽녘에 하인 몇 명과 함께 짐을 메고 길목의 한적한 곳에서 그가 압송되어 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마치 술을 대접하며 축하하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모두 잠재워 버리면 이규를 구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귀가 말했다. "그 계책이 정말 기가 막히구나!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어서 준비하여 서둘러 움직이자." 주부가 덧붙였다. "다만 이운은 술을 잘 마시지 않으니, 설령 잠이 든다 해도 금방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것은, 만약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더 이상 이곳에서 발을 붙이고 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주귀가 말했다. "아우야, 네가 여기서 술을 팔아봤자 별 도움이 되겠느냐? 차라리 가솔들을 데리고 나와 함께 산으로 들어가자꾸나. 들어가서 함께 무리에 끼어 은과 금을 저울로 달아 똑같이 나누고, 새 옷도 맞춰 입으면 얼마나 즐겁겠느냐? 오늘 밤 당장 하인들을 시켜 수레 한 대를 구하게 하여, 먼저 아내와 살림살이를 싣고 십리패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뒤 모두 산으로 떠나자. 내 품에 몽한약(蒙汗藥) 한 꾸러미를 가지고 있으니, 이운이 술을 안 마신다면 고기에 약을 듬뿍 섞어서라도 억지로 먹여서 잠재우면 된다. 그렇게 이규를 구해 함께 산으로 올라가면 되지 않겠느냐?" 주부가 대답했다. "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사람을 시켜 수레 한 대를 구해온 뒤, 짐 상자 서너 개를 묶어 수레에 싣고 집

안의 자질구레한 살림은 모두 버려두었다. 아내와 자식들을 수레에 태운 뒤, 하인 두 명에게 수레를 따라 먼저 출발하라고 일렀다.

한편, 주귀와 주부는 그날 밤 고기를 삶아 큼직하게 썬 뒤 몽환약을 섞었다. 술도 두 짐(擔)이나 준비하고 빈 사발 스무서른 개를 챙겼다. 혹시 고기를 먹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채소에도 약을 섞어 두었다. 술과 고기 두 짐은 하인 두 명이 각각 한 짐씩 나누어 짊어졌다. 형제 둘은 과일 상자 같은 것들을 직접 들고, 새벽 네 시경에 곧장 한적한 산길 입구로 가서 기다렸다. 날이 밝아올 무렵, 멀리서 징 치는 소리가 들려오자 주귀가 길목까지 마중 나갔다.

한편, 서른 명 남짓한 마을 군사들은 밤새 마을에서 술을 마시다 새벽 네 시경에 이규를 뒷결박하여 압송하기 시작했다. 뒤이어 이도두(이운)가 말을 타고 나타나 눈앞에 다다랐다. 주부가 얼른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다. "스승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우가 마중 나왔습니다." 주부는 통에서 술 한 호리병을 떠서 큰 잔에 가득 채워 이운에게 권했고, 주귀는 고기를 받쳐 들고 하인은 과일 상자를 받들어 올렸다. 이운은 그 모습을 보고 황급히 말에서 내려 앞으로 달려오며 말했다. "아우야, 이 먼 곳까지 마중 나오느라 어찌 이리 수고를 하느냐." 주부가 말했다. "제자의 효심을 조금이나마 표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운은 술을 받아 들었으나 입가에 가져다 대기만 할 뿐 마시지 않았다. 주부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스승님께서 술을 안 드시는 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축하주를 반 잔이라도 드셔 주십시오." 이운이 거절했으나 주부가 계속 권하자, 결국 두어 모금 마셨다. 주부가 다시 말했다. "술을 안 드신다면 고기라도 좀 드셔야지요."

이운이 말했다. "밤새 배가 불러서 더는 못 먹겠다." 주부가 말했다. "스승님께서 먼 길을 오셨으니 배가 고프실 겁니다. 맛이 좀 떨어지더라도 대충이라도 드셔야 이 아우의 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는 좋은 고기 두 점을 골라 건넸다. 이운은 주부가 이토록 정중하게 구니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두 점을 먹었다. 주부는 술을 가져다 마을의 상호(上戶)와 이정, 그리고 사냥꾼들에게도 권하며 모두 세 잔씩 마시게 했다. 주귀는 군사들과 하인들에게도 모두 술을 마시라고 일렀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남녀들은 음식의 맛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맛이 좋은지 나쁜지 따질 겨를도 없이 술과 고기가 입에 들어오기만 하면 정신없이 먹어 치웠다. 그 기세가 마치 휘몰아치는 바람에 구름이 흩어지고, 흐르는 물에 꽃잎이 쓸려가듯 한꺼번에 달려들어 빼앗아 먹는 형국이었다.

이규는 눈을 부릅뜬 채 주귀 형제를 바라보며 계책을 썼음을 알아채고는 짐짓 말했다. "너희도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내놓아라!" 주귀가 꾸짖었다. "이 못된 놈아, 네놈에게 줄 술과 고기가 어디 있느냐! 이 죽일 놈아, 입 닥치지 못할까!" 이운이 군사들을 보며 물러가라고 호통을 쳤으나, 군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움직이지 못했다. 입술은 떨리고 다리는 저려와 모두가 땅에 쓰러졌다. 이운이 다급히 외쳤다. "계책에 빠졌구나!" 이운이 앞으로 나서려 했으나, 자신도 모르게 머리가 무겁고 다리가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푹 쓰러져 한 무더기로 늘어진 채 잠들고 말았다.

그때 주귀와 주부는 각각 박도(朴刀)를 빼앗아 들고 외쳤다. "이놈들아, 도망가지 마라!" 두 사람은 박도를 치켜들고 술과 고기를 먹지 않

은 하인들과 구경꾼들을 쫓아갔다. 발이 빠른 자들은 도망쳤으나, 느린 자들은 박도에 찔려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규가 크게 한 번 소리를 지르자 몸을 묶고 있던 삼베 밧줄이 모두 끊어졌고, 그는 박도를 빼앗아 이운을 죽이려 했다. 주부가 황급히 가로막으며 말했다. "그를 해치지 마라! 그는 내 스승님이고 아주 좋은 분이다. 너는 일단 먼저 도망부터 가라!" 이규가 대답했다. "저 조태공이라는 늙은 나귀를 죽이지 않고서야 어찌 이 분풀이를 하겠느냐!" 이규가 달려들어 박도를 휘둘러 먼저 조태공을 찔러 죽였고, 이어 이귀의 아내와 이정까지 죽였다. 살기가 오른 이규는 사냥꾼들을 앞줄에서부터 차례로 닥치는 대로 찔러 나갔으니, 함께 있던 서른 명 남짓한 군사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다. 구경하던 사람들과 하인들은 부모님이 다리를 두 개만 만들어 주신 것이 한스러울 정도로 혼비백산하여 깊은 마을과 들판 길로 목숨을 구하러 도망쳤다.

이규는 여전히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죽이려 들자, 주귀가 꾸짖으며 말했다. "상관없는 구경꾼들은 내버려 두고 사람 잡는 데만 정신을 쏟지 마라!" 주귀가 황급히 가로막고 나서서야 이규는 겨우 손을 멈추었다. 이규는 군사들의 몸에서 옷 두 벌을 벗겨 챙겨 입었다. 세 사람은 박도를 들고 샛길을 통해 떠나려 했다. 그때 주부가 말했다. "안 되겠다. 내가 스승님의 목숨을 앗을 뻔했구나. 스승님이 깨어나서 현령을 뵈면 분명히 이리로 달려올 것이다. 너희 둘은 먼저 가 있거라, 나는 스승님을 좀 기다리겠다. 스승님께서 전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참으로 충직하고 정직한 분이시다. 스승님이 오시면 얼른 양산박으로 모셔가서 우리 식구로 삼는 것이 내 도리일 터, 그래야 스승님도 다시 현청으로 끌려가 고생하는 일을 면할 것 아니냐." 주귀가 말했다.

"아우야, 너도 알다시피 나는 먼저 수레를 따라가 있겠다. 이규를 길가에 남겨 네가 스승님을 기다리게 하마. 다만 저 이운이라는 놈은 약을 적게 먹었으니 한 시진(두 시간)도 안 되어 깨어날 것이다. 만약 그가 오지 않는다면 너희 둘은 미련하게 기다리지 말고 어서 떠나거라." 주부가 대답했다. "그건 당연한 말이다."

그사이 주귀는 앞서 떠나갔다. 주부와 이규는 길가에 앉아 기다렸는데, 과연 한 시진도 채 되지 않아 이운이 박도를 치켜들고 날쌔게 달려오며 크게 외쳤다. "강도 놈들아, 거기 서라!" 이규는 이운이 흉악하게 달려오는 것을 보고, 주부가 다칠까 염려하여 벌떡 일어나 박도를 치켜들고 이운과 맞서 싸웠다.

이야말로 이런 형국이었으니,

양산박에 두 마리 호랑이가 더해졌고 취의청(聚義廳) 앞에서 네 사람을 경축하게 되었더라.

결국 '흑선풍' 이규와 '청안호' 이운의 싸움에서 두 사람의 승패가 어떻게 갈릴지는, 다음 회에서 풀어 이야기하리라.

제44회 — 금표자 소경에서 대종을 만나고, 병관삭 장가에서 석수를 만나다

錦豹子小徑逢戴宗 病關索長街遇石秀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시 이규가 박도를 들고 나타나 이운과 맞붙었는데, 두 사람은 길가에서 대여섯 합을 겨루었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그러자 주부가 박도를 가져와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으며 외쳤다. "그만 싸우시오!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그제야 두 사람 모두 손을 멈추었다.

주부가 말했다. "스승님, 들어보십시오. 동생인 제가 스승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아 창봉술을 배웠으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 형님 주귀가 지금 양산박에서 두령 노릇을 하고 있는데, '급시우' 송 공명의 명을 받들어 이 형님(이규)을 돌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스승님께 붙잡혀 관가로 끌려가게 된다면, 제 형님이 무슨 낯으로 송 공명을 뵙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를 쓴 것입니다. 아까 이 형님이 기세를 몰아 스승님을 해치려 했을 때, 제가 차마 그냥 두지 못해 그저 토병들만 죽였을 뿐입니다. 원래 저희는 멀리 떠나려 했으

나, 스승님께서 돌아가지 못하시면 반드시 저희를 쫓아오실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스승님의 평소 은혜를 생각하여 일부러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승님은 사리에 밝은 분인데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데다 '흑선풍'까지 놓쳤으니, 무슨 낯으로 지현(知縣)을 만나러 돌아가시겠습니까? 돌아가시면 반드시 관가에 끌려가 송사를 겪을 텐데, 구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차라리 오늘 저희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 송 공명께 의탁하여 한패가 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스승님의 뜻은 어떠신지요?"

이운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아우님, 그곳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네." 주부가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산동의 '급시우'라는 큰 이름을 어찌 모르십니까? 그분은 오로지 어진 인재를 불러 모아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는 분입니다."

이운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집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고 나라가 있어도 의탁할 곳이 없게 되었구나. 너희가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었다만, 나는 처자식도 없으니 관가에 잡혀가도 두려울 게 없다. 그저 너희를 따라가마."

이규가 웃으며 말했다. "형님,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러셨습니까!" 그러고는 이운과 정답게 인사를 나누었다. 이운은 처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었기에, 세 사람은 곧바로 한데 어우러져 수레를 몰았다. 가는 길에 주귀가 이들을 맞이하니 크게 기뻐했다. 네 명의 호걸이 수레를 따라 길을 떠났고, 가는 동안 별다른 일은 없었다. 양산박 가까운 길에 다다랐을 때 마린과 정천수를 만났는데, 서로 인사를 나누자 그들이 말했다. "조개, 송강 두 두령께서 우리 둘을 산에서 내려보내 자네들

소식을 알아보라 하셨네. 이제 만났으니 우리가 먼저 올라가 보고하겠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먼저 산으로 올라가 보고했다.

다음 날, 네 명의 호걸은 주부의 가족을 데리고 양산박 대채의 취의청(聚義廳)에 이르렀다. 주귀가 앞으로 나서서 먼저 이운을 안내하여 조개와 송강 두 두령에게 절하여 뵙게 하고, 여러 호걸과도 인사를 나누게 하며 소개했다. "이분은 기수현의 도두(都頭)로, 성은 이요 이름은 운이며 별호는 '청안호'입니다." 이어 주귀가 주부를 데리고 와 여러분께 절을 올리게 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제 아우 주부이며, 별호는 '소면호'입니다." 모두가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이규는 송강에게 절을 올린 뒤, 돌려받은 도끼 두 자루를 받고서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를 기령(沂嶺)까지 모시러 갔다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바람에 호랑이 네 마리를 죽였다는 이야기와, 가짜 이규가 길을 막다가 죽은 일을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웃었다. 조개와 송강이 웃으며 말했다. "맹호 네 마리를 죽였더니, 오늘 산채에 또 두 마리의 살아있는 호랑이가 들어왔으니 참으로 경사로다."

호걸들이 크게 기뻐하며 양과 말을 잡아 연회를 열어 새로 온 두 두령을 축하했다. 조개는 이운을 왼쪽 백승의 윗자리에 앉게 했다. 오용이 말했다. "근래 산채가 매우 번창하여 사방의 호걸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오니, 이는 모두 조개·송강 두 형님의 덕이자 우리 형제들의 복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주귀는 예전처럼 산동 주막을 다시 맡아 관리하게 하고 석용과 후건은 교대시켜 돌아오게 하십시오. 주부의 가족은 따로 집을 마련해 살게 합시다. 이제 산채의 규모가 예전과 달리 커졌으니, 세 곳의 주막을 더 설치하여 오가는 의사(義士)들이 산에 오를

때 길흉의 일을 살피고 정보를 얻게 해야 합니다. 만약 조정에서 관군을 보내 도적을 잡으려 하면, 군사가 어떻게 진격하는지 미리 보고받아 대비할 수 있게 말입니다. 서산(西山)은 땅이 넓으니 동위와 동맹 형제가 동료 열댓 명을 데리고 가서 주막을 열게 하고, 이립에게도 열댓 명을 주어 산 남쪽에서 주막을 열게 하며, 석용 역시 열댓 명을 데리고 북산에서 주막을 열게 하십시오. 아울러 모든 곳에 수정(水亭)과 신호용 화살(號箭)을 설치하여 오가는 배를 맞이하게 하고, 급한 군정(軍情)이 있으면 나는 듯이 빨리 알리게 해야 합니다. 산 앞에는 세 개의 큰 관문을 두어 두천이 총괄하여 지키게 하되, 어떤 일이 있어도 함부로 다른 데로 빼내지 말고 밤낮으로 멋대로 자리를 비우지 못하게 하십시오. 또 도종왕에게 감독을 총괄하게 하여 항구를 파고 수로를 정비하며 물길을 트고, 완자성의 성벽을 손보고 산 앞의 큰길을 닦게 하십시오. 그는 본래 농가 출신이라 이런 일에 익숙합니다. 장경에게는 창고와 곳간을 맡겨 물자의 출납과 수만수천에 이르는 셈과 장부를 맡게 하십시오. 소양에게는 산채 안팎과 산상·산하, 세 관문의 방어에 쓰일 여러 공문과 관방 문서, 크고 작은 두령들의 번호를 정하게 하고, 금대견에게는 모든 병부(兵符)·인신(印信)·패면(牌面) 따위를 새기게 하십시오. 후건에게는 의복과 갑옷, 오방기(五方旗) 따위를 만들게 하고, 이운에게는 양산박의 모든 집과 대청을 짓는 일을 감독하게 합시다. 마린에게는 크고 작은 전선의 건조를 감독하게 하고, 송만과 백승은 금사탄에 진을 치게 합시다. 왕애호와 정천수는 압취탄에 진을 치게 하고, 목춘과 주부는 산채의 전량(錢糧)을 거두어 관리하게 하며, 여방과 곽성은 취의청 양옆의 곁방에서 머물게 하십시오. 송청은 연회만을 전담하게 합시다."

이처럼 직무 배분이 모두 끝났고, 연회는 사흘 동안 이어졌으니 더 말하지 않는다. 양산박은 이때부터 별일 없이 매일 인마를 조련하고 무예를 가르쳤다. 수채의 두령들도 배 모는 법과 물에 뛰어드는 법, 배 위에서의 싸움을 익혔으니 이 또한 더 말하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송강이 조개, 오 학구(오용)와 여러 사람과 한담을 나누다 말했다. "우리 형제 여러분이 오늘 모두 큰 의리로 모였으나, 공손 일청(공손승)만이 아직 돌아오지 않는구려. 그가 계주로 돌아가 어머니를 뵙고 스승을 찾아뵙겠다며 백 일이면 돌아오겠다고 약조했는데, 이제 날이 오래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 혹 약속을 저버리고 오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소. 수고스럽지만 대종 아우가 나를 위해 한번 다녀와, 그가 어디 있는지 무슨 까닭으로 오지 않는지 그 실상을 알아봐 주면 좋겠소." 대종이 가겠다고 나섰다. 송강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오직 아우만이 빨리 다녀올 수 있으니, 열흘이면 소식을 알 수 있겠구려."

그날 대종은 사람들과 작별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승국(承局, 관아의 심부름꾼) 차림을 하고 산을 내려갔다. 이야말로,

비록 하급 병졸이나 군대 편제에는 속하지 않았으니,
평생을 늘 이방인으로 살며 두 다리는 길 빚을 지고 사는구나.
관아를 드나들 땐 검은 등나무 지팡이에 선패(宣牌, 관패)를 걸고,
사령부 군사를 따를 땐 노란 비단 깃발에 '령(令)' 자를 적었네.
집은 천 리 밖에 있어도 해가 자리를 옮기기도 전에 다다르고,
긴급한 군사 정보는 한 식경도 못 되어 전하네.

아침에는 산동에서 기장밥을 먹고,
저녁에는 위부(魏府)에서 거위배(鵝梨)를 먹는다네.

한편, 대종은 양산박을 떠나 계주를 향해 길을 잡았다. 그는 네 마리의 갑마(甲馬, 신행법을 부릴 때 다리에 묶는 부적)를 다리에 묶고 신행법(神行法)을 펼치며 길을 나섰는데, 길 위에서는 그저 소박한 차와 채소로 끼니를 때웠다. 사흘을 걸어 기수현 경계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나누는 말을 듣게 되었다. "며칠 전 흑선풍이 도망치면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고, 그 바람에 도두 이운까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되어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더군." 대종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냉소를 지었다.

그날 한창 길을 가고 있는데,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 사람은 손에 묵직한 쇠로 만든 붓대 모양의 창을 들고 있었다. 그 사람은 대종이 빠르게 걸어오는 것을 보고는 발을 멈추더니 외쳤다. "신행태보님 아니십니까!" 대종이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려 자세히 살펴보니, 산비탈 아래 작은 길가에 한 사내가 서 있었다. 그는 머리는 둥글고 귀는 컸으며, 코는 곧고 입은 각졌는데, 눈썹은 수려하고 눈매는 시원시원했으며 허리는 가늘고 어깨는 넓은 체구였다.

대종이 급히 몸을 돌려 물었다. "장사께서는 저를 본 적도 없으실 텐데, 어찌하여 이 천한 이름을 부르십니까?"

사내가 황급히 대답했다. "당신은 과연 '신행태보'가 맞으시군요!" 그는 창을 옆으로 치워두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대종이 서둘러 그를 부축하며 예를 갖추고 물었다. "귀하의 성함은 무엇입니까?"

사내가 말했다. "소인은 성은 양, 이름은 임이라 합니다. 고향은 창덕부이며, 주로 녹림에서 몸을 의탁해 왔습니다. 강호에서는 저를 '금표자' 양림이라 부릅니다. 몇 달 전 길을 가다 주막에서 공손승 선생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양산박의 조개, 송강 두 공께서 어진 인재를 모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의로운 뜻에 감복하여 저더러 직접 산채로 가서 합류하라는 서신을 써 주셨습니다. 다만 감히 함부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손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씨네 길목에 예전부터 주귀가 주막을 운영하며 산으로 들어올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산채에는 인재를 불러 모으고 정보를 날래게 전하는 두령이 있는데, 〈신행태보〉 대원장이라 불리며 하루에 팔백 리를 달린다고 한다.' 지금 형님의 걸음걸이가 범상치 않으니 한번 불러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뜻밖에도 인사를 나누게 되니 참으로 천만다행입니다."

대종이 말했다. "저는 공손승 선생을 뵙기 위해 계주로 왔으나 소식이 끊겨, 이번에 조개, 송강 두 공의 명을 받들어 계주에 와서 소식을 알아보고 공손승 선생을 모셔 돌아가려던 참인데, 뜻밖에 귀하를 만났구려."

양림이 말했다. "소인이 비록 창덕부 사람이지만, 이 계주 관할의 주와 군은 다 꿰고 있습니다. 만약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형님을 모시고 함께 가겠습니다."

대종이 말했다. "귀하가 동행해 준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오. 공손 선생을 찾아 뵙고 함께 양산박으로 돌아가면 늦지 않을 것이오."

양림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대종을 청해 의형제를 맺었다. 대종은 갑마를 거두었고, 두 사람은 천천히 길을 떠나 저녁 무렵 마을 주막에서 쉬기로 했다. 양림이 술을 차려 대종을 대접하려 하자, 대종이 말했다. "나는 신행법을 쓰느라 감히 고기를 먹지 못하오." 그래서 두 사람은 그저 채소 요리만을 준비하여 함께 나누어 먹었다.

밤을 지내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먹고 길을 나섰다. 양림이 물었다. "형님께서는 신행법으로 길을 가시는데, 소인은 어찌 따라가야 합니까? 도저히 함께 갈 수 없을까 걱정됩니다!"

대종이 웃으며 말했다. "내 신행법은 다른 사람도 데리고 갈 수 있소. 갑마 두 개를 자네 다리에 묶어주고 법술을 부려주면, 나만큼 빠르게 갈 수 있으니 가고 싶을 때 가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면 되오. 그렇지 않으면 자네가 어떻게 나를 따라오겠소?"

양림이 말했다. "소인은 그저 평범한 몸이라 형님의 신령스러운 몸을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종이 말했다. "괜찮소, 이 법은 누구나 쓸 수 있소. 법을 쓰면 나와 똑같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오. 다만 나는 채식을 하니 그 점은 상관없소." 대종은 갑마 두 개를 가져와 양림의 다리에 묶어준 뒤, 신행법을 쓰며 그 위에 입김을 불어넣었다. 그러자 두 갑마가 가볍게 움직이며 대종의 속도에 맞춰 급할 때는 빠르게, 느릴 때는 느리게 발을 맞추었다. 두 사람은 길을 가며 강호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겉보

기에는 천천히 걷는 듯했으나 어느덧 얼마나 멀리 왔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사시(巳時, 오전 9시~11시)쯤 되었을 때, 앞쪽에 어떤 장소에 다다랐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로 역로(驛路)가 나 있는 곳이었다. 양림이 그곳을 알아보고 대종에게 말했다. "형님, 이곳의 지명은 음마천이라 합니다. 저 앞의 높은 산속에는 항상 큰 무리가 살고 있는데 요즘은 어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세가 수려하고 물이 봉우리를 휘감아 흐르는 까닭에 음마천이라 부릅니다."

두 사람이 막 산기슭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징 소리가 울리고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러더니 백여 명의 졸개들이 나타나 길을 가로막았다. 그 앞에는 두 명의 호걸이 각자 박도를 들고 서서 크게 외쳤다. "지나가는 자는 멈춰라! 너희는 대체 어디서 온 놈들이냐? 일을 순조롭게 처리하고 싶거든 어서 길삯을 내놓아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양림이 웃으며 말했다. "형님, 제가 저 어리석은 놈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십시오." 그는 창대를 휘두르며 사람들에게 달려들었다. 두 호걸은 양림의 기세가 맹렬한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와 살피더니, 앞서 있던 사내가 외쳤다. "잠깐, 손을 멈추시오! 아니, 양림 형님 아니십니까!"

양림도 그제야 상대를 알아보았다. 위쪽에 선 큰 사내가 무기를 들고 앞으로 나와 정답게 인사하고, 아래쪽에 선 키 큰 사내도 불러 함께

예를 올렸다. 양림이 대종을 청해 말했다. "형님, 우선 이 두 형제와 인사를 나누십시오."

대종이 물었다. "이 두 장사는 누구이며, 어찌하여 아우가 아는 사람이오?"

양림이 대답했다. "이분은 저와 잘 아는 호걸입니다. 본래 개천군 양양부 사람으로, 성은 등, 이름은 비입니다. 두 눈이 붉은 빛을 띠어 강호에서는 '화안산예'라 부릅니다. 쇠사슬을 아주 잘 다루어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지요. 예전에 함께 일을 하기도 했으나 헤어진 지 5년 만에 다시 만났으니,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주칠 줄은 몰랐습니다!"

등비가 물었다. "양림 형님, 이 형님은 누구십니까? 분명 예사 인물이 아니신 듯합니다."

양림이 말했다. "이 형님은 양산박의 호걸이자 '신행태보'이신 대종 형님이시네."

등비가 듣고 말했다. "설마 강주의 대원장님, 하루에 팔백 리를 달린다는 그분이십니까?"

대종이 대답했다. "그렇소."

두 두령은 황급히 정답게 인사하며 말했다. "평소 큰 명성만 듣다가 오늘 이렇게 직접 존안을 뵙게 되니 영광입니다!"

대종이 등비를 살펴보니 그 모습이 어떠하였는가?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본래 양양에서 한가로이 장난치던 사내였으나,
강호를 떠돌며 돌아갈 생각조차 잊었네.
사람의 고기를 많이 먹어 두 눈은 붉게 충혈되었으니,
불타는 눈을 가진 사자 형상은 바로 등비로다.

두 장사가 예를 갖추어 인사를 올렸다. 대종이 다시 물었다. "이 호걸의 성함은 무엇입니까?"

등비가 대답했다. "이 형제는 성이 맹, 이름은 강이라 합니다. 고향은 진정주(真定州) 사람으로, 크고 작은 배를 만드는 데 능합니다. 예전에 화석강(花石綱, 진기한 꽃과 괴석을 황궁으로 운반하던 운송 사업)을 압송할 때 큰 배를 만들어야 했는데, 일을 감독하던 제조관(提調官)이 자꾸 재촉하며 책망하자 화가 나 그 관리를 한순간에 죽이고 집을 버려둔 채 강호로 도망쳐 녹림에서 몸을 의탁하며 지낸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는 체격이 크고 피부가 희고 깨끗하여, 사람들이 그 좋은 몸을 보고 '옥번간(玉幡竿)'이라는 별호를 붙여 불렀습니다."

대종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맹강의 모습은 어떠하였는가?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강한 쇠뇌를 당겨 적진 선봉을 들이치고,
큰 군함을 만들어 큰 강을 건너네.

진주(真州)의 솜씨 좋은 누선(樓船) 만드는 장인,
백옥번간(白玉幡竿)이 바로 맹강이로다.

대종은 두 사람을 보고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했다. 네 명의 호걸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양림이 물었다. "두 형제는 이곳에서 의리를 맺고 지낸 지 얼마나 되었소?"

등비가 대답했다. "형님께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자면, 일 년이 좀 넘었습니다. 반년 전쯤 이곳 직서 땅에서 한 형님을 만났는데, 성은 배, 이름은 선이라 합니다. 고향은 경조부 사람으로, 본래 그곳의 육안(六案, 지방 관아의 서리)이자 공목(孔目, 법률 전문가) 출신이었습니다. 글솜씨와 기록 능력이 매우 뛰어났고, 성품이 충직하고 영리하여 조금의 부정직함도 용납하지 않았기에 이곳 사람들은 그를 '철면공목'이라 불렀습니다. 또한 창과 곤봉을 다루고 검과 도를 휘두르는 데 능하여 지혜와 용기를 두루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에서 탐욕스럽고 무능한 지부(知府, 지방관)를 파견하는 바람에,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문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 쪽을 지나갈 때 관리를 죽이고 도망치려는 것을 우리가 도와준 덕분에 이곳에 몸을 의탁하고 이백삼백 명의 무리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배선은 쌍검을 아주 잘 쓰는데, 나이가 좀 있어 지금은 산채에서 우두머리를 맡고 있습니다. 부디 두 의사(義士)께서 저희 작은 산채로 함께 가셔서 잠시 인사를 나누어 주십시오."

말을 마친 등비는 졸개들에게 말을 끌어오게 하여 대종과 양림을 말에 태웠다. 네 사람은 말을 달려 산채를 향해 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채 앞에 도착하여 말에서 내리자, 이미 배선에게 소식이 전해졌는지 그가 서둘러 산채 밖으로 나와 계단을 내려오며 맞이했다. 대종과 양림이 배선을 살펴보니 과연 풍채가 훌륭했다. 얼굴은 희고 체격은 건장하며 모습이 매우 안정감이 있어, 두 사람은 마음속으로 내심 기뻐했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일을 물을 때는 교묘한 지혜와 영민한 마음이요,
붓을 댄 곳에는 신묘하여 귀신도 울 정도라.
마음은 공평하고 너그러워 털끝만큼의 사심도 없으니,
배선을 일러 '철면공목(鐵面孔目)'이라 하는도다.

배선은 두 의사를 취의청(聚義廳, 의리를 맺는 대청)으로 정중히 모셔 인사를 나누었다. 서로 예를 갖춘 뒤, 배선은 대종에게 상석을 양보하여 앉게 했고, 그 옆으로 배선, 양림, 등비, 맹강이 차례로 앉았다. 이렇게 다섯 명의 호걸이 주인과 손님으로서 예우를 갖추어 자리에 앉자 연회가 시작되었다. 그날 그들은 술을 마시며 호기롭게 잔치를 벌였다. 독자 여러분, 들어보라. 이들 모두가 지살성(地煞星)의 운명을 타고난 자들이니, 때가 이르자 하늘의 도우심으로 자연스럽게 의리를 나누며 만나게 된 것이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호걸들이 서로 만난 데에는 분명 까닭이 있으니,
쇠사슬 고리가 서로 얽히듯 인연이 서로를 찾은 것이라.
한나라 조정의 장상(將相)도 백정과 낚시꾼에서 나왔거늘,
양산박이 마음을 잘못 썼다 탓하지 마라.

그때 사람들이 술을 마시던 중, 대종이 연석에서 입을 열어 조개와 송강 두 두령이 어진 이를 불러 모으고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는 법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사람을 대함에 있어 화기애애하고 의리에 따라 재물을 아낌없이 베푸니 그 덕이 매우 컸다. 또한 모든 두령이 한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니, 팔백 리 양산박이 이토록 웅장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가운데 완자성과 요아와 같은 곳은 사방이 아득한 물결로 둘러싸여 있고 병마 또한 매우 많으니, 관군이 쳐들어온들 어찌 걱정하겠느냐며 세 사람의 훌륭함을 치켜세웠다.

배선이 대답했다. "저희 작은 산채에도 삼백 명 정도의 인원과 십여 수레 분량의 재물이 있습니다. 식량과 사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만약 형님께서 저희 같은 미천한 무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큰 산채에 합류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신다면, 기꺼이 명령을 받들어 힘을 보태겠습니다. 형님의 뜻은 어떠하신지요?"

대종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조개와 송강 두 분은 사람을 대함에 있어 사사로운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여기에 여러 공께서 힘을 보태 주신다면 마치 비단 위에 꽃을 더하는 격이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럴 마음이 있다면 지금 바로 짐을 꾸려 두십시오. 저와 양림이 계주에 가서 공손승 선생을 뵙고 돌아오는 대로, 그때 함께 관군으로 변장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모두가 크게 기뻐했다. 술기운이 반쯤 오르자 사람들은 뒷산의 단금정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에서 음마천의 경치를 감상하며 술을 마시니, 참으로 아름다운 음마천의 풍경이었다. 시로 이르되,

끝없이 넓게 펼쳐진 들판의 물결, 구불구불 멀리 보이는 푸른 산줄기.
오래된 나무들은 노을빛에 물들고, 채색 구름은 먼 산봉우리로 흘러가네.
황량한 밭은 적막하여 소 몰던 아이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쓸쓸한 나루터에는 말 마시게 할 사람 하나 없구나.
그저 강한 이들이 진영을 치고 머물기에 좋고,
용맹한 영웅들이 깃발을 휘날리며 기개를 펼치기에 제격이로다.

대종은 음마천의 산세를 둘러보고는 감탄하며 외쳤다. "산과 물이 참으로 수려하고 아름답구나! 너희 두 사람은 어찌하여 이곳을 차지하게 되었느냐?"

등비가 대답했다. "원래는 보잘것없는 애송이 몇 놈이 이곳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나중에 저희 둘이 와서 이곳을 빼앗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크게 웃었다. 다섯 명의 호걸은 술에 잔뜩 취할 때까지 마셨다. 배선이 일어나 검무를 추며 술자리를 돋우니, 대종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날이 저물자 사람들은 각자 산채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다. 다음 날, 대종은 기어이 양림과 함께 산을 내려가려 했다. 세 호걸이 간곡히 만류했으나 붙잡지 못하고, 산 아래까지 배웅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세 호걸은 (제각기) 자기 산채로 돌아가 행장을 꾸리고 떠날 채비를 갖추었으니, 이 일은 여기서 더 말하지 않는다.

한편, 대종과 양림은 음마천 산채를 떠나 길을 재촉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 이른 아침 계주 성 밖에 도착했다. 그들은 객주에 들러 여장을 풀고 쉬었다. 양림이 말했다. "형님, 공손승 선생은 출가하신

분이니 분명 성 안이 아니라 산속이나 숲 근처 마을에 머물고 계실 겁니다." 대종이 대답했다. "옳은 말이다."

당시 두 사람은 먼저 성 밖으로 나가 공손승 선생의 행방을 여기저기 물어보았으나, 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루를 머물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멀리 떨어진 마을과 장터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었으나, 역시 아는 이가 없었다. 두 사람은 다시 객주로 돌아와 쉬었다.

사흘째 되는 날, 대종이 말했다. "성 안에는 혹시 그를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 확인해 보자." 그날 대종과 양림은 계주 성 안으로 들어가 그를 찾아 나섰다. 두 사람이 연륜이 있는 어른들에게 물어보니, 모두가 이렇게 대답했다. "모르는 사람이오. 성 안에 사는 사람일 리가 있겠소? 아마 다른 현의 명산에 있는 큰 절에 머물고 계신 게 아니겠소?"

양림이 큰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멀리서 북 치고 악기 연주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한 사람이 영접을 받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대종과 양림이 길가에 서서 살펴보니, 앞에는 두 명의 옥졸이 있었는데 한 명은 많은 선물과 화려한 장식품을 짐에 싣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비단과 채색 천을 받쳐 들고 있었다. 그 뒤로는 푸른 비단 우산 아래에 한 사람이 가려져 있었으니, 옥을 관장하고 형을 집행하는 압옥(押獄) 겸 회자수였다.

그 사람은 풍채가 아주 훌륭했는데, 온몸에 푸른빛이 도는 화려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눈썹은 귀밑까지 이어졌고 봉황의 눈은 하늘을

향해 치켜 올라가 있었으며, 얼굴색은 옅은 황색에 수염이 가늘게 몇 가닥 나 있었다. 본래 고향은 하남 사람으로 성은 양씨, 이름은 웅이라 한다. 당형(사촌 형) 한 사람이 계주에 지부(知府, 고을 수령)로 부임할 때 그를 따라왔다가 줄곧 이곳에 흘러들어 머물게 되었다. 이후 새로 부임한 지부가 그를 알아보고, 그를 양원(兩院)의 압옥(押獄, 옥을 관장하는 직)으로 임명하고 아울러 저잣거리(市曹)의 행형 회자수(劊子, 처형 집행인)를 겸하게 하였다. 그는 무예가 뛰어나고 얼굴색이 약간 황색이라, 사람들이 모두 그를 '병관삭 양웅'이라 불렀다. 그에 관한 장점을 읊은 <임강선>이라는 사(詞)가 있으니, 내용은 이러하다.

두 팔에는 푸른 무늬를 새겨 마치 옥을 깎아 놓은 듯하고, 머리띠와 허리띠는 보석을 박아 넣어 영롱하게 빛난다. 귀밑머리에는 비취빛 부용꽃을 꽂은 듯 화사하니, 등에는 '형리(劊子)'라는 글자를 새기고 옷에는 핏빛 붉은 물을 들였구나.

관청 사무실 앞에서는 거침없이 일을 처리하고, 형을 집행할 때 휘두르는 칼날은 바람처럼 날카롭다. 얼굴색은 옅은 황색에 눈썹은 짙고 뚜렷하니, 사람들은 그를 병관삭이라 부르며, 양웅이야말로 참된 호걸이라 하네.

그때 양웅이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의 뒤로는 한 명의 어린 옥졸이 귀두 모양의 칼을 들고 따르고 있었다. 그는 방금 시장통에서 형 집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아는 사람들이 모두 붉은 천을 걸어 축하하며 집까지 배웅해주고 있었다. 마침 대종과 양림의 앞을 지나가려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길목을 가로막고 서서 술잔을 나누며 흥을 돋우고 있었다.

이때 옆쪽 샛길에서 군인 일곱여덟 명이 우르르 달려 나왔는데, 그 우두머리는 척살양이라 불리는 장보였다. 이들은 계주를 지키는 성문의 군인들이었으나, 이들을 거느린 무리는 모두 성 안팎에서 푼돈을 뜯어내며 살아가는 건달들이었다. 관청에서도 여러 차례 그들을 문책했으나 고쳐지지 않았는데, 양웅이 본래 타지 사람으로 계주에 온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기세등등하게 굴었다. 마침 양웅이 상으로 받은 비단이 아주 많은 것을 보고, 이 머리 없는 무뢰배들을 데리고 술에 반쯤 취한 채 일부러 쫓아와 그를 괴롭히려 한 것이었다.

사람들이 길목을 막고 술을 마시는 것을 본 장보가 사람들을 헤치고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절급(節級, 하급 관리)께 인사 올립니다!" 양웅이 말했다. "형님, 오셨으면 같이 술 한잔합시다." 장보가 말했다. "술은 무슨 술이야. 내가 특별히 자네한테 돈 백여 관만 좀 빌리러 왔네." 양웅이 대답했다. "형님을 알긴 합니다만, 돈을 주고받은 사이도 아닌데 어찌 제게 돈을 빌려달라 하십니까?" 장보가 말했다. "자네가 오늘 백성들에게서 재물을 아주 많이 뜯어냈는데, 내게 좀 빌려주는 게 뭐가 어렵나?" 양웅이 응수했다. "이건 사람들이 저에게 선물로 준 것이지, 어찌 백성들에게서 뜯어낸 것이라 하십니까? 와서 행패를 부리시는데, 나는 유사(有司)요 당신들은 군위(軍衛)라 서로 통솔관계가 없으니 간섭하지 마시오."

장보가 말을 듣지 않고는 부하들에게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우게 하더니, 먼저 화려한 비단들을 몽땅 빼앗아 갔다. 양웅이 "이놈들, 무례하구나!"라고 외치며 물건을 훔쳐 가는 자들을 치러 앞으로 나서려 했

으나, 장보가 그의 가슴팍을 움켜잡아 붙들었고 뒤에서는 다른 두 명이 양웅의 팔을 잡아당겼다. 그 몇 놈이 일제히 손을 쓰니 어린 옥졸들은 각자 몸을 피했다. 양웅은 장보와 군인 두 명에게 꼼짝없이 붙잡혀 힘을 쓰지 못한 채, 화를 참으며 싸움을 떼어내려 애썼으나 풀려나지 못했다.

한창 소란이 일어날 때, 한 덩치 큰 사내가 땔나무 한 짐을 짊어지고 오다가 사람들이 양웅을 에워싸고 꼼짝 못 하게 하는 것을 보았다. 사내는 길에서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즉시 땔나무를 내려놓고 사람들을 헤치며 다가와 말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이 절급에게 이토록 행패를 부리는 것이오?" 그러자 장보가 눈을 부라리며 호통을 쳤다. "이 거지 같은 놈아! 굶어 죽지도 않고 얼어 죽지도 않을 놈이 어디서 참견이냐!"

사내는 크게 노하여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장보의 머리채를 잡아 단숨에 뒤집어엎어 땅바닥에 메쳐버렸다. 옆에서 거들던 건달들이 달려들려 했으나, 사내는 주먹을 휘둘러 한 놈씩 차례로 쓰러뜨려 사방으로 나동그라지게 만들었다. 그제야 몸을 빼낸 양웅이 본 실력을 발휘하여 한 쌍의 주먹을 던지듯 휘두르자, 건달들은 모두 바닥에 나뒹굴었다. 장보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음을 깨닫고 얼른 일어나 도망쳐 버렸다. 화가 난 양웅이 성큼성큼 그 뒤를 쫓았다. 장보는 보따리를 훔쳐 달아나는 일당을 따라갔고, 양웅은 그 뒤를 쫓아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그 사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길목에서 계속 싸울 상대를 찾고 있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대종과 양림은 속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대단한 호걸이로다! 저것이야말로 '불의를 보고 칼을 뽑아 돕는다'는 말이 딱 맞으니, 진정한 장사로구나!" 바로 이러하다,

칼집 속 용천검이 다투어 뛰쳐나오려 함은
다만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한 이가 있기 때문이라.
곁에서 지켜보는 이도 그름과 옳음을 가릴 줄 아니
남을 도울 때 어찌 소원함과 친함을 따지랴.

그때 대종과 양림이 앞으로 나서서 그를 붙잡고 권하며 말했다. "호걸이시여, 우리 두 사람의 체면을 봐서 그만 멈추시오." 두 사람은 그를 부축하여 골목 안으로 이끌었다. 양림은 그의 땔나무 짐을 대신 짊어졌고, 대종은 그 사내의 손을 잡고 주막으로 안내했다. 양림이 땔나무를 내려놓고 함께 다락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 사내는 손을 모아 깍듯이 인사하며 말했다. "두 형님께서 소인의 재난을 구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대종이 말했다. "우리 형제도 타지 사람이라, 장사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혹시라도 주먹을 너무 세게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할까 봐 걱정되어 일부러 이렇게 나선 것이오. 그러니 장사께서는 술을 세 잔 정도 드시며 우리와 이렇게 만나 의를 맺읍시다." 사내가 대답했다. "두 인형께서 소인을 이 난국에서 구해 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술까지 대접하시니 정말 송구할 따름입니다." 그러자 양림이 말했다. "'사해 안의 모든 사람은 다 형제'라는데 무엇이 문제겠소? 자, 어서 앉으시오." 대종이 자리를 양보했으나, 사내는 감히 윗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대종과 양림

이 먼저 자리를 잡고 앉자, 사내도 맞은편에 앉았다. 그들이 주보를 불렀고, 양림은 품에서 은 한 냥을 꺼내 주보에게 건네며 말했다. "따로 물어볼 것 없이, 안주가 될 만한 것들은 무엇이든 다 사 와서 우리끼리 먹을 테니 한꺼번에 셈하시오." 주보가 은을 받아 가더니 채소와 과일, 그리고 술안주를 차려 왔다. 세 사람이 술을 몇 잔 나누자 대종이 물었다. "장사의 성함은 무엇이며, 고향은 어디시오?" 사내가 대답했다. "소인의 성은 석이고 이름은 수라고 합니다. 조상은 금릉 건강부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창과 봉을 조금 익혔는데, 성격이 워낙 곧아 길에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도와주러 달려드는 통에 사람들은 저를 '반명삼랑'이라 부릅니다. 숙부를 따라 타지에 와서 양과 말을 팔며 지내려 했으나, 숙부께서 도중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밑천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곳 계주에 흘러 들어와 땔나무를 팔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게 되었으니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대종이 말했다. "우리 두 사람도 이곳에 일을 하러 왔다가 장사를 만났구려. 이런 호걸이 이곳에서 땔나무나 팔며 지내다니 어찌 앞날이 트이겠소? 차라리 강호로 몸을 던져 나가 남은 반평생을 즐겁게 사는 편이 낫겠소." 석수가 말했다. "소인은 그저 창과 봉을 좀 휘두를 줄 알 뿐 다른 재주가 없는데, 어찌 성공하여 즐겁게 살 수 있겠습니까?" 대종이 말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진실을 알아주지 않소. 하나는 조정이 밝지 못함이요, 둘은 간신들이 (언로를) 막고 있기 때문이오. 나 또한 보잘것없는 식견이지만, 오로지 한 가닥 기개로 양산박의 송공명을 찾아가 합류했소. 이제 저울로 금은을 달아 나누고 옷도 한 벌씩 갈아입으며, 조정에서 초안(招安, 죄를 사면하고 관직을 줌)을 내리기만 기

다리면 조만간 모두 관원이 될 것이오." 석수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도 가고 싶지만, 들어갈 방도가 없습니다." 대종이 말했다. "장사께서 가고자 하신다면 내가 추천해 주겠소." 석수가 물었다. "감히 두 분 나으리의 성함을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대종이 말했다. "내 성은 대요, 이름은 종이고, 내 형제는 성이 양이요, 이름은 림이라오." 석수가 놀라며 말했다. "강호에서 들었던 '강주 신행태보'가 혹시 귀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종이 대답했다. "그렇소." 대종은 양림의 짐 속에서 은 열 냥짜리 한 덩이를 꺼내 석수에게 밑천으로 주었다. 석수는 감히 받지 못하고 몇 번이나 사양한 끝에야 겨우 받았는데, 그제야 이 사람이 양산박의 '신행태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석수가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합류를 청하려던 찰나, 밖에서 누군가 찾아 물으며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이 보니, 양웅이 스무 명 남짓한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모두 관아의 포졸들로, 주막 안으로 들이닥치고 있었다. 대종과 양림은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소란을 틈타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석수가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며 물었다. "절급께서는 어디를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양웅이 말했다. "이보게, 안 찾아본 데가 없이 자네를 찾아다녔는데 여기서 술을 마시고 있었구먼. 내가 아까 그놈에게 손을 봉쇄당해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네가 힘을 써준 덕분에 그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네. 그런데 그놈을 쫓아가 보따리를 빼앗는 데만 정신이 팔려 그만 자네를 버려두고 말았네. 이 형제들이 내가 싸운다는 소리를 듣고 모두 도우러 와서, 빼앗겼던 화홍(花紅) 비단을 도로 되찾아 왔는데, 자네만은 찾아도 보이지 않더군. 그러다 방금 누군가 '손님 두 사람이 저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 술을 권하더라'고 일러주기에,

그제야 알고 일부러 찾아온 걸세." 석수가 말했다. "그저 외지인 두 분이 이곳으로 모셔와 술을 세 잔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뿐이라, 절급께서 부르시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양웅은 크게 기뻐하며 물었다. "장사의 성함은 무엇이며, 고향은 어디요? 어찌하여 이곳에 오게 되었소?" 석수가 대답했다. "소인의 성은 석이고 이름은 수라 합니다. 조상은 금릉 건강부 사람입니다. 평생 성격이 곧아 길에서 불의를 보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도와주려 하는 통에, 사람들이 저를 '반명삼랑(拚命三郎)'이라 부릅니다. 숙부를 따라 이곳에 와서 양과 말을 팔려 했으나, 숙부께서 도중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밑천을 다 잃고, 이곳 계주에 흘러들어 땔나무를 팔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양웅이 석수를 보니 참으로 훌륭한 장사로, 위아래 균형 잡힌 늠름한 체격이었다. 《서강월(西江月)》이라는 사(詞) 한 수가 있어 석수의 빼어난 점을 잘 읊었으니, 보라.

몸은 산속의 맹호 같고, 성격은 불 위에 기름을 부은 듯하네.
마음은 웅대하고 담력은 커서 꾀가 많으니,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면 구해 주네.
오로지 몽둥이 하나에 의지하고, 오직 두 주먹만 믿을 뿐이라.
하늘을 뒤흔드는 명성이 온 도성에 가득하니, '반명삼랑' 석수라네.

양웅이 다시 석수에게 물었다. "아까 장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손님들은 어디로 갔소?" 석수가 대답했다. "그 두 사람이 절급께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싸움이 난 줄로만 알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양웅이 말했다. "그렇다면 우선 주모를 불러 술 두 항아리를 가져오게 하시오. 큰 사발에 담아 모두에게 한 사람당 세 사발씩 나누

어 주어 마시게 하고, 내일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사람들은 술을 마신 뒤 각자 흩어졌다. 양웅이 이어서 말했다. "석수 아우, 너무 서먹하게 굴지 마시게. 보아하니 이곳에 친척도 없을 듯한데, 내가 오늘 그대와 의형제를 맺으면 어떻겠나?" 석수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감히 절급의 연세를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양웅이 말했다. "나는 올해 스물아홉이라오." 석수가 말했다. "소제는 올해 스물여덟입니다. 부디 절급께서는 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소제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석수는 네 번 절을 올렸다. 양웅은 크게 기뻐하며 주모에게 술과 안주, 과일을 풍성하게 차려 오게 하더니 말했다. "나와 아우가 오늘 취할 때까지 끝까지 마셔보자꾸나!" 한창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양웅의 장인인 판공이 대여섯 명을 거느리고 주막까지 찾아왔다. 양웅이 그를 보고 일어나 물었다. "태산(장인)께서는 어찌 오셨습니까?" 판공이 말했다. "자네가 사람들과 싸웠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찾아왔네." 양웅이 말했다. "이 아우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장보 그놈은 제 그림자만 봐도 겁을 먹을 정도로 호되게 당했지요. 저는 이제 석가네 아우와 의형제를 맺기로 했습니다." 판공이 말했다. "좋네, 좋아. 우선 이 형제들에게 술 한 사발씩 마시게 하게나." 양웅은 주모에게 술을 가져오게 하여 사람들에게 세 사발씩 나누어 주어 마시게 했다. 그러고는 판공을 가운데 앉히고, 양웅은 맞은편 상석에, 석수는 그 아랫자리에 앉혔다. 세 사람이 자리를 잡자 주모가 알아서 술을 따랐다. 판공은 석수처럼 용맹하고 장대한 영웅을 보고 마음속으로 무척 기뻐하며 말했다. "내 사위가 이런 아우를 얻어 도움을 받게 되었으니, 관청을 드나드는 보람이 있구려. 누가 감히 우리 사위를 괴롭히겠소!" 그러고는 다시 물었다. "아우는 원래 어떤 일을 하며 살았는가?" 석수가 대답했다. "선친께서는 본래 칼을 쓰는 백정이셨습니다." 판공이 물었다. "짐승을

잡는 일을 할 줄 아는가?" 석수가 웃으며 말했다. "어릴 때부터 백정 집안 밥을 먹고 자랐는데, 어찌 짐승 잡는 법을 모르겠습니까?" 판공이 말했다. "나 또한 본래 백정 출신이라네. 다만 나이가 들어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뿐인 사위마저 홀로 관청의 차출을 받아 일하는 처지라, 이 생업을 그만두게 되었다네." 세 사람이 술이 반쯤 올랐을 무렵 술값을 계산했는데, 석수는 자신이 짊어지고 온 땔나무 한 짐을 모두 술값으로 대신했다. 세 사람이 길을 떠나 집으로 돌아와, 양웅이 문을 들어서며 소리쳤다. "여보, 어서 나와서 이 아우와 인사하구려." 그러자 가리개 너머에서 대답이 들려왔다. "여보, 무슨 시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양웅이 말했다. "묻지 말고 우선 나와서 인사부터 하구려." 가리개를 걷고 한 여인이 걸어 나왔는데, 그 생김새가 어떠하냐 하면,

검고 가느다란 귀밑머리에, 가늘고 초승달처럼 휜 눈썹, 매끄럽고 빛나는 눈동자, 향긋한 입술, 오똑한 콧날, 붉은 뺨, 뽀얗고 매끄러운 얼굴, 가냘프고 유연한 몸매, 옥처럼 가늘고 고운 손, 잘록한 허리, 부드럽고 말랑한 복부, 매끈하고 예쁜 발, 꽃무늬가 수놓아진 신발, 풍만한 가슴, 희고 매끄러운 다리, 게다가 좁고 꽉 조이는 데다 붉고 선명하며 보랏빛이 감도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열여섯 꽃다운 여인 몸은 연유처럼 부드러운데
허리에 찬 초승달 같은 칼은 어리석은 사내를 죽이네
비록 사람 머리 떨어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남몰래 그대의 뼛속까지 말려 죽이는구나

알고 보니 그 여인은 칠월 칠일에 태어나 아명(小字)을 교운이라 했다. 일찍이 계주의 이원(吏員)인 왕 압사에게 시집갔으나 2년 전에 남편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양웅에게 재가하여 부부로 지낸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석수는 여인이 나오는 것을 보고 황급히 앞으로 나아가 예를 갖추며 말했다. "형수님, 앉으십시오." 석수가 절을 올리려 하자 여인이 말했다. "제가 아직 어린데 어찌 감히 이런 예를 받겠습니까?" 양웅이 거들었다. "이 사람은 내가 오늘 새로 의형제를 맺은 아우라오. 그대는 형수이니 절반의 예만 받으면 되오." 그 말을 듣자 석수는 마치 금산을 밀치고 옥기둥을 넘어뜨리듯 정중하게 네 번 절을 올렸다. 여인도 두 번 절로 답례한 뒤, 석수를 안쪽으로 모셔 앉히고 빈방을 하나 치워 아우가 편히 쉴 수 있게 했다. 이야기가 번거로우니 이쯤에서 그만두자. 다음 날, 양웅은 관청에 나갈 일이 있어 집을 나서며 집안 식구들에게 분부했다. "석수 아우의 옷가지와 두건을 잘 챙겨주시오." 객점에 있던 짐 보따리들도 모두 가져오게 하여 양웅의 집에 가져다 두었다.

한편, 대종과 양림은 주막에서 석수를 찾아온 그 관아 사람들이 몰려와 소란을 피우는 사이 슬쩍 자리를 떠나, 성 밖 객점으로 돌아와 쉬었다. 다음 날에도 이틀에 걸쳐 공손승을 찾아 물어보았으나, 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행방이나 머무는 곳도 알 길이 없었다. 결국 두 사람은 상의 끝에 일단 돌아가기로 했다. 그날로 짐을 챙겨 계주를 떠난 그들은 음마천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배선, 등비, 맹강 일행의 인마와 합류하여 관군으로 위장한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양산박을 향해 달려갔다. 대종은 자신의 공로를 (송강에게) 드러내려는 데다 많은 인

마까지 규합한 터라 함께 산에 올랐고, 산채에서는 이들을 위한 경하 연회가 열렸으니, 이 일은 여기서 더 이야기하지 않겠다.

한편, 양웅의 장인 판공은 석수와 상의하여 도축 작업장을 차리기로 했다. 판공이 말했다. "우리 집 뒷문 쪽으로 막다른 작은 골목이 있고 그 뒤에 빈방이 하나 있는데, 그곳은 우물물 쓰기도 편하니 작업장으로 쓰기에 딱 좋네. 아우가 그 안쪽 방에 거처하면 관리하기도 수월할 걸세." 석수가 들어 보니 과연 편리하고 이로운지라 마음에 들어 했다. 판공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익숙한 조수를 한 명 구하고, 석수에게는 장부 관리만 맡기기로 했다. 석수가 이를 수락하고 조수를 불러, 고기 매대와 물대야, 도마를 푸른색과 초록색으로 화려하게 단장하고, 여러 자루의 칼과 연장을 갈고 닦았다. 고기 매대를 정돈하고 작업장과 돼지 우리까지 갖춘 뒤, 살찐 돼지 십여 마리를 들여놓고 길일을 골라 정식으로 고깃간을 열었다. 이웃과 친척들이 모두 찾아와 붉은 천을 걸고 축하하며 하루 이틀 술을 나누어 마셨다. 양웅의 식구들도 석수가 가게를 열게 되니 모두 기뻐했다. 이때부터 별다른 일은 없었다. 그 후로 판공과 석수는 함께 장사를 이어갔다. 어느덧 세월이 빠르게 흘러 두 달 남짓이 지났다. 때마침 가을이 저물고 겨울이 다가와, 석수는 안팎으로 몸에 걸친 옷을 모두 새것으로 갈아입었다. 어느 날 석수가 오경(새벽녘)에 일찍 일어나 다른 현으로 돼지를 사러 나갔다가 사흘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가게 문이 열려 있지 않았다. 집에 들어가 보니 고깃간의 도마도 모두 치워져 있고, 칼과 연장, 세간붙이까지 다 숨겨져 있었다. 석수는 눈치 빠른 사람이었기에 상황을 보고 단번에 속내를 알아차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옛말에 "사람은 천 날을 한결같이 좋을 수 없고, 꽃은 백 날을 붉을 수 없다"고 했다. 형님은 관직에 매여 집안일을

돌보지 못하니, 형수님이 내가 새 옷을 해 입은 것을 보고 분명 뒤에서 말을 했을 것이고, 또 내가 며칠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누군가 이간질을 했을 터라, 의심이 들어 장사를 접은 것이리라. 그들이 말을 꺼내기 전에 내가 먼저 작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예부터 "오래도록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진 이가 어디 있으랴"라고 하지 않았던가.' 석수는 돼지들을 우리에 몰아넣고 방으로 들어가 차림새를 고친 뒤, 짐 보따리를 챙기고 장부를 꼼꼼히 한 권 정리하여 뒷문으로 들어갔다. 판공은 이미 소박한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석수에게 앉아 들라 권했다. 판공이 말했다. "아우, 멀리까지 나가 애쓰고 손수 돼지까지 몰아오느라 참으로 고생 많았네." 석수가 말했다. "노인장, 마땅한 도리지요. 우선 이 깔끔히 정리한 장부부터 받아 두십시오. 만약 여기에 조금이라도 사사로운 마음이 들어 있다면 천지신명이 저를 벌하여 멸할 것입니다." 판공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아우는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아무 일도 없지 않은가." 석수가 대답했다. "소인이 고향을 떠난 지 벌써 대여섯 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집에 다녀오고자 하여, 특별히 장부를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밤 형님께 작별을 고하고 내일 아침 바로 떠날 생각입니다." 그 말을 들은 판공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아우, 그건 잘못 생각한 걸세. 잠시 멈추고 이 늙은이의 말을 좀 들어보게." 그 노인이 몇 마디 말을 늘어놓으니, 한자리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은혜를 갚는 장사는 석 자 칼(삼척검)을 빼들게 되고, 계율을 어긴 승려는 구천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 필경 판공이 무슨 말을 꺼냈는지는, 다음 회를 들어 보면 풀리리라.

제45회 — 양웅이 술에 취해 판교운을 꾸짖고, 석수가 지혜롭게 배여해를 죽이다

楊雄醉罵潘巧雲 石秀智殺裴如海

이야기는 이러하다. 석수가 돌아와 가게가 정리된 것을 보고는 작별 인사를 하고 나가려 했다. 그러자 판공이 말했다.

"아우님, 잠시만 기다리게나. 이 늙은이가 자네 뜻을 이미 알고 있네. 자네가 이틀 밤이나 집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오늘 돌아와 보니, 집안 살림이 정리된 것을 보고 가게를 열지 않기로 한 줄로 여겨 떠나려는 게지? 장사가 아무리 잘된다 한들, 설령 가게를 열지 않는다 해도 자네를 집에 데리고 살 것이네. 자네에게 숨기지 않고 말하자면, 내 딸이 이 고을의 왕 압사(아전)에게 시집을 갔었는데, 그 사위가 불행히도 세상을 떠났다네. 이제 그가 죽은 지 2주년이 되어 그를 위해 공덕(불사)을 좀 베풀려 하니, 그래서 이틀간 장사를 쉬는 것이라네. 내일 보은사의 승려들을 불러 공덕을 올릴 예정이니, 그때 자네가 좀 맡아 손

님을 치러 주게나. 이 늙은이는 나이가 많아 밤을 지새우기가 힘드니, 미리 자네에게 사정을 일러두는 것이네."

석수가 말했다.

"장인어른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제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며칠 더 머물다 가겠습니다."

판공이 다시 말했다.

"아우님, 앞으로는 결코 의심하지 말고 그저 분수에 맞게 지내게나."

두 사람은 술 몇 잔과 소박한 채식을 나누어 먹고 나서 그릇을 치웠다.

곧 도인이 경전이 담긴 짐을 메고 나타나 제단 단장을 시작했다. 불상과 공양 그릇, 북과 심벌즈, 종과 경쇠, 향과 꽃, 등불과 초를 차례로 차려놓았다. 주방에서는 재식(齋食, 제사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양웅은 신시(申時, 오후 3시~5시 사이) 무렵에 잠시 집에 들렀다가 석수에게 당부했다.

"아우님, 내가 오늘 밤은 안타깝게도 감옥을 지켜야 해서 이곳에 오지 못할 것 같네. 모든 일은 자네가 좀 맡아서 잘 처리해 주게나."

석수가 말했다.

"형님, 걱정 말고 다녀오십시오. 저녁에는 제가 대신 잘 돌보고 있겠습니다."

양웅이 떠나자 석수는 문 앞을 지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이가 어린 스님 하나가 발을 들치고 안으로 들어왔다. 석수가 그 스님을 살펴보니 차림새가 아주 정갈했는데, 그 모습은 이러했다.

갓 깎은 대머리는 매끈하게 빛나고, 사향과 송진을 골고루 발랐네.
갓 바느질한 노란 두루마기는, 침향과 단향을 넣어 깊게 물들였네.
산근 신발은 복주에서 물들인 짙은 푸른색이고,
아홉 가닥 비단 끈은 서역에서 사 온 참된 보랏빛이라.
매끄러운 두 눈은 번득이며, 오직 시주의 아리따운 아내만 훑어보고,
달콤한 입술은 감언이설로, 홀로 된 여인의 마음을 홀리네.
음탕한 마음이 치밀면, 초라한 암자에서 비구니를 찾고,
색욕에 눈이 멀면, 스님의 방 안에서 수행자를 찾누나.

그 스님은 안으로 들어와 석수에게 정중히 합장하며 인사를 건넸다. 석수가 답례하며 말했다.

"스님, 잠시 앉으십시오."

그 스님 뒤를 따라 도인 하나가 상자 두 개를 메고 들어왔다. 석수가 판공을 향해 불렀다.

"장인어른, 스님께서 오셨습니다."

판공이 그 소리를 듣고 안에서 나오자, 스님이 말했다.

"양아버님, 그동안 어찌하여 저희 절에는 한 번도 안 오셨습니까?"

판공이 대답했다.

"이 가게들을 열어 운영하느라 도통 짬이 나질 않았네."

그러자 스님이 말을 이었다.

"왕 압사의 기일을 맞아 변변한 물건은 없지만, 마른 국수 약간과 경조(京棗, 큰 대추) 몇 봉지를 가져왔습니다……."

판공이 말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공연히 스님께 돈만 쓰시게 했구려!"

판공은 석수에게 물건을 받아두라고 일렀다. 석수는 물건을 안으로 옮겨 들인 뒤, 차를 내오게 하여 문 앞에서 스님에게 대접했다.

그때 한 부인이 누각(2층)에서 내려왔는데, 상복을 무겁게 갖춰 입지는 않고 그저 옅게 화장만 한 차림이었다. 부인이 물었다.

"숙부님, 누가 물건을 가져왔나요?"

석수가 대답했다.

"스님 한 분이 오셨는데, 장인어른께서 양아버지로 모시는 분이라네."

그러자 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아, 사형인 해사리(海闍黎) 배여해(裴如海) 스님이시군요. 아주 성실한 스님이지요. 그분은 원래 배씨 집안 실 가게의 어린 도련님이었는데, 보은사로 출가하셨답니다. 그분의 스승이 저희 집안의 문도(門徒)인지라 저희 아버지를 양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고, 저보다 두 살이 많아서 사형이라 부르는 거예요. 법명은 해공(海公)이라고 합니다. 숙부님, 저녁에 그 스님이 부처님께 청을 올리고 경을 읽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목소리가 아주 좋으시답니다."

석수가 말했다.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석수는 이미 속으로 무언가 수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부인은 곧 누각에서 내려와 스님을 맞이했고, 석수는 뒷짐을 진 채 뒤따라 나와 베로 만든 발(布簾) 안에서 몰래 살폈다. 부인이 밖으로 나가자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며, 두 손을 모아 정중히 합장하며 인사를 건넸다.

부인이 말했다.

"아니, 무슨 일로 사형께서 이렇게 공연히 돈을 다 쓰셨습니까!"

스님이 대답했다.

"현매(賢妹), 그저 보잘것없는 작은 예물일 뿐이니 입에 담을 거리도 못 됩니다."

부인이 다시 말했다.

"사형께서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출가하신 분의 물건을 제가 어찌 받겠습니까?"

스님이 말을 이었다.

"저희 절에 새로 수륙당(水陸堂)을 지었으니, 현매께서도 오셔서 함께 참배해 주십사 청하려 합니다. 다만 절급(節級, 바깥어른 양웅)께서 언짢게 여기실까 걱정될 뿐입니다."

부인이 말했다.

"제 못난 남편은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혈분경(血盆) 발원을 올린 바 있으니, 조만간 큰 절에 가서 그 소원을 갚아야지요."

스님이 말했다.

"그건 댁의 일인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무릇 이 여해(如海, 저)에게 분부하실 일이라면 소승이 곧 가서 마련해 오겠습니다."

부인이 말했다.

"사형, 저희 어머니를 위해 경전을 몇 권 더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안에서 계집종이 차를 받쳐 들고 나왔다. 부인은 찻잔 하나를 들어 손수건으로 찻잔 입구를 닦더니, 두 손으로 스님에게 건넸다. 스님은 찻잔을 받으면서도 두 눈에 침을 흘릴 듯 부인의 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부인 또한 히히거리며 웃으며 스님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색욕에 부린 담력은 하늘 같다고 하더니, 석수가 발 안에서 그 광경을 엿보는 줄은 미처 막지 못했다. 석수는 속으로 가만히 생각했다.

'곧은 것 속의 곧음을 믿지 말고, 어진 것 속의 어질지 못함을 경계하라더니. 저 여자가 몇 번이고 나에게 은근슬쩍 바람기 섞인 말을 건넬 때마다 나는 그저 친형수처럼 대했을 뿐인데, 알고 보니 저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었구나. 내 손에 걸리기만 해 봐라. 양웅을 대신해 결판을 내줄지도 모르지.'

석수는 이때 이미 심중 삼은 마음에 짚이는 바가 있어, 발(布簾)을 걷고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 도둑 까까머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대랑(大郎), 앉으시지요."

그러자 부인이 말을 가로챘다.

"이 도련님이 바로 제 남편이 새로 의를 맺은 아우랍니다."

스님은 겸손하고 정중한 척하며 물었다.

"대랑께서는 고향이 어디십니까? 존성대명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석수가 대답했다.

“성은 석이고 이름은 수라네. 금릉 사람이지. 공연히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위해 힘쓰기를 마다치 않아 '반명삼랑(拚命三郎, 목숨을 내던지는 셋째)'이라 불린다네. 내가 거칠고 미련한 사내라 예의가 부족하더라도 스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게!”

배여해가 말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소승은 가서 여러 스님들을 도량으로 모셔 오겠습니다.”

그러고는 작별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섰다. 부인이 말했다.

“사형, 조금 일찍 오시지요.”

스님이 대답했다.

“곧 오겠습니다.”

부인은 스님을 문밖까지 배웅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석수는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독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무릇 세상 사람 중에 오직 스님들의 색정이 가장 심하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속인이든 출가인이든 다 똑같이 부모의 정혈을 받아 태어난 몸인데, 어찌 스님들의 색정이 가장 심하다 하겠습니까? 앞의 책에서 말한 '반(潘)·여(驢)·등(鄧)·소(小)·한(閒)' 다섯 가지 조건 중에서도, 오직 '한가함

(閒)' 하나만은 스님들이 으뜸입니다. 하루 세끼 시주들이 올리는 좋은 재(齋)와 공양을 먹고, 높고 웅장한 전각의 승방에 머물며, 속세의 번잡한 일에 시달릴 것도 없으니, 방 안의 좋은 침상과 이부자리에 누워 있으면 달리 생각할 거리도 없이 오직 이 한 가지 일만 생각하게 되는 법입니다.

비유하자면, 어떤 부잣집 주인은 온갖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해도, 낮에는 숱한 잡다한 일로 마음이 어지럽고 밤에는 또 재물 걱정에 매여 이경 삼경(한밤중)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듭니다. 설령 예쁜 아내와 고운 첩이 있어 한 침상 한 베개를 함께한들 무슨 흥취가 나겠습니까? 또 어떤 부류의 가난한 백성들은 하루 종일 고생스레 발버둥치며, 아침이면 어서 밤이 오기만 바라고, 오경(새벽)에 일어나 한밤중에야 잠자리에 듭니다. 저녁에 침상에 오르기도 전에 먼저 쌀독을 더듬어 보지만 끝내 쌀 한 톨 없고 내일도 돈이 없으니, 설령 아내가 좀 자색이 있다 한들 무슨 흥이 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들은 한결같이 마음이 한가롭고 고요하여 오직 이런 일에만 골몰하는 스님들에게 당해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사람들도 이 대목을 평하여 이 스님들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동파(蘇東坡) 학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까까머리가 아니면 독하지 않고, 독하지 않으면 까까머리가 아니다. 까까머리가 될수록 독해지고, 독해질수록 까까머리가 된다."

또한 스님들에게는 네 구절의 말이 있으니, 이러합니다.

한 글자로는 승(僧)이요,
두 글자로는 화상(和尙)이며,

세 글자로는 귀락관(鬼樂官, 귀신을 즐겁게 하는 풍류 벼슬아치)이고,
네 글자로는 색중아귀(色中餓鬼, 색욕에 굶주린 귀신)이라.

한편, 석수는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내 마음을 다잡고 일을 돌보러 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행자(行者)가 먼저 와서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웠다. 잠시 후, 해사리(海闍黎)가 다른 스님들을 데리고 도량으로 들어왔다. 판공과 석수가 그들을 맞이했고, 차를 대접하며 접대를 마친 뒤에는 북과 판을 치며 찬불가를 부르고 예찬을 올렸다.

해사리는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어린 스님을 사리(闍黎, 의식을 돕는 역할)로 삼아, 방울과 금강저를 흔들고 첩(牒)을 살라 부처를 청하고 공양을 올리며, 여러 대호법에게 공양·찬탄하고 제단을 감독하며 맹주가 되어, 일찍 세상을 떠난 망자 왕 압사(王押司)가 천계에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천도 의식을 거행했다.

그때 부인이 짐짓 수수하게 단장하고 법단으로 나아와 손향로(手爐)를 든 채 향을 사르며 부처께 예를 올렸다. 해사리는 더욱 기운을 내어 방울과 금강저를 흔들며 진언을 외웠다. 법단에 모인 스님들은 양웅의 아내가 보여주는 저토록 요염한 자태를 보고는 모두 넋을 잃고 갈팡질팡하였다.

보아하니 이러했다.

수석 스님(班首)은 경박하게 불호를 외우며 뒤바뀐 줄도 모르고,
사리(闍黎)는 어지러이 진언을 외우니 높낮이를 어찌 가리겠는가.

향 피우는 행자(行者)는 꽃병을 넘어뜨리고,
촛불 든 두타(頭陀)는 향합을 잘못 집는구나.

이름을 아뢰어 표백(表白)함에 대송국(大宋國)을 대당(大唐)이라 일컫고,
죄를 참회하여 고함에 왕압사(王押司)를 압금(押禁)이라 잘못 읽네.
징(鐃)을 치던 자는 허공을 향해 내던지고,
바라(鈸)를 치던 자는 땅에 떨어뜨려도 알지 못하네.

창(銛子)을 치던 이는 몸이 흐물흐물 한 덩어리로 풀어지고,
경쇠(響磬)를 치던 이는 온몸이 녹아 한 덩어리가 되네.
법당 안이 온통 떠들썩하고, 자리 둘레가 어지러이 뒤엉키네.
장주(藏主, 경전 맡은 승려)는 마음이 급해 북을 치다 제자의 손을 잘못 두드리고,
유나(維那, 의식 맡은 승려)는 눈이 어지러워 경채로 늙은 스님의 머리를 깨뜨리네.
십 년 고행이 한순간에 그치니, 만 명의 금강역사로도 막지 못하리.

법단에 모인 스님들은 부인의 모습을 보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손을 흔들고 발을 구르며 흥에 겨워했고, 순식간에 불성(佛性)과 선심(禪心)을 잃은 채 마음의 원숭이와 뜻의 말(心猿意馬)을 다잡지 못하였다. 이러고서야 덕행 높은 고승을 세상에서 찾기 어렵다 하겠다.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석수는 냉소하며 혼잣말을 했다.

"이런 식이면 무슨 공덕이 되겠는가. 이야말로 복을 짓느니 죄를 피하느니만 못하다는 것이다."

잠시 후 증명(證盟)이 끝나자 스님들을 안으로 청해 공양을 들게 했다. 해사리(海闍黎)는 스님들 뒤에 서서 슬쩍 고개를 돌려 부인을 바라보며 히죽히죽 웃었다. 부인 또한 입을 가린 채 웃었다. 두 사람은 눈짓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은밀한 정을 보냈다. 석수는 이 모든 광경을 눈에 담고 마음속으로 적잖이 불쾌해했다.

스님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공양을 들었는데, 먼저 소주(素酒, 채식용 술)를 몇 잔 마신 뒤 공양을 내오고 모두 시주돈(嚫錢)을 놓았다. 판공이 "스님들, 든든히 드십시오"라고 말했다. 잠시 후 스님들은 공양을 마치고 일어나 (소화시키러) 거닐었다. 한 바퀴 돌고서 다시 도량으로 들어왔다. 석수는 마음이 몹시 언짢아 그저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판벽 뒤로 가서 누웠다.

부인은 마음에 정욕이 일자 남의 눈을 의식할 겨를도 없이 스님들을 보살피러 갔고, 다시 북과 바라를 치며 의식을 진행하고 차와 과일 같은 다과를 마련하게 했다. 해사리(海闍黎)는 스님들에게 경전에 집중하라 이르고, 천왕을 청해 참회를 올리며, 목욕재(設浴)를 베풀어 망자를 부르고 삼보(三寶)에 예를 올렸다.

추천(追薦) 의식이 삼경(밤 11시~새벽 1시)에 이르자 스님들은 모두 졸음에 겨웠으나, 해사리만은 더욱 기운을 내어 큰 소리로 경을 외웠다. 부인은 휘장 아래에서 이를 지켜보다 욕정이 치솟아 참지 못하고, 여종을 시켜 해사리 스님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게 했다. 그 도둑 같은

까까머리는 황급히 부인 앞으로 다가왔다. 부인이 스님의 소매를 붙잡고 말했다.

"사형, 내일 공덕금을 받으러 오실 때 아버지께 혈분원심(血盆願心)에 관한 일을 말씀드리는 걸 잊지 마세요."

스님이 말했다.

"소승,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저 서원을 갚아야 한다고만 말씀드려도 갚게 되니 좋지요."

스님이 또 말했다.

"댁의 그 시숙(叔叔)이라는 분은 참으로 만만치 않더군요."

부인이 대답했다.

"그 사람이 무슨 상관이에요! 친골육도 아닌걸요."

해사리가 말했다.

"그렇다면 소승도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저는 또 절급(節級, 곧 양웅) 나리의 친형제라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참 농을 주고받으며 웃었다. 그러고 나서 스님은 밖으로 나가 곡식을 베풀어 망자를 천도하는 의식(判斛送亡)을 행했다. 뜻밖에도 석수는 판벽 뒤에서 자는 척하며 이 모든 것을 똑똑히 엿보아 속속들이 알아챘다.

그날 밤 오경(새벽 3시~5시)에 도량의 의식이 모두 끝나고 부처를 보내며 종이를 다 태우자, 스님들은 사례하고 돌아갔으며 부인은 자기 누각으로 올라가 잠들었다. 석수는 속으로 분이 치밀어 생각했다.

'형님처럼 호걸이신 분이 하필 저런 음탕한 계집을 만났단 말인가.'

그러고는 한배 가득 찬 울화를 억지로 참으며 작업장으로 가서 잠을 잤다.

다음 날, 양웅이 집으로 돌아왔으나 두 사람 다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뒤 양웅은 다시 밖으로 나갔다. 한편 해사리(海闍黎)는 단정한 승복으로 갈아입고 곧장 판공의 집을 찾아왔다. 부인은 스님이 왔다는 소리에 황급히 아래층으로 내려와 맞이하고, 그를 안으로 모셔 앉히며 차를 내오라 일렀다. 부인이 사례하며 말했다.

"어젯밤 사형께서 너무 애쓰셨어요. 공덕금은 아직 올리지 못했네요."

해사리가 말했다.

"입에 담을 것도 없습니다. 어젯밤 말씀드린 혈분참원심(血盆懺願心)에 관한 일은 특별히 현매(賢妹)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갚으시려거든 마침 소승의 절에서 경을 읽고 있으니, 소문(疏文) 한 통만 써 주시면 됩니다."

부인이 말했다.

"좋아요, 좋아요."

그러고는 여종을 시켜 아버지를 모셔 오게 했다. 판공이 나와 사례하며 말했다.

"늙은이가 밤을 견디지 못해 어젯밤 제대로 모시지 못했구려. 게다가 석 숙부마저 배가 아파 누워버려 시중들 사람이 없었으니, 부디 탓하지 마시오, 탓하지 마시오."

스님이 말했다.

"양아버님(乾爺)께서는 그저 편히 계시면 됩니다."

부인이 말을 이었다.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 혈분참의 옛 서원(舊願)을 갚으려 해요. 사형 말씀대로 내일 절에서 불사를 하는 김에 함께 갚으면 되겠어요. 우선 사형께서 절에 가 경을 읽고 계시면, 저도 내일 식사를 마치고 절로 갈 테니 참회 소문만 증명해 주시면 한 가지 일이 깔끔히 마무리될 거예요."

판공이 말했다.

"그것도 좋겠다만, 내일은 장사가 바빠 가게에 사람이 없을까 걱정이구나."

부인이 말했다.

"석 숙부가 집을 봐줄 텐데 무엇이 걱정이에요?"

판공이 말했다.

"내 딸이 입으로 서원을 했으니 내일은 가지 않을 수 없겠구나."

부인은 은자를 조금 챙겨 공덕금으로 삼아 스님에게 건네며 말했다.

"사형, 수고스럽겠지만 적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내일 꼭 절(上刹)로 가서 소면(素麵)을 얻어먹을게요."

해사리가 말했다.

"삼가 분향(撚香)하러 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은자를 챙긴 해사리는 일어나 사례하며 말했다.

"보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돈을 여러 스님께 나누어 드리고, 내일 현매께서 오셔서 증명해 주시기를 오로지 기다리겠습니다."

부인은 스님을 문밖까지 정중히 배웅했다. 한편 석수는 작업장에서 쉬다가 일어나 돼지를 잡으며 바삐 일했다.

시로 이르되,

예부터 불전(佛殿)에는 기이한 만남이 있었으니, 몰래 약속한 즐거운 밀회에 정이 곱절로 짙어지네.
배항(裴航)이 옥 절구공이(玉杵)를 부지런히 찧던 일을 본받으니, 교운(巧雲, 곧 반교운)이 옮겨가는 곳에 오작교(鵲橋)가 놓이네.

한편 양웅은 그날 밤 돌아와 쉬었다. 부인은 그에게 저녁을 대접하고 손발을 씻겨준 뒤, 판공을 시켜 양웅에게 이렇게 말하게 했다.

"내 안사람이 임종할 적에, 딸아이가 이 보은사에서 혈분경(血盆經) 참회의 서원을 세웠다네. 내일 딸아이와 함께 그곳에 가서 서원을 갚고 증명한 뒤 돌아올 터이니, 자네에게 미리 알려두는 것이네."

양웅이 말했다.

"여보, 그냥 당신이 직접 내게 말하면 될 것을 무엇이 어떻단 말이오."

부인이 대답했다.

"당신에게 직접 말했다가 혹여 화를 낼까 봐, 그래서 차마 말을 못했어요."

그날 밤은 별일 없이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오경(새벽 3시~5시 무렵), 양웅은 일어나 몸소 출근부에 서명(晝卯)하고 관청의 일에 응하러 나갔다. 석수도 일어나 자기 장사를 돌보았다. 한편 부인은 일어나 짙게 화장하고 옷차림을 아주 곱게 꾸민 뒤, 향 상자를 싸고 지촉(紙燭)을 사고 가마 한 채를 불렀다. 석수는 아침부터 장사를 돌보느라 그녀에게는 신경 쓰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자 여종 영아(迎兒)까지 단장시켰다. 사패(巳牌, 오전 9시~11시) 무렵 판공이 옷을 갈아입고 나와 석수에게 말했다.

"아우, 번거롭겠지만 가게 앞을 좀 봐주게나. 이 늙은이가 딸아이와 함께 서원을 갚고 곧 돌아오겠네."

석수가 웃으며 말했다.

"소인이 알아서 잘 보겠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그저 형수님을 잘 챙기시어, 좋은 향이나 듬뿍 사르고 일찍 돌아오십시오."

석수는 속으로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한편 판공과 영아는 가마를 따라 곧장 보은사(報恩寺)로 향했다. 옛사람이 지은 게송(偈子) 가운데 이를 잘 나타낸 구절이 있으니, 다음과 같다.

아침에는 석가모니의 경전을 보고, 저녁에는 화엄경의 주문을 외우네.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열리고, 콩을 심으면 콩이 열리는 법이라네.

경전과 주문은 본래 자비로운 법이거늘, 맺힌 원한을 어찌 구제하겠는가? 본래의 마음을 비추어 본다면, 방편이 아무리 많다 한들 결국 그 끝은 하나로 통하는 법이라네.

마음속에 사사로운 욕심이 없다면, 어찌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겠는가? 지옥과 천당은 스스로 지은 업에 따라 직접 받는 법이라네.

이 이야기는 옛사람들이 남긴 말로, 선과 악의 응보가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말한다. 육도(六度)의 수행을 닦고 만 가지 인연을 살핀다면 마땅히 삼귀의(三歸依)를 받들고 오계(五戒)를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승려 무리 중에는 오로지 개나 돼지 같은 짓만 일삼아, 앞서 닦아놓은 수행을 욕보이고 후세에 비방만 남기는 자들이 있다.

한편, 해사리라는 저 도적 같은 중놈은 오로지 저 여인 때문에 판공과 의를 맺어 그 양아들이 되었으나, 양웅이 눈엣가시처럼 가로막고 있는 탓에 차마 손을 대지는 못하고 있었다. 해사리가 저 여인과 안면을 튼 뒤로는 그저 눈짓을 주고받으며 정을 나누기만 했을 뿐, 아직 진짜 일을 벌이지는 못했다. 그러다 바로 이날 밤, 도량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것이었다.

저 중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먼저 산문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가마가 오는 것을 보고는 기뻐 어쩔 줄 모르며 마중 나갔다. 판공이 말했다. "스님,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인도 가마에서 내려 절하며 말했다. "스님,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사리가 대답했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소승은 이미 여러 승려와 함께 수륙당(水陸堂)에서 오경(새벽 5시경)부터 일어나 경을 읽느라 지금까지 한시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저 현매(賢妹, 아우님)께서 오셔서 증명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참으로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해사리는 판공과 여인을 수륙당으로 안내했다. 미리 꽃과 과일, 향과 촛불 등을 갖추어 놓았는데, 그곳에는 이미 십여 명의 승려가 모여 경을 읽고 있었다. 여인은 삼보(三寶)에 예를 올리며 만복을 빌었다. 해사리는 그들을 지장보살 앞에 데려가 서약을 하고 참회하게 했다. 축문을 다 읽고 종이를 태워 날린 뒤, 해사리는 승려들에게는 가서 채식을 하라고 일렀고 제자들에게는 시중을 들게 했다. 그러고는 양아버지인 판공과 여인에게 자신의 방으로 가서 차를 마시자고 청했다.

해사리는 여인을 방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다. 미리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는 "차를 가져오너라!"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시자 두 명이 쟁

반에 차를 받쳐 들고 나왔다. 눈처럼 흰 백자(白瓷) 찻잔에 담긴 차가 주홍색 받침 위에 놓여 있었는데, 더없이 곱고 좋은 차였다. 차를 다 마신 뒤에 해사리는 여인에게 방 안쪽으로 가서 좀 앉아 있으라고 권했다. 그러고는 다시 작은 누각(閣兒)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반들반들 윤이 나는 검은 옻칠을 한 춘대(春臺, 탁자)가 놓여 있고, 그 위쪽으로 유명한 이들의 서화 몇 폭이 걸려 있었으며, 작은 탁자 위 향로에서는 묘한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판공과 딸이 한 탁자에 나란히 앉고, 해사리는 맞은편에 앉았으며, 영아는 곁에 서 있었다. 여인이 말했다. "사형의 수행처는 참으로 청아하고 고요하여 즐겁군요." 해사리가 말했다. "아우님, 농담 마십시오. 어찌 귀댁의 저택과 비교하겠습니까." 판공이 말했다. "스님의 대접을 하루 받았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해사리가 어찌 그러겠는가. "양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찌 남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사 음식은 이미 아우님께서 시주하신 것이니, 어찌 식사도 안 하고 가시겠습니까? 어서 음식을 가져오너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음식이 두 쟁반 가득 들어왔다. 평소에 몰래 숨겨두었던 진귀한 과일과 별미 채소, 그리고 갖가지 채식 요리들이 춘대(탁자) 위에 가득 차려졌다. 여인이 말했다. "사형, 어찌 술까지 준비하여 번거롭게 하십니까." 해사리가 웃으며 말했다. "예를 갖추지 못한 것이나, 작은 정성을 표할 뿐입니다." 어린 제자가 술을 잔에 가득 따랐다. 해사리가 말했다. "양아버지, 오랜만에 오셨으니 이 술을 한번 맛보십시오." 판공이 술을 마시고 말했다. "좋은 술이구려, 맛이 아주 진하네." 해사리가 말했다. "며칠 전 한 시주께서 이 술 만드는 법을 알

려주셨는데, 쌀 서너댓 섬으로 빚어 두었습니다. 내일 몇 병 보내드려 사위에게도 맛보게 하겠습니다." 판공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해사리는 다시 권했다. "현매 아우님께 보답할 길이 없어, 무례를 무릅쓰고 한 잔 올립니다."

두 명의 어린 제자가 차례로 술을 따랐고, 영아도 권하는 대로 술을 몇 잔 마셨다. 여인이 말했다. "술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더는 못 마시겠어요." 해사리가 말했다. "아우님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몇 잔만 더 드십시오." 판공은 가마꾼들을 불러들여 그들에게도 술을 한 잔씩 돌렸다. 해사리가 말했다. "양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일러두었습니다. 이미 도인을 시켜 밖에 따로 자리를 마련해 술을 마시게 했으니, 마음 편히 몇 잔 드십시오."

알고 보니 저 도적 같은 중놈은 이 여인을 위해 특별히 독하고 힘이 좋은 술을 마련해 두었던 것이다. 판공은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하고 두어 잔을 더 마셨고, 결국 취하고 말았다.

해사리가 말했다. "양아버지, 우선 침상에 가서 좀 누워 주무십시오." 해사리가 두 어린 제자에게 시켜 판공을 부축하게 한 뒤, 깨끗하고 조용한 방에 눕혀 잠을 자게 했다. 그러고 나서 해사리가 여인에게 말했다. "아우님, 기분 좋게 몇 잔 더 드시지요."

여인은 마음속으로 딴생각을 품고 있었던 데다 술기운까지 올라오니, 예부터 말하길 "술은 이성을 흐리게 하고, 색은 사람을 홀린다"더니 딱 그 꼴이었다. 여인이 술을 세 잔쯤 마시자 정신이 조금씩 몽롱해지며 입을 달싹이며 말했다. "사형, 어찌 저에게 술만 자꾸 권하시는

거예요?" 해사리가 입가에 웃음을 띠며 능글맞게 말했다. "그저 아우님을 존중하기 때문이지요." 여인이 말했다. "이제 더는 못 마시겠어요." 해사리가 말했다. "아우님, 제 방에 가서 불아(佛牙)를 보시지요." 여인이 대답했다. "안 그래도 불아를 보고 싶던 참이었어요."

해사리는 여인을 이끌고 어느 누각 위로 올라갔는데, 그곳은 해사리의 침실로 아주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여인은 그곳을 보고 먼저 반쯤 반가운 마음이 들어 말했다. "방이 참으로 좋군요, 아주 깨끗하고 말이에요." 해사리가 웃으며 말했다. "아우님 한 분만 계시면 완벽할 텐데 말입니다." 여인도 웃으며 말했다. "그럼 한 분 더 구하면 되지 않겠어요?" 해사리가 말했다. "어찌 그런 시주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인이 말했다. "그만두고 어서 불아를 보여주세요." 해사리가 말했다. "영아를 아래로 내려보내면 바로 꺼내 보여 드리지요." 여인이 말했다. "영아야, 내려가서 주인 어른께서 깨어나셨는지 좀 보고 오너라."

영아가 판공을 살피러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해사리는 얼른 누각 문을 닫아걸었다. 여인이 말했다. "사형, 왜 저를 여기 가두시는 거예요?" 저 도적 같은 중놈은 음심이 요동쳐 여인을 덥석 껴안으며 말했다. "아우님을 너무나 사모해서 지난 2년 동안 마음을 졸여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우님이 여기까지 오신 이 기회는 좀처럼 얻기 어려운 것이니, 부디 소승의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여인이 다시 말했다. "제 남편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속이려 들다니요. 만약 그가 알게 되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해사리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부디 이 가련한 소승을 가엾게 여겨 주십시오!" 여인이 손을 내

저으며 말했다. “중놈이 참 끈질기기도 하네. 정말이지 한 대 때려주고 싶구나!” 해사리가 히히 웃으며 말했다. “아우님 마음대로 치십시오. 다만 아우님 손만 아프지 않을까 걱정될 뿐입니다.”

여인도 어느덧 음란한 마음이 생겨 해사리를 껴안으며 말했다. “정말로 때리지는 않을게요.” 해사리는 여인을 껴안고 침상 앞에서 옷을 풀어헤친 채, 베개를 함께하며 즐거움에 빠져들었다. 바로 이러하니,

여래의 법을 돌보지 않으니 부처님의 유언을 따르기 어렵고, 한 사람은 색욕에 눈이 멀어 남편의 이해득실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한 사람은 음심이 요동쳐 장로의 원망을 자초하는구나. 이쪽은 숨이 가쁘고 목소리가 거칠어 마치 버드나무 그림자 아래 소 울음소리 같고, 저쪽은 말씨가 교태롭고 목소리가 간드러져 마치 꽃 사이에서 꾀꼬리가 지저귀는 듯하네. 한 사람은 귓가에 운우(雲雨)의 정을 속삭이고, 한 사람은 베갯머리에서 산과 바다에 맹세하듯 굳은 언약을 나누는구나. 아사리(闍黎)의 방은 어느덧 쾌락의 도량이 되었고, 보은사(報恩寺) 안은 그야말로 극락세계가 되었도다. 애석하구나, 보리(菩提)의 감로수(甘露水)가 하루아침에 교운(巧雲, 곧 반교운)의 품속으로 쏟아져 버렸으니.

예부터 지금까지 선인들이 남긴 말이 있으니, 저 중놈이야말로 쇠를 파먹는 벌레와 같다는 뜻이다. 아무리 단단하고 빈틈없는 쇠라 할지라도 벌레가 파고들면 속이 텅 비게 되니, 하물며 평범한 일반 가정이야 어찌 저런 자를 건드려 화를 자초하겠는가.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시 한 수가 이를 증명하니,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색욕에 굶주린 귀신이요 짐승 중의 원숭이라,
장난이 진심이 되어 조상의 법도를 말하는구나.
이것은 오직 숲속에서나 구경할 만한 것이니,
어찌 감히 화려한 방 안으로 들여놓겠는가.

두 사람이 한바탕 정사를 마치자, 그 도둑놈 같은 중이 여인을 품에 안고 말했다. "그대가 나에게 마음이 있다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소. 다만 오늘 비록 그대가 나를 도와주어 잠시 동안은 은애를 나누며 즐거웠으나, 밤새도록 즐거움을 누릴 수는 없으니 머지않아 필시 이 소승을 죽게 만들 것이오." 그러자 여인이 대답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방도를 생각해 두었으니까요. 제 남편은 한 달에 스무 날 남짓은 옥에서 숙직을 서야 하니, 제가 영아를 매수해 매일 뒷문에서 대기하게 할 거예요. 만약 밤에 남편이 집에 없을 때 향상(香桌)을 내놓고 밤향을 피우면, 그걸 신호로 삼아 마음 놓고 오시면 돼요. 혹시라도 오경(새벽 3~5시)쯤 잠이 들어 알아차리지 못할까 걱정된다면, 새벽을 알리는 두타(頭陀)를 하나 사서 뒷문에 머물게 하면 돼요. 그가 목어를 크게 두드리며 큰 소리로 염불하면 그때 나가시면 되니까요. 그런 사람을 하나 두면, 하나는 밖의 동정을 살필 수 있고, 둘은 그대가 새벽을 놓치지 않게 해 줄 거예요." 중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정말 묘책이구려! 그대는 그저 그렇게만 해주시오. 나에게는 마침 호도인이라는 두타가 있으니, 내가 직접 그에게 동정을 살피라고 일러두겠소." 여인이 말했다. "사람들이 의심할까 두려워 오래 머물지 못하고 서둘러 돌아가야겠어요. 그러니 당신은 약속을 어기면 안 돼요." 여인

은 서둘러 머리를 매만지고 얼굴에 분을 다시 고르게 바른 뒤, 누각 문을 열고 내려왔다. 그리고 영아에게 판공을 깨우라고 시킨 뒤 황급히 승려의 방을 빠져나왔다. 가마꾼들은 이미 술과 국수를 먹고 절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해사리는 여인을 산문 밖까지 직접 배웅했고, 여인은 작별 인사를 한 뒤 가마에 올라 판공, 영아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으니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멈춘다.

한편, 해사리는 곧장 새벽을 알리는 두타를 찾아 나섰다. 본래 절 뒤편 퇴거(退居, 노승이 물러나 머무는 곳)의 작은 암자에 호도인(胡道人)이라는 이가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모두 그를 호두타(胡頭陀)라 불렀다. 그는 매일 오경(새벽 3~5시)에 일어나 목어를 두드리며 새벽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염불을 권하며, 날이 밝으면 공양밥을 거두어갔다. 해사리는 그를 방으로 불러 좋은 술 석 잔을 정성껏 대접하고 은자도 조금 챙겨주었다.

호도인이 일어나 말했다. “제자가 공도 세우지 못하였는데 어찌 감히 녹을 받겠습니까? 늘 스승님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해사리가 말했다. “그대가 참으로 성실한 사람임을 내가 잘 알고 있소. 내가 조만간 돈을 좀 내어 도첩(度牒)을 사주고 그대의 머리를 깎아 정식 제자로 삼아주겠소. 우선 이 은자는 가져가서 옷이라도 좀 사 입으시오.”

알고 보니 해사리는 예전부터 가끔 어린 제자를 시켜 호도인에게 점심 공양을 보내주곤 했으며, 그를 데리고 다니며 경을 읽게 하여 시줏돈을 벌게 해주기도 했다. 호도인은 그 은혜가 적지 않았으나 아직 보

답하지 못하고 있던 터였다. '오늘 또 은자를 주시다니, 필시 나를 쓸 곳이 있으신 게 분명한데 굳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 호도인이 말했다. "스승님, 무슨 일이든 소도(小道)가 할 일이 있다면 곧장 나서겠습니다."

해사리가 말했다. "호도, 그대가 이토록 마음이 좋으니 숨김없이 말하겠소. 판공의 딸이 나와 내왕하기로 하였는데, 뒷문에 향상을 차려 놓으면 나를 오라는 신호로 삼기로 약속했소. 내가 함부로 그곳을 어슬렁거리기가 어려우니, 그대가 먼저 가서 향상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 주면 그제야 내가 가겠소. 또한 오경에 일어나 사람들에게 염불을 권할 때, 그 뒷문 쪽으로 가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면 목어를 크게 두드려 새벽을 알리고 큰 소리로 염불해 주시오. 그래야 내가 나올 수 있소."

호도인이 대답했다. "그게 무슨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흔쾌히 응낙했다.

그날 호도인이 먼저 판공의 집 뒷문으로 공양밥을 받으러 가니, 영아가 나와서 말했다. "도인님, 어찌하여 앞문으로 공양을 받으러 오지 않고 뒷문으로 오십니까?"

호도인이 염불을 외우기 시작하자, 안에서 이 소리를 들은 여인이 벌써 눈치를 채고 뒷문으로 나와 물었다. "도인님, 혹시 오경에 새벽을 알리는 두타가 아니신가요?"

호도인이 대답했다. “소도가 바로 오경에 새벽을 알리는 두타입니다. 사람들이 늦잠을 자지 않게 하고, 밤에는 향을 피워 복을 쌓게 하라는 뜻이지요.”

여인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영아에게 시켜 누각 위에서 엽전 한 꾸러미를 가져와 시주하게 했다. 이 두타는 영아가 몸을 돌리는 틈을 타 여인에게 속삭였다. “소도는 해사리의 심복입니다. 특별히 길을 살피라고 보내져 왔습니다.”

여인이 말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와서 살펴보시고, 만약 밖에 향상이 놓여 있거든 그에게 알려주세요.”

호도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영아가 엽전을 가져다 호도인에게 건네주자 그는 떠나갔다. 여인은 누각 위로 올라가 영아에게 방금 있었던 은밀한 일을 털어놓았다. 예부터 이르기를, ‘남의 집 여종은 노비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작은 이득만 얻으면 어찌 따르지 않겠는가. 하늘 같은 큰일이라도 그들은 다 해내는 법이다. 그러므로 남의 집 부녀자와 여종은 쓸모는 있으되 결코 믿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없어서도 안 되는 존재였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따뜻함을 보내려다 추위를 몰래 불러들여 화근을 싹틔웠으니,
집안을 망친 것은 다름 아닌 여종이었구나.
그날 홍낭(紅娘)이 저지른 일을 보아라,
결국 앵앵(鶯鶯)을 속여 데리고 나왔지 않았느냐.

한편, 양웅은 마침 감옥에서 자야 하는 날이라 저녁이 되기도 전에 미리 이불을 챙겨 들고 감옥으로 향했다. 아환은 작은 선물을 얻은 터라 저녁이 되기만을 기다렸다가 향상을 차려 황혼 무렵 뒷문 밖에 내놓았고, 여인은 그 곁에 숨어 대기했다. 초경(밤 7~9시) 무렵, 한 사람이 두건을 쓴 채 몰래 들어오자 아환이 물었다. "누구십니까?" 그 사람은 대답도 없이 두건을 벗었는데, 그러자 매끈한 대머리가 드러났다. 곁에서 이를 본 여인은 해 화상(海和尚)인 것을 확인하고는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이 도둑 까까중 같으니, 눈치 한번 빠르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은 채 2층으로 올라갔다. 아환은 향상을 치우고 뒷문을 잠근 뒤 제 잠자리에 들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마치 끈끈한 풀이나 달콤한 꿀, 녹은 버터나 골수처럼, 혹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서로에게 딱 달라붙어 밤새도록 즐겁고 음란한 정사를 나누었다. 예부터 이르기를, '즐거움에 밤이 짧다 탓하지 말고, 다만 금계(새벽을 알리는 닭)가 늦게 울기만을 바랄 뿐'이라 했다. 두 사람이 한창 잠들려는데, 갑자기 '고고고' 하고 목어 소리가 울려 퍼지며 큰 소리로 불경을 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중과 여인은 꿈결에 깜짝 놀라 깨어났다. 해사리(海闍黎)가 옷을 걸치며 말했다. "이제 가야겠소. 오늘 밤에 다시 만납시다." 여인이 말했다. "앞으로 뒷문에 향상이 놓여 있으면 약속을 잊지 말고 꼭 오세요. 하지만 향상이 없다면 절대로 오면 안 돼요." 중은 침상에서 내려와 아까처럼 두건을 썼고, 아환이 뒷문을 열어주자 그는 떠나갔다. 이때부터 양웅이 감옥에서 자러 나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 중이 집으로 찾아왔다. 오직 노인(판공)만이 저녁이 되기도 전에 일찍 잠자리에 들 뿐이었고, 아환이라는 계집애는 이미 한통속이 되어 오직 석수한 사람만 속이고 있었다. 여인 또한 음탕한 마음에 빠져 앞뒤 가릴 줄을 몰랐다. 중 또한 여인의 맛을 알아버린 터라, 두 사람은 마치 넋이

나간 사람들처럼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중은 새벽을 알리는 두타(頭陀)가 신호를 보내기만을 기다렸다가 절을 떠나 집으로 왔고, 여인은 아환을 앞잡이로 삼아 중이 드나드는 것을 도우며 즐겁게 몰래 중을 끼고 놀았다. 이렇게 오고 간 지 어느덧 한 달 남짓이 되었고, 중은 그사이에 열 번 넘게 찾아왔다.

한편, 석수는 매일 가게를 정리하고 작방(作坊)에서 잠을 청하면서도, 늘 이 일이 마음에 걸려 갈피를 잡지 못했다. 하지만 그동안 그 중이 드나드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그는 매일 오경에 잠을 자다가도 문득문득 벌떡 일어나 이 일을 짐작해 보곤 했다. 그러던 중, 새벽을 알리는 두타(頭陀)가 매일 골목까지 들어와 목어를 두드리며 큰 소리로 불경을 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석수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기에 이미 거의 다 짐작하고 있었으나, 속으로 차갑게 생각했다. '이 골목은 막다른 골목인데, 어째서 저 두타가 연일 이곳까지 들어와 목어를 두드리며 불경을 외운단 말인가? 분명 수상한 구석이 있어.' 때는 11월 중순경, 오경 무렵이었다. 석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목어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었다. 두타가 골목 안까지 들어와 뒷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중생을 제도하고 고난을 구제하소서,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시여!" 석수는 이 외침이 무언가 수상쩍다고 느껴 벌떡 일어나 문틈으로 살펴보았다. 그러자 한 사람이 두건을 쓴 채 어둠 속에서 몰래 나타나 두타와 함께 사라졌고, 곧이어 아환이 나와 문을 닫았다. 이를 본 석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형님은 저토록 호걸이신데, 저런 음탕한 여편네를 만나 고생하시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저 계집에게 속아 이런 일을 당하게 되다니." 날이 밝자 석수는 돼지를 끌고 나가 아침 시장에 내다 팔았다. 식사를 마치고 외상값을 좀 거둔 뒤, 한낮쯤 되어 양

웅을 찾아 주아(州衙) 앞으로 갔다. 다행히 주교(州橋) 근처에서 양웅과 마주쳤다. 양웅이 물었다. “아우, 어디 가는 길인가?” 석수가 대답했다. “외상값을 좀 받으러 왔다가 형님을 뵈러 왔습니다.” 양웅이 말했다. “내가 요즘 관청 일로 바빠서 아우와 기분 좋게 술 한잔 나누지 못했구려. 우선 이리로 와서 좀 앉읍시다.” 양웅은 석수를 주교 아래에 있는 주루로 데려가, 한적한 별실에 자리를 잡고 앉혔다. 그리고 점소이에게 명해 좋은 술과 안주, 해산물을 가져오게 했다. 두 사람이 술을 세 잔쯤 마셨을 때, 석수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보았다. 성격이 급한 양웅이 물었다. “아우, 마음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혹시 집안에 무슨 언쟁이라도 있어 마음을 상한 것이 있는가?” 석수가 말했다. “집안에 별일은 없습니다. 다만 형님께서 저를 친혈육처럼 아껴주시니, 감히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양웅이 말했다. “아우, 오늘따라 왜 그리 서먹하게 구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편히 하게나.” 석수가 말했다. “형님께서는 매일 밖에서 관청 일에만 매달리시느라 뒤에서 벌어지는 일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형수님은 결코 양가의 여인이 아닙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눈여겨보았으나 감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세히 확인하고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형님을 찾아온 것이니,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서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양웅이 말했다. “내 뒤에서 누가 나를 속인단 말인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석수가 말했다. “지난번 댁에서 도량(道場, 법회)을 열었을 때 해사리(海闍黎)라는 저 도둑 까까중을 불렀는데, 형수님이 그와 눈을 맞추며 정을 통하는 것을 제가 다 보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절에 가서 혈분참(血盆懺) 발원을 갚는다더니, 두 사람이 술에 취해 돌아오더군요. 게다가 요 근래에는 어떤 두타가 매일 골목까지 들어와 목어를 두드리며 불경을 외우는데, 그놈이 아주 수상하게 행

동합니다. 오늘 오경에 제가 일어나 살펴보니, 과연 그 도둑 까까중이 두건을 쓰고 집에서 몰래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런 음탕한 여편네를 데리고 살아서 무엇 하겠습니까." 양웅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외쳤다. "그 천한 계집이 감히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석수가 달랬다. "형님, 일단 노여움을 가라앉히십시오. 오늘 밤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평소처럼 행동하십시오. 내일은 그저 감옥에 자러 가는 것처럼 하시고, 삼경(밤 11시~새벽 1시) 이후에 다시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놈이 분명 뒷문으로 먼저 도망칠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놈을 붙잡을 테니, 그 후에 형님께서 처분하십시오." 양웅이 말했다. "아우의 말이 옳네." 석수가 다시 당부했다. "형님, 오늘 밤에는 절대로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양웅이 대답했다. "내일 다시 약속하겠네." 두 사람은 술을 몇 잔 더 마시고 술값을 계산한 뒤 함께 내려와 술집을 나섰다. 각자 흩어지려는데, 대여섯 명의 우후(虞候)들이 양웅을 불러 세웠다. "어디 계셨습니까, 절급(節級) 나리를 한참 찾았습니다! 지부 사또께서 화원에 앉아 계시면서 절급을 불러 우리와 봉술을 겨루게 하라 하셨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어서!" 양웅이 석수에게 말했다. "관청에서 나를 부르니 어쩔 수 없이 가봐야겠네. 아우, 먼저 집으로 돌아가게나." 석수는 즉시 집으로 돌아와 가게를 정리하고 작방으로 가서 쉬었다.

한편, 양웅은 지부(知府, 주를 다스리는 수령)의 부름을 받아 후원(後花園)으로 가서 몇 차례 봉술을 겨루었다. 이를 지켜본 지부는 매우 크게 기뻐하며 술을 가져오게 하여, 큰 상배(賞鍾, 상으로 주는 술잔)로 연거푸 열 잔을 내렸다. 양웅이 그 술을 다 마신 뒤 사람들은 각자 흩어졌으나, 사람들이 다시 양웅을 청하여 술을 마셨다. 밤이 되자 양

웅은 술에 잔뜩 취해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시로 이르되,

술과 여색이 기운을 잇게 한다더니,
방탕한 사내 술에 취해 꽃과 버들 사이에서 잠드네.
오직 영웅의 마음속에 맺힌 일들만이,
취한 중에도 울분을 씻어내지 못하게 하네.

그 여자는 남편이 술에 취한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넨 뒤, 아환과 함께 양웅을 부축해 등불을 환히 밝히고 2층으로 올라갔다. 양웅이 침상에 앉자 아환은 그의 신발을 벗겼고, 여자는 그의 두건과 머리띠를 풀어 주었다. 양웅은 여자를 바라보다가 문득 마음에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예부터 '취중에 한 말이 곧 깬 정신의 말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던가. 그는 여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천한 년, 도둑 같은 계집아, 어찌 되었든 내가 기어코 너를 끝장내고 말겠다!" 여자는 깜짝 놀라 감히 대답도 못 하고, 그저 양웅을 모시며 잠자리에 들었다. 양웅은 침상에 눕자마자 입속으로 분한 듯 욕을 중얼거렸다. "이 천한 년, 더럽고 막돼먹은 계집 같으니. 그놈이 감히 호랑이 아가리의 침을 탐내다니(감히 내 것을 넘보다니).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라, 곱게 놓아줄 줄 알아라!" 여자는 감히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양웅이 깊이 잠들기만을 기다렸다.

새벽 다섯 시경이 되자 양웅이 술에서 깨어 물을 찾았다. 그러자 여자가 일어나 사발에 물을 떠다 양웅에게 건넸다. 탁자 위의 등불은 아직 희미하게 밝혀져 있었다. 물을 마신 양웅이 물었다. "부인, 밤새 옷

도 안 벗고 그냥 잤소?" 여자가 대답했다. "당신이 너무 취해서 토할까 봐 겁이 났어요. 옷을 벗을 엄두가 안 나서 밤새 그대로 누워 있었지요." 양웅이 다시 물었다. "내가 밤새 무슨 말이라도 했소?" 여자가 말했다. "평소에도 술만 마시면 곧장 잠드시는 편이지만, 어젯밤에는 마음이 영 놓이지 않았어요." 양웅이 또 물었다. "석수 아우와 요 며칠 즐겁게 술 한잔 나누지 못했으니, 당신도 집에서 그를 초대할 준비를 좀 하시오." 여자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침상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한숨만 내쉬었다. 양웅이 다시 말했다. "부인, 내가 밤에 취해서 당신을 화나게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리 근심이 많소?" 여자는 눈물을 훔치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양웅이 몇 번을 더 물어도 여자는 얼굴을 가리고 우는 시늉만 했다. 참다못한 양웅이 침상으로 다가가 여자를 끌어당기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다그쳐 물었다. 여자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우리 부모님이 저를 왕 압사에게 시집보낼 때는 끝까지 잘 살기만을 바라셨는데, 중간에 버림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당신처럼 호걸인 분에게 시집와서 참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어찌 당신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양웅이 말했다. "또 무슨 억지스러운 소리요? 누가 당신을 괴롭혔기에 내가 나서지 못한다는 말이오?" 여자가 말했다. "말을 안 하려 해도 당신이 그놈을 몰아세울까 봐 겁나고, 말을 하자니 당신이 참으려 할까 봐 겁이 나요." 양웅이 듣고는 말했다. "무슨 일인지 어서 말해 보시오." 여자가 말했다. "말씀드려도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석수를 의형제로 들인 후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갈수록 그놈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집에 없을 때면 저를 보며 '형님이 오늘도 안 오시니 형수님이 참 외롭겠구나'라며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지요. 그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었고요. 아, 이 이야기는 그만두고요. 어제 아침에 제가 부엌에서

목을 씻고 있는데, 그놈이 뒤에서 살금살금 나타나더니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뒤에서 손을 뻗어 제 가슴을 더듬으며 말하더군요. '형수님, 혹시 아이라도 가지셨나요?'라고요! 제가 손을 쳐내긴 했지만요. 당장 소리를 질러 알리고 싶어도 이웃들이 알면 웃음거리가 될까 봐, 또 당신에게 거짓말쟁이로 몰릴까 봐 참았어요.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돌아오자마자 진흙탕에 빠진 듯 취해 계시니 도저히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정말 그놈을 잡아먹고 싶은 심정인데, 당신은 어찌하여 석수 아우를 찾으시는 건가요!"

시로 이르되,

음탕한 여인은 예부터 교묘한 말이 많고 / 사내는 귀가 얇아 쉬이 미혹되는구나. / 이제부터 석수가 앞문으로 나가니 / 마음껏 사리(闍黎, 중)를 뒷문으로 들이기 좋겠구나.

양웅은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속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말했다. "'용과 호랑이는 그려도 뼈는 그리기 어렵다더니, 사람의 얼굴은 알아도 그 마음은 알 길이 없구나!' 이놈이 내 앞에서 해가리의 일을 들먹이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이는구나. 저놈이 당황해서 먼저 실토하며 나를 시험하려 드는 것이 분명하다." 그는 분한 마음을 억누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 친동생도 아닌데, 당장 쫓아내 버리면 그만이지."

양웅은 날이 밝을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아침이 되자 아래층으로 내려가 판공에게 말했다. "도축한 고기들은 모두 절여 버리십시오. 오늘부터는 장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는

진열장과 고기 매대를 모두 부수어 치워버렸다. 석수가 날이 밝자마자 고기를 밖으로 내놓으며 가게 문을 열려는데, 매대와 진열장이 모두 엎어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눈치가 빠른 석수가 어찌 사정을 모르겠는가. 그는 웃으며 말했다. "과연 그렇군. 양웅이 술에 취해 내뱉은 말 때문에 소문이 새어 나갔고, 도리어 저 여편네에게 역공을 당해 내 무례함을 꾸짖는 꼴이 되었구나. 남편에게 고기 가게를 접게 만들다니 말이야. 내가 여기서 따져 물어 양웅을 망신 주는 것보다, 한 걸음 물러나 더는 따지지 않는 편이 낫겠다." 석수는 곧장 작업장으로 가서 짐을 챙겼다. 양웅 또한 그가 부끄러워할까 봐 서둘러 자리를 떴다. 석수는 보따리를 챙기고 손목에 칼을 차고 나서며 판공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동안 댁에서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오늘 형님께서 가게를 접으셨으니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장부는 이미 명백하게 정리되어 한 푼의 오차도 없으니, 만약 조금이라도 마음을 속인 것이 있다면 하늘이 벌을 내릴 것입니다." 판공은 사위의 단호한 태도에 감히 그를 붙잡지 못했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베갯머리의 (아내) 말은 듣기 쉬워도 / 등 뒤(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눈 뜨기 어렵구나. / 곧고 바른 이(석수)는 내쫓겨 가고 / 간사한 자(중)는 틈을 타 새어 들어오네.

석수는 작별 인사를 나누고 근처 골목 안에 있는 객주를 찾아가 방 하나를 빌려 묵었다. 석수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 "양웅과 나는 의형제를 맺은 사이다. 만약 내가 이 일을 명백히 밝혀내지 못한다면, 그의 목숨을 헛되이 버리게 하는 꼴이 된다. 비록 그가 잠시 저 여편네의 말을 믿고 나를 원망하고 있지만, 나 역시 이 일을 확실히 가려내어 그와 매

듭을 지어야겠다. 우선 그가 언제 감옥에서 밤을 지내는지 살펴본 뒤, 새벽 네 시경에 움직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객주에서 이틀을 머물던 석수는 양웅의 집 앞으로 가서 살폈다. 그날 밤, 감옥지기가 이불을 챙겨 나가는 것을 보고 석수가 말했다. "오늘 밤이면 분명 감옥에 들어가는구나.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그날 밤 객주로 돌아온 석수는 새벽 네 시경까지 잠을 자다가 일어나, 몸을 지킬 날카로운 칼을 차고 조용히 객주 문을 열었다. 그는 양웅의 집 뒷문 쪽 골목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 어둠 속에 엎드린 채 때를 기다렸다. 마침 새벽 다섯 시쯤 되자, 그 두타(頭陀)가 목어를 끼고 골목 어귀에서 이리저리 머리를 내밀며 살피는 것이 보였다.

석수는 몸을 날려 두타의 등 뒤로 다가가더니, 한 손으로는 두타를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칼을 그의 목에 갖다 대며 낮게 호통쳤다. "움직이지 마라! 소리를 높였다간 바로 죽여버리겠다. 사실대로만 말해라. 해화상(海和尙)이 너를 불러 무엇을 시키더냐?" 두타가 겁에 질려 말했다. "호걸님, 살려만 주시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가 다시 말했다. "어서 말해라, 죽이지 않으마." 두타가 대답했다. "해사리(海闍黎)가 판공의 딸과 정을 통하여 매일 밤 드나듭니다. 저더러 뒷문 어귀에 향상(香卓)이 놓여 있으면 그것을 신호로 그를 안으로 불러들이고, 새벽녘에는 목어를 두드리며 염불하는 척하여 그를 불러내라고 시켰습니다." 석수가 물었다. "그자는 지금 어디 있느냐?" 두타가 말했다. "아직 그 집에서 잠들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목어를 울리면 그가 나올 것입니다." 석수가 명령했다. "네 옷과 목어를 잠시 내게 빌려다오." 석수는 두타의 옷을 벗기고 목어를 빼앗았다. 두타가 옷을 막

벗자마자 석수는 칼로 그의 목을 한 차례 그어 바닥에 쓰러뜨려 죽였다. 두타가 죽자 석수는 그의 도포(直裰)와 무릎 가리개(護膝)를 챙겨 입고 한쪽에 칼을 꽂은 채, 목어를 두드리며 골목 안쪽을 향해 곧장 들어갔다.

침상에 있던 해사리는 목어가 딱딱 울리는 소리가 들리자 급히 일어나 옷을 걸치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여종 영아(迎兒)가 먼저 문을 열었고, 해사리는 그 뒤를 따라 뒷문으로 살금살금 빠져나왔다. 석수가 계속해서 목어를 울리자 해사리가 낮게 꾸짖었다. "무엇을 그렇게 자꾸 두드리기만 하느냐!" 석수는 대답하지 않고 그가 골목 어귀까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단숨에 덮쳐 그를 바닥에 눕히고 누르며 호통쳤다. "소리 지르지 마라! 큰 소리를 내면 바로 죽여버리겠다. 내가 네 옷을 벗기기만 하면 그만이다." 해사리는 상대가 석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감히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하지 못했다. 석수는 해사리의 옷을 모조리 벗겨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만들고는, 살그머니 자기 무릎 가리개 옆에 꽂아 두었던 칼을 뽑아 서너 차례 찔러 죽였다. 그러고는 그 칼을 두타의 시신 곁에 놓아두고, 두 사람의 옷을 챙겨 한 뭉치로 말아 묶은 뒤 다시 객주로 돌아갔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다시 살며시 문을 닫고는 잠자리에 들었다. 이 이야기는 더 말하지 않는다.

한편, 그 고을 성 안에서 떡과 죽을 파는 왕공은 그날 아침 평소처럼 떡과 죽이 담긴 지게를 지고 등불을 켠 채, 어린 심부름꾼 하나를 데리고 이른 아침 장사를 나섰다. 그런데 시신이 놓인 곳을 지나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지게에 있던 떡과 죽이 바닥에 몽땅 쏟아지고

말았다. 어린 심부름꾼이 외쳤다. “아이구, 큰일 났네! 스님 한 분이 여기서 술에 취해 쓰러져 계셔요!” 왕공이 더듬어 일어나다 두 손에 피가 묻어나는 것을 만지고는, 영문도 모른 채 비명을 질렀다. 이 소란을 듣고 이웃집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와 등불을 비춰보니, 바닥에는 온통 피 섞인 죽이 널려 있고 시신 두 구가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이웃들은 왕공을 붙잡고 관가에 고발하러 가자고 재촉했다.

그야말로 재앙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화가 땅에서 솟아난 격이었다. 결국 왕공은 이 난관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46회 — 병관색이 취병산을 발칵 뒤집고, 목숨 걸고 축가점을 불태우다

病關索大鬧翠屛山 拚命三火燒祝家店

이야기는 이러하다. 사건을 목격한 이웃 주민들이 왕공과 함께 계주부 관아로 달려가 고발했다. 지부가 막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말했다.

"이 노인이 죽과 떡을 지게에 짊어지고 가다가 바닥에 쏟고 말았는데, 자세히 보니 바닥에 시신 두 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승려이고 하나는 두타(頭陀, 떠돌이 고행승)인데, 둘 다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였고, 두타 옆에는 칼 한 자루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왕공이 말을 이었다.

"이 노인은 매일 죽과 떡을 팔아 생계를 잇는 사람인데, 늘 새벽 다섯 시쯤 일찍 나와서 장사를 합니다. 오늘따라 조금 일찍 나왔는데, 저 철머리 원숭이 같은 놈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발밑을 보지 않아 부딪히는 바람에 그릇이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피

가 흥건한 시신 두 구가 바닥에 누워 있더군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다 이웃 사람들에게 붙들려 관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또께서 부디 명철하게 살펴 주십시오."

지부는 즉시 공술을 받아 적고 공문을 발령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이갑(里甲, 마을 관리 조직)과 검시관을 보내 왕공과 이웃 사람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내려가 시신을 검사하게 한 뒤, 그 결과를 보고받았다. 검사를 마친 사람들이 돌아와 지부에게 보고했다.

"살해된 승려는 보은사의 승려 배여해이고, 그 옆에 있던 두타는 절 뒤편에 사는 호도입니다. 승려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였는데, 몸에 서너 군데의 찔린 상처가 있어 치명상을 입고 죽었습니다. 호도의 곁에서는 흉기인 칼 한 자루가 발견되었는데, 호도의 목에는 목을 졸린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호도가 칼을 휘둘러 승려를 찔러 죽인 뒤 죄가 두려워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부는 해당 사찰의 승려들을 잡아다 경위를 물었으나, 모두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지부로서도 결판을 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사건을 담당하던 공목(孔目, 행정 실무자)이 나아가 말했다.

"보아하니 승려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인 것을 보니, 필시 저 두타와 불공정하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다 서로 싸워 죽인 것이 분명합니다. 왕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물러가 기다리게 하시고, 시신은 보은사 주지에게 맡겨 관을 준비해 잘 거두어 다른 곳에 모셔두게 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싸워 죽였다는 문서만 작성하면 일이 끝날 것입니다."

지부가 말했다.

"그 말이 옳다."

지부는 즉시 사람들을 풀어주었고,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계주성 안에는 일 벌이기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꽤 있었는데, 그들이 이 일을 두고 한 곡조의 노래를 지었으니, 그 내용은 이러하다.

괘씸하구나, 저 파렴치한 까까머리 죄인(중)이여, 하는 짓이 어찌 이리도 방탕하고 미쳐 날뛰는가. 몰래 아리따운 여인과 약속하여 부부가 되어 영원히 한 이불(원앙 휘장)을 함께하려 했구나. 악행이 가득 차 넘치는 것을 어찌 감당하랴, 수많은 승려를 욕보이고, 골목 안 핏물 속에 시신을 가로눕혔구나. 오늘 저 발가벗은 꼴은 대체 무슨 모양인가. (혜가가) 허리까지 차는 눈 속에 서서 법을 구하고, (부처가) 벼랑에 몸을 던져 호랑이를 먹였다는, 조사(祖師)의 경전에 담긴 그 가르침은 도무지 생각조차 하지 않았구나. 목련은 어머니를 구하여 천상에 올렸다는데, 저 도둑놈 같은 까까머리 중은 계집 때문에 목숨을 잃었구나.

나중에 이 소문을 들은 글쟁이들이 붓을 들어 또 하나의 《임강선》 사(詞)를 지어 부르게 하니, 그 내용은 이러하다.

음란한 사문(沙門, 승려)이 죽음의 응보를 불러왔으니, 어둠 속에서도
(하늘의 이치는)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구나.
두타의 시신 또한 기이하게 얽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그 자리에서 도살용 칼을 맞았네.
큰 스님은 이 순간 정혈(목숨)을 잃었고, 어린 스님은 어젯밤 음탕한

풍류를 떨었구나.
빈 절(공문, 空門) 안에서 목을 베어 죽음을 함께한 벗의 의리를 보이니, 죽음을 무릅쓰고 같은 무덤에 묻히기를 다투며 남은 생, 두 목숨을 함께 버렸구나.

이 사건은 온 성안에 파다하게 퍼졌다. 그 여인 역시 너무 놀라 멍해진 나머지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속으로만 남몰래 괴로워하며 울부짖을 뿐이었다.

양웅은 계주부에서 승려와 두타가 살해되었다는 고발을 듣고, 마음속으로 이미 칠팔 할은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 일은 분명 석수가 저지른 짓이다. 내가 엊그제 잠시 그를 오해했구나. 오늘 좀 한가하니 그를 찾아가 진실을 물어봐야겠다.'

양웅이 마침 주교(州橋) 앞을 지나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형님, 어디 가십니까?" 양웅이 뒤를 돌아보니 석수였다. 양웅이 말했다. "아우야, 마침 너를 찾던 참이었다." 석수가 말했다. "형님, 일단 저희 집에 가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석수는 양웅을 데리고 객점 안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 말했다. "형님,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양웅이 말했다. "아우야, 나를 원망하지 말게. 내가 잠시 어리석어서 잘못했네. 술기운에 실언을 하는 바람에 그 여편네에게 속아 넘어갔으니, 자네를 나무랄 수도 없지. 내가 오늘 특별히 아우를 찾아와 잘못을 빌러 왔네."

석수가 말했다. “형님, 제가 비록 재주 없는 소인이긴 하나, 하늘을 이고 땅을 딛고 선 떳떳한 대장부입니다. 어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형님께서 혹여 나중에 간계에 빠지실까 염려되어, 증거를 보여드리며 형님을 깨우쳐 드리려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석수는 승려와 두 타의 옷을 가져와 모두 벗겨 놓았다.

양웅은 그것을 보고 마음속에서 불길이 치솟아 말했다. “아우야, 나를 원망하지 말게. 내가 오늘 밤 저 천한 년을 갈기갈기 찢어버려 이 울분을 풀 것이네.”

석수가 웃으며 말했다. “형님, 또 그러시는군요. 형님은 관아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어찌 법도를 모르십니까? 그 여자가 진짜 간통을 저지른 것을 잡지도 못했는데 어찌 사람을 죽입니까? 만약 제 말이 거짓이었다면, 멀쩡한 사람을 죽인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양웅이 말했다. “그럼 이 일을 어찌 끝내야 한단 말인가?”

석수가 말했다. “형님, 그저 제 말대로만 하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사내라 할 수 있습니다.”

양웅이 물었다. “아우야, 어떻게 해야 진정한 사내가 된다는 말인가?”

석수가 말했다. “이곳 동문 밖에 취병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아주 한적합니다. 형님께서는 내일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랫동안 향을 피우지 못했으니, 오늘은 형수님과 함께 가겠소’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여자를 꾀어낸 뒤에 영아를 데리고 산으로 가십시오. 제가 먼저 그곳에

서 기다리고 있다가, 정면으로 마주하여 시비를 분명하게 가려 드리지요. 그때 형님께서 이혼장 한 장을 써서 그 여자를 버리신다면, 그것이 바로 상책이 아니겠습니까?”

양웅이 말했다. “아우야, 말할 것도 없네. 자네가 결백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네. 모두 그 여편네가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

석수가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형님께 그 여자의 실제 행실을 알려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양웅이 말했다. “아우의 식견이 이토록 높으니 틀림없겠지. 내일 반드시 그 천한 년을 데리고 갈 테니, 자네는 꼭 나와야 하네.”

석수가 말했다. “제가 오지 않는다면, 제가 한 말은 모두 허망한 소리일 뿐입니다.”

양웅은 즉시 석수와 작별하고 객점을 떠나 관아로 가서 일을 보았다. 저녁이 되어 돌아온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별다른 기색도 없이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양웅이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어젯밤 꿈에 신령님이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빌었던 소원을 아직 갚지 못했다고 하시더군. 예전에 동문 밖 악묘(岳廟)에 향을 올리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아직 이루지 못했네. 오늘 마침 한가하니 그 소원을 갚으러 가야겠으니, 자네도 함께 가야 하네."

아내가 말했다. "그냥 혼자 가서 갚으시면 되지, 저까지 가실 필요가 있나요?"

양웅이 말했다. "그 소원은 처음에 혼담을 나눌 때 약속했던 것이니, 반드시 자네와 함께 가야 하네."

아내가 말했다. "정 그러시다면, 얼른 채식이라도 좀 하고 몸을 씻고 준비해서 가도록 하죠."

양웅이 말했다. "내가 향과 종이를 사고 가마를 준비할 테니, 자네는 씻고 머리도 빗고 장신구도 챙겨서 나를 기다리게. 영아도 함께 준비하라고 일러두고."

양웅은 다시 객점으로 가서 석수에게 밥을 먹고 오기로 약속하며, 형제 사이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석수가 말했다. "형님, 혹시 가마를 타고 가신다면 산 중턱에서 내리십시오. 그러고 나서 세 분이서 걸어 올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위쪽 한적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다른 사람들은 데려오지 마십시오."

양웅은 석수와 약속한 뒤 향과 종이, 초를 사서 돌아와 아침을 먹었다. 아내는 이 일을 전혀 모른 채 그저 정성껏 몸단장을 하고 있었고, 영아도 옷매무새를 갖추고 있었다. 가마꾼들은 이미 가마를 짊어진 채 문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양웅이 말했다. “장인어른, 집을 좀 봐 주십시오. 저는 아내와 함께 향을 사르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판공이 말했다. “향을 넉넉히 피우고, 얼른 다녀오게나.”

아내는 가마에 올랐고 영아가 그 뒤를 따랐으며, 양웅도 그 뒤를 따라나섰다. 동문을 나서자 양웅이 가마꾼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분부했다. “나를 취병산으로 데려다주게. 수고비는 넉넉히 더 쳐주겠네.” 두 시진이 채 되지 않아 일행은 취병산에 도착했다. 알고 보니 이 취병산은 계주 동문 밖 이십 리 지점에 있는 곳으로, 온통 사람들이 버린 무덤뿐이었다. 멀리 바라보니 푸른 풀과 하얀 버드나무만 가득할 뿐, 암자나 사찰은 보이지 않았다.

양웅은 아내를 산 중턱까지 메고 올라가 가마꾼들에게 가마를 내려놓고 쉬라고 한 뒤, 가마 휘장을 걷어 올려 아내를 나오게 했다. 아내가 물었다. “어찌하여 이런 산속까지 온 것이오?” 양웅이 말했다. “그저 일단 올라가기나 하시오. 가마꾼들은 여기서 기다릴 테니 따라오지 말라고 하고, 조금 있다가 술값이라도 더 얹어주겠소.” 가마꾼이 대답했다. “그건 걱정 마십시오. 저희는 그냥 여기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양웅은 아내와 영아, 이렇게 세 사람을 데리고 네다섯 굽이의 산비탈을 올라갔는데, 저 위에서 석수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아내가 물었다. “제사 지낼 향과 종이는 어찌 가져오지 않았소?” 양웅이 말했다. “사람을 시켜 미리 올려두었소.” 양웅이 아내를 이끌고 어느 고묘로 들어서자, 석수가 나무뿌리 앞에 보따리와 허리칼, 몽둥이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형수님, 뵙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아저씨가 어찌 여기 계세요?” 아내는 말하면서도 속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석수가 말했다. “여기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웅이 거들었다. “그대가 그저께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 아저씨가 몇 번이나 음탕한 말로 그대를 희롱하고, 손을 가슴에 대며 임신은 했느냐고 물었다고 말이야. 오늘 여기는 보는 사람이 없으니, 두 사람이 사실대로 명확히 밝히시오.”

아내가 말했다. “아니, 이미 지난 일을 두고 왜 자꾸 그러세요?” 석수가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형님 앞에서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할 일입니다.” 아내가 말했다. “아저씨,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자꾸 꺼내시는 거예요?” 석수가 말했다. “형수님, 억지로 부인하지 마십시오.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지요.”

그러고는 석수가 보따리에서 해사리와 두타의 옷을 꺼내 땅에 뿌리며 말했다. “이 옷들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아내는 그것을 보고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석수가 휙 하고 허리칼을 뽑아 들며 양웅에게 말했다. “이 일은 영아에게만 물어봐도 바로 진상을 알 수 있습니다.”

양웅은 곧장 영아를 붙잡아 앞에 무릎을 꿇리고 호통을 쳤다. “이 천한 것 같으니라고! 어서 사실대로 말해라. 어찌하여 승려의 방에서 간통을 저질렀느냐? 향 탁자를 신호로 삼기로 한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두타를 불러 목탁을 치게 했느냐? 사실대로 말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지만, 만약 한 마디라도 속인다면 너를 갈아 고기 반죽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영아가 비명을 질렀다. “나리, 저는 아무 상관 없는 일입니다! 죽이지 마세요, 다 말씀드릴게요!”

영아가 말하기를, “승려의 방에서 술을 마시고, 2층에 올라가 불치를 구경하다가, 그를 아래층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판공께서 술이 깨신 뒤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두 사람이 몰래 약속을 하더군요. 사흘째 되는 날에 두타가 보시를 하러 오기로 하고, 저더러 동전 좀 챙겨서 그에게 보시하라고 시켰습니다. 마님은 나리께서 밤새 방에서 주무실 때, 뒷문에 향 탁자를 갖다 놓는 것을 신호로 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두타가 와서 확인을 하면 스님에게 알려주기로 했지요. 그날 밤 해사리가 속인으로 변장하고 머리에 수건을 쓴 채 들어왔습니다. 새벽녘에 두타가 목탁을 치며 큰 소리로 불경을 외우는 것이 신호였는데, 저더러 뒷문을 열어 그를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오는 것을 제가 모를 리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마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마님께서 저에게 팔찌 하나와 옷 한 벌을 약속하셨기에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수십 번은 반복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한 것이지요. 그리고 저에게 장신구 몇 개를 주면서, 나리께는 석 아저씨가 말로 희롱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본 적이 없어서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이 내용만이 사실이며 결코 거짓이 없습니다.”

영아가 말을 마치자 석수가 말했다. "형님, 들으셨습니까? 이런 말은 제가 시켜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형님께서는 형수님께 자세한 내막을 직접 물어보십시오."

양웅은 그 여인을 낚아채듯 끌어당기며 호통을 쳤다. "이 천한 것 같으니라고! 계집애가 이미 다 자백했다. 네가 아무리 발뺌해 보아야 소용없으니, 어서 사실대로 말해라. 그래야 이 계집년의 목숨이라도 살려줄 것 아니냐!"

여인이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전 부부 사이였던 정을 생각해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석수가 말했다. "형님, 대충 얼버무르지 마시고 형수님께 자세한 내막을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양웅이 호통을 쳤다. "이 천한 것, 어서 말해라!"

그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승려와 몰래 정을 통했던 일을 도량에서 제사를 지내던 밤부터 시작하여, 그동안 주고받았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털어놓았다.

석수가 말했다. "그런데 왜 형님께는 내가 당신을 희롱했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까?"

여인이 대답했다. "며칠 전 형님이 술에 취해 저를 욕하셨는데, 그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혹시 숙부님(석수)께서 꼬투리를 잡으셨다가 형님께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의심했지요. 그러다 새벽녘에 다시 숙부님께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시기에, 사실은 숙부님이 전혀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을 숨기려고 말을 얼버무린 것입니다."

석수가 말했다. “오늘 이렇게 세 사람이 마주 대질하여 모든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으니, 형님께서 마음 가는 대로 처분하십시오.”

양웅이 말했다. “아우야, 네가 이 천한 여자의 머리 장식과 옷을 다 벗겨 놓아라. 내가 직접 처단하겠다.”

석수가 곧 그 여자의 머리 장식과 옷을 모두 벗겨 냈다. 양웅은 치맛자락 끈 두 가닥을 잘라내어 손수 여자를 나무에 묶었다. 석수 또한 영아의 장신구를 모두 벗겨 낸 뒤, 칼을 건네며 말했다. “형님, 이 어린 계집년은 살려두어 무엇하겠습니까? 단번에 뿌리까지 뽑아 버립시다.”

양웅이 대답했다. “옳다. 아우야, 칼을 이리 내놓아라. 내가 직접 손을 쓰겠다.”

영아는 상황이 좋지 않음을 직감하고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양웅이 칼을 높이 들어 휘두르는 바람에 몸이 두 동강 나고 말았다. 나무에 묶여 있던 그 여인이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아주버님, 좀 말려 주세요.” 그러자 석수가 말했다. “형수님, 형님께서 친히 형수님을 손봐 드릴 겁니다.”

양웅은 앞으로 나아가, 저 여자가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칼로 먼저 혀를 도려내 버렸다. 그러고는 여자를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간악한 년! 내가 잠시 오해하여 제대로 듣지 못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네년에게 속을 뻔했구나. 첫째는 나와 우리 아우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것이요, 둘째는 앞으로 네년에게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차라리 내가 오늘 먼저 손을 써서 기선을 제압하겠다. 네년의 심장과 간, 오장육부가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한번 보겠

다.” 양웅은 칼로 가슴팍부터 아랫배 아래까지 단숨에 갈라버린 뒤, 심장과 간을 비롯한 오장육부를 꺼내 소나무에 걸어 놓았다. 또한 여자의 몸을 일곱 토막으로 나누고, 머리 장식과 옷가지들은 모두 보따리에 싸 넣었다.

양웅이 말했다. “아우야, 이리 좀 와보게. 좋은 방도를 상의 좀 하자꾸나. 이제 간부와 음탕한 여편네를 모두 죽였으니, 이제 나와 자네는 어디로 가서 몸을 의탁해야 하겠는가?”

석수가 대답했다. “아우가 이미 다 생각해 두었으니 갈 곳이 있습니다. 형님께서는 어서 가시지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양웅이 물었다. “그게 어디란 말이냐?”

석수가 말했다. “형님께서 사람을 죽이셨고 저 또한 사람을 죽였으니, 양산박에 들어가 한패가 되지 않는다면 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양웅이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라. 우리가 그곳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들이 어찌 우리를 받아주겠느냐?”

석수가 웃으며 말했다. “형님, 틀렸습니다. 지금 천하 강호에는 산동의 ‘급시우’ 송강 공이 인재를 모으고 천하의 호걸들과 교류한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이를 모르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형님과 저의 무예가 이 정도인데, 받아주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은 지나친 염려입니다!”

양웅이 말했다. “모든 일은 시작이 어렵고 나중이 쉬운 법이니, 뒷탈이 없게 하려면 조심해야지. 그런데 나는 공교롭게도 관아의 공인(公人) 출신이라, 혹여 그가 의심하여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까 두렵구나.”

석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분도 압사(아전) 출신이 아니십니까? 형님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예전에 형님께서 의형제를 맺으시던 날, 주막에서 저와 함께 술을 마셨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양산박의 ‘신행태보’ 대종이고, 다른 한 명은 ‘금표자’ 양림입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은 열 냥 한 덩이를 주셨는데 아직 보따리에 그대로 있으니, 그분을 찾아가 의탁하면 됩니다.”

양웅이 말했다. “그런 길이 있다면, 가서 여비나 좀 챙겨서 바로 출발하자꾸나.”

석수가 말했다. “형님, 왜 자꾸 일을 지체시키십니까? 만약 성 안에서 일이 터져 붙잡히기라도 하면 어찌 빠져나오시겠습니까? 보따리 안에 비녀와 팔찌 같은 장신구도 꽤 들어 있고 저에게도 은자가 좀 있으며, 거기에 서너 사람이 써도 남을 만큼이니, 굳이 또 돈을 챙기러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괜히 시비가 생기면 어찌 수습하시렵니까? 일이 곧 터질 판이니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산 뒤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석수는 보따리를 등에 메고 몽둥이를 집어 들었다. 양웅은 허리에 칼을 차고 박도(朴刀)를 손에 든 채 고묘를 떠나려 하는데, 갑자기 소나무 뒤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오며 외쳤다.

"태평성대에 하늘 아래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사람을 죽여놓고는 양산박에 들어가 일원이 되겠다고 하다니. 그 소문은 익히 들어왔다네."

양웅과 석수가 살펴보니, 그 사람은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올렸다. 양웅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성은 시(時)요 이름은 천(遷)으로, 고당주 출신인데 이곳까지 흘러 들어와 담을 넘고 울타리를 뛰어넘으며 말을 훔치는 좀도둑질을 하며 살고 있었다. 예전에 계주부에서 관아의 심문을 받을 뻔했을 때 양웅이 그를 구해준 적이 있어, 사람들은 그를 '고상조'라고 불렀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뼈는 부드러우나 몸집은 건장하고,
눈썹은 짙고 눈매는 맑고 선명하네.
생김새는 마치 기이한 부족 같고,
걷는 모습은 날아다니는 신선 같구나.
밤이 고요하면 담장을 넘어 다니고,
깊은 밤에는 집 주위를 맴돌아 다니네.
진영을 몰래 드나드는 고수 중의 고수,
그 이름은 고상조(鼓上蚤) 시천이라네.

그때 양웅이 시천에게 물었다. "자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 것인가?"

시천이 대답했다. "절급(節級) 형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인이 요사이 딱히 갈 곳이 없어, 이 산속에서 고분이나 파헤쳐서 물건이나 좀 찾아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다 형님께서 일을 저지르시는 것을 보

고는 감히 나서서 방해하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산박에 들어가 일원이 되려 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인은 지금 여기서 닭이나 훔치고 개나 훔치는 좀도둑질이나 하며 살고 있는데, 이런 짓을 한들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두 분 형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혹시 저를 데려가 주실 수 있으신지요?"

석수가 말했다. "자네도 호걸 축에 드는 인물이니, 그곳에서 지금 장사들을 모집하고 있다는데 자네 한 사람쯤 더 받는 것이 무슨 문제겠나. 그 말이 맞다면 우리 함께 가세."

시천이 말했다. "소인이 지름길을 알고 있습니다."

말을 마친 시천은 곧바로 양웅과 석수를 안내하였고, 세 사람은 샛길을 택해 뒷산을 내려가 양산박으로 향했다.

한편, 두 명의 가마꾼은 산 중턱에서 해가 서쪽으로 기울 때까지 세 사람이 내려오기를 기다렸으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명령만 내려둔 채 감히 산 위로 올라가지 못했다. 도저히 참지 못하고 슬금슬금 산 위로 올라가 보니, 까마귀 떼가 떼를 지어 고묘 위에서 시끄럽게 울어대고 있었다. 두 가마꾼이 올라가 살펴보니, 알고 보니 까마귀들이 시신의 내장을 파먹으며 울어대고 있는 것이었다. 가마꾼들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황급히 집으로 돌아가 판공에게 알렸고, 함께 계주부로 가서 고발했다.

지부는 즉시 현위(縣尉)를 파견하여 검시관(仵作行人, 오작인)을 데리고 취병산으로 보내 시신을 검사하게 했다. 검사를 마친 현위가 지부에게 돌아와 보고했다.

"검사해 보니 여인 한 명인 판교운이 소나무 옆에서 살해되었고, 몸종 영아는 고묘 아래에서 살해되었습니다. 무덤가에는 여인의 옷가지와 승려, 그리고 두타(頭陀)의 옷가지가 한 더미 놓여 있었습니다."

지부는 이 보고를 듣고 며칠 전 해화상과 두타의 사건을 떠올리며 판공에게 자세한 내막을 물었다. 판공은 그 승려와 술을 마시고 취했던 일과 석수가 떠난 경위를 하나하나 상세히 털어놓았다. 지부가 말했다.

"보아하니 이 여인이 승려와 간통하였고, 그 몸종이 그 일을 도왔던 모양이군. 석수라는 놈은 길을 가다 불의를 보고 두타와 승려를 죽인 것이고, 양웅이라는 놈은 오늘 여인과 몸종을 죽인 것이 틀림없다. 양웅과 석수를 잡아 오면 곧 모든 전말을 알게 될 것이다."

지부는 즉시 공문을 작성하고 포상금을 내걸어 양웅과 석수를 체포하게 했다. 나머지 가마꾼 등은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 분부를 기다리게 했다. 판공은 스스로 관을 사서 시신을 장사 지내니,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한편 양웅, 석수, 시천은 계주 땅을 벗어나 밤에는 길가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길을 떠나기를 반복하며 나아갔다. 그렇게 며칠을 걸어 운주(鄆州) 땅에 이르렀다. 향림와를 지나는데 멀리 높은 산이 보였고, 어느덧 하늘이 서서히 어둑해졌다. 앞쪽에 시냇가에 자리 잡은 객점 하나가 보이기에 세 사람이 문 앞까지 다가가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다.

앞으로는 관도로 이어져 있고, 뒤로는 큰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문 앞에는 수백 그루의 수양버들이 늘어서 있었고, 집 곁에는 매화나무

한두 그루가 서 있었다. 가시덤불과 울타리가 둘러쳐진 초가집 주위로 갈대 발이 창과 문을 가리고 있었으며, 그 안에는 흙으로 만든 구들장이 놓여 있었다. 오른쪽 벽면에는 "뜰은 그윽하여 저녁이면 오호의 손님을 맞이하고"라고 적혀 있었고, 왼쪽 아래에는 "집 앞마당은 아침이면 삼도의 손님을 맞이하네"라는 일곱 글자가 쓰여 있었다.

비록 거친 들판의 외딴 객점에 자리 잡았으나, 화려한 수레와 말들이 끊임없이 드나들고 있었다.

그날 해 질 녘 무렵, 점소이가 막 문을 닫으려는데 이 세 사람이 급히 안으로 들어왔다. 점소이가 물었다. "손님들, 먼 길을 오시느라 늦으셨군요." 시천이 대답했다. "오늘 백 리 넘는 길을 걸어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점소이는 세 사람을 안으로 들여 쉬게 하며 물었다. "손님들, 불은 피워 드릴까요?" 시천이 말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점소이가 다시 말했다. "오늘은 묵으시는 손님이 더 없어 아궁이에 깨끗한 솥 두 개가 남아 있으니, 손님들께서 편히 쓰십시오." 시천이 물었다. "이 집에 파는 술과 고기가 있소?" 점소이가 대답했다. "오늘 아침 일찍 고기가 좀 있었는데, 근처 마을 사람들이 다 사 갔습니다. 여기 술 한 항아리만 남아 있을 뿐, 밥과 곁들일 건 없습니다." 시천이 말했다. "그럼 됐소. 우선 쌀 다섯 되만 빌려주시오. 밥을 지어 먹어야겠으니." 점소이가 쌀을 꺼내 주자, 시천은 쌀을 씻어 밥 한 솥을 안쳤다.

석수는 방 안에서 제 짐을 정리했다. 양웅은 비녀 하나를 꺼내 점소이에게 건네며 말했다. "먼저 이 술 항아리를 가져와서 먹게 해주게. 계산은 내일 한꺼번에 하겠네." 점소이는 비녀를 챙기고 안으로 들어가 술 항아리를 가져와 따고는, 익힌 채소 한 접시를 탁자 위에 놓았다.

시천은 먼저 물 한 양동이를 떠 오더니 양웅과 석수에게 손발을 씻게 했다. 그러고는 술을 따르며 점소이에게도 같이 앉아 술을 마시자고 청했다. 큰 사발 네 개를 내려놓고 술을 가득 따라 마시기 시작했다.

석수는 가게 처마 밑에 박도(朴刀) 십여 자루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점소이에게 물었다. "댁의 가게에 어찌 이런 무기들이 있소?" 점소이가 대답했다. "모두 주인어른께서 이곳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석수가 다시 물었다. "댁의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 점소이가 말했다. "손님, 강호를 떠도는 분이시면서 어찌 이곳의 이름을 모르십니까? 저 앞에 보이는 높은 산이 바로 독룡산입니다. 산 앞에 우뚝 솟은 언덕이 있는데 그곳을 독룡강이라 부르며, 그 위에 주인어른의 저택이 있습니다. 이 주변 서른 리 땅을 축가장이라 부릅니다. 장주이신 축조봉(祝朝奉) 태공께는 세 아들이 있는데, 그들을 축씨 삼걸이라 부릅니다. 장의 앞뒤로 대여섯 백 가구 정도가 모두 소작농인데, 집집마다 박도를 두 자루씩 나누어 줍니다. 이곳은 축가점이라 부르는데, 평소 수십 명의 가솔이 이곳에 와서 묵기 때문에 박도를 이곳에 나누어 두는 것입니다."

석수가 물었다. "무기를 가게에 두어 무엇에 쓰려는 거요?" 점소이가 대답했다. "이곳이 양산박에서 멀지 않아, 혹시 그곳 도적들이 식량을 빌리러 올까 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석수가 말했다. "은자 좀 줄 테니, 나에게 박도 한 자루만 빌려주는 건 어떻소?" 점소이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그건 안 됩니다. 무기마다 다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주인어른께 매를 맞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인어른은 법도가 엄격하신 분입니다." 석수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농담을 한 것인데 그리 당황하다니. 그저 술이나 마십시다." 점소이가 말했다. "저

는 이만 물러가 쉬겠습니다. 손님들께서는 편히 술을 드십시오." 점소이는 그렇게 말하고 물러갔다.

양웅과 석수는 술을 한 차례 더 마셨다. 그때 시천이 말했다. "형님, 고기가 좀 드시고 싶습니까?" 양웅이 물었다. "점소이가 고기는 다 팔렸다고 했는데, 네가 어디서 구했느냐?" 시천은 히히거리며 웃더니, 아궁이 쪽으로 가서 커다란 수탉 한 마리를 꺼내 왔다. 양웅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 닭은 어디서 난 것이냐?" 시천이 대답했다. "아우가 방금 뒤편에 가서 손을 씻으러 갔다가, 닭장에 이 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님들 술안주로 드실 게 마땅치 않은 것 같아, 제가 몰래 가져가시냇가에서 잡았습니다. 물 양동이를 들고 뒤로 가서 깨끗이 손질해 삶아 왔으니, 두 분 형님께서 드십시오." 양웅이 말했다. "이놈, 여전히 도둑놈 같은 솜씨로구나." 석수가 웃으며 거들었다. "여전히 본업을 못 버렸군." 세 사람은 한바탕 웃으며 닭을 손으로 찢어 먹고 밥을 떠다 함께 먹었다.

한편, 점소이는 잠시 눈을 붙였다가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자꾸 일어나 앞뒤를 살피며 가게를 돌보았다. 그러다 탁자 위에 닭털과 뼈가 좀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아궁이 쪽을 확인하러 갔는데, 솥에는 기름진 국물만 반쯤 남아 있었다. 점소이가 당황하여 뒤편 닭장으로 달려가 보았으나 닭은 간데없었다. 그는 급히 달려 나와 물었다. "손님들, 정말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찌 우리 가게의 새벽을 알리는 귀한 닭을 훔쳐 드신단 말입니까?" 시천이 대꾸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군! 이보시오, 나는 길에서 이 닭을 사 온 것이지, 당신네 닭을 본 적도 없소!" 점소이가 따져 물었다. "우리 가게 닭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시천이 말했다. "들고양이가 물어갔는지, 누런 족제비가 잡아먹었는지, 매가 낚아채 갔는지 내가 어찌 알겠소!" 점소이가 외쳤다. "내 닭이 방금 전까지 닭장에 있었는데, 당신들이 훔친 게 아니면 누구란 말이오?" 석수가 나서서 말했다. "다투지 말고, 얼마면 되겠소? 값을 치를 테니 그만두시오." 점소이가 말했다. "이건 새벽을 알리는 특별한 닭이라 가게에 없어서는 안 될 놈입니다. 은자 열 냥을 준다 해도 소용없으니, 당장 닭을 돌려주시오!" 석수가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누구를 속이려 드느냐? 우리가 값을 안 주면 어쩔 셈이냐?" 점소이가 웃으며 말했다. "손님들, 여기서 괜히 화를 자초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게는 다른 객점과 달라서, 당신들을 장주로 끌고 가면 양산박 도적 놈들이라고 고발해 버릴 겁니다."

석수가 그 말을 듣고 욕설을 퍼부었다. "양산박 호걸이라 해도, 네놈이 감히 나를 잡아다가 상을 받겠단 말이냐!" 양웅 역시 분노하며 말했다. "좋은 마음으로 돈을 주겠다는데, 안 준다고 나를 잡아갈 셈이냐!" 점소이가 비명을 질렀다. "도둑놈이다!" 그러자 가게 안에서 벌거벗은 장정 서너 명이 튀어나와 곧장 양웅과 석수에게 달려들었다. 석수가 손을 들어 주먹을 휘두르니, 장정들이 하나같이 맥없이 쓰러졌다. 점소이가 다시 소리를 지르려 하자, 시천이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후려쳐 퉁퉁 붓게 만들어 소리도 못 내게 만들었다. 장정들은 모두 뒷문으로 도망쳐 버렸다. 양웅이 말했다. "아우야, 저놈들이 분명 사람을 부르러 갔을 테니, 어서 밥을 먹고 떠나자." 세 사람은 얼른 배를 채운 뒤, 짐을 챙겨 허리에 차고 짚신을 신었다. 또한 허리칼을 차고는 무기 거치대에서 각자 좋은 박도를 한 자루씩 골랐다. 석수가 말했다. "이래도 저래도 어차피 매한가지이니, 저놈들을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되오."

그러고는 아궁이 앞에 가서 마른 풀을 가져다 불을 지핀 뒤, 안쪽을 향해 사방으로 불을 붙였다. 풀집에 바람이 불자 불길이 순식간에 사방으로 번지며 하늘 높이 치솟았다. 세 사람은 발걸음을 재촉해 큰길을 향해 달아났다.

정녕말로,

도둑놈이 닭 한 마리 훔친 일 때문에,
뛰어난 호걸들이 앞다투어 쫓고 쫓기게 되었네.
양산박 물가에는 거센 파도가 일고,
축씨네 산장은 진흙더미가 되었구나.

세 사람은 두 경차(更次) 동안 달아났으나, 앞뒤로 셀 수 없이 많은 횃불이 보였다. 대략 백에서 이백 명은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며 쫓아오고 있었다. 석수가 말했다. "당황하지 마시오. 일단 샛길로 피합시다." 양웅이 말했다. "잠깐 기다려라. 한 놈이 오면 한 놈을 죽이고, 두 놈이 오면 둘 다 죽여버리자. 날이 밝으면 그때 움직이겠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포위해 왔다. 양웅이 앞장서고 석수가 뒤를 맡으며 시천이 가운데 서서, 세 사람은 박도를 치켜들고 축가장 가솔들에 맞서 싸웠다.

그 무리는 처음에는 상황을 잘 모르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양웅이 박도를 휘둘러 먼저 대여섯 명을 찔러 쓰러뜨렸다. 앞쪽 사람들이 도망치려 하자 뒤쪽 사람들이 급히 물러나려 했는데, 석수가 그 사이로 파고들어 또 예닐곱 명을 찔러 쓰러뜨렸다. 사방의 가솔들은 십

여 명이나 죽거나 다쳤다는 소리를 듣고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음을 깨닫고 모두 물러났다. 세 사람은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한 걸음씩 전진하며 맞섰다.

한창 싸우고 있는데 다시 고함이 터져 나왔다. 마른 풀숲 사이에서 갈고리 두 개가 쑥 튀어나오더니, 시천을 낚아채 풀숲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석수가 급히 몸을 돌려 시천을 구하려는데, 이번에는 등 뒤에서 또 갈고리 두 개가 튀어나왔다. 다행히 양웅의 눈이 빨랐기에 박도를 휘둘러 갈고리 두 개를 쳐내고는, 박도를 풀숲 안으로 깊숙이 찔러 넣으며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적들은 모두 달아났다. 갈고리로 시천을 잡은 자들은 적진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는지, 시천을 돌볼 겨를도 없이 사방으로 길을 찾아 도망쳐 버렸다. 멀리서 횃불이 어지럽게 번뜩였고, 샛길에는 숲이나 나무가 없어 길이 보이는 대로 달린 세 사람은 줄곧 동쪽을 향해 나아갔다. 축가장 가솔들은 사방에서 그들을 잡지 못하자, 부상자들을 데리고 스스로 물러났다. 그리고 시천을 꽁꽁 묶어 축가장으로 압송해 갔다.

한편, 양웅과 석수는 날이 밝을 때까지 길을 재촉하다가 어느 마을의 객점을 발견했다. 석수가 말했다. "형님, 저 앞 주막에서 술과 밥을 좀 사 먹으며 길을 물어봅시다." 두 사람은 곧장 마을 주막으로 들어가 박도를 벽에 기대어 세워두고 마주 앉았다. 그러고는 점원을 불러 술을 가져오라 하고 밥을 차려 달라고 했다. 점원은 채소와 안주를 차려 내오며 술을 데워 따랐다.

막 음식을 먹으려는데, 밖에서 덩치가 큰 사내 하나가 급히 뛰어 들어왔다. 그는 얼굴이 넓고 턱이 각졌으며, 눈은 뚜렷하고 귀는 커서 생

김새가 못생기고 체격이 거칠었다. 갈색 비단 저고리를 입고 만(萬)자 무늬 두건을 썼으며, 흰 비단 전대를 어깨에 둘러 매고 아래에는 기름칠한 가죽 장화를 신고 있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대관인(大官人)께서 너희에게 짐을 메고 장원으로 와서 바치라 하셨다!" 주막 주인은 서둘러 대답했다. "짐을 다 챙겼으니 곧 장원으로 보내겠습니다." 사내가 지시를 내리고 몸을 돌리려다 다시 말했다. "어서 빨리 메고 오너라!" 그러고는 문을 나서며 마침 양웅과 석수의 앞을 지나갔다.

양웅은 그를 알아보고는 소리쳤다. "이보게 젊은이, 자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가? 나를 좀 보지도 않는가?" 사내가 고개를 돌려 살펴보더니, 그 역시 양웅을 알아보았다. 그는 반갑게 외쳤다. "은인께서 어찌 이곳에 오셨습니까!" 사내는 양웅을 향해 절을 올렸다.

양웅이 이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으니, 바로 이 일이 다음을 불러오게 되었다. 세 장원의 맹세가 헛되이 어그러지고, 뭇 호랑이가 포효하여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더라.

결국 양웅과 석수가 만난 그 사람은 누구일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47회 — 박천조 두 사람이 생사의 결투를 벌이고, 송공명이 축가장을 한 차례 치다

撲天鵰兩修生死書 宋公明一打祝家莊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시 양웅이 그 사람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며 석수에게 소개했다. 석수가 물었다.

"이 형님은 누구십니까?"

양웅이 대답했다.

"이 아우는 성은 두요, 이름은 흥이라네. 중산부 출신이지. 얼굴 생김새가 거칠고 험악하게 생긴 탓에 사람들이 다들 '귀검아'라고 부른다네. 작년에 장사를 하러 계주에 왔다가, 순간 욱하는 마음에 동료 손님을 때려죽이는 바람에 관가에 끌려가 계주부 옥에 갇혔었지. 내가 그 친구가 권법과 무술에 능한 것을 보고 힘을 다해 구해준 적이 있는데, 뜻밖에도 오늘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구먼."

두흥이 물었다.

"은인께서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양웅이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가 계주에서 사람을 죽여서 양산박으로 들어가 입단하려 하네. 어젯밤 축가점에 묵었는데, 같이 온 동료인 시천이 그곳의 새벽닭을 훔쳐 먹다가 점소이와 싸움이 붙었지 뭐야. 순간 욱하는 마음에 그 가게에 불을 질러 다 태워 먹는 바람에, 우리 셋은 밤을 도와 도망쳐 나왔네. 그런데 뒤에서 쫓아올 줄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지. 우리 형제가 뒤쫓던 놈들 몇 명을 쓰러뜨렸는데, 뜻밖에도 잡풀 사이에서 갈고리 두 개가 쑥 튀어나오더니 시천을 낚아채 가버리더군. 그래서 우리 둘이 정신없이 헤매다 길을 묻던 중에 이렇게 아우를 만난 것이라네."

두흥이 말했다.

"은인,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제가 시천을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웅이 말했다.

"아우, 잠시 앉게나. 같이 술이라도 한잔하세."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아 곧바로 술을 마셨다. 두흥이 말했다.

"제가 계주를 떠난 뒤로 은인께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이곳에 와서 어떤 큰 어른의 눈에 들어, 그분께서 저를 집안의 주관으로 거두

어 주셨습니다. 매일같이 수만 가지의 일을 저에게 맡기시며 저를 아주 신임하시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양웅이 물었다.

"이곳의 큰 어른이 대체 누구인가?"

두흥이 말했다.

"여기 독룡강 앞에는 세 개의 언덕이 있는데, 그 아래로 세 마을이 줄지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축가장, 서쪽은 호가장, 동쪽은 이가장입니다. 이 세 마을의 군사와 가솔을 다 합치면 일만에서 이만 명은 족히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축가장이 가장 세력이 당당한데, 그곳의 주인은 축조봉이라 불리는 축 어른입니다. 그에게는 축씨 삼형제라 불리는 세 아들이 있으니, 장남은 축룡, 차남은 축호, 삼남은 축표입니다. 또한 '철봉'이라 불리는 교관 란정옥이라는 자가 있는데, 만 명의 장수가 덤벼도 당해내지 못할 용맹을 지녔습니다. 마을에는 이미 일천에서 이천 명에 달하는 실력 있는 장객들이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호가장은 주인인 호 태공에게 '비천호'라 불리는 아들 호성이 있는데, 그 역시 매우 대단한 인물입니다. 다만 그곳의 딸인 '일장청' 호삼랑이 가장 영웅적인데, 해와 달 모양의 쌍도를 휘두르며 말을 타는 솜씨가 아주 일품입니다. 이곳 동쪽 마을은 바로 제 주인이 계신 곳으로, 성은 이요 이름은 응이라 합니다. 그는 무거운 철창을 능숙하게 다루며, 등에 다섯 자루의 비도를 숨기고 있어 백 걸음 밖에서도 귀신같이 사람을 꿰뚫습니다. 이 세 마을은 생사를 같이하기로 맹세하여 마음을 합치고 있으니, 길흉화복이 생기면 서로 돕고 구합니다. 다만 양산박의 호걸들이 식량

을 빌리러 올까 봐 늘 경계하며 적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을 모시고 장원으로 가서 이응 어른을 뵙고, 시천을 구해 달라는 서신을 부탁드리려는 것입니다."

양웅이 다시 물었다.

"자네가 말하는 그 이응 어른이, 혹시 강호에서 '박천조'라 불리는 이응인가?"

두흥이 대답했다.

"그분이 맞습니다."

석수가 말했다.

"강호에서 독룡강에 '박천조' 이응이라는 호걸이 있다는 말만 들었지, 바로 이곳에 있을 줄이야. 그가 정말 대단한 사내라는 소문은 익히 들었으니, 우리도 한번 가보세."

양웅이 점소이를 불러 술값을 계산했다. 그러나 두흥은 양웅이 돈을 내게 두지 않고 직접 술값을 치렀다.

세 사람은 객점을 떠나 양웅과 석수를 데리고 이가장으로 향했다. 양웅이 살펴보니 과연 장원이 매우 웅장했다. 장원 밖으로는 넓은 해자가 한 바퀴를 두르고 있었고, 하얀 담장이 해자 언덕을 따라 이어져 있었으며, 그 곁에는 성인이 두 팔을 벌려도 다 안지 못할 만큼 커다란 버드나무 수백 그루가 늘어서 있었다. 장원 문 앞에는 도개교(들어 올리는 다리) 하나가 놓여 장원 정문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문을

지나 대청 앞에 이르니, 양옆으로 스무 개가 넘는 창 걸이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번뜩이는 무기들이 가득 꽂혀 있었다.

두흥이 말했다.

“두 형님께서는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안으로 들어가 이 어른께 말씀을 드리고, 대관님께서 나와서 뵙도록 청하겠습니다.”

두흥이 안으로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응이 안에서 걸어 나왔다. 양웅과 석수가 살펴보니 과연 풍채가 훌륭한 인물이었다. 그 모습을 두고 《임강선》 사로 이르되,

(임강선)

[이하 시 내용 생략]

매서운 매의 눈에 호랑이 같은 얼굴을 가졌고, 제비 같은 턱에 원숭이 같은 팔, 이리의 허리를 가졌으니, 재물을 아끼지 않고 의리를 지켜 영웅호걸들과 사귀는구나. 눈처럼 하얀 말을 타는 것을 즐기고, 선명한 붉은 도포를 입는 것을 좋아하도다.

등에는 다섯 자루의 비도를 숨겼고, 점강창에는 은빛 장식이 비스듬히 박혀 있으니, 성품이 강직하여 그 누구도 감히 조금이라도 범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응은 참으로 용맹한 장수로, 그 별호가 '박천조'라 하였다.

이때 이응이 대청 앞으로 나오자, 두흥이 양웅과 석수를 데리고 올라가 인사를 올렸다. 이응은 서둘러 예를 갖춰 답례하며 어서 올라와 앉으라고 권했다. 양웅과 석수는 몇 번이고 사양한 끝에야 자리에 앉았다. 이응은 곧바로 술을 가져오게 하여 손님을 대접했다. 양웅과 석수는 다시 절을 올리며 말했다.

"부디 대관인께서 축가장에 서신을 보내 시천의 목숨을 구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는 생사가 갈릴지언정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응은 문관 선생을 불러 의논하게 한 뒤, 서신을 한 통 써서 이름을 적고 인장을 찍었다. 그러고는 부주관 한 명에게 빠른 말 한 필을 준비시켜, 밤낮없이 축가장으로 달려가 이 일을 전하도록 명했다.

부주관은 서신을 받아 들고 말을 타고 떠났고, 양웅과 석수는 절을 하며 감사를 표했다. 이응이 말했다.

"두 장사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제 서신이 도착하면 분명 시천을 풀어줄 것입니다."

양웅과 석수가 다시 한번 인사를 올리자 이응이 덧붙였다.

"우선 뒷방으로 가서 술을 세 잔 정도 나누며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자 이응은 아침 식사를 대접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던 중, 이응이 창술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았다. 양웅

과 석수의 대답이 조리 있고 이치에 맞자, 이응은 마음속으로 무척 기뻐했다.

사패시(巳牌時, 오전 9시~11시 사이)쯤 되자 부주관이 돌아왔다. 이응이 그를 뒷방으로 불러 물었다.

"데리러 갔던 그 사람은 어디 있느냐?"

부주관이 대답했다.

"제가 직접 축가장의 어른을 뵙고 서신을 올렸더니, 처음에는 풀어줄 마음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축씨 삼형제가 나타나더니 오히려 성질을 내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신도 돌려주지 않고 사람도 풀어주지 않은 채, 반드시 주(州) 관아로 압송하겠다고 합니다."

이응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들은 우리 세 마을과 생사를 같이하기로 맹세한 사이인데, 서신이 도착하면 당연히 허락해 줄 터였다. 어찌 갑자기 저리 태도가 변한단 말이냐? 필시 네가 말을 잘못 전해서 그렇게 된 것이 분명하다. 두 주관, 네가 직접 한 번 더 다녀오너라. 축 어른을 직접 뵙고 사정을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겠다."

두흥이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다만 대관인께서 직접 쓰신 서신을 가져가야 그쪽에서도 기꺼이 풀어줄 것입니다."

이응이 말했다.

“옳은 말이다.”

이응은 급히 꽃무늬가 그려진 화전지를 가져와 직접 서신을 썼다. 봉투 겉면에는 이름 대신 인장을 찍어 두흥에게 건네주었다. 그러고는 뒷마당에서 빠른 말 한 필을 끌어와 안장과 고삐를 채우고 채찍을 챙겨 들고는, 장원 문을 나서 말을 채찍질하며 축가장으로 달려갔다. 이응이 남은 이들에게 말했다.

“두 분은 안심하십시오. 제 친필 서신이 가면 머지않아 분명 풀어줄 것입니다.”

양웅과 석수는 깊이 감사 인사를 올리고는 뒷방에 남아 술을 마시며 기다렸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도 두흥이 돌아오지 않자, 이응은 마음속으로 의구심이 생겼다. 다시 사람을 보내 맞이하게 하니, 장원의 하인이 달려와 보고했다.

"두 주관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이응이 물었다.

"몇 명이 함께 돌아왔느냐?"

하인이 대답했다.

"주관님 혼자서 말을 타고 돌아오셨습니다."

이응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것 참 또 괴이하구나. 평소 이 녀석은 이렇게 일을 질질 끌며 꾸물대지 않았는데, 오늘 어찌 이리 되었단 말이냐……."

양웅과 석수가 앞뜰로 따라 나와 살펴보니, 두흥이 막 말에서 내려 장원 문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화가 치밀어 올라 보랏빛으로 상기되어 있었고, 이를 갈고 입을 벌린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시 생략)

태어날 때부터 생김새가 남다르고,
화가 나면 그 괴이함이 더욱 견디기 어렵구나.
사람의 형상이라기엔 무척이나 기이하니,
마치 저승의 얼굴 태운 왕과도 같도다.

이응이 앞뜰로 급히 나와 물었다.

"자세한 사정을 말해 보아라. 어찌 된 일이냐?"

두흥은 겨우 화를 가라앉히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대관인께서 주신 서신을 가지고 그곳의 세 번째 문 앞에 이르렀는데, 마침 축룡, 축호, 축표 삼 형제가 그곳에 앉아 있더군요. 제가 세 번 읍하며 예를 갖추자, 축표 그놈이 소리를 버럭 지르며 말했습니다. '네놈이 또 무엇 때문에 왔느냐!' 그래서 제가 몸을 굽히며 '대관인께서 보

내신 서신이 여기 있으니 올립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축표 그놈이 안색을 싹 바꾸더니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네 주인놈은 참으로 사리에 어둡구나! 아까 낮에는 막돼먹은 놈 하나를 보내 서신을 올리게 하더니 양산박의 도적 시천을 내놓으라 하지 않았느냐. 지금 막 그놈을 관아로 압송하려던 참인데 또 무슨 짓이냐!'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 시천이라는 자는 양산박의 일원이 아니라 계주에서 온 손님입니다. 이번에 저희 대관인 댁에 머물다 실수로 점포에 불을 냈는데, 내일 대관인께서 반드시 원래대로 다시 지어 놓을 것이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축씨 삼 형제가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제가 다시 '대관인께서 직접 쓰신 서신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서신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축표 그놈은 서신을 받아 들고도 펼쳐 읽어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리더니, 저를 당장 장원 밖으로 끌어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축표와 축호가 말하기를, '이 어르신의 성미를 건드리지 마라! 네 주인이응을 잡아 오면 그놈도 양산박의 강도놈으로 몰아 압송해 버리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본디 차마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실로 그 세 짐승 같은 놈들이 무례하기 짝이 없어 대관인을 온갖 더러운 말로 욕했고, 이내 장원 하인들을 불러 저를 잡으라 하기에 급히 말을 달려 도망쳐 나왔습니다. 길 위에서 화가 치밀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괘씸하게도 그놈들은 여러 해 동안 대관인과 생사를 같이하기로 한 사귐을 헛되이 저버리고, 오늘 보니 인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옻처럼 붙고 아교처럼 끈끈한 사이라는 말만 들었지,
이해(利害)가 걸린 마당에서는 모질게 곧바로 내팽개치는구나.
평소에 참된 의리가 없다면,
막상 위급할 때 죽고 사는 사이를 논하지 마라.

이응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마음속에서 무명업화(無明業火)가 삼천 길 높이로 치솟아 도저히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장원 하인들을 불러 크게 외쳤다.

"어서 내 말을 준비해라!"

양웅과 석수가 간곡히 만류했다.

"대관인,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저희 때문에 귀한 의리를 망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응이 어찌 그 말을 듣겠는가. 그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황금 사슬 갑옷을 걸치고, 앞뒤로 짐승 얼굴 모양의 가슴 가리개를 덧댔다. 그 위에 대홍포를 입고 허리춤에는 비도(飛刀) 다섯 자루를 꽂은 뒤, 점강창을 손에 들고 봉황 날개 모양의 투구까지 갖춰 썼다. 그리고 장원 앞으로 나가 용맹한 장원 하인 삼백 명을 소집했다. 두흥 역시 갑옷을 입고 창을 든 채 말을 타고 올라 이십여 명의 기마병을 이끌었다. 양웅과 석수 또한 무장을 갖추고 박도를 든 채 이응의 뒤를 따라 곧장 축가장으로 달려갔다.

날이 점점 저물어 해가 산에 걸릴 무렵, 일행은 어느새 독룡강 앞에 도착하여 인마를 늘어놓았다. 원래 축가장은 다시 튼튼하게 지어 놓은

터라, 독룡산 언덕을 차지하고 사방이 온통 넓은 물길(해자)로 둘러싸인 형세였다. 장원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는데, 삼층 성벽이 모두 단단한 돌로 쌓여 높이가 약 이 장(丈)에 달했다. 앞뒤로 두 개의 장문이 있고, 두 개의 조교(弔橋)가 놓여 있었다. 성벽 안 사방에는 병사들이 머무는 초소가 세워져 있었고, 곳곳에는 창과 칼 등 무기들이 꽂혀 있었으며, 문루 위에는 전고와 징이 늘어서 있었다.

이응이 말을 타고 장원 앞에서 크게 외쳤다.

"축가장의 세 아들놈들아, 어찌 감히 우리 대관인을 모욕하느냐!"

그러자 장문이 열리더니 오륙십 명의 기병이 쏟아져 나왔다. 그 선두에는 마치 숯불처럼 새빨간 말 위에 한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바로 축조봉의 셋째 아들 축표였다. 그의 차림새는 이러하였다.

머리에는 금실로 수놓은 연꽃잎 투구를 쓰고,
몸에는 사슬로 엮은 매화 갑옷을 입었네.
허리에는 비단 주머니와 활과 화살을 차고,
손에는 순철로 만든 칼과 창을 들었구나.
말 머리 아래 드리워진 붉은 술은 땅을 비추고,
사람의 얼굴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살기가 서렸네.

이응은 축표를 보자마자 손가락질하며 크게 꾸짖었다.

"이놈아! 입가에는 아직 젖비린내가 가시지 않았고 머리에는 태아의 머리카락이 그대로 남아 있는 놈이 어디서 감히! 네 아버지는 나와 생

사를 같이하기로 맹세하고, 마음과 뜻을 모아 마을과 동네를 지키기로 한 의형제다. 네 집에 무슨 일이 생겨 사람을 부를 일이 있으면 일찍 와서 일찍 보내주면 되고, 물건을 가져갈 일이 있으면 정성껏 바치면 될 것 아니냐! 나는 지금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서 두 번이나 서신을 보내 청탁을 했는데, 네가 어찌 감히 내 서신을 찢어버리고 내 이름을 욕보인단 말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법도냐!"

축표가 대꾸했다.

"우리 집안이 비록 당신과 생사를 같이하기로 맹세하고, 뜻을 모아 양산박의 반역자들을 잡아 산채를 소탕하기로 했다지만, 당신은 어찌하여 반역자들과 결탁하여 모반을 꾀하고 있는 것이오?"

이응이 호통을 쳤다.

"네놈이 그놈을 양산박의 반역자라 하느냐? 그렇다면 죄 없는 사람을 도둑놈으로 몰아세우는 네놈은 무슨 죄를 지은 것이냐!"

축표가 말했다.

"도둑놈 시천은 이미 제 발로 죄를 자백했으니, 여기서 헛소리로 꾸며내려 해도 소용없다! 당장 물러가라. 만약 물러가지 않는다면 당신까지 죄인으로 묶어 도둑놈이라 부르며 압송해 버릴 것이다!"

이응은 크게 분노하여 타고 있던 말을 박차고, 손에 든 창을 치켜들며 축표를 향해 돌진했다. 축표 역시 말을 몰아 이응과 맞서 싸웠다. 두 사람은 독룡강 앞에서 오락가락 위아래로 오르내리며 열일고여덟 합

을 겨루었으나, 축표는 이응을 당해내지 못하자 말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응이 말을 달려 뒤쫓자, 축표는 말 위에서 창을 안장에 가로로 걸쳐 놓고 왼손으로는 활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화살을 집어 들었다. 그는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활을 가득 당기더니, 거리가 가까워지자 몸을 뒤로 틀며 화살 한 대를 쏘았다. 이응이 급히 몸을 피하려 했으나, 화살은 이미 그의 팔에 명중했다. 이응이 곤두박질치며 말에서 떨어지자, 축표는 즉시 말을 돌려 그를 사로잡으려 했다.

이를 본 양웅과 석수가 크게 호통을 치며, 두 자루 박도를 쥐고 축표의 말 앞으로 돌진하며 달려들었다. 축표는 버티지 못하고 급히 말을 돌려 달아나려 했으나, 양웅의 박도가 축표의 말 뒷다리를 찔러버렸다. 고통을 느낀 말이 갑자기 앞발을 치켜들며 곧추 일어서는 바람에 축표는 하마터면 말 아래로 떨어질 뻔했다. 그사이 축가장의 부하들이 말 위에서 일제히 화살을 쏘아댔다. 양웅과 석수는 갑옷도 없이 몸을 가릴 것이 없음을 깨닫고, 더 쫓아가지 못한 채 뒤로 물러났다. 두흥도 이응을 구해 말에 태운 뒤 먼저 떠났다. 양웅과 석수 역시 이응의 여러 장객들을 따라 물러났다. 축가장의 인마는 이삼 리를 더 쫓아갔으나, 날이 저무는 것을 보고는 그대로 돌아갔다.

두흥은 이응을 부축하여 이가장으로 돌아온 뒤, 말에서 내려 함께 후당으로 들어가 앉았다. 집안 식구들이 모두 나와 살피더니, 박힌 화살을 뽑아내고 갑옷을 벗기는 것을 도왔다. 이어 상처에 금창약을 발라준 뒤, 밤을 새워 후당에서 대책을 논의했다.

양웅과 석수가 두흥에게 말했다.

"대관인(大官人, 집안의 어른)께서 저놈에게 무례한 대우를 받으신 데다 화살까지 맞으셨으니, 시천을 구해내지 못한 것도 모두 저희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저희 형제는 이제 양산박으로 가서 조개와 송강 두 어른과 여러 두령께 간곡히 청하여, 대관인의 원수를 갚아드리고 시천도 구해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마친 두 사람은 이응에게 작별을 고했다. 이응이 말했다.

"내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그렇다. 두 장사, 나를 탓하지 말게나."

이응이 두흥에게 시켜 금과 은을 가져오게 하여 선물하려 했으나, 양웅과 석수는 받기를 거절했다. 이응이 다시 말했다.

"강호의 도리인데 두 분이 사양할 필요는 없네."

그제야 두 사람은 선물을 받아 들고 이응에게 절을 올린 뒤 작별을 고했다. 두흥이 마을 입구까지 배웅하며 큰길을 가리켜 주었다. 두흥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이가장으로 돌아갔으니, 이야기는 이것으로 일단락된다.

한편, 양웅과 석수가 길을 잡아 양산박으로 향하던 중, 멀리 새로 지은 주점이 하나 보이더니 술 깃발이 높이 솟아 있는 것이 보였다. 두 사람이 가게에 들어가 술을 좀 사 마시며 길을 물었다. 이 주점은 양산박에서 새로 만든 거점용 주점으로, 마침 석용이 관리하고 있었다. 두 사

람은 술을 마시며 주점 일꾼에게 양산박으로 가는 길을 물었다. 석용은 두 사람의 기색이 예사롭지 않음을 보고 다가와 말했다.

"손님들께서는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산 위로 올라가는 길을 물으시는 건가요?"

양웅이 대답했다.

"계주에서 왔소."

석용은 문득 생각이 나 물었다.

"혹시 귀하께서 석수 아니십니까?"

양웅이 말했다.

"나는 양웅이고, 이 형제가 석수라오. 형님께서는 석수의 이름을 어찌 아시오?"

석용이 황급히 대답했다.

"제가 잘 알아서가 아니라, 얼마 전 대종 형님이 계주에 다녀오시면서 형님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워낙 명성이 자자해서 이름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산에 오신다니 참으로 기쁘고 또 기쁩니다."

다섯 사람이 인사를 나눈 뒤, 양웅과 석수는 그간 있었던 일을 석용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석용은 즉시 일꾼을 시켜 정성껏 준비한 술과 음식을 내오게 했다. 그러고는 뒤편 수정(水亭, 물가에 지은 정자)의 창문을 열고 활을 잡아 향전(響箭, 소리가 나는 화살) 한 대를 쏘아 올

렸다. 그러자 항구의 갈대숲 사이에서 부하들이 배를 저어 다가왔다. 석용은 두 사람을 배에 태워 압취탄까지 직접 데려다주었다. 그사이 석용은 이미 사람을 먼저 산으로 보내 소식을 전하게 했다. 곧이어 대종과 양림이 산 아래로 마중을 나왔다. 두 사람이 인사를 나눈 뒤 다 함께 대채(大寨, 양산박의 본영)로 들어갔다.

여러 두령은 호걸들이 산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모여 대채에 둘러앉았다. 대종과 양림은 양웅과 석수를 인도하여 대청으로 모셨고, 그들은 조개와 송강, 그리고 여러 두령을 알현했다. 인사를 마친 뒤 조개가 양웅과 석수의 행적을 자세히 물었다. 양웅과 석수는 자신들의 무예와 함께 양산박에 투항하고자 하는 뜻을 먼저 밝혔다. 모두가 크게 기뻐하며 자리를 내어주고 앉았다.

양웅이 이야기를 이어가다, 양산박에 입단하려던 시천이 축가점의 새벽을 알리는 닭을 훔쳐 먹으려다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말했다. 축가점과 다툼이 벌어지는 와중에 석수가 그곳의 집을 불태웠고, 결국 시천이 붙잡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응이 두 번이나 서신을 보내 부탁했음에도 축가장의 세 아들이 완강히 거부하며, 오히려 양산박의 호걸들을 잡겠다고 맹세하며 온갖 욕설을 퍼붓는 등 매우 무례하게 굴었다는 내용까지 모두 말했다.

이야기를 마쳤을 뿐인데 조개는 크게 분노하여 호통을 쳤다.

"얘들아! 이 두 놈을 당장 끌어내어 내 명령으로 베어버려라!"

시가 있어 이르기를,

양웅과 석수가 적게 상의하고,
시천을 데리고 나아감은 옳지 못했네.
호걸의 마음은 비록 불처럼 뜨거우나,
녹림의 법도는 도리어 서리처럼 엄격하구나.

송강이 황급히 만류하며 말했다.

"형님,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이 두 장사는 멀리 천 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우리를 돕고자 하는데, 어찌 이들을 베려 하십니까?"

조개가 말했다.

"우리 양산박의 호걸들은 왕륜을 몰아낸 뒤로 충의를 으뜸으로 삼고 백성들에게 인덕을 베풀어 왔다. 형제들이 산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기세가 꺾인 적이 없었고, 새로 오든 옛날부터 있던 형제든 모두가 호걸다운 기개를 떨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놈은 양산박 호걸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닭이나 훔쳐 먹으려 들다가, 결국 우리까지 모욕을 당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오늘 먼저 이 두 놈을 베어 그 머리를 내걸고 호령을 내린 뒤, 곧바로 군사를 일으켜 저 마을을 쓸어버려야 기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얘들아, 어서 베어서 보고하라!"

송강이 다시 간곡히 말하며 만류했다.

"안 됩니다. 형님, 이 두 현제(賢弟)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 '고상조' 시천이라는 자가 본래 그런 부류라 축가장 놈들에게 빌미를 제공한 것이지, 어찌 이 두 현제가 산채를 욕보이려 하겠습니까? 저 또한 축가장 놈들이 우리 산채와 맞서려 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지금 우

리 산채의 인마는 많으나 군량은 부족한 상황인데,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놈들이 트집을 잡으려 드는 격이니,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저들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저 장원을 격파한다면 3~5년 치의 식량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일을 만들어 그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놈들이 무례한 것입니다. 형님께서는 우선 노여움을 가라앉히십시오. 제가 재주가 부족하나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가서, 이 두 형제와 함께 축가장을 치겠습니다. 만약 저 마을을 쓸어버리지 못한다면 결코 산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첫째는 산채의 원수를 갚아 기세를 살리고, 둘째는 이 어린놈들이 모욕당하는 것을 막으며, 셋째는 많은 식량을 얻어 산채의 양식으로 삼고, 마지막 넷째는 이참에 이응을 산으로 불러들여 우리와 함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학구(오용)가 말했다.

"공명 형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어찌 산채의 식구를 스스로 베려 하십니까?"

대종 또한 거들었다.

"차라리 저를 베실지언정, 어진 이들이 산채로 찾아들 길은 끊지 마십시오."

여러 두령이 힘을 합쳐 권하자 그제야 조개는 두 사람을 살려주었다. 양웅과 석수도 스스로 죄를 빌었다. 송강이 그들을 다독이며 말했다.

"현제들께서는 딴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이것은 산채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설령 저 송강이라 할지라도 잘못이 있다면 마땅히 목이 달아나야 하며, 결코 사사로운 정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이 '철면공목' 배선을 군정사(軍政司, 군사와 행정을 맡는 직책)로 임명하여 공을 세우면 상을 주고 죄를 지으면 벌하는 법도가 정해졌으니, 현제들께서는 부디 이 일을 용서하십시오."

양웅과 석수가 절을 올리고 죄를 청한 뒤 물러나자, 조개는 그들을 양림의 옆자리에 앉게 했다. 산채 안의 모든 이들이 부하들을 불러 새로 들어온 두 형제의 입단을 축하하게 했고, 소를 잡고 말을 잡아 경사스러운 잔치를 벌였다. 방 두 곳을 정하여 양웅과 석수가 머물게 하고, 각자 열 명씩의 부하를 붙여 시중들게 했다.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이튿날 다시 잔치를 마련하여 모든 두령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송강은 '철면공목' 배선을 불러 산 아래로 내려갈 인원을 계산하게 한 뒤, 여러 두령에게 청하여 자신과 함께 축가장을 치러 가기로 했다. 반드시 저 마을을 쓸어버리겠다는 결심이었다.

의논이 끝나자, 조개 두령은 산채를 지키며 움직이지 않기로 하고 오용, 유당, 완씨 삼형제, 여방, 곽성을 남겨 대채를 수호하게 했다. 원래 나루터와 관문, 주점을 지키던 직책의 인원들은 모두 제자리를 지키게 했다. 또한 새로 들어온 두령 맹강에게 배를 만드는 일을 맡겨, 마린을 대신해 전선을 감독하게 했다.

방을 붙여 공고를 낸 뒤, 축가장을 치러 내려가는 두령들을 두 갈래로 나누었다.

첫 번째 무리는 송강, 화영, 이준, 목홍, 이규, 양웅, 석수, 황신, 구붕, 양림이 이끌었다. 이들은 부하 삼천 명과 마군(馬軍, 기병) 삼백 명을 거느리고 무장을 마친 뒤 산 아래로 진격했다.

두 번째 무리는 임충, 진명, 대종, 장횡, 장순, 마린, 등비, 왕왜호, 백승이 맡았다. 이들 역시 부하 삼천 명과 마군 삼백 명을 거느리고 뒤를 따라가며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금사탄과 압취탄의 두 작은 진영에는 송만과 정천수를 보내 군량과 물자를 보급하도록 했다.

조개가 배웅을 마친 뒤 스스로 산채로 돌아갔다.

한편, 송강과 여러 두령은 곧장 축가장을 향해 달려갔으며, 가는 길에 별다른 일은 없었다. 이윽고 독룡산 앞에 이르렀는데, 아직 한 리 남짓한 거리를 두고 앞선 부대가 먼저 진을 쳤다. 송강은 중군장(中軍帳, 지휘관의 막사)에 앉아 화영과 의논하며 말했다.

"축가장 안은 길이 매우 복잡하다고 들었으니, 함부로 군사를 몰아넣어서는 안 되오. 우선 사람 두 명을 보내 길이 어떻게 굽이치는지, 가고 오는 길의 형편이 어떠한지 미리 살펴본 뒤에 적과 맞서야 하오."

그러자 이규가 말했다.

"형님, 제가 한동안 심심해서 사람 한 명도 못 죽였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아우님, 안 되네. 진을 깨뜨리고 적을 돌격할 때는 자네를 먼저 보내겠지만, 이건 세작(細作, 정탐꾼) 노릇이니 자네가 나설 일은 아니네."

이규가 웃으며 말했다.

"고작 저딴 마을을 치는 데 형님이 왜 힘을 쓰십니까? 저 혼자 애송이 이삼백 명만 데리고 가서 저 마을 놈들을 몽땅 베어버리면 될 것을, 어찌 미리 가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송강이 꾸짖듯 소리쳤다.

"이놈, 허튼소리 말고 저쪽으로 물러나 있어라! 부르면 바로 오도록 하고!"

이규는 물러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파리 몇 마리 죽이는 데 뭘 그리 호들갑이야."

송강은 다시 석수를 불러 말했다.

"아우님은 예전에 그곳에 가본 적이 있으니, 양림과 함께 한번 다녀오게나."

석수가 말했다.

"지금 형님의 군사가 이렇게 많이 몰려왔는데, 저쪽에서 어찌 대비를 안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장해야 좋겠습니까?"

양림이 말했다.

"나는 악몽을 쫓는 법사로 변장하겠소. 품에는 단도를 숨기고 손에는 법환(法環, 구리 고리)을 들고 길을 가며 흔들며 들어가리다. 그저 내 법환 소리가 들리면 내 앞뒤를 떠나지 마시오."

석수가 말했다.

"나는 예전에 계주에서 땔감을 팔았으니, 그냥 땔감 지게를 지고 들어가 팔면 될 것이오. 몸에는 암기를 숨기고, 급한 일이 생기면 이 지게를 방패로 쓸 수도 있소."

양림이 말했다.

"좋소, 좋소.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오늘 밤 준비를 마친 뒤, 새벽 다섯 시경에 출발합시다."

정말로 닭 한 마리 때문에 생긴 작은 분노가 호랑이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옛사람이 서강월(西江月) 시로 다음과 같이 읊었다.

유약함은 몸을 편안히 보존하는 근본이요, 강함은 화를 부르는 씨앗이라.
다투지 않고 경쟁하지 않는 이가 현명한 인재이니, 나를 조금 손해 보더라도 무엇이 걱정이랴!
무딘 도끼로 벽돌을 내리쳐도 (벽돌은) 쉽게 부서지나, 날카로운 칼로 물을 베어도 갈라지지 않는도다.

머리가 하얗게 세고 치아마저 쇠락해 가도, 오직 혀(부드러운 것)만은 썩지 않고 남아 있네.

한편, 석수가 땔감 지게를 지고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이십 리쯤 가다 보니 길이 굽이치고 복잡한 데다 사방이 비슷비슷하게 꺾여 있었고, 나무들까지 빽빽하게 우거져 있어 길을 분간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석수는 지게를 내려놓고 잠시 쉬며 길을 살폈다. 그때 뒤쪽에서 법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석수가 보니 양림이 낡은 삿갓을 쓰고 해진 법의를 입은 채, 손에는 법환을 들고 길을 흔들며 걸어오고 있었다.

석수는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양림을 불러 세우며 말했다.

"길이 너무 굽이치고 복잡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소. 지난번에 내가 이응을 따라왔던 길이 어디인지 모르겠구려. 날도 저물어가는데 저 사람들은 길을 잘 알아서 제대로 못 보겠소."

양림이 말했다.

"길이 굽었든 곧든 신경 쓰지 말고, 그저 큰길로만 골라 가시오."

석수는 다시 땔감을 짊어지고 오로지 큰길만 바라보며 걸어갔다. 그러다 앞쪽에 마을이 나타나니, 여러 곳에 주점과 고깃집이 보였다. 석수는 땔감을 진 채 주점 문 앞에 멈춰 섰다. 그런데 가게마다 문 앞에 칼과 창을 꽂아 두었고, 사람들은 모두 몸에 '축(祝)' 자가 크게 쓰인 노란 조끼를 입고 있었다. 오가는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석수는 이를 보고 한 노인을 발견하여 정중히 인사를 건네며 물었다.

"어르신, 여쭙겠습니다만 이곳 풍습이 어찌 된 것입니까? 어째서 다들 문 앞에 칼과 창을 꽂아 두었습니까?"

노인이 말했다.

"어디서 온 손님이길래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게요? 모르면 그저 빨리 지나가시오."

석수가 말했다.

"저는 산동에서 대추를 팔던 장사꾼인데, 밑천을 다 까먹고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없어 이곳에 땔감을 팔러 왔습니다. 이곳의 풍습이나 지리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그저 빨리 다른 곳으로 가서 몸을 피하시오. 조만간 이곳에서 큰 싸움이 벌어질 테니."

석수가 말했다.

"이렇게 좋은 마을에서 어찌 큰 싸움이 난단 말씀입니까?"

노인이 말했다.

"손님, 정말 모르겠다면 내가 말해주리다. 이곳은 축가장이라 불리는 곳이고, 언덕 위에는 축 조봉의 관아가 있소. 지금 양산박의 호걸들이 나쁜 마음을 품고 군사를 이끌고 마을 입구까지 와서 싸움을 걸려고 하고 있소. 다만 우리 마을 길이 복잡해서 아직 들어오지는 못하고 바깥에 진을 치고 있는 중이라오. 지금 축가장에서 명령이 내려와서, 집집마다 젊고 건장한 사내들은 준비하고 있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도와주기로 했소."

석수가 물었다.

"어르신, 마을에 집이 얼마나 됩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우리 축가장만 해도 만여 가구는 되고, 동서로 두 마을이 더 도와주고 있소. 동쪽 마을은 '박천조' 이응 대관의 마을이고, 서쪽 마을은 호태공의 장원인데, 거기 딸이 하나 있으니 이름이 '일장청' 호삼낭이라는데 아주 대단한 여장수라오."

석수가 말했다.

"그렇다면 양산박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노인이 말했다.

"만약 우리처럼 길을 모르는 뜨내기가 오면 그대로 잡혀 죽고 말 것이오."

석수가 물었다.

"어르신, 처음 온 사람이 어째서 잡혀 죽는다는 말씀입니까?"

노인이 말했다.

"이 마을 길에 대해 이런 시가 있소. '아, 좋은 축가장이로다, 온통 굽이굽이 미로로구나.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기는 어렵도다.'"

그 말을 듣자마자 석수는 울음을 터뜨리며 노인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저는 강호에서 밑천을 다 잃고 돌아갈 곳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땔감을 팔다가 싸움에 휘말려 도망치지 못하면 어찌합니까? 어르신,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땔감을 드릴 테니 제발 나가는 길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

노인이 말했다.

"내가 왜 공짜로 땔감을 받겠소? 내가 사겠소. 우선 안으로 들어와서 술과 밥이라도 좀 드시오."

석수는 인사를 올린 뒤 땔감을 짊어진 채 노인을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흰 술 두 사발을 따르고 떡 죽 한 그릇을 담아 석수에게 대접했다. 석수는 다시 절을 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어르신, 나가는 길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이 말했다.

"그저 마을 길을 따라가다가 백양나무가 보이면 그쪽으로 꺾어가시오. 길이 넓든 좁든 상관없소. 백양나무가 있는 길로 꺾어야 살길이고, 백양나무가 없는 곳은 다 죽는 길이라오. 만약 다른 나무가 있는 길로 꺾는다면 그것 또한 살길이 아니오. 길을 잘못 들어 이리저리 헤매다 보면 영영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오. 게다가 죽는 길에는 땅속에 대나무 창이나 마름쇠(鐵蒺藜, 쇠 가시못)가 매설되어 있으니, 길을 잘못 들어 그것이라도 밟는 날에는 틀림없이 붙잡혀 죽고 말 것이니 어찌하겠소."

석수는 연신 절을 하며 물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노인이 대답했다.

"이 마을에는 축 씨 성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지만, 나는 복성인 종리 씨라네. 대대로 이곳에 살고 있지."

석수가 말했다.

"술과 밥은 잘 먹었습니다. 조만간 꼭 두둑이 보답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석수가 들어보니 첩자 하나를 붙잡았다는 내용이었다. 석수는 깜짝 놀라 노인을 따라 밖으로 나가 살펴보니, 일흔에서 여든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사람 하나를 포박하여 끌고 오고 있었다. 석수가 자세히 보니 바로 양

림이었다. 그는 옷을 모두 벗겨 알몸인 상태로 밧줄에 꽁꽁 묶여 있었다.

석수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그는 노인에게 슬쩍 다가가 물었다.

"저렇게 붙잡혀 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 모양입니까?"

노인이 말했다.

"송강 쪽에서 온 첩자라는 소문이 있지 않소?"

석수가 다시 물었다.

"어째서 저렇게 허무하게 잡힌 것입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저자가 참으로 대담하기도 하지. 혼자서 첩자 노릇을 하겠다고 해몽법사(解魘法師)로 변장하고 마을로 몰래 들어왔다더군. 그런데 길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큰길로만 골라 가더니, 이리저리 헤매다 그만 죽는 길로 들어선 게지. 버드나무가 있는 곳으로 꺾어야 한다는 소식도 모르고 말이오. 그가 길을 잘못 들어 행동이 수상쩍은 것을 보고 마을 관리들에게 보고하여 붙잡으려 했더니, 저자가 갑자기 칼을 뽑아 들고 달려들어 사람 넷다섯 명을 다치게 했다더군. 하지만 이곳 사람들의 기세에 눌려 순식간에 제압당해 붙잡힌 것이오. 사람들은 저자가 원래 도둑놈이었다며 '금표자' 양림이라 부르더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앞쪽에서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장원의 세 어른이 순찰을 돌며 지나간다는 내용이었다. 석수가 벽 틈으로 밖을 살피니, 앞쪽에는 스무 쌍의 영창(깃털 달린 창)이 늘어서 있고, 뒤에는 네다섯 명의 기병이 말을 탄 채 활을 메고 화살을 꽂고 있었다. 또한 서너 쌍의 청백색 말들이 따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젊은 장수가 눈처럼 하얀 말 위에 올라타 활과 화살을 온몸에 갖추고 은창을 손에 쥐고 있었다.

석수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고는 노인에게 특별히 물었다.

"지나가시는 저 나으리는 누구십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저자가 바로 축가장의 셋째 주인인 축표라네. 서촌 호가장의 '일장청' 호삼랑을 아내로 맞이할 몸이지. 형제가 셋인데 그중 저놈이 제일 가는 무예를 가졌다네."

석수는 다시 절을 하며 말했다.

"어르신, 나가는 길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이 말했다.

"오늘은 이미 늦었네. 만약 앞쪽에서 싸움이라도 벌어지면 자네 목숨만 허무하게 날릴 뿐이야."

석수가 말했다.

"어르신, 제 목숨 하나만 살려주십시오."

노인이 말했다.

"그럼 일단 우리 집에서 하룻밤 쉬게나. 내일 상황을 살펴보고 별일 없으면 그때 나가도록 하세."

석수는 감사의 인사를 올린 뒤 노인의 집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문 앞으로 말 탄 전령 네다섯 명이 급히 달려와 문 앞에서 소리 높여 명령하는 것을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오늘 밤 붉은 등을 신호로 삼아, 마음을 모아 양산박 도적들을 잡아 관아에 넘기고 포상을 받도록 하라!"

명령이 내려가자 석수가 물었다.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노인이 말했다.

"저 나으리는 이 지역의 도적을 잡는 순검이라네. 오늘 밤 송강을 잡기로 약속되어 있지."

석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횃불 하나를 구해 자리를 잡게 한 뒤, 스스로 방 뒤편 풀숲에 있는 움막으로 가서 잠을 청했다.

한편, 송강의 군마는 마을 어귀에 주둔하고 있었다. 양림과 석수가 돌아와 보고하지 않자, 송강은 곧바로 오팽을 마을 어귀로 보냈다. 잠시 후 돌아온 오팽이 보고했다.

"그곳이 소란스러운 것을 보니 첩자 하나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이 워낙 복잡하고 알아보기 어려워, 감히 적진 깊숙이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송강이 분노하며 말했다.

"어찌 보고가 오기를 기다린 뒤에야 진군하겠느냐? 또 첩자 하나까지 잡혔다면 분명 형제 둘이 적에게 빠졌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밤 오로지 진군하여 적진을 쳐부수고, 그 두 형제를 구출해야 한다. 다른 두령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자 이규가 즉시 나섰다.

"제가 먼저 쳐들어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송강은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장령을 내려 군사들에게 갑옷과 무기를 갖추게 했다. 이규와 양웅이 첫 번째 부대인 선봉을 맡았고, 이준 등이 후방에서 군사를 이끌었다. 목홍이 왼쪽에, 황신이 오른쪽에 배치되었으며, 송강과 화영, 오팽 등 중군 두령들은 깃발을 흔들고 함성을 지르며 북과 징을 울렸다. 그들은 큰 칼과 넓은 도끼를 들고 기세등등하게 축가장을 향해 돌격했다.

독룡강 언덕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황혼이 질 무렵이었다. 송강은 앞선 군사들을 재촉하여 장원을 공격하게 했다. 선봉인 이규는 옷을 다 벗어 알몸이 되어 두 자루의 강철 도끼를 휘두르며 불꽃처럼 무섭게 돌진했다. 장원 앞에 도착해 보니, 이미 조교(弔橋)는 높이 들어 올려져 있었고 장원 안에서는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다.

이규가 물을 건너가려 하자 양웅이 그를 붙들며 말했다.

"안 됩니다! 장원 문을 굳게 닫았다는 것은 분명 무슨 계책이 있다는 뜻입니다. 형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려 따로 상의합시다."

하지만 이규는 참지 못하고 양손의 도끼를 내리치며 강 건너편에서 크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 빌어먹을 축태공 늙은 도적놈아, 당장 나와라! 이 '흑선풍' 나으리께서 여기 계신다!"

그러나 장원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이어 송강의 중군 병력이 도착하자 양웅이 맞이하며 장원에 병사나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보고했다. 송강이 말을 멈추고 살펴보니, 장원에는 창칼을 든 병사도, 사람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송강은 의아해하다가 문득 깨닫고 말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천서(天書)에서도 적을 마주할 때는 급하고 사납게 행동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계했거늘. 내가 잠시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두 형제를 구하겠다는 마음만 앞선 나머지, 밤을 도와 진군해 뜻하지 않게 적진 깊숙이 들어오고 말았구나. 그의 장원 앞까지 다다랐

는데도 적군이 보이지 않으니 분명 무슨 계략이 있을 것이다. 어서 삼군에게 잠시 퇴각하라 일러라."

그러자 이규가 외쳤다.

"형님, 군마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 퇴각하려 하십니까! 제가 먼저 쳐들어갈 테니, 여러분 모두 저를 따르십시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원 측에서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인지, 축가장 안에서 신호용 포를 쏘아 올리니 그 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졌다. 그러자 독룡강 언덕 위에서 수천 개의 횃불이 일제히 타올랐고, 장원의 문루에서는 노(弩, 석궁)로 쏜 화살들이 빗줄기처럼 쏟아져 내려왔다.

송강은 급히 왔던 길로 군사를 돌리려 했으나, 후군 두령인 이준의 부대가 먼저 달려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왔던 길이 모두 막혔습니다! 분명 매복이 있습니다!"

송강은 군사들에게 사방으로 길을 찾아 움직이라고 명령했다. 이규는 두 자루의 도끼를 휘두르며 적을 찾아 싸우러 다녔으나, 적군 한 명 보이지 않았다. 그때 독룡강 언덕 꼭대기에서 다시 포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사방에서 함성이 땅을 흔들며 몰려왔고, 송강은 너무나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문무를 겸비한 지략가라 한들, 어찌 이 촘촘한 그물 같은 포위망을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

시로 이르되,

호랑이를 묶고 용을 잡을 계책을 미리 짜놓으니, 천지를 뒤흔들 자를 잡으려 함이라.

결국 송강과 여러 두령은 어떻게 몸을 피할 수 있을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48회 — 일장청이 단번에 왕애호를 사로잡고, 송공명이 두 번 축가장을 치다

一丈青單捉王矮虎 宋公明兩打祝家莊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시 송강이 말 위에서 상황을 살피니, 사방에 적의 매복군이 깔려 있었다. 송강은 졸개들에게 그저 큰길로만 돌진하게 했는데, 다섯 부대의 군사들이 길이 막혔다는 소리가 들리며 여기저기서 비명을 질렀다. 송강이 물었다. "무엇 때문에 비명을 지르는 것이냐?" 군사들이 대답했다. "앞길이 온통 굽이진 고갯길이라, 한참을 가다 보니 또 이곳으로 돌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군사들에게 횃불이 밝게 보이는 곳, 집이 있는 마을 쪽으로 길을 잡아 나가게 하라." 얼마 지나지 않아 앞서가던 군사들이 다시 외치며 달려왔다. "겨우 횃불이 보이는 곳으로 길을 잡으려 했더니, 이번에는 고죽첨(苦竹簽)과 철질려(鐵蒺藜, 마름쇠)가 깔려 있고, 땅마다 녹각(鹿角, 사슴뿔 모양 목책)이 가득 뿌려져 길목이 다 막혔습니다!" 송강이 탄식했다. "하늘이 나를 버리려 하시는가?" 한창 당황하던 그때, 왼쪽 부대의 목홍 부대 쪽에서 소란이 일더니 보고가 들어왔다. "석수가 왔습니다!"

송강이 보니, 석수가 박도를 손에 쥐고 말 앞으로 달려와 말했다. “형님, 당황하지 마십시오. 아우가 길을 알아냈습니다. 몰래 명령을 내려, 다섯 부대 군사들에게 오직 백양나무가 보이는 쪽으로만 꺾어 가라고 하십시오. 길이 넓든 좁든 상관 말고 말입니다.” 송강은 즉시 군사들을 재촉하며, 백양나무가 보이면 그 방향으로 길을 틀었다. 그렇게 5~6리쯤 갔을까, 앞쪽의 적군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보였다. 의아해진 송강이 석수에게 물었다. “아우야, 어찌하여 앞길에 적병이 저리도 많은 것이냐?” 석수가 대답했다. “놈들이 촛불 등을 켜서 신호로 쓰고 있습니다.” 말 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화영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송강에게 말했다. “형님, 저 나무 그림자 속에 있는 저 촛불 등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동쪽으로 움직이면 놈들이 저 등을 동쪽으로 당길 것이고, 우리가 서쪽으로 움직이면 서쪽으로 당길 것입니다. 바로 저것이 분명 신호일 것입니다.” 송강이 물었다. “저 등불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화영이 말했다. “어려울 것 없습니다!” 그러고는 활시위에 화살을 매긴 뒤, 말을 몰아 앞으로 나가 그림자 속의 등불을 향해 화살 한 대를 날렸는데, 어김없이 정확하게 날아가 그 붉은 등불을 명중시켜 떨어뜨렸다. 사방에 매복해 있던 적병들은 붉은 등불이 사라지자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송강은 석수에게 길을 안내하게 하여 마을 입구로 돌파해 나갔다. 앞산에서 함성 소리가 연달아 터져 나오고 횃불이 어지럽게 번뜩였다. 송강은 앞선 군사들을 멈춰 세우고, 석수를 보내 길을 살피게 했다. 잠시 후 석수가 돌아와 보고했다. “산채의 두 번째 부대가 지원하러 와서 매복군을 흩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송강은 즉시 군사를 몰아 협공하며 마을 입구로 탈출했다. 축가장의 군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송강은 임충, 진명 등의 군마와 합류하여 마을 입구에 진을 쳤다. 다행히 날이 밝아 높은 언덕에 진을 치고 병력을 정비했는데,

살펴보니 '진삼산(鎭三山)' 황신이 보이지 않았다. 송강이 크게 놀라 이유를 묻자, 어젯밤 함께 갔던 군사가 보고했다. "황 두령께서 형님의 명령을 받들어 길을 정찰하러 가셨는데, 미처 방비하지 못한 사이 갈대숲 속에서 갈고리 두 개가 뻗어 나와 말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대여섯 명에게 사로잡혀 가셨는데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송강은 크게 노하여 그 군사를 죽이려 했다. "어찌하여 진작 보고하지 않았느냐!" 임충과 화영이 송강을 말렸다.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한탄했다. "마을을 치지도 못했는데 형제 둘을 잃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이때 양웅이 말했다. "이 근처에 세 마을이 결맹을 맺고 있습니다. 동촌의 이 대관인(이가장의 주인)은 며칠 전 축표 놈이 쏜 화살에 맞아 지금 장원에서 요양 중입니다. 형님, 그분께 가서 의논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송강이 말했다. "내가 그분을 깜빡 잊고 있었구나. 그분이라면 이곳의 지형과 적의 허실을 잘 알고 계시겠지." 송강은 비단 한 쌍과 양고기·술을 준비하게 하고, 좋은 말과 안장·고삐를 갖추어 직접 찾아가 뵙기로 했다. 임충과 진명에게 잠시 진영을 지키게 한 뒤, 송강은 화영, 양웅, 석수와 함께 말을 타고 기병 삼백 명을 거느리고 이가장으로 향했다.

장원에 도착하니 이미 문루는 굳게 닫혀 있었고, 다리도 높이 들어 올려져 있었다. 담장 안쪽에는 수많은 장병과 군마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문루에서는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송강이 말 위에서 크게 외쳤다.

"나는 양산박의 의사 송강이다! 대관인을 뵙고자 특별히 찾아온 것이니 다른 뜻은 없으니 경계하지 마라!"

문루에서 지켜보던 두흥은 양웅과 석수가 있는 것을 보고는 황급히 장원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작은 배 한 척을 보내 송강을 맞이하게 했다. 송강은 서둘러 말에서 내려 예를 표했다. 양웅과 석수가 가까이 다가가 보고했다.

"이 형제는 저희 둘을 데리고 이 대관인을 찾아가도록 안내해 준 사람입니다. 별호는 '귀면아'입니다."

송강이 말했다.

"아, 두 주관이었구려. 부디 대관인께 전해 주시오. 우리 양산박의 송강은 대관인의 명성을 익히 들어왔으나 인연이 닿지 않아 뵙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축가장이 우리와 대적하려 하여 이곳을 지나던 차에, 비단과 좋은 말, 양주와 약간의 예물을 가져왔으니 그저 한 번 뵙고자 할 뿐 다른 뜻은 없다고 말이오."

두흥은 송강이 전한 말을 받들어 다시 배를 타고 장원 안으로 들어와 대청 앞까지 갔다. 이응은 부상을 입은 채 이불을 덮고 침상에 앉아 있었다. 두흥이 송강이 뵙기를 청한다는 말을 전하자, 이응이 말했다.

"그자는 양산박의 반란군인데 내가 어찌 그를 만나겠느냐? 사사로운 뜻이 있는 것도 아니니, 가서 이렇게 전하라. 나는 지금 병으로 누워 있어 몸을 움직이기조차 어려우니 만나기가 힘들다. 다음에 날을 잡아 뵙도록 하겠다. 그리고 보내온 선물은 차마 그냥 받을 수가 없다고 전해라."

두흥은 다시 배를 타고 건너와 송강을 만나 보고했다. “저희 주인님께서 송 두령님께 거듭 절을 올리라 하셨습니다. 본래는 직접 나가서 영접하려 하였으나, 주인님께서 부상을 입어 병상에 누워 계시는 바람에 도저히 뵐 수가 없으니, 조만간 따로 날을 잡아 찾아뵙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보내주신 두터운 선물은 차마 그냥 받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그대의 주인님 뜻은 잘 알겠소. 내가 축가장과 싸우다 패한 뒤로 그저 한 번 뵙고자 청한 것인데, 혹여 축가장에서 이상하게 여길까 두려워 나오지 못하는 것이구려.” 두흥이 말했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병이 드신 것입니다. 소인은 비록 중산(中山) 사람이지만 이곳에 온 지 여러 해가 되어 이 근방의 형편을 꽤 잘 압니다. 가운데가 축가장이고, 동쪽은 저희 이가장이며, 서쪽은 호가장입니다. 이 세 마을은 생사를 같이하기로 맹세하여 일이 생기면 서로 돕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 주인님과 사이가 틀어졌으니 당연히 돕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서쪽의 호가장에서 도우러 올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 마을은 다른 것은 대수롭지 않으나, ‘일장청(一丈青)’이라 불리는 호삼낭이라는 여장수가 있는데, 일월쌍도(日月雙刀)를 두 자루 휘두르는 솜씨가 대단합니다. 그녀는 축가장의 셋째 아들 축표의 정혼자로, 머지않아 혼인할 사이입니다. 만약 장군께서 축가장을 치려거든 동쪽은 경계할 필요 없이 서쪽 길만 단단히 막으십시오. 축가장에는 앞뒤로 장원의 문이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독룡강(獨龍岡) 앞에 있고 하나는 독룡강 뒤에 있습니다. 만약 앞문으로만 공격한다면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양쪽에서 협공해야만 깨뜨릴 수 있습니다. 앞문 쪽은 길이 복잡하고 알아보기 힘든데, 온통 구불구불한 길이라 넓고 좁음이 일정치 않습니다. 오직 백양나무가 있는 곳에서만 길을 꺾어 나갈 수 있는 살길이 되고, 만약 그 나무가 없다면 그곳은 곧 죽은 길입니

다.” 석수가 물었다. “그들이 지금 백양나무를 다 베어버렸다면, 무엇으로 표식을 삼겠소?” 두흥이 대답했다. “비록 나무를 베었다 한들 뿌리까지 다 뽑아낼 수는 없으니 분명 나무뿌리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낮에만 군사를 움직여 공격해야 하며, 밤에는 절대 진격해서는 안 됩니다.”

송강은 이야기를 다 듣고 두흥에게 고마움을 표한 뒤, 일행은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다. 임충 등이 마중 나와 모두 대채(大寨, 본진)에 앉았다. 송강은 이응이 만나기를 거절한 이유와 두흥이 해준 말을 여러 두령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이규가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보냈는데도 그놈이 형님을 맞으러 나오지 않다니요. 제가 직접 삼백 명을 이끌고 가서 그 장원을 박살 내고, 그놈을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어 형님께 절하게 만들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아우야, 네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는 부유하고 귀한 양민이라 관청을 두려워할 텐데, 어찌 함부로 우리를 만나겠느냐?”

이규가 웃으며 말했다.

“그놈도 아마 겁 많은 어린애라 만나기 무서운 모양이지요.”

사람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송강이 다시 말했다.

"비록 그렇다 해도, 이미 두 형제가 붙잡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다. 형제들은 모두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라. 나와 함께 다시 축가장을 공격하러 갈 것이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형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어느 분이 앞장서시겠습니까?"

"흑선풍" 이규가 말했다.

"당신들이 겁쟁이들 같으니, 내가 가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네가 선봉을 맡는 것은 좋지 않으니, 이번에는 너를 쓸 데가 없다."

이규는 고개를 숙이며 분을 참았다. 송강은 마린, 등비, 오팽, 왕왜호 네 사람을 데리고 직접 선봉으로 나섰다. 제2진은 대종, 진명, 양웅, 석수, 이준, 장횡, 장순, 백승이 물길을 이용할 준비를 하게 했고, 제3진은 임충, 화영, 목홍, 이규를 두 갈래로 나누어 후방을 지원하게 했다. 군사들의 배치와 임무가 모두 정해지자, 모두 배불리 먹고 무기를 갖추어 말에 올라탔다.

한편, 송강은 직접 선봉에 서서 첫 공격을 이끌기로 했다. 앞장에는 커다란 붉은색 '수(帥)' 자 깃발을 내걸고, 네 명의 두령과 기병 백오십 명, 보병 천 명을 거느린 채 축가장을 향해 거침없이 진격했다. 길목마다 사람을 보내 정찰하게 하며 나아간 끝에 독룡강 앞에 이르렀다. 송

강이 말을 멈추고 축가장을 바라보니 과연 그 기세가 웅장하였다. 이를 찬양하는 시 한 편이 있어 축가장의 기상을 보여주니, 다음과 같다:

독룡산 앞 독룡강, 독룡강 위 축가장이라. 언덕 둘레를 따라 긴 물줄기 흐르고, 주변에는 버드나무 가지가 늘어져 있네. 성벽 안에는 창칼이 숲을 이루고, 문 앞에는 칼과 창이 빽빽이 늘어섰구나. 적을 상대하는 이들 모두 웅장한 장사요, 앞장선 이들 모두 늠름한 젊은이들이라. 축룡이 진을 치면 대적하기 참으로 어렵고, 축호가 맞붙으면 감당하기가 불가능하네. 게다가 축표는 무예가 뛰어나니, 그 호통 소리 우렁차서 패왕과도 같구나. 축 어른은 지략이 넓고 깊으며, 금은보화와 비단은 천 상자나 쌓였네. 문 앞에는 백기 한 쌍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는 선명하게 두 줄의 글자가 적혔으니,

"양산박을 평정하고 조개를 사로잡으며, 양산박을 짓밟고 송강을 잡아라."

송강은 말 위에 앉아 축가장의 그 두 깃발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크게 분노하며 맹세했다. "내가 만약 축가장을 함락시키지 못한다면, 다시는 양산박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이 말을 들은 장수들도 일제히 분노를 터뜨렸다. 송강은 뒤따라오던 군사들이 모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 번째 부대 장수들을 남겨 앞문을 공격하게 한 뒤, 직접 선봉 부대를 이끌고 독룡강 언덕 뒤편으로 돌아 축가장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축가장의 뒤편은 마치 구리 벽과 철벽처럼 견고하게 방비되어 있었다. 한창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서쪽에서 한 무리의 군마가 함성을 지르며 뒤쪽에서 습격해 오는 것이 아닌가. 송강은 마린과 등비를 남겨 축가장의 뒷문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오팽, 왕왜호와 함께 병력의 절

반을 이끌고 맞서 나갔다. 언덕 아래에서 내려오는 군사는 기병 이삼십 명 정도였는데, 그 중심에는 한 명의 여장수가 호위받으며 나타났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다음과 같다.

금빛 비녀는 양 갈래 머리에 꽂혀 있고, 보석 박힌 등자에는 비단 신발이 비스듬히 닿네.
붉은 비단 안에는 연슬 갑옷을 입고, 수놓은 띠는 가느다란 허리에 둘렀구나.
서슬 퍼런 칼날은 군사들을 거침없이 베어 넘기고, 고운 손길은 맹장들을 단숨에 사로잡네.
해당화처럼 타고난 미모를 뽐내며, 일장청이 앞장서서 말을 달리네.

습격해 온 군사는 바로 호가장의 여장수, '일장청' 호삼낭이었다. 그녀는 푸른 갈기의 말에 올라타 양손에 일월쌍도를 휘두르며, 삼사백 명의 장객(莊客)을 이끌고 축가장을 돕기 위해 나타났다. 송강이 말했다. "방금 호가장에 대단한 여장수가 있다고 했는데, 필시 이 사람일 것이다. 누가 저 여장수와 맞서 싸우겠느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색을 밝히는 왕왜호는 여장수가 나타났다는 말을 듣자마자, 단 한 합만에 그녀를 사로잡을 수 있으리라 자신했다. 그는 크게 함성을 지르더니 말을 몰아 앞으로 나아가 손에 든 창을 내지르며 맞서 싸웠다. 양쪽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는 가운데, 호삼낭은 말을 몰아 칼을 휘두르며 왕왜호와 맞붙었다. 한 명은 쌍도를 능숙하게 다루고, 한 명은 단창을 빼어나게 휘둘렀다. 두 사람이 십여 합을 겨루는 동안, 말 위에 있던 송강이 지켜보니 왕왜호의 창술이 더 이상 막아내지 못할 지경이었다. 원래 왕왜호는 '일장청' 호삼낭을 처음 보자마자 당장이라도 잡아

채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는데, 막상 열 합 넘게 싸워보니 손이 떨리고 다리가 저려와 창술이 엉망이 되고 만 것이었다. 두 사람이 목숨을 걸고 맞붙은 싸움이 아니었다면, 왕왜호는 오히려 그녀에게 수작을 부리려 했을 것이다. 영리한 호삼낭은 속으로 '이놈이 무례하구나'라고 생각하며, 두 자루의 쌍도를 위아래로 거침없이 휘두르며 몰아쳤다. 왕왜호가 어찌 이를 당해내겠는가. 그는 말을 돌려 도망치려 했으나, 호삼낭이 말을 몰아 뒤쫓아오더니 오른손의 칼을 (안장에) 걸어 한 손을 비워 두고는, 원숭이처럼 가볍게 팔을 뻗어 왕왜호를 안장에서 들어 올려 사로잡았다. 뒤따르던 장객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왕왜호를 가로로 끌고 질질 끌어 사로잡아 갔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색욕에 눈이 멀어 몸조차 돌보지 않으니,
기꺼이 제 목숨을 티끌처럼 하찮게 여기는구나.
금빛 휘장 안에는 용맹한 장수가 없고,
여인에게 넋을 잃고 정기마저 빼앗기는구나.

오팽은 왕왜호가 생포되는 것을 보고는 창을 내지르며 구하러 나섰다. '일장청' 호삼낭은 말을 몰아 칼을 휘두르며 오팽을 맞붙어 싸웠다. 본래 오팽은 군인 집안 출신이라 철창을 아주 잘 다루었는데, 송강이 이를 보고 속으로 내심 감탄했다. 하지만 오팽의 창술이 아무리 정교하고 숙련되었다 한들, 그 여장수를 상대로는 조금도 이득을 보지 못했다. 멀리서 왕왜호가 잡히는 것을 본 등비는 오팽마저 여장수에게 밀리는 것을 보고는, 말을 달려 쇠사슬을 휘두르며 큰 소리로 외치며 달려왔다.

한편, 축가장에서는 상황을 지켜보던 이들이 '일장청'이 위험해질까 걱정하여 서둘러 현수교를 내리고 장원 문을 열었다. 축룡은 직접 삼백여 명의 장정을 이끌고 말을 달려 창을 휘두르며 송강을 잡으러 나왔다. 이를 본 마린은 말을 몰아 쌍도를 휘두르며 축룡을 막아섰다. 등비는 송강이 위험해질까 봐 곁을 떠나지 못한 채, 양측이 뒤엉켜 싸우며 함성이 끊이지 않는 것을 지켜보았다. 송강은 마린이 축룡을 당해내지 못하고, 오팽 또한 호삼낭을 상대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당황하던 찰나, 한 무리의 군마가 비스듬히 나타나 습격해 오는 것을 보았다.

송강은 그들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바로 '벽력화' 진명이었다. 그는 장원 뒤편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구원하러 온 것이었다. 송강이 크게 외쳤다. "진 통제! 마린을 도와주시오!" 진명은 성격이 급한 데다, 축가장이 자신의 부하인 황신을 생포했다는 소식에 잔뜩 화가 나 있었다. 그는 말을 몰아 늑대 이빨 모양의 철퇴를 휘두르며 축룡을 향해 돌진했다. 축룡 역시 창을 내지르며 진명과 맞섰다. 그사이 마린은 사람들을 이끌고 왕왜호를 되찾아왔다. '일장청' 호삼낭은 마린이 왕왜호를 데려가는 것을 보고 오팽을 내버려 둔 채 마린을 막으러 달려들었다. 두 사람 모두 쌍도를 다룰 줄 알았기에, 말 위에서 서로 맞붙어 싸우는 모습은 마치 바람에 휘날리는 꽃잎이나 눈이 흩날리는 것처럼 눈이 어지러울 정도였다.

이쪽에서 진명과 축룡이 십여 합 넘게 싸우고 있을 때, 축룡이 진명을 당해내지 못하자 장원 안에서 교사 란정옥이 철퇴를 들고 창을 휘두르며 싸우러 나왔다. 오팽이 란정옥을 막으려 맞섰다. 란정옥은 정면으로 맞붙는 대신 창을 든 채 비스듬히 피하며 움직였다. 오팽이 뒤쫓

아갔으나, 란정옥이 날린 철퇴에 정통으로 맞아 공중제비를 돌며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등비가 비명을 질렀다. "얘들아, 사람을 구해라!" 그는 쇠사슬을 휘두르며 란정옥에게 달려들었다. 송강은 급히 부하들을 불러 오팽을 말에 태워 구출했다. 축룡은 진명을 당해내지 못하자 말을 돌려 달아났다. 란정옥 역시 등비를 내버려 둔 채 진명과 싸우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이십여 합을 겨루며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그러다 란정옥이 빈틈을 보이는 척하며 황급히 도망치자, 진명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그 뒤를 쫓았다. 란정옥은 풀숲 사이로 말을 몰아 숨어버렸고, 진명은 이를 눈치채지 못한 채 그대로 따라 들어갔다.

알고 보니 축가장 같은 곳에는 곳곳에 매복이 깔려 있었다. 진명이 들어오자마자 매복해 있던 자들이 말다리를 거는 밧줄을 잡아당겼고, 진명은 말과 함께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적들이 함성을 지르며 진명을 생포했다. 등비가 진명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급히 구하려 했으나, 밧줄이 들이닥치고 그가 몸을 돌리기도 전에 마치 엉킨 삼대처럼 사방에서 낚싯갈고리 같은 것들이 날아와 그를 말 위에서 산 채로 사로잡아 갔다. 송강은 그 광경을 보며 탄식할 뿐, 오팽을 구출하는 데 그쳤다.

마린은 호삼낭을 내버려 두고 송강을 보호하기 위해 남쪽으로 급히 말을 달렸다. 그러나 뒤에서는 란정옥, 축룡, 호삼낭이 일제히 뒤쫓아 왔다. 막다른 길에 다다라 포위될 위기에 처한 순간, 정남쪽에서 한 호걸이 오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말을 달려 나타났다. 송강이 보니 바로 '몰차란' 목홍이었다. 동남쪽에서도 삼백여 명의 군사가 나타났는데, 두 명의 호걸이 앞장서 달려왔으니 바로 '병관삭' 양웅과 '병명삼랑'

석수였다. 또한 동북쪽에서도 한 호걸이 큰 소리로 외치며 나타났는데, 송강이 보니 '소이광' 화영이었다.

세 갈래의 군마가 일제히 도착하자 송강은 크게 기뻐하며 힘을 모아 란정옥, 축룡과 맞서 싸웠다. 장원 쪽에서는 두 사람이 불리해질까 봐 축호가 장문에서 지키게 하고, 어린 주인 축표가 사나운 말 한 마리에 긴 창을 들고 오백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장원 뒤편에서 쳐 나오며 대혼전이 벌어졌다. 장원 앞쪽에서는 이준, 장횡, 장순이 물을 건너오려 했으나 장원에서 날아오는 화살 세례에 손을 쓸 수가 없었다. 대종과 백승은 강 건너편에서 함성만 지를 뿐이었다. 날이 저물어가는 것을 본 송강은 급히 마린에게 명령하여 오팽을 먼저 마을 입구로 탈출시키게 했다. 이어 송강은 부하들에게 징을 울리게 하여 호걸들을 불러 모으고, 싸우면서 퇴각하기 시작했다.

송강은 형제들이 길을 잃을까 걱정되어 말을 몰아 이곳저곳을 살피며 찾았다. 한창 움직이던 중, '일장청' 호삼낭이 말을 몰아 급히 쫓아오는 것이 보였다. 송강은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말을 몰아 동쪽으로 달아났다. 뒤에서는 호삼낭이 맹렬히 추격해 오는데, 여덟 개의 말발굽이 마치 술잔을 뒤엎고 바라를 흩뿌리듯 요란하게 깊은 마을 안쪽으로 쫓아 들어왔다. 호삼낭이 송강을 막 잡아채려던 찰나, 산비탈 위에서 누군가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저 망할 계집년이 감히 우리 형님을 어디까지 쫓아오는 거냐!"

송강이 보니 바로 '흑선풍' 이규였다. 그는 두 자루의 도끼를 휘두르며 칠팔십 명의 부하를 이끌고 성큼성큼 달려오고 있었다. 호삼낭은 즉

시 말머리를 돌려 숲 근처로 향했다. 송강 역시 말을 멈추고 살펴보니, 숲가에서 십여 기의 기병이 나타났는데 맨 앞에 한 장사를 여럿이 에워싸고 있었다. 그 차림새가 어떠했는가 하면, 이러했다.

보석 박힌 투구는 머리에 단단히 쓰고, 은빛 갑옷은 몸에 묵직하게 걸쳤네.
하얀 비단 도포 위엔 꽃가지가 수놓아져 있고, 사자 무늬 허리띠엔 옥이 촘촘히 박혔구나.
장팔사모는 곧게 뻗어 있고, 서리꽃 같은 준마는 연신 울어대네.
온 산이 모두 그를 '소장비(小張飛)'라 부르니, 바로 '표자두' 임충이로다.

나타난 군사들은 바로 '표자두' 임충이었다. 그는 말 위에서 크게 호통을 쳤다. "이 망할 계집년아, 어디를 가느냐!" '일장청' 호삼낭은 비도를 날리며 말을 몰아 임충에게 돌진했고, 임충은 장팔사모를 내지르며 맞섰다. 두 사람이 열 합도 채 싸우지 않아 임충이 일부러 빈틈을 보였다. 호삼낭의 칼 두 자루가 그 틈을 파고들었으나, 임충이 사모로 막아 칼날을 비껴내고는 바짝 다가들어, 원숭이처럼 팔을 가볍게 뻗고 늑대처럼 허리를 살짝 틀어 호삼낭을 홱 잡아채 산 채로 끼고 말 위로 끌어올렸다. 송강은 그 광경을 보고 정신없이 갈채를 보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임충은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호삼낭을 묶게 한 뒤, 말을 몰아 앞으로 나아가 물었다. "형님,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송강이 대답했다. "다친 곳은 없다네." 송강은 곧장 이규에게 명령하여 마을 안으로 들어가 다른 호걸들을 맞이하게 하고, 모두 마을 입구로 모여 의논하자고 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더 이상 전투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다. '흑선풍' 이규는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떠났다. 임충은 송강을 보호하며 호삼낭을 포박한 채 말 위에 두고 마을 입구로 길을 잡아 나왔다. 그날 밤, 두령들은 전세가 불리함을 깨닫고 서둘러 모두 마을 입구로 빠져나왔다. 축가장의 군사들도 장원으로 거두어 들어갔다. 마을 곳곳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축룡은 생포한 자들을 모두 함거(囚車)에 실어 가두게 했으며, 송강까지 잡으면 함께 동경(東京)으로 압송하여 공을 청하려 마음먹었다. 한편, 호가장에서는 왕왜호를 축가장으로 압송해 보냈다.

한편, 송강은 대군을 거두어 마을 입구에 진을 쳤다. 그는 먼저 장수들을 시켜 호삼낭을 데려오게 한 뒤, 노련한 부하 스무 명을 뽑고 두목 네 명에게 빠른 말 네 필을 준비시키게 했다. 그러고는 호삼낭의 두 손을 묶어 말 한 필에 태운 뒤 명령했다.

"이 여자를 밤을 도와 즉시 양산박으로 압송하라. 가서 나의 부친이신 송태공께 전달해 드리고 나에게 보고하라. 내가 산채로 돌아가면 어떻게 처분할지 결정하겠다."

다른 두령들도 송강이 이 여인을 반드시 데려가려 한다는 것을 알고는 모두 조심스럽게 압송을 맡았다. 송강은 우선 오팽에게 수레 한 대를 몰아 산으로 올라가 쉬게 했다. 모든 장수와 부하들이 명령을 받들어 밤을 도와 길을 떠났다. 그날 밤, 송강은 막사 안에서 고민에 빠져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앉아 밤이 밝기를 기다렸다.

다음 날, 정찰을 나갔던 이들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군사 오용 학구가 삼완 두령과 여방, 곽성을 거느리고 오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도착

했다고 전했다. 송강은 그 말을 듣고 진영 밖으로 나가 군사 오용을 맞이한 뒤 중군막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오용이 술과 음식을 가져와 송강에게 잔을 올리며 경하하는 한편, 삼군의 장수들을 두루 호궤(犒饋)하였다.

오용이 말했다. "산채의 조 두령께서 형님께서 이번에 진군하시다가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저와 다섯 명의 두령을 보내 전투를 돕게 하셨습니다. 요사이 승패가 어떠합니까?"

송강이 대답했다.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저 축가장의 놈들이 무례하기 짝이 없어서, 장원 문 앞에 흰 깃발 두 개를 세워 놓고는 '수박(水泊)을 메워 조개를 사로잡고, 양산을 짓밟아 송강을 잡으리라'라고 적어 놓았더군요. 먼저 한 차례 진군하여 공격했으나, 지형의 이점을 잃는 바람에 양림과 황신을 잃었습니다. 밤에 다시 공격을 나갔으나, '일장청' 호삼낭에게 왕왜호를 잡히고, 란정옥의 망치에 오팽이 부상을 입었으며, 말다리를 거는 밧줄에 걸려 말이 넘어지는 바람에 진명과 등비까지 생포당했습니다. 이처럼 계속 패배하다가, 임 교두가 '일장청'을 겨우 생포하지 못했더라면 예기가 모조리 꺾일 뻔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만약 제가 축가장을 함락시키지 못해 이 형제들을 구해내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곳에서 죽을지언정 조개 형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오용이 웃으며 말했다. "이 축가장도 마땅히 하늘의 뜻으로 패망할 곳인데, 마침 이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생각건대 일이 머지않아 결판이 나 깨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송강은 그 말을 듣고 매우 놀라며 기뻐하여 급히 물었다. "이 축가장을 어찌 머지않아 함락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기회는 어디서 온단 말입니까?"

오용은 웃으며 서두르지 않고 두 손가락을 겹쳐 펴 보이며 그 기회를 설명했으니, 그야말로 공중으로 구름을 잡는 손을 내밀어 천라지망에 걸린 사람을 구해내는 격이었다.

결국 군사 오용이 말한 그 기회란 무엇일까. 다음 회에서 풀어 설명하겠다.